서너 평 남짓의 반 지하 원룸.

소형 냉장고와 커튼으로 덮인 헹거, 그리고 화장대와 식탁을 겸하는 1인용 좌식책상이 자리한 단출한 공간이었다.

‘후두둑, 후두둑, 투둑, 투둑’

골목길에 걸쳐진 창틀로 제법 굵은 빗방울이 부딪히고 있었다.

방안을 떠돌던 희미하던 곰팡내는 여름장마의 습기를 머금고 점점 짙어지다 회전하는 선풍기 앞에서 흩어지길 반복했다.

“기분도 꿀꿀한데 비까지 오고 아주 그냥 우울이 쌍쌍바네.

하아...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 "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맥주님~~~

크으...조오타!! ”

"... "

체리 색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개다리소반 위로 한 쪽 팔을 괴어 기댄 채, 반 쯤 비워진 맥주 캔을 향해 열렬히 고백중인 이 여자.

박서연은 초저녁부터 시작한 혼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선풍기 바람에 파르르 떨어대는 검정 비닐봉지 속에는 구겨진 빈 맥주 캔이 그득했고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받아주고 있는 맥주 캔이 마지막 남은 것이었다.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게 이미 한참 전이지만 서연은 성에 차지 않는지 남은 맥주를 들이키느라 꿀렁이는 목울대를 멈추지 않았다.

하긴 어찌 취하지 않고 배길까.

오늘처럼 거지같은 날에.

“서연 씨, 이거 내 청첩장.”

헐, 대박. 너 같은 또라이도 결혼이란 걸 하긴 하는구나.

“어머 오 과장님, 완전 축하드려요~ 청첩장도 너무 예쁘고. 역시 과장님 센스!”

“날짜가 좀 급하긴 한데 이 날이 길일이라고 그이 집에서 어찌나 서두르는지...호호. 내 결혼식 올 거지?”

... 너의 그이에게 애도를 표한다. 진심이다.

“그럼요 오 과장님,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날짜는 어...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아 하하하... ”

“왜에? 자기 혹시 다른 스케줄 있어? 설마... 못 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천지가 무너져도 가야지.

암, 네 발로 기어서라도 가야 하고말고.

니 결혼식에 감히 나 따위가 불참하고 살아남을 수나 있겠냐?

아니 그런데...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허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이번주인거니, 응?

월급 날 지나고 하면 좀 좋아?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오 과장님 결혼식에 제가 빠질 수야 있나요.

있던 스케줄도 취소하고 가야죠.”

“그치? 정말 다행이다.

나도 자기 없으면 무지하게 섭섭할 것 같거든.

여기 음식이 비싼 값을 하는지 맛이 꽤 괜찮더라고.

편하게 밥 한 끼 한다 생각하고 오면 돼.

아 참, 사진은 꼭 찍고 밥 먹는 거, 알지?”

자기는 너한테 낚인 그 불쌍한 작자가 자기고. 난 자기 아니고 완전 남이거든!!!

평소에는 그렇게 쥐 잡듯이 잡아대더니.

이제 와서 결혼식 기념사진 배경이 아쉽냐?

에라이... XXX!!

“아이 그럼요.

그 정도 에티켓은 하객의 기본이죠, 호호호... ”

억지 웃음을 짜내며 비루한 통장 잔고를 떠올리자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비싼 밥 운운하는 거 보니 5만원, 7만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건데...

축의금은 최소 10만원.

젠장! 이번 달도 마이너스다.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술기운이 뻗쳐올랐다.

“아 놔 진짜...

얼굴도 성격도 쌍으로 개차반인 오 과장도 결혼이란 걸 한다는데, 응?

서연이야, 박서연이야 너는 대체 여태껏 뭐하고 살았니이~~엉?”

허공을 향해 대거리를 하며 손을 휘둘러대자 시야가 핑 돌았다.

곧 죽어나갈 개다리소반이 내 팔꿈치 무게를 견디느라 애달프게 부들거렸지만 이거라도 지탱하지 않으면 고꾸라질 것 같았다.

내가 많이 마시긴 했나보네.

원래 평일에는 다음날 출근 걱정에 절대 과음하지 않는 게 내 철칙이었는데.

하, 철칙 따위 이제 개나 물어가라지.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 해봤자 회사는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긴, 피로 맺어진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고작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회사가 뭐라고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금수저? 은수저?

아주 옛날, 뭣 모르던 어릴 때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었다.

잘 차려입은 후원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혹여나 돌아가는 차 뒷좌석에 나를 태워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데 그런 행운은 내게 없었다.

왜냐고?

레벨이 안돼서.

우습지만 고아원생들 안에서도 갑과 을은 존재했다.

나는 아쉽게도 을의 위치였다.

외모든, 재능이든 뭐 하나 특별하지 않아서 을이었다.

그렇게 수저 없이 맨 손으로 흙 파먹고 살아온 짠 내 나는 32년 인생.

그저 남들처럼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

온전한 내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그 곁에서 늙어가는 것.

하지만 이 평범한 꿈도 나에게는 사치였다.

졸업하자마자 대출 갚기에 급급해서 전공인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다.

6년 만에 겨우 겨우 학자금 대출 전액 상환을 하고 보니 내 나이 서른.

손에 쥔 건 보증금 오백에 육십 짜리 월세 방, 그리고 세계 백화점 대리라고 찍힌 명함이 전부였다.

그 나이에 대리 직함이면 순탄한 거 아니냐고?

계속 버텨냈다면 그랬겠지.

하지만 진상 손님 슈퍼 갑 질은 참아도 기름진 직장 상사놈의 성희롱은 참을 수가 없었다.

대차게 들이 받았더니 바로 다음날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설 할인매장으로 좌천 되었다.

회사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 개소리였다.

내 엉덩이를 주무른 상사놈은 그 해에 승진을 했다.

그때 생긴 울화가 쌓이고 쌓여 얻게 된 소화불량에 역류성 식도염.

나는 그들과 절친이 되어 2년째 동고동락 중이다.

좀 괜찮다 싶다가도 금세 재발하는 지랄 같은 병이라 어떨 땐 한 달 치 편의점 맥주 값보다도 약국에서 쓰는 돈이 더 많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근이 참고는 있지만 이렇게 10년을 더 버틴다 한들 쥐꼬리 만 한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목돈 한번 만져볼까?

전세가는 억 소리 나는데 내 월급은 악 소리 밖에 안 나오는 게 아픈 현실이다.

그래, 쥐뿔도 없는 주제에 결혼은 무슨.

... 술이나 마시자.

“아이쒸. 뭐야 엄써어?

따~악 한 캔만 더 하고 시픈데...”

평소 같았으면 귀찮아서 그냥 씻고 잤을 텐데.

웬걸, 간만에 불붙은 알코올 파워가 귀차니즘을 이겨버렸다.

검은색 장대 우산을 들고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원룸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쾌했다.

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아흐... 왜 이르케 어두워어.”

고장 난 가로등 때문인지 취기에 흔들리는 시야 때문인지.

도로 공사 한답시고 좁은 골목 가에 켜켜이 쌓아놓은 철근과 공사 자재들이 연신 발에 채였다.

“이눔의 공무원 시키들은 내 도온 거더가서 어따갖다 쓰는 거야?

죄다 땅만 파 제끼고오~~ 가로등도 안 고치고오~~

이러다가 사고나믄, 뭐 지드리 책임 질거냐ㄱ... 어, 어?”

빗물에 젖어 발을 내디딜 때 마다 찍찍 소리를 내던 삼선 슬리퍼 한 짝이 허공을 날았다.

“으, 으아아아아아아ㄱ!!!!”

동시에 들고 있던 우산을 패대기치며 있는 힘껏 양 팔을 퍼덕거려보았지만 모두가 헛짓이었다.

쿵!!!!

.

.

.

.

.

.

.

"30대 여성 박 모 씨, 집 앞 맨홀 추락사.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

내일 아침 뉴스에 두 줄 정도는 나오려나.

안전 불감증이 지병인 빌어먹을 대한민국.

어떻게 가이드라인 하나 없이 맨홀 뚜껑을 열어둘 수 있는 거냐고.

나... 진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여봐요.

인생 마감까지 시궁창에서 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이든 염라대왕이든 뭐가 됐든 내가 딱하지도 않으신가?

전신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운데 그게 어디서 느껴지는 통증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눈두덩이 위로는 뜨끈하고 축축한 것이 흘렀는데 아마 빗물은 아닐 테지.

귀에서는 이명도 들렸다.

미친 듯이 무섭고 두려운데...진짜 무서운데...

갑자기 웃음이 입가를 비집고 나왔다.

이게 내 삶의 끝이고 완성이라 생각하니 너무 비참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그러진 입매로 실실거리다 눈을 감았다.

‘졸려... ’

영화에서 이러다 잠들면 다 죽던데.

진짜 끝이다.

그렇게 나는 32년의 짧고 실낱같이 가늘었던 생을 마감했다.

.

.

.

아니, 그런 줄 알았다.

그 남자와 마주하기 전까지는.

“깼군.”

어이가 없네

“깼군.”

허억!!

심장이 목젖을 때리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는가.

어찌나 놀랐는지 숨이 목구멍을 차고 올라와 안구까지 뻐근했다.

‘뭔 놈의 눈빛이... ’

나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시선에 오금이 저렸다.

곧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이 냉기가 뚝뚝 흐르는 게...

내게 건넨 말이‘깼군’이 아니라‘배고파’였다면 나를 씹어 먹으려는 줄 알았을 것이다.

죽다 살아났는데 눈 뜨자마자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지금 이 상황이 심히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저 남자, 딱 봐도 외국인이다.

깎아놓은 듯한 이목구비에 은빛 머리, 금빛 눈동자.

그런데 저 사람이 내게 말을 했지. 그의 언어로.

난 그걸 알아들었고.

... 이거 꿈인가?

벌렁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누워있지만 생각보다 가벼운 몸 상태.

가슴께에 걸쳐진 이불 속으로 숨어있는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보았다.

‘사지 말짱하고, 정신도 말짱하고.’

꿈은 아니다.

몸에 닿아있는 침구의 감촉이 무척 부드러웠다.

엉덩이에 느껴지는 침대의 쿠션감도 훌륭했고 실내 공기는 쾌적했다.

모든 감각이 생생했다.

그래서 문제였다.

당최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어디지? 병원은 아닌 게 확실한데.

그리고 저 남자는 대체 누구야!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그의 시선이 나를 찢어발길 듯 날카로웠다.

어디 다른 사람은 없나?

고개를 살짝 틀어 반쯤 열린 침대 캐노피 바깥쪽으로 시야를 넓혔다.

좌측 벽에 붙어있는 고풍스러운 촛대와 우측에 보이는 원목 티 테이블이 전부인 인테리어는 단출하면서도 이국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국적 느낌을 배가시키는 두 명의 중년 남자, 그리고 앳되어 보이는 여자 하나가 보였다.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에 그린, 브라운, 오렌지레드까지.

머리색이 각양각색인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다.

질문에 앞서 인사는 해야겠지. 나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저... 안녕하세요?”

“... 미친 짓만 벌인 게 아니라 진짜로 미친 건가? ”

뭐요?

은빛 머리 당신, 다짜고짜 말이 너무 심하시네.

나랑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언제 봤다고 반말을 찍찍 해대...?!!

아니 그런데 잠깐, 잠깐만.

좀 전에 내 입에서 나온 말 그거...뭐지?

저 남자도 그렇고. 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근데 이걸 또 내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네 맙소사.

어이없는 상황에 누인 몸을 일으키려 팔다리에 힘을 썼다.

하지만 절반쯤 일으키다 도로 눕고 말았다.

배가 당기고 현기증이나 구역감이 일었다.

“우욱!”

무심결에 입을 틀어막은 손.

그런데 그 손이... 무척 가늘었다.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팔목.

그 위에 흘러내린 푸른색 머리카락.

내 것이었다.

허!

나 진짜 미친 거야?

“당신 표정이 이렇게 다채로운 줄 미처 몰랐군.

그런데 미리 경고하지. 생각 따위 하지 마.

내가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니까.”

“거울... 거울 좀 주세요.”

“진실을 말하는 데 그게 필요한가?”

“네,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 속사포 같은 대답에 그 남자의 눈썹이 꿈틀댔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몸뚱이가 더 두려웠다.

남자가 고갯짓을 하자 보라색 캐노피에 반쯤 가려져 있던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갈색 머리와 가지런한 콧수염이 인상적이었다.

“마님, 워낙 상황이 다급해 별채로 모신지라... 쓰시던 거울이 아님을 용서하십시오.”

오 맙소사! 날 보고 마님이란다.

공손히 모아 잡은 중년 남자의 손에서 거울을 뺏다시피 낚아채 비춰본 얼굴은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었다.

아마 그 마님이란 여자일 테지.

희다 못해 창백한 피부에 짙은 다크써클과 짓이겨진 듯 터진 입술.

그 위로 헝클어진 푸른색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내려앉아 있었다.

검은 중단발에 희미한 눈썹, 살짝 쳐진 눈꼬리.

그게 나인데. 박서연인데.

내가 왜... 이 여자의 몸으로 깨어난 거지?

내 몸은?

일순간 온몸의 힘이 풀렸다.

들고 있던 거울을 침대 머리맡으로 내려놓자 은발의 남자가 침대로 바짝 다가섰다.

“볼 일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말해. 어젯밤 호수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

“내가 그 입을 강제로 열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 ”

“혹시 당신 아버지와 관련이 있나?”

“그만!”

혼란의 쓰나미. 혼돈의 카오스.

그야말로 노답 상황인 나에게 자꾸 뭘 말하라는 건지.

이 남자야 제발 좀 닥쳐!

해줄 말은 없었지만 계속 무시하면 저 닦달을 멈추지 않겠지.

옆으로 몸을 틀어 낑낑대며 상체를 일으키자 캐노피 바깥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붉은 머리의 여자가 다가와 침대 헤드에 베개를 받쳐주곤 다시 제 자리로 물러났다.

제일 가까이 있었으면서.

아픈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는 걸 모르는 못 배운 놈이 분명했다.

아니면 이 몸과 앙숙이거나.

여전히 냉랭한 눈빛으로 나를 추궁하던 남자에게 말했다.

“내게 듣고 싶은 게 뭐든 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지?”

“모르니까요.”

“... 난 당신에게 퀴즈 따위를 낸 게 아니야 로즐린.

어젯밤 당신에게 생긴 일 아니, 당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 자식아!!

이 몸의 이름도 방금 알았거든?

로즐린이 아니라 실은 박서연이라는 사람이라고, 몸이 바뀌어서 나도 무척 당황스럽다는 둥의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작자는 나를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릴지도 몰라.

아, 진짜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뭘 쥐뿔 알아야 둘러대기라도 하지.

.

.

.

결국 이 수밖에 없나.

출생의 비밀 다음으로 내가 싫어하던 설정!

그 밤고구마 X100 같은 설정을 몸소 실천하는 날이 오다니.

“기억이... 없어요.”

“고작 하루 전 일이 기억에 없다?

하, 내가 당신 남편인건 기억하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머릿속 기억이 몽땅 사라진 것처럼... 없어요. 아무것도.

내 이름이 로즐린이라는 것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것도.

... 도대체 어젯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좋았어! 꽤 자연스러웠어.

아까와는 다른 쪽으로 심장이 벌렁벌렁했지만 나는 이겨냈다.

발연기의 벽을 무사히 넘었고 고지가 바로 눈앞이었다.

그런데 망할, 저 작자가 이 몸의 남편이라고?

“휘겐!”

“예, 공작전하.”

“살펴라.”

휘겐이라 불린 남자는 아마도 의사인 모양이다.

의료용 가위와 실 따위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기억상실 할거라서 그런 건 필요 없는데.

“마님, 지금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좋진 않죠.”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온 몸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이 뻐근하면서 속도 울렁거려요”

그러고 보니 이 로즐린이라는 여자는 왜 이렇게 몸 상태가 나쁜 거지?

부러지고 피나는 데만 없다 뿐이지 맨홀로 추락했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어젯밤 호수정원에 가셨던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아뇨.”

“그럼 이 중에 아는 얼굴은 있으십니까?”

“없어요.”

“공작전하의 존함은?”

“몰라요.”

“마님 본인의 이름은?”

“... 로즐린.”

“오!”

“아까 들은 건데요.”

“아... 그러십니까?”

뭐야, 이 사짜의 향기는.

이러다 몸살감기라고 진단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마님께서는 어제의 사고로 기억을 소실하신 것 같습니다.”

“... 확실한가?”

“예, 전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의 마님은 이전의 마님과는 마치 다른 분 같은 어투와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는 꾸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감을 호소하시는 것도 머리에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의 일종입니다.”

오호라, 사짜가 아니라 심리의학박사셨군.

이럴 때 쐐기를 박아줘야지.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억을...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나요?”

“송구하오나 그걸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증상의 특징입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당장 내일 돌아올 수도, 아니면 일부만 돌아올 수도,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쓰! 썩세스!

“방법이 전혀 없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하.”

“어제의 진실이 기어이 묻힌다는 소리로군.”

“우선 불편한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란 게 얽히고 설켜 있어 과거에 보거나 들었던 경험들을 반복하시다 되찾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말입니다.”

휘겐이라는 의사와 대화를 마친 남자가 몸을 돌려 내게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이 뭐랄까... 좀 묘했다.

냉랭함이 순간 아주 조금 옅어졌달까?

“공작... 전하?”

“처음이군. 당신이 나를 부르는 건.”

“... ”

“당분간 바깥출입은 금지요.”

“... ”

“대답은?”

“... 네, 그러죠.”

어차피 갈 데도 없다.

그래서 그의 다소 강압적인 말에도 긍정의 답을 했다.

“알베르! 나는 집무실로 가겠다. 마무리하도록.”

“예, 전하. 곧 따르겠습니다.

남자는 내게서 멀어져 이내 방문을 열고 사라졌다.

아, 이제 좀 긴장을 풀어도 되려나.

베개를 받쳤음에도 온몸이 쑤셔서 몸을 곧추세우고 있는 것이 고역이었다.

다시 누워보려 몸을 바지락대자 아까 나를 도와 몸을 일으켜주었던 그 붉은 머리의 여자가 또다시 부축해주었다.

행동이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시녀인 것 같은데.

침대에 도로 눕자 공작을 배웅했던 갈색머리 콧수염의 남자, 알베르라고 했던가?

그가 내게 다가왔다.

“마님, 당분간은 불편하시더라도 이곳 별채에서 머무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지금 본성이 약간... 시끄러워 요양 하시기엔 이곳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전 여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끄럽다니. 무슨 일이 있나요?”

“... 그저 작은 소란입니다. 크게 신경 쓰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럼 신경 끌게요.

사실 예의상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 코가 석자라.

“레아, 너는 마님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세심히 살펴 드려야 한다.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땐 너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예, 알베르 집사님. 명심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아저씨들 퇴장.

레아라는 여자만 남겨두고 알베르 씨는 휘겐 씨와 함께 침실을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적막감에 휩싸인 방은 벽난로에 장작을 채워 넣으며 레아가 간혹 일으키는 작은 소음만이 들려왔다.

자, 이제 어쩐다.

차원이동, 빙의, 그리고 남편.

이 세 가지가 지금 내게 닥친 숙제다.

사실 너무 막막했다.

이 주관식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의 황당한 현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조력자에 역할에 딱 맞는 적임자가 지금 내 가까이에 있었다.

반쯤 젖혀진 캐노피 밖으로 바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동그란 뒤통수.

“레아!”

“레아!”

마님인 자신이 시녀에게 존대를 쓰는 게 퍽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말간 얼굴로 자신의 눈치를 보던 시녀가 제법 어려 보여서 반말로 운을 띄웠는데 내 부름을 듣고 고개를 돌린 그녀는 무척 놀란 듯 보였다.

벽난로에서 침대까지 몇 걸음이나 된다고.

쭈뼛쭈뼛 다가오는 폼이 영락없이 고양이 앞의 쥐였다.

아무래도 마님과 시녀의 관계가 별로였던 모양이다.

하긴 갑과 을의 관계란 게 다 그렇지 뭐.

나에겐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둘 사이가 친밀했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행동은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나저나 저렇게 쫄아 있는 애를 대체 어떻게 구슬리나.

창밖 정원에는 3월의 따스한 햇살을 먹고 피기 시작한 꽃나무들이 가득했지만 레아는 불씨가 잦아드는 벽난로 속으로 장작을 채워 넣기에 분주했다.

밤새 오한발열에 시달리다 이제 막 의식을 찾은 제 주인이 흡족하도록 실내 공기부터 데워놓아야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저를 불렀다.

“레아!”

‘맙소사.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퍼뜩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초췌한 얼굴의 마님이 레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마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네, 네 마님. 레아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이름과 네 이름, 그리고 여기가 공작성이라는 것뿐이거든.

난... 어떤 사람이었니?”

기억상실로 인해 마님의 말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이미 목격한 레아였지만, 그 변화의 여파가 제게도 직접적으로 미치리라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한 터였다.

조근 조근 상냥한 말투의 마님이라니.

때문에 제 주인의 물음에 마땅히 고개 숙여 즉각 답을 해야 했지만 레아는 잠시 동안 얼빠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멍청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레아, 괜찮니?”

“아...송구합니다, 마님.”

낯설고도 다정한 마님의 목소리에 레아는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춘 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성심성의껏 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 속의 로즐린은 여타 평범한 귀족부인들과는 무척 거리가 멀었다.

로즐린 아스트리드, 27세.

테레지아 후작가의 2녀 중 차녀였던 로즐린은 3년 전, 칼리안 아스트리드 공작과 결혼했다.

친황제파인 아스트리드 공작가와 귀족파의 수장인 테레지아 후작가.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던 두 가문의 결합에 온갖 억측이 난무했지만 제국의 통합을 위한 황제의 권유였다는 공식발표로 인해 두 가문의 큰 결단은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 만큼 신부인 로즐린에 대한 관심도 엄청났는데 이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세간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보통의 귀족가의 영식, 영애들이 활동하는 파티를 포함해 저자거리에서라도 그녀를 봤다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

너무 못생겨서, 몸이 허약해서, 혹은 세상물정 모르는 영애가 걱정된 테레지아 후작의 과보호 때문이라는 풍문이 떠돌았는데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스트리드 공작가의 가솔들은 그녀가 공작성의 안주인이 되고서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로즐린 그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몇 달 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생활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공작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그저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부부관계.

그나마 다행인 건 로즐린이 공작에게 만큼은 순종적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꺼리면서 방안에만 있었다면 어젯밤에 호수정원에는 왜 간 거지?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님의 물음에 레아는 답하기를 잠시 주저했다.

‘설마 어째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냐고 물으시는 걸까?

어쩌지... 알베르 집사님이 어젯밤 일은 함구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일개 시녀가 주인의 물음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레아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마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무리 마님께서 물러가라 하셨어도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호수정원에 따라만 갔어도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기억이... 흐흐윽”

“아니, 아니, 진정해 레아.

난 널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기억이 없으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걸 내게 모두 말해 주겠니?”

부드러운 마님의 음성에 제풀에 겁먹고 고해성사를 하던 레아의 흐느낌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이내 말을 이어갔다.

“며칠째 식사도 거르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어제 저녁 마님께서 혼자 있고 싶다고 주위를 물리셨는데... 홀로 나가신 호수정원 산책 중에... 호수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다행히 근처를 지나시던 하이어 남작님께서 발견하시고 곧바로 응급처지를 하셨기에 망정이지.

숨이 끊어지셨다가 간신히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곧장 이 별채로 모시고 왔고 밤새 온 몸에 열이 오르고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다 오늘 새벽녘에야 겨우 열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최대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빼고 대략적인 진실만을 말한 레아는 슬쩍 제 주인의 얼굴을 살폈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한 표정.

다행이었다.

마님은 레아가 걱정했던 그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입에 담기조차 불손한 생각이지만 레아는 마님의 기억이 이대로 쭉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밤중의 외출, 그리고 익수 사고.

레아가 들려준 어젯밤 사고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단순한 사고였다면 공작, 그 남자가 내게 진실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죽다 살아난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추궁하는 남편이라니.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게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다.

로즐린 아스트리드.

그녀로 죽거나, 혹은 살거나.

집 앞 골목에서 맨홀로 추락했던 그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

어차피 로즐린 그녀도 어젯밤 사고의 순간에 숨이 끊어졌다고 했으니 내가 그녀를 밀어낸 건 아닐 거다.

단지 내가 그녀보다 좀 더 운이 좋았을 뿐이다.

화목한 귀족가의 어린 영애로 빙의됐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뭐 그래도 이게 어딘가.

천애고아 박서연, 그 구질구질했던 삶보다는 여러 모로 나았다.

일단 귀족이라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고.

유부녀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또 생각해보자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대충 이곳 상황을 보니 정략결혼이 다반사인 듯 한데 어디 시골 촌구석의 몰락귀족이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 공작에게 시집가는 불상사가 생길 바에야 안전하게 임자 있는 몸이 백번 나았다.

게다가 남편이라는 작자, 꽤나 생겼던데.

어차피 내게 까칠한 남편이라면 못생긴 거 보다는 잘 생긴 게 화가 덜 나지 않겠나.

마음의 정리는 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로즐린 아스트리드, 이제부터 이게 내 이름이다.

“레아!”

“네, 마님.”

내가 저 부르기만 기다렸는지 침대 발치에 서 있던 레아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밥을 먹어야지.

식사를 며칠 째 거부했다더니.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인지 홀쭉한 뱃가죽을 뚫고 아까부터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식사를 하고 싶은데 이곳으로 좀 가져다주겠니?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시원한 물 한잔 먼저 부탁해.”

“네 마님. 얼른 챙겨 올리겠습니다.”

레아가 티 테이블에 놓여있던 컵에 물을 따라 내게 건넸다.

“꿀꺽, 꿀꺽, 꿀꺽, 크하!”

다시 태어나 처음 맛본 물맛이라 그런지 꿀맛이다.

그런데 내가 밥 먹는 게 저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비워진 물 컵을 받아들고 종종걸음으로 뛰는 듯 방문을 나서는 레아를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 낯선 세계에서 내 손발이 되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든든했다.

이런 든든함은 남편에게서 느껴야 제 맛일 텐데.

아니지,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른다.

공작부부의 금슬이 좋았다면 내가 중간에 난데없이 끼어든 사랑의 방해꾼이 될 뻔 했으니.

물론 그 남자가 변한 아내의 모습에

‘내게 이렇게 대한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빠져드는 상황 따위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

그런데 사실 아까 거울로 봤던 내 몰골을 생각하면 이런 희망 너무 과욕인가 싶긴 했다.

그래! 일단 잘 먹고, 푹 자고.

부부 금실 같은 건 인간다움을 좀 더 회복한 다음에나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건 그렇고.

아니 레아 얘는 무슨 삼십 첩 반상을 차려오나.

그래도 측근 시녀 3년이면 나름 경력자인데...

설마 공복에 환자인 나한테 고기반찬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겠지?

똑. 똑. 똑.

“마님, 식사 올립니다. 부드러운 감자 스프에 따뜻한 꿀 차를 가져왔어요.”

와, 레아 너 좀 인정!

정갈한 노크 소리에 이어 식기들이 담긴 트레이를 끌고 오는 레아에게서 프로의 향기가 물씬 풍겨져 나왔다.

아까 질질 짜면서 나에게 용서를 빌던 레아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게다가 준비해온 음식들은 구성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끝내줬다.

갑 질 안하는 갑이 되리라.

레아가 가져온 감자스프를 먹으며 한 다짐이었다.

스프가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레아야, 우리 오래 가자. 내가 잘할게.

끼이, 찰칵.

빈 접시가 담긴 트레이를 끌고 침실 밖으로 나온 레아는 방문을 닫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살았다. 마님께서 조금만 더 캐 물으셨다면... 틀림없이 실수하고 말았을 거야 . 어차피 곧 아시게 될 테지만 알베르 집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안 돼.

겨우 정신을 차리셨는걸. 혹시라도 충격 받으셔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잖아. ’

그랬다.

로즐린은 기억을 잃었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았다.

식사의 포만감이 불러온 식곤증만 아니었다면 로즐린은 레아에게 하던 질문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식곤증에 더해 휘겐이 처방한 약을 먹은 로즐린은 가라앉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고 덕분에 레아는 침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레아가 로즐린의 측근시녀로 곁을 지킨 지 3년째.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고 미소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대화는커녕 시선 한번 마주치기 어려운 게 일상다반사였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로즐린을 지켜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일 때가 부지기수였다.

레아는 가끔씩 자신이 시녀가 아니라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를 지키는 간수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반가웠다.

사실 귀족부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관리하는 측근시녀 자리는 모든 여자 하인들이 탐내는 자리였다.

떨어지는 콩고물이 워낙 많기도 했고 주인의 위세에 따라서 어깨에 힘도 제법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꿰차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졌다.

보통의 경우였다면 침방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던 레아가 안주인의 측근시녀가 될 가능성은 제로였다.

하지만 그 안주인이 로즐린이 되자 얘기가 달라졌다.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마님께 뜯긴 머리카락이 벌써 한주먹이에요.’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빨래방도 좋고 마구간도 좋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되서 그만 둬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난다긴다하는 공작가의 하녀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 죄다 나가떨어졌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원인은 하나였다.

로즐린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돌고 돌다 여덟 번째 후보로 레아가 낙점됐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로즐린은 레아가 건네준 물을 순순히 받아 마셨다.

마음에 든다는 소리였다.

얼결에 측근시녀가 된 레아를 일부는 안타까워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데기뿐인 자리라며 비웃었지만 부모의 빚과 거둬야 할 동생들이 줄줄이 다섯인 레아는 침방 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월급에 그저 감지덕지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때 마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난 아직도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겠지. 이제 내가 마님을 도와드릴 차례야.’

공작가는 가신들과 기사단을 빼고 순수하게 일하는 하인들만 500명이 넘었다.

입이 많은 만큼 소문이 빨라 이미 온 성안은 어젯밤의 사고로 수근 대느라 난리였다.

이 소문의 틈바구니에서 마님의 평온한 요양을 사수하는 것이 지금 레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요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면과 영양가 높은 음식이다.

레아는 마님의 짧은 낮잠이 끝난 뒤 올려드릴 보양식 메뉴를 고민하며 트레이를 끌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본성 2층에 자리한 아스트리드 공작의 집무실.

입구를 제외한 삼면의 벽이 모두 책장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다. 귀족의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 들여 놓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넓은 책장은 각종 분야의 책들로 가득했는데 모두 이 방의 주인인 칼리안의 취향이었다. 그는 매우 지적인 남자였다.

동시에 칼리안은 제국에서 소문난 워커홀릭이기도 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에 더해 뛰어난 직관력과 과감한 추진력.

그가 일단 손을 대서 끝을 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결과는 늘 최고였다.

하지만 그런 그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로즐린이었다.

로즐린은 논리와 분석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없이 순종적이다가도 이유 없이 분노했고 이유를 물으면 불안에 떨기만 했다.

결혼 초부터 심각했던 우울증.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그는 수용했다.

어차피 그에게 결혼은 의무였고 비즈니스일 뿐이었으니 서로의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걸로 좋다고 여겼다.

그랬는데 그 비즈니스를 그녀가 망쳤다.

방심하다 맞은 뒤통수가 무척 아팠다.

똑. 똑. 똑.

“공작전하, 예르딘 하이어 남작과 기사 베아스가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들여라.”

집무실에 깔린 짙은 녹색의 카펫을 밟으며 군화를 신은 남자 둘이 책상에 앉아있는 칼리안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은빛의 경량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새겨진 별은 아스트리드 공작가의 자랑, 아스테르 기사단의 표식이었다.

구둣발이 멈춰 서자마자 칼리안은 오른쪽에 선 검은머리의 남자를 쳐다보며 주어가 생략된 질문을 던졌다.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은 ?”

“... 예, 전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마님께서 호수정원으로 가신 시간이 밤 10시 경인데 늦은 시간이라 정원지기가 이미 입구를 폐쇄한 상태였고 마님의 침소에서도 걸어서 10분 이상의 거리라 애초에 그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가신 듯합니다.”

칼리안의 물음에 답을 하는 예르딘 하이어 남작, 그는 아스테르 기사단의 부단장이기도 했는데 어젯밤 로즐린을 호수정원에서 구해낸 바로 그 사람이었다.

30대 초반 정도. 칼리안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예르딘은 검은머리에 밀빛 피부가 어울어져 묘하게 시선을 끄는 구석이 있었다.

칼리안의 조각같은 외모에 비하자면 다소 손색이 있었지만 남성미가 충분히 매력적인 미남자였다.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도 없.. ”

“아니 부단장님, 뭘 그리 자르고 돌려 말씀하십니까? 딱 봐도 견적 나오는구먼.”

왼쪽에 서 있던 금발의 남자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예르딘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베아스! 입 조심해.

이건 그렇게 가볍게 떠들 일이 아니야.”

“예르딘 부단장님, 제 입 가벼운 거야 인정합니다만 이 일은 제 입을 털 것도 없습니다. 폐쇄된 입구에 난 흔적 보셨잖습니까?

그 야밤에 수행원도 없이 혼자 거기까지 간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 야밤에 굳이 그 호수에 비친 달이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다고 칩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인을 불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될 걸 공작부인 체면이 있지 어떻게 철문 아래 공간으로 기어들어가기까지 해서 호수에 몸을 던진답니까?”

베아스라는 이름의 금발남자는 무척 흥분 상태였는지 얼굴과 목덜미가 붉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툭툭 던지는 비아냥대는 어투가 합쳐지니 흡사 술 한 잔 걸친 동네 양아치 같았다. 입고 있는 은빛의 멋들어진 경량갑옷이 약간 민망할 정도였다.

“... ”

자신의 반박에 대답을 하지 않는 예르딘이 답답했는지 베아스는 그의 휘하 기사단원에서 그의 절친으로 포지션을 바꿔 대화를 이어갔다.

“예르딘 너도 아까 내 말에 동의했으면서 뭘 그래.

아직 초봄이라 저녁엔 꽤 쌀쌀하다고. 그런데 이 날씨에 설마 마님께서 호수정원에 물놀이를 하러 가셨겠어?”

“그만! 베아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공작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우가 아니라 가신으로 이 자리에 온 거고.

나는 그렇다 쳐도 공작전하께는 더 이상 무례를 범하지 마라.”

“하지만 공작전하도 이미 예상하고 계실 텐데 뭘.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

“... 그래서 결론은 자살이라는 거군. 아니, 성공하지 못했으니 자살시도인가.”

칼리안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일순 정적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 불퉁한 얼굴로 툴툴대던 베아스조차 굳은 표정이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예르딘이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사실대로 공표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송구하오나 이 일이 알려지면 테레지아 후작가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럴 테지. 부인을 자살하도록 만든 죽일 놈이라고 여론을 몰아가겠지.”

칼리안은 딸의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인 양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릴 테레지아 후작이 눈에 선했다.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딸과 칼리안의 혼사를 추진한 걸지도 몰랐다.

앙리 테레지아 후작, 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전하, 그럼 이번 일은 그냥 덮으시고 차라리 이혼을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이혼?”

“예, 사실 공작부인께서는 우울증이 있으신 걸 숨기고 결혼하셨잖습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합의이혼을 성사시킨다는 작전인거죠.”

“베아스, 이건 테레지아 후작가와의 전쟁놀이가 아니야. 작전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아.”

“나 이거 참,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냥 말이.

우리 부단장님이 하도 깐깐스러워서 뭔 말을 못하겠구먼.”

이혼이라니. 꽤 괜찮은 방법이긴 했다.

제국법에 따르면 반드시 가문의 후계는 적장자여야만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딸만 낳았을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양자를 들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봤지만.

“나쁘지 않은 패였는데... 그걸 쓰기엔 한 발 늦은 것 같군.”

“네? 어째서요? ”

“내 아내가 기억을 잃었거든.”

“그게 무슨...? ”

칼리안의 말이 뜬금없다 생각했는지 예르딘과 베아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칼리안은 부차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곧 얼마 있지 않아 공작성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될 터였다.

“일단 오늘 조사한 결과는 비공개다. 두 사람은 그만 나가보도록 .”

“네, 공작전하.”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물러가자 알베르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려했던 소식을 전했다.

“전하, 어제 예르딘 하이어 남작께서 마님을 구하시는 모습을 본 하인이 몇 있었나봅니다. 단속한다고 하였는데도 지금 성 내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야단을 떨었는데 소문이 안 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저 그리고... ”

“또 뭐가 있나?”

“가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

“하, 골치 아프군.”

“어찌할까요?”

“그녀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물에 빠져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그렇지?”

“휘겐의 말로는 일주일은 조심해... ”

“아니, 한 달.”

“!!... 예, 휘겐이 말하길 충격이 심하시어 한 달 간은 족히 요양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건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줘. 나머지는 다음 달 가신단 회의 때 내가 직접 정리하지.”

“예, 전하.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다한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지.”

“... ”

알베르는 숙였던 고개를 채 들지 못하고 제 발등만 바라보았다.

“그 여자, 내 아내 말이야.

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자살을 하려고 한걸까?”

그렇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

다섯 사람 아니, 기억을 잃은 로즐린을 빼면 현재 네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었다.

“난 그녀도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였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걸 망쳐버렸지.”

“전하께서도 충격이 크시겠지요. 아기씨가 그리 되시다니...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저 송구합니다 전하.”

“아니, 내게 위로는 적절치 않아.

그렇게 간 내...그 아이에게 위로를 보내야겠지.”

“... 전하.”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겠어.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이건 반드시... 그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해야 할 거야.”

한밤중의 익수사고.

그 뒷면에 숨어있던 진실은 어둡고 착잡했으며 답답했다.

로즐린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서연.

그녀는 자신이 발급한 기억상실의 프리패스를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니 편안하게 식후 단잠에 빠질 수 있었을 거고.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로즐린은 사연이 많은 여자였다.

게다가 칼리안은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에 더해 뛰어난 직관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진...지적인 남자였다.

.

.

.

그녀에게 닥친 난관은 이제 시작이란 소리였다.

짙은 남색의 첨탑.

그보다 옅은 남색의 지붕을 타고 이어지는 벽면은 따뜻한 크림색이었다.

디귿자의 건물 앞쪽으로는 소담한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꽃송이가 없어 푸르기만 한 장미덩굴이 정원과 건물의 경계를 감싸고 있었다.

장미덩굴 뒤편에서 건물 입구를 향해 고개를 기웃거리는 한 남자.

그는 공작의 집무실에 있었던 기사 베아스였다.

‘뭐 여긴 지나다니는 하인 하나가 없냐.

여기 마님이 있기는 한 거 맞아? 아니면 그새 본성으로 옮기셨나.’

공작전하께서는 침묵하라 하셨지만 베아스는 모른 척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제발 망할 테레지아 후작가로 되돌아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때는 찰떡같이 붙어서 3년을 침실 밖으로는 나오시지도 않더니...

갑자기 자살시도라니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데 그의 주군은 그저 있으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더 궁금했다.

때마침 낯익은 하인 하나가 짚이 담긴 수레를 끌고 정원 입구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봐, 쿤!”

“어이쿠, 베아스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요?”

“자네 혹시 마님 상태가 좀 어떠신지 아는가?

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좀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에이 그럴 리가.

평소에 워낙 격의 없고 거침도 없는 베아스는 공작부인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동료 기사들이건 하인들이건 할 것이 없이 내비치고 다녔다.

그로 인해 몇 번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고 알베르에게 경고도 들었다.

하지만 자중하는 것은 그때 잠시 뿐, 베아스의 투덜거림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걸 뻔히 아는 쿤은 ‘네가 ?’하는 식의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네 뭔가 표정이 불손한데.”

“아니 무슨... 햇살이, 햇살이 눈부셔서 그러지요.

나이가 드니 요런 햇살에도 눈이 시려서... 헤헤헤.

마님께서는 아까 정오를 좀 넘겨서였나. 식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레아가 음식을 들고 나는 것을 보았습지요.

그리고 뭐 평소처럼 방 안에만 계시고요.”

“그래? 그러면 사고 이후 마님을 본 자는 없는가?”

“예, 어젯밤 워낙에 다급하게 이곳으로 오셨기도 하고 따로 수발들 하인들은 필요 없다시며 알베르님께서 모두 물리신지라.

평소에도 레아 말고 다른 이들은 곁에 두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런데 베아스님,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요?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무슨 소문?”

“아 그 왜 저기...크흠흠.

제 입으로 담기에는 좀 거시기한데. “

안 할 말이면 꺼내지를 말아야지.

자신을 간보는 듯한 쿤의 말에 베아스가 허리에 찬 칼 대신 입에 쥔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 우리 사이에 못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석 달 전인가? 내 자네가 그 추운 겨울밤 쟈넷과 마구간에서 했었던 일도... ”

“아이쿠, 베아스님. 그 무슨!!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누가 듣겠습니다요.”

“걱정 말게. 내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았으니.

그러니 내 입 가볍다 의심 말고 그 소문이란 거, 어서 말해보게.”

“그게 사실... 소문이 한 두 개가 아닌 지라... ”

“그래도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소문이 있을 게 아닌가 .”

베아스의 재촉에 쿤이 마른 입술을 혀로 훑으며 말을 이었다.

“간밤에 홀로 호수정원에 가신 것이 밀회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먼저 들리긴 했지만 사실 그건 그야말로 헛소문입죠, 네 그렇고말고요.”

‘밀회’라는 말에 순간 짜게 식은 베아스의 눈치를 보던 쿤이 재빠르게 말을 돌렸다.

“원래 영지외곽 정기시찰이 오늘아침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마님 사고 때문에 연기됐지만요. 그래서...”

“그래서? ”

“저간의 뭐 이런 저런 중요정보들을 외부에 유출시키려고 했다가 들키자... ”

“그러니까 마님께서 첩자 노릇을 했다? 전달책을 만나려 그 밤중에 호수정원까지 간거고?”

“예, 사실 그 밤중에 거기 혼자 가신 것도 이례적이지만 하필 그 때 예르딘 남작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마님을 구출했다는 것도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님을 의심하고 계시던 전하께서 감시원으로 남작님을 붙여두신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르딘 남작님께서는 전하의 최측근 아니십니까? “

첩자노릇.

그 앞에는 테레지아 후작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었다.

사실 충분히 일리 있는 의심이었다.

처음에 로즐린이 공작과 혼인한다했을 때 공작가의 수많은 가신들이 반대했다.

베아스도 그 중 한명이었다.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 테레지아 후작의 딸과 혼인이라니.

그동안 테레지아 후작이 칼리안을 견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수작을 부렸던가.

분명히 황제폐하의 주선이 아닌 후작의 간교로 인한 억지 혼인임에 틀림없었다.

우선 공작가에 들이 밀어 넣고 추후에 틀림없이 뭔가를 꾸미거나 제 딸을 첩자로 이용할게 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이곳 공작가에 입성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베아스는 로즐린이 못마땅했다.

“차라리 그 편이 처리하기는 더 깔끔했을 텐데.”

주군의 반려를 칭하는 베아스의 언사는 매우 불손했지만 그것이 현재 공작가 내에서 로즐린의 위치였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

“또 뭔가?”

“마님께서 자진해서 목숨을...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체로 삶을 비관하시며 스스로 호수에 뛰어드셨다가 중론입죠.”

휴우, 소문 열에 하나쯤은 진실이라더니.

“정말 대단... ”

“자네 여기서 뭐하는 건가?”

진위를 스치는 소문에 베아스가 저도 모르게 감탄하려는 찰나, 그의 뒤통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만큼이나 행동도 꼿꼿하고 빳빳하기 이를 데 없는 알베르, 그였다.

집사 따위가 어째서 기사나리에게 반말을 찍찍하나 싶겠지만 사실 알베르는 귀족 작위를 갖고 있었다.

알베르 포드 자작.

기사단의 부단장인 예르딘 남작보다도 한 단계 높은 작위였다.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스트리드 가문의 충신이었던 포드 가문은 대대로 집사직을 맡아왔다.

좀 더 권력에 가까운 자리를 욕심낼 능력과 자격이 충분했지만 그들은 항상 주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발드는 것을 더 영광되게 여겼다.

그런 만큼 알베르에 대한 공작의 믿음과 총애는 대단했고, 때문에 알베르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는 공작가 내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연무장에서 한창 수련 중이어야 할 자네가 왜 이곳 별채에서 하인과 노닥거리고 있냐고 지금 내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 하고 있네만.

자네 지금 내 질. 문. 을 무시하나?”

질문이라 칭하는 가시가 베아스를 콕콕 찔러왔다.

사실 베아스는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훈련장을 몰래 빠져나와 공작부인의 동태를 염탐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꾸할 답이 궁색했다.

“아이고 알베르님도 참. 제가 어찌 감히 알베르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공작전하의 복심이신데요. 그저 저는 마님이 걱정되어... “

“그런 씨알도 안 먹이는 소리는 그만두게. 그리고 마님에 대해 관심도 끊고.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이곳이 아니라 본성 연무장에나 가서 찾으란 말일세!!”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기로 유명한 알베르가 답지 않게 말끝에 마침표가 아닌 쌍느낌표를 찍어대며 언성을 높였다.

사각지대 그 어딘가에서 몰래 엿듣고 있을 별채의 하인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삼가라는 경고였다.

베아스가 뒤를 보니 좀 전까지 썰을 풀어대던 쿤은 어느새 사라지고 싶었다.

역시 사회생활 하려면 치고 빠지는 타이밍은 필수였다.

이건 베아스도 좀 배울 필요가 있었다.

“예, 그럼 이만 전.”

잽싸게 별채에서 멀어지는 베아스를 보며 알베르는 한숨을 삼켰다.

그렇잖아도 공작성이 시끄러운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신 마님께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또 어떤 뜬소문이 난무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별채 보안을 특별히 신경 써야겠어. 아무래도 사람을 더 들여야겠군.’

흠. 누가 내 얘기를 하나.

후비적 후비적

짜증이 났다.

어중간하게 가느다란 손가락이라 영... 귓속을 뭉근하게 후비는 맛이 없었다.

그렇다고 면봉처럼 가늘어서 정확하게 스팟을 긁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웬만하면 불평불만 안하려고 했는데 이 몸은 모든 게 한 끗 정도 부족했다.

이정도 신분이면 재력도 상당할 텐데, 무려 공작부인이 아닌가.

그런데 대체 이 지울 수 없는 빈티는 뭐냔 말이지.

하아.

“마님, 혹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평소에 즐겨 하시던 대로 한 건데.

아니면 올림머리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 이건 머리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괜찮다는 말이란다.

지금 얼굴이 이 꼴인데 머리장식 좀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내 시니컬한 말투에 레아가 당황해하는 것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방구석 폐인 같은 몰골이다 싶어 레아에게 부탁해 머리 정돈을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머리를 매만져도 감출 수 없는 빈티.

거울에 비친 푸석푸석 퀭한 내 얼굴이 너무 짠해서 명품관에서 상설매장으로 좌천됐을 때, 그때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찔끔 나왔다.

물론 때마침 하품이 좀 나오기도 했고.

눈 뜨고 처음 거울을 봤을 때 보다야 낫긴 하지만 감자수프 한 접시와 짧은 낮잠 정도로 뭐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겠는가.

그나마 봐줄 거라고는 물빛에 가까운 옅은 푸른색 머리카락과 새하얀 피부, 가녀린 체구가 다였다.

이목구비는 평범했고... 가슴은 너무 빈약했다.

이래서야 부부금슬 등업 프로젝트는 꿈도 못 꾸겠다.

퓨...

똑. 똑. 똑.

“마님, 알베르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 어서 안으로 모시렴.”

처음 봤을 때도 생각했지만 날렵한 체구의 알베르는 콧수염이 무척 잘 어울리는 미중년이었다.

아침드라마에서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으로 나와서 여주인공이 힘들 때마다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딱 그거였다.

“마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이곳 별채가 혹여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닌데요. 완전 편한데요.

침대는 폭신하지, 누워 있어도 밥 가져다주지, 머리도 손질해주지.

이런 호텔 같은 곳에서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난 괜찮아요 알베르. 그런데 혹시 언제쯤 방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요. 아, 물론 외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정원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요.”

“휘겐의 말로는 이틀 정도만 더 조심하시면 거동하기 한결 편할 거라 했으니 조금만 더 보중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산책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두겠습니다.”

“신경써줘서 고마워요 알베르.”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내 인사에 알베르의 담담하던 표정이 흔들렸다.

놀란 거다 그것도 아주 많이.

무표정을 가장 하고 있지만 VIP들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캐치했던 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지.

아이고, 로즐린이야 로즐린이야.

너는 도대체 얼마나 방구석 폐인으로 살았기에 집안일 봐주시는 분한테 인사 한번을 안 하고 살았다니.

“그리고 공작님께서 마님께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저녁.. 식사요? ”

“예, 이틀 뒤 저녁쯤이면 괜찮을 듯한데. 어떠하십니까?”

부부간의 식사자리.

사실 이것은 칼리안의 의사가 아니라 알베르의 권유였다.

사고 이전의 공작부부는 서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로즐린의 우울증이 주원인이었지만 칼리안의 무관심도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사고로 기억을 잃은 로즐린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고 상대가 누구든 대화를 나누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알베르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든 관계회복을 위해서든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 간언했다. 그리고 칼리안은 알베르의 의견에 동감했다.

“그럼 사흘 뒤 저녁이 좋겠어요. 막 거동한 상태의 비틀비틀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거든요.”

“예, 마님. 전하께는 그리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별채에 일 보는 사람들을 좀 더 두어 관리토록 할 터이니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레아에게 일러 부리시면 됩니다.”

“그럴게요.”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마님.”

알베르가 방을 나가고 속이 답답해진 나는 레아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났고 창가에 놓인 원목 티 테이블 쪽 소파에 가서 앉았다.

눈치 빠른 레아가 창문을 반쯤 열었는데 해질녘 차가운 바람에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듯했다.

칼리안, 그 남자는 나를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칼리안, 그 남자는 나를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아직도 내게 답을 듣고 싶은 걸까?

처음 이곳에서 눈을 뜨자마자 대면했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어이없음, 분노, 그리고 약간의 혼란.

걱정과 안쓰러움 같은 감정은 1도 없었지.

그리고 그가 내게 추궁할 때 ‘내가 당한일’이 아니라 ‘벌인 일’이라고 했다.

이거 아무래도...

“레아, 어젯밤 사고 말이야.”

쪼르륵

“혹시 내가 호수에 스스로 몸을 던진 건 아닐까?”

쨍그랑!

티 테이블 위의 찻잔을 채우던 레아가 손에 든 티팟(주전자)을 놓치고 말았다.

“아... 아... 죄송합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구나 자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레아의 행동이 충분한 답이 되었다.

비싼 거라 그런 가 바닥에 떨어진 티팟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지만 레아는 널부러진 티팟이 아니라 카페트에 붙은 젖은 찻잎부터 손으로 그러모으고 있었다.

그걸 왜 줍고 앉았니.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손길이 분명했다.

“레아, 그만. 천천히 하렴. 난 괜찮으니.”

어느 새 공작부인이라는 신분에 동화라도 된 건가.

자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내 말투는 무척 담담했고 우아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전혀 놀랍지가 않아서였다.

진짜 내 몸은 맨홀에 빠져 죽고 내 영혼은 차원이동에 빙의까지 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여자, 아니지 얼굴은 봤지.

그러면 잘 모르는 여자라고 하자.

그 잘 모르는 여자가 내가 모르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게 뭐 놀랄 일이라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긴 하지.

“그래서 그 남자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였나?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몸... 아니 나를 애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귀족의 품위 뭐 그런 거 때문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님!

공작전하께서는 틀림없이 마님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레아야, 그 위로 같은 반박 고맙다만.

네 손톱에 낀 찻잎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지 않니?

빤히 자신의 손을 쳐다보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얼굴을 붉힌 레아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꾸뻑거리더니 원목 테이블에 올려져있던 냅킨으로 얼룩진 바닥을 훔치고는 나머지 잔여물들을 쟁반에 담아들고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나가는 뒤통수의 목덜미까지 빨갰다.

많이 민망했나보다.

나간 김에 저녁식사도 챙겨왔으면 좋겠는데.

낮에 먹었던 감자스프도 맛있었지만 이제 좀 더 건더기가 든 걸 먹고 싶다.

남편과 나의 과거사 문제는 어차피 노답!

미리 걱정하고 예측한들 대비책 따위는 없다는 말이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 듯하다.

잘 먹고 잘 자고 빨리 회복해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때 절대 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 이게 별채 식당이라고 ?

왐마, 공작이네 스케일 어마무시하고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식상한 리액션 따위로는 지금 내 감탄을 표현하기에 한참 부족했다.

금박 은박의 휘황찬란함을 뽐내는 샹들리에와 벽면을 적절히 채운 그림들.

크림색과 금색이 섞인 마블링 무늬의 대리석 식탁은 또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식탁 중앙에 장식된 화병에는 이름 모를 꽃이 담겨져 있었는데 꽃송이가 무척 크고 탐스러웠다.

“그런데 너무 커.”

그랬다. 사이즈가 에바였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훌륭했지만 여기서 밥을 먹을 사람이 단 두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다.

나, 그리고 내 남편 칼리안.

남편과의 첫 식사라고해서 로맨틱한 것을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려면 좀 아늑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대화를 하는 편이 좋을 텐데.

여긴 뭐 G20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너무 넓다.

내 맞은편 저어~쪽에 그 남자가 앉게 되면 과연 대화가 가능은 할런지...

핀마이크 준비해라 레아야.

딸깍.

“마님, 공작 전하 드십니다.”

알베르 집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 그 남자 칼리안이 걸어 들어왔다.

나는 레아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내 자리가 입구 쪽에서 가까웠던 탓일까.

칼리안은 안쪽 자리를 향해 가던 동선에서 잠시 멈춰 나를 바라보고 섰다.

나도 그를 바라봤다.

키가... 굉장히 컸다.

대략 185는 넘어보였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188cm?

거기에 더해 화룡정점은 어깨였다.

빗어 넘겨 고정 시킨 머리끝이 어깨에 닿아있었는데... 이눔시키 아주 그냥 어깨가 깡패였다.

처음 봤을 때는 침대에 앉아 마주했던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 외에 다른 곳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 얼굴, 재력, 바디까지 완벽했다.

그리고 난 그런 완벽남의 아내고.

갑자기 긴장감이 들면서 목이 말랐다.

마른침을 삼키며 시선을 살짝 내리깔자 그는 마저 걸음을 옮겨 옆 자리에 앉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대화가 무난히 가능한 거리였다.

“... ”

“... ”

칼리안에 이어 내가 자리에 앉자 시녀 두엇이 식탁 주변을 오가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물 컵에 물을 따르고, 식기를 세팅하고, 샐러드를 올렸다.

그동안 어색한 침묵.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안색이 한 결 낫군.”

“그런가요?”

“그날... 뜻밖이었어. 난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왜 살렸냐고 악다구니라도 쓸 줄 알았거든.”

침묵을 깨준 건 고맙다만 시작부터 이렇게 센 펀치를 날리면 어쩌니.

아무래도 오늘 저녁밥 제대로 못 먹겠는데 ?

“왜죠? 내가 자살하려다 실패해서?”

“기억이 돌아왔나?”

칼리안의 금색 동공이 순간 번뜩이는 것 같았다.

“아니요, 그냥 추정했어요.

단순사고였다면 당신이 내게 ‘저지른 일’이라는 식의 추궁은 하지 않았겠죠.”

“... 기억을 잃은 대신 지능을 얻었군.”

“그걸 안다면 비아냥거리는 건 이제 그만하지 그래요?

그걸 눈치 챌 정도의 지능은 충분하거든요.”

내가 이빨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백전불패의 박서연이라 이거야.

명품관VIP 담당 매니저 자리를 공으로 딴 줄 아나. 흥!

아니, 칼 들고 저 죽이겠다고 덤빈 것도 아니고, 혼자 죽겠다고 난리부르스 좀 춘걸 가지고 뭐 때문에 저렇게 공격적이냐고.

듣자하니 평소에 제 아내에게 별 관심도 없었다면서.

나도 지금 짜증났소, 하고 여봐란듯이 포크를 팍팍 내리찍었다.

시녀가 앞 접시에 덜어놓은 샐러드가 난도질됐다.

“... 질겨서 다져먹으려는 건가?”

“네, 오늘 야채가 좀 질기네요. 제가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 ”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하는 로즐린의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힌 칼리안.

그는 원래 식사를 하며 말을 하지 않았다.

말 수가 적어서라기보다 대부분 혼자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또 한 끼 식사에 두세 시간은 족히 쓰는 다른 귀족들과 다르게 샌드위치나 간단한 스프 혹은 과일을 즐겼다.

특별히 그런 메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결재서류나 제국소식지 등을 읽으며 배를 채우기에는 간편한 식사가 제격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식사 자리는 작정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로즐린 그녀를 심문하는 자리라고 보는 편이 더 적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거리가 만만치 않았다.

받아치는 말속에 뼈가 있었다.

기억을 잃으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변하는 건가?

“거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라.”

새우가 곁들여진 차가운 토마토스프를 테이블로 올리던 시녀는 칼리안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고 이에 알베르가 식당 안에 있던 모든 하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호로록.”

“스프는 입맛에 맞는 모양이군.”

대꾸 없이 스프를 홀짝이며 세모꼴로 눈을 살짝 치켜뜬 로즐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결혼 후 3년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제대로 된 안주인의 역할도 하지 않은 주제에 공작가의 후계까지 망쳐버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미친년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해 모아두었던 분노를 칼리안은 쏟아낼 수 없었다.

사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로즐린이 있는 별채로 달려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이의 유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한 로즐린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가 호수에 뛰어듦으로 인해 아이가 유산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음모’였다. 그 어떤 심증도, 물증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러했다.

어째서인지 아이의 대한 애통함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 칼리안은 아이를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었다.

단지 가문을 이어야 하니까, 중요한 비즈니스 정도로 여겼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가 그 존재여부를 세상에 알릴 겨를조차 없이 제 어미에 의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스러웠다.

로즐린 그녀가 깨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세웠다.

열병으로 새벽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절대 이대로 죽으면 안된다고, 죽더라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하고 죽으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런데 눈을 뜬 로즐린은 진실을 묻는 그에게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로즐린,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나?”

그녀가 몰랐던 진실 하나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슬퍼할까?

아니면 자신처럼 분노할까.

“로즐린,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나?”

얘 뭐래니?

이거 지금 나 멕이는 거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는데 겨우 참았다.

이봐요 남편 씨, 아무리 부부사이는 둘만 아는 거라지만 드러난 팩트는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아내, 무관심한 남편. 그리고 아내의 자살.

물론 우울증은 결혼 전부터 있었다니까 일정 부분 면죄부가 되겠지.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을 테고.

그런데 어차피 조건보고 한 결혼 아냐? 애정, 관심 따위 1도 없었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나한테 따져 묻는 거냐고.

“난 지금 눈으로 본 내 발사이즈가 몇인지도 몰라요.

그런 나한테 대체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내 뾰족한 대꾸를 듣고도 별 말이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떠보듯이 묻지 말고.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를 제게 청하신거 아닌가요?”

“... 그랬지. 할 말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당신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어째서요?”

“당신도 이 말을 듣고 아파하지 않을까봐.”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어이가 없어 재차 쏘아붙이려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남편 씨 눈빛이 영 이상해서 조금 전처럼 비아냥댈 수가 없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아파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까요?”

“... 나 말고 다른 이.”

“그 다른 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마도.”

“그럼 그냥 얘기 하... ”

“아니, 그만두지. 그러는 게 좋겠어.”

아, 뭐야 무슨 말을 하다 말아. 사람 답답하게!

“그만둔다는 거, 제게 계속 화를 낼 예정이란 뜻인가요?”

“난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는 아둔한 자를 제일 싫어하지.”

“...그 아둔한 자가 설마 전 아니겠죠?”

“아니, 더 이상 의미 없는 추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지능은 나쁘지 않은데 말귀는 별로군.”

아오 빡쳐!

근데 내가 이건 그냥 넘어가줘야겠지?

성공적인 평화협정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 씨는 자신의 스푼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다.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너무나 귀족적인 애티튜드가 황금비율 이목구비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 몸도 귀족인데...

자괴감이 느껴졌다.

“... ”

“왜 그렇게 쳐다보지?”

“혹시 다이어트 중이세요?”

“내가 그런 게 필요해 보이나? 기억만 잃은 게 아니라 시력도 잃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 휘겐을 보내주지.”

“저녁식사 자리를 청하셨다고 듣고 왔는데 질긴 푸성귀에 토마토스프 한 접시, 그리고 레몬워터가 끝이라서. 혹시 그런 가보다 했죠.

아니면 내 말귀가 별로라서 다과회를 저녁식사로 잘못 들었나?”

“... 알베르!”

“예, 공작전하. 들겠습니다.”

... 맞다. 질투 나서 그랬다.

안 그래도 여러 모로 꿀리는 것 같아서 말발이라도 좀 세우려고 했는데 그 입마저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저 혼자 매력발산 하는 꼴을 보니 자존심이 상해서.

딸그락 딸그락

아까 나갔던 시녀들이 들어와 먹음직스러운 면 요리와 생선 요리를 세팅했다.

붉은 소스로 버무려진 냉 파스타 위에는 초록의 루꼴라가 풍성했고 팔뚝만한 크기의 이름 모를 생선은 육수를 이용해 졸였는지 드러난 하얀 속살이 촉촉해보였다.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군. 당신 입이 워낙 짧다기에 주방장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 일렀거든.”

뭐지? 갑자기 이 훈훈한 멘트는.

“많이 먹어야 많이 큰다지. 뭐...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와.. 방금 남편 놈이 훑어 본 게 내 가슴 맞지? 그것도 아주 같잖다는 표정으로.

이걸 반박하자니 애매하고 가만히 있자니 열 받네.

“얼마나 됐죠?”

내 물음에 뭐가? 라는 눈빛을 보내며 남편 놈이 레몬워터가 든 유리잔을 유유히 들어올렸다.

“우리가 한지 얼마나 됐냐고요.”

“푸읍!!!”

어머, 리액션 좋고~

“전하, 여기... ”

남편놈의 뒤에 서 있던 알베르가 잽싸게 냅킨을 가져다 바쳤다.

맞아... 여기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

워낙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어서 깜빡 했다.

“대체... 로즐린 당신... 하.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숨어있던 인격이 나온 건 아닌 가 의심스럽군.

내 가서 당장 휘겐을 보내지.”

화난 척 하지만 당황한 거 다 보인다.

음, 우리 남편 씨는 당황하면 귀가 빨개지는 구나. 크크크

“함께 식사를 한지 얼마나 됐냐고 물은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 뭐?”

“더 이상 불필요한 추궁은 않겠다고 하시고선.

오늘 자리는 이만 파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식사하다가는 체할 것 같아서.

레아, 나 좀 부축해주겠니? 이만 침소로 돌아가서 쉬고 싶구나.”

레아야, 눈치 그만보고 빨리 와서 나 좀 잡아.

잘 쳤으니 이제 딱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어.. 예, 예 마님.”

벙쪄있는 남편 씨를 두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레아의 부축을 받아 식당을 나왔다.

아직 불편한 몸 때문에 우아한 걸음으로 퇴장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했어 로즐린.

넌 오늘에야 비로소 새로 태어난 거야.

어두워진 공작성의 중앙로.

좌우 양쪽에 드문드문 설치된 등불을 따라 말을 탄 인영 다섯이 보였다.

가장 선두의 칼리안과 그 옆에 살짝 처진 알베르, 그리고 그 둘의 뒤를 멀찌감치 따르는 세 명의 기사였다.

이들은 별채를 나와 본성으로 가는 중이었다.

공작성 출입문의 도개교에서 별채까지 말을 달리면 10분, 별채에서 안쪽으로 10분을 더 가야 본성이 있었다.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말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사방이 고요하던 차에 알베르가 그 침묵을 깼다.

“전하, 아직도 심기가 언짢으십니까?”

“이게 심기가 언짢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군.”

“마님께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달라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외람되지만 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의 마님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

“예, 공작전하도 그러하시고요.”

말을 마친 알베르가 슬쩍 칼리안의 표정을 살폈다.

때마침 노란 가로등불 빛이 드리웠는데 칼리안은 실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내친김에 더 물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도 그렇게 내게 묻더군. 어째서냐고.”

“그러셨습니까?”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었어.

그런데 과연 그 아이의 죽음이 슬플까?

친아비인 나도 그러지 못했는데.”

“... ”

“슬퍼했을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좋지 않아.

슬프다 해도 그건 그 아이의 어미로서가 아니라 그저 동정이었을 거고, 아니라면 더 잔인한 확인이 됐겠지.

그러니까 그건 덮어 둘 거야. 기억을 찾기 전까지는.”

“레아와 휘겐에게는 그리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그 정적을 갈라대는 말발굽 소리에 싸인 채, 본성으로 향하는 칼리안의 심사는 조금 전 알베르에게 건넸던 단호함과는 다르게 사실 꽤 복잡했다.

‘기억을 잃은 것이 어쩌면 그녀에겐 신의 축복일지도...’

로즐린의 기억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잊히길 바라는 건지.

칼리안은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아흐~ 숙면은 사랑이지.

어제 식당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왔더니 이전 삶에서도 자주 맛보지 못했던 꿀잠을 잤다.

알람 울릴 때가 아니라 내가 눈 떴을 때가 기상시간이라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

나는 잘 잤는데 남편 씨는 어땠으려나. 이불킥 좀 했으려나~

아, 나 좀 사악한 듯. 크크

“마님, 여기 세숫물입니다.”

“고마워, 레아야.”

빙긋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볼이 발그레 쑥스러워하는 레아였다.

이그, 순진한 것.

그래, 내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갑 오브 갑이 됐지만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않고 을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주 명품 갑이 되겠다 이거야.

이런 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공작성 식구들이 좀 알아줘야 할 텐데.

어떻게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지?

어푸 어푸

일단 얼굴 세탁부터.

빈티나는 얼굴에 더티까지는 용납 못한다.

레아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때 빼고 광을 냈다.

일어나자마자 비주얼을 다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오늘 레아가 아닌 별채 하인들과 접촉을 해 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레아, 준비는 다 됐니?”

“네, 마님. 말씀하신대로 정원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자!”

방 밖으로 나가자 복도식 통로 너머로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다.

어제 식당으로 갈 때는 이미 해가 진 상태라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입구를 멋들어지게 휘감은 장미덩굴과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하얀 대리석 조각상들이 무척 이국적이고 멋졌다.

“마님, 이쪽으로.”

내 침실은 2층이라 한층만 내려가면 바로 정원이었다.

레아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내려가는데 휘어져 돌아들어오는 계단 아래쪽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아니, 글쎄 그랬다니까.”

“내가 네 허풍에 한두 번 속았게? 이젠 안 속는다고.”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너 본성에서 일하는 보니타 알지?

걔가 어제 저녁식사 시중을 들면서 직접 본걸 나한테만 얘기해 준거라니까.”

“... 보니타가? 걔는 흰소리 할 애가 아닌데.

그럼 진짜 마님께서 공작전하를 유혹하셨단 말이야? 그것도 식당에서?”

뭬라. 유호옥?

내가, 남편 놈을?

아니, 이게 무슨 갯지렁이 탭댄스 추는 소리냐 이것들아!!

“아이 참,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본성에 온통 난리가... 허헉!!”

“엄마야! 마님?!! 흐어엉.”

그래 이것들아!

그 식당에서 밥먹다말고 남편한테 유혹의 소나타를 불러제꼈다던 너네 마님이시다!

두둥.

갑 오브 갑 등장에 몇 계단 아래에서 바짝 쫄아 있는 하녀 1, 2.

그녀들의 표정을 보자 승천하던 어이가 도로 제 자리를 찾았다.

둘 다 레아보다 나이는 좀 들어 보였는데, 대략 20대 중반?

나를 보자마자 아주 쌍으로 굳어서 사색이 됐는데, 그럴 만도 하지.

지금 미치겠지? 똥 밟았다 싶지?

내 그 심정을 좀 안단다.

뭣 모르던 사회생활 초년생, 아마 입사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다.

화장실에서 직장상사를 가열차게 씹어대는 사수에게 응답하는 나의 격한 리액션.

그렇게 열심히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쏴아...

뒤쪽 화장실 칸에서 물 내리는 소리.

그때 내 표정도 저랬었지 아마.

시바, X됐다.

얘네들아,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뽐뿌질이었단다.

그런데 방금 너희가 나불댄 건 완전 날조된 찌라시 수준인데 이걸 어쩌니.

“레아, 저 둘은 누구? 혹시 나와 안면이 있니?”

“아, 네 마님. 그럼요.

제 이전에 마님의 측근시녀로 있었던 분들입니다.”

“오호, 그래? 그랬단 말이지.”

옳다구나, 내가 찾던 이들이 여기 있었구나.

안 그래도 오늘 방을 나선 주목적이 별채 하인들과의 접촉이었는데, 밑바닥 수준인 이 몸의 평판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려면 IS급의 신분세탁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좀 아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싫어하는 하인들과의 접촉이 필요했다.

그 인물이 입까지 가벼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좀 전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보니타가 너에게만 말했다고... 아, 그런데 이름들이 뭐니?”

짙은 갈색머리에 고양이상, 약간 통통한 여자1.

“아, 네, 네 마님. 저.. 저, 저는 루시라고 합니다.”

금발머리에 강아지상, 약간 마른 여자 2.

“저, 저는요 마님. 메리입니다.

마님, 제발... 제발 용서해주세요, 흐흐흑... ”

내가 질문을 하자 둘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하나는 더듬더듬, 하나는 울먹울먹하며 제 이름들을 고했다.

입 싼 애가 루시고 받아준 애가 메리였다.

“그래 루시, 보니타라는 아이가 너에게만 말했다고 했잖니?

그런데 왜 본성이 난리라는 거지?”

“예? 아, 그, 그건 저도 잘...”

그래... 입 싼 애가 뭐 어디 너 하나겠니?

너한테만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국민이 되고, 국민이 지구촌 세계인이 되고.

소문이란 게 다 그렇지 뭐.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는 중이었고?”

“아, 예. 알베르 집사님께서 2층 복도 청소를 지시하셔서 그걸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님.”

아직도 훌쩍이며 코를 먹고 있는 메리와는 달리 루시라는 아이는 내 물음에 재깍 답을 했다.

내가 뒷담화에 대한 추궁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리고 예전 내 모습을 아는 이라고 했으니 달라진 내 지금 모습에 호기심이 생긴 듯도 보였다.

그새 새로운 이슈를 포착하고 생기가 도는 저 표정 좀 보라지.

딱! 내가 찾던 인물이었다.

“그럼 내가 알베르에게 얘기해 줄 테니 그 일은 두고 나를 따라 오렴.

레아, 이만 준비된 곳으로 가자.”

“예, 마님. 이쪽입니다.”

헛소문에 대한 분노 따위야 진즉에 사그라들었지만 일단 너무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루시, 메리 둘에게 긴장감을 심어줄 겸, 무표정으로 뒤 따르라는 말을 한 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레아의 안내를 받아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돌계단을 돌아내려가 1층 출입구를 나서 걷다보니 오늘의 목적지가 보였다.

“레아, 신경 많이 썼구나.”

“이곳 공작성에 오셔서 처음 하시는 피크닉이시지 않습니까?

요즘 귀부인들께서 가장 선호하신다는 스타일로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어떠십니까, 마님?”

“마음에 들어. 아주.”

장미덩굴로 덮힌 아치형의 정원 입구를 지나자 보이는 작은 나무벤치와 조그마한 분수대. 그 앞쪽으로 난 공터에 레아가 준비한 것들이 보였다.

몸이 아직은 편치 않은 나를 위해 피크닉 매트가 아닌 테이블을 준비한 것 같았다.

새하얀 레이스와 붉은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에는 피크닉에 어울릴법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의 음식, 그리고 주사위와 체스 등의 오락거리도 비치되어 있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어리벙벙한 표정의 두 사람이 보였다.

어서와. 마님과의 피크닉은 처음이지?

자, 이제 쇼 타임!!

“자, 그럼 우리 다들 앉아서 얘기 좀 할까?

내가 들을 얘기도 많고 할 얘기도 좀 있는데.”

쭈뼛대는 두 하녀에게 싱긋 웃으며 시선을 준 뒤, 내가 먼저 새하얀 의자에 몸을 앉혔다.

“마님, 전 그냥 여기 마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레아 네가 서 있으면 저 아이들이 불편해서 앉을 수 있겠니?

여기 내 옆에 앉으렴. 그리고 너희들도 어서.”

둥그런 테이블을 둘러싼 빈자리 네 개가 모두 채워졌고, 나는 레아가 따라준 허브티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음미하며 몇 분을 보냈다.

그래 이것들아, 답답하지? 쫄리지?

내 오른쪽에 나란히 앉은 하녀 둘은 연신 내 쪽을 힐끗대면서도 어지간히 이 자리가 불편한지 연신 다리를 까딱거렸다.

내가 원하던 대로 초초함이 딱 적당하게 무르익은 시점이었다.

“며칠 전,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건 너희들도 들어 알고 있지?”

“... ”

“... ”

당연히 둘 다 눈치만 보며 답이 없었다.

“사실은 내가 그때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단다.

이건 아직까지 공작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측근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

“세, 세상에... 어쩐지!”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슈를 향한 너의 그 본능!

그래, 루시야. 넌 내 파랑새가 될 자격이 충분해.

나는 저도 모르게 말을 뱉어내고는 뒤늦게 움찔하는 루시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연출한 시선을 건네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이 흡족하다면 좀 전에 있었던 너희들의 경솔함은 덮어줄 생각인데, 어떠니?”

“네네, 그럼요 마님. 뭐든지 하문하세요.

성심성의껏 제가 답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루시, 먼저 첫 번째 질문.

넌 이전에 내 측근시녀로 일했던 적이 있다고 했지?

얼마나 일했고, 왜 그만두게 된 거니?”

“아...그것이... ”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주렴. 어떤 내용이든 절대 너를 탓하지 않을 테니.

내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다. 그래줄 수 있지?”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은 루. 시. 퍼!

내 강렬한 눈빛에 루시가 녹아들기 시작했다.

“저는 다섯 번째로 마님의 측근시녀가 되었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구, 그랬쪄? 우리 루시 힘들었겠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난 당최 모르겠네~ ~

하던 말을 끊고 내 눈치를 살짝 보는 루시에게 우쭈쭈~

안심하라고, 해치지 않는다는 듯 다시 꿀 바른 눈빛을 쏘아주었다.

그러자 잠시간 망설이던 루시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 마님의 측근시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무척 기뻤답니다.

세탁방에서 다림질이나 하던 제가 맡기엔 무척 귀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그만둔 언니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저를 질투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사실이었어요.”

“언니들의 말?”

“마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편찮으시니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

루시가 최대한 순화해서 마음병자로 표현된 거지, 아마 그 언니들과의 현실 대화에서는 이 몸에 대한 쌍욕이 난무했을 것이다.

진상 갑이 부리는 패악질에 존칭까지 챙기는 을은 세상천지에 없으니까.

뭐 과거의 로즐린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건 익히 알던 바였다.

그래서 전혀 놀랍지 않았지만 나는 루시의 경계심을 한층 더 녹이기 위해 ‘어머머 세상에’ 컨셉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혹시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했던 거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연출하며 되묻는 내게 루시가 답을 했다.

“측근시녀로 곁에 있는 동안 마님께서는 제게 딱 한 마디밖에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게 뭐지?”

“꺼져...라고.

제가 식사를 가져다드리면 접시를 죄다 던져버리시고, 시중을 들러 다가가도 거부하시며 이를 만류하는 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그래서 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루시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 ”

아니라는 의례적 대꾸도 없이 고개만 재차 숙여대는 루시였다.

그래, 그냥 많이 말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다는 거지?

알겠어, 니 맘 다 이해한단다.

이 몸이 한 일인데 내가 사과해야지 별수 있겠니.

“난 전혀 기억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루시, 내가 미안했어.”

“에.. 예에?!”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낼 줄 알았던 걸까?

즉각적인 내 사과에 당황한 루시가 제 무릎을 향했던 시선을 치켜 올리며 얼빵한 소리를 냈고, 옆에 앉아 초초하게 지켜보던 메리도 덩달아 처진 눈을 댕그랗게 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란다.

내 사과... 받아 주겠니?”

“마, 마님. 아닙니다. 사과는 무슨.

저 같은 하녀에게 마님께서 사과를 하시다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루시는 감격한 표정이 역력했다.

약사빠른 듯 보이더니 의외로 금사빠 기질이 있는 듯 했다.

어쨌든, 예쓰! 썩쎄스!

자 그다음은 메리 너, 컴 온!

“메리, 너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게. 대답해 주겠니?”

성격이 꽤나 소심한지 쭈꾸리로 앉아있던 메리는 나와 루시의 대화를 듣고 긴장이 좀 풀렸는지 순순히 내 말에 답을 했다.

“저는 여섯 번째 측근시녀였는데... 저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마님께서는 저에게 꺼지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자, 자.. 자ㅎ...”

“음? 뭐라고? ”

“자, 자해를... 자해를 하셨어요.

흑흑흑... 죄송합니다, 마님.”

“아, 아니야 메리. 내가 더 미안하구나.”

자해라니.

이건 나도 좀 놀랐다.

한밤 중의 자살 시도가 마냥 충동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거 뭐 인생역전 판타지물인 줄 알았는데 원작이 하드코어 스릴러물이구먼.

신분세탁이 쉽진 않겠어.

하지만 다행히 아직 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었다.

“루시, 메리. 둘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사과와 고마움의 표시로 말이야.”

짝짝! 레아~

척하면 척, 내 손짓을 보고 레아가 테이블 아래 놓여있던 피크닉 박스에서 포장된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내가 레아에게 미리 준비시킨 뇌물, 일종의 봉투와 같은 개념이었다.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현금 아닌가.

직접 현금을 주기는 좀 뭐하니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중급의 보석을 상자에 넣어 준비했다.

“받아주겠니?”

상자를 열어 그녀들에게 들이밀며 안에 든 보석을 보여주었다.

“이, 이걸 저희한테 주신다고요?”

“그래, 루시. 이걸로 모든 게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성의란다.

둘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거니?”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너무 비싼 물건이라... 감사합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너무 예뻐요. 저는 태어나서 진주는 처음 봅니다.

이게 동방의 눈물이라는 보석 맞죠? 세상에... 어쩜...”

역시 종목 선택이 탁월했다.

쭈꿀대던 메리의 말문마저 속사포로 트이는 걸 보니.

매년 공작가 안주인에게 배정되는 예산으로 받은 보석이라는 데,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나가질 않았으니 3년 치가 그대로 쌓여 액수가 어마어마했다.

다행이었다. 불시에 꺼내 쓸 수 있는 거액의 통장 하나가 생긴 기분이었다.

레아 말로는 내가 준비한 보석은 공작가 하녀들의 3년 치 연봉이라고 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인데.

너희가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마님, 말씀만 하세요.”

“네, 마님. 저도요.”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걸 사과하고 싶은데. 너희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어때? 사람들이 내 사과를 받아줄까?”

그래, 맞아. 마음이 담긴 사과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준다는 소리란다.

왜냐고?

난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않는 진정한 갑이니까.

내 말에 두 하녀의 반응이 무척 격했다.

다들 감격할 거라며 세상에, 세상에를 연신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오늘의 내 계획은 완벽히 실행되었다.

신분 세탁의 첫 걸음, 성공적!

내가 루시와 메리 이 둘을 살살 달래가며 이처럼 공을 들인 건 단순히 그녀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보다 더 큰 그림이 있어서였다.

요 며칠 간 몸을 회복하며 대충 전후 사정과 이 몸을 둘러싼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공작성에는 자신들의 안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작부인에 대한 반감을 품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과연 어느 정도냐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그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였다.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며 묻고, 사과하고, 변명하는 건 너무나 번거롭고 피곤한 일일 터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와 가까이 대면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하녀 일곱. 그들의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공작성 내 여론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때마침 오늘 그 일곱 중에 둘을 만나게 된 거고.

이 둘을 물꼬삼아 나머지 전측시들의 마음까지 풀 수 있다면, 그 이후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험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뭐래? 알지도 못하면서. 봤어? 니들이 직접 봤냐고?”

소문에 편승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따위, 정작 당사자가 그들에게 큰소리로 반박한다면 매가리 없이 쭈그러들게 뻔했다.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 내친 김에 부채질까지 시도했다.

보석을 소중히 쥐고 있던 루시와 메리에게 훈훈한 마무리 멘트와 함께 오늘 하루 휴가를 주며 돌려보낸 게 그것이었다.

어서 가서 소문을 내란 뜻이었다.

파랑새들아 어서 가서 내 근황을 알리렴.

“마님, 그럼 이제 별채 하인들을 불러올까요?”

“응? 하인들?”

“네. 아직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어찌할까요?”

아, 그렇지. 거저 다 어쩌나.

원래 오늘은 본격적인 신분세탁 활동에 앞서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으로 피크닉 겸 별채 하인들과의 다과회를 가져볼 생각이었다.

싱그러운 정원에 푸짐하게 차려진 다과들로 분위기를 훈훈하게 조성한 다음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 중에 혹시 이 몸과 껄끄러운 관계의 하인이라도 있으면 위자료도 주면서 인심도 좀 얻고.

물론 공작부인씩이나 되어서 하인들과의 다과회가 웬 말이냐며 씹어대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에 가지고 있는 평판이 바닥인 이 몸에게는 공작성 내 다수를 차지하는 하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

그래서 일부러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하라 한 건데 뜻하지 않게 별채 하인들 대신에 전 측근시녀 두 명과 먼저 다과회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녀들은 음식들에 손도 대지 않고 보석만 손에 소중히 쥔 채 돌아갔지만.

“레아,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리고 놀자!”

어쩐지 지금 별채 하인들을 추가로 불러들이는 건 썩 내키지가 않았다.

공작부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일단 오늘은 큰 건 하나 해냈으니 좀 놀아도 되지 뭐, 안 그래?

새로 얻은 소중한 삶인데 그걸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머리를 쥐어짜내기만 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과 같았다.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오늘은 먹고 놀기 딱 좋은 날씨였다.

“먹는 데까지 실컷 먹고 남으면 도로 싸가던지, 아니면 별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뭐 호호.”

“기억을 잃고 얻은 게 하나 더 있었군.”

엄마야 깜짝이야.

어라? 남편 씨?

늘 상 바쁘다던 양반이 대낮부터 여긴 웬일이래?

“언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왔냐니. 내가 못 올 데를 온 듯이 묻는군.”

하아, 남편 놈아 또 시작이냐?

아니 뭐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요.

... 그런데 이 남자, 묘하게 말이 많아졌네.

처음 봤을 때는 자꾸만 나한테 말하라더니.

“시비 걸려는 거면 그냥 가시고, 심심하신 거면 초대한 걸로 칠 테니 그만하고 앉아 이 샌드위치나 드시죠.”

“뭘 얻었다고 하는지 안 묻나?”

응, 안 궁금해 하나도.

“레아야, 그쪽에 과일 좀.”

“그럼 당신이 벌인 일의 후폭풍이 어떤지는?”

응? 뭐라고? 내가 벌인 일?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긴 얼굴이군.”

“그게 무슨 말이죠? 후폭풍이라니요?”

“뭘 얻었는지는?”

와 얘 진짜 집착... 내가 보기엔 이 남자도 치료가 필요했다.

“그래요, 제가 기억을 잃고 뭘 또 얻었다는 거죠?”

“웃음.”

“!”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군.”

아...진짜.

또다. 어젯밤 식당에서 느꼈던 그 자괴감.

‘웃음’이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살짝 입 꼬리를 올린 건 알고 있을까?

물론 그 말아 올린 각도가 웃음보다는 실소에 가까워 보이긴 했지만.

그 순간, 볕 좋은 3월의 봄날보다 이 남자가 더 눈부셔서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했다.

... 나 이 집착 쩌는 남자한테 심쿵 했다고!! 젠장.

나는 살면서 크게 놀란 적도, 격하게 화가 난 적도, 환하게 웃어 본 적도 없었다.

귀족들의 삶이란 다 그런 것이 아닌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전혀 놀랍지 않은 일에 박수를 치고, 협상의 우위를 위해 짐짓 화난 척 탁자를 치고.

그리고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 항상 여유 있는 척, 센 척, 박장대소를 했었지. 그게 적에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결코 지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저 여자가 그런 내 삶을, 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자꾸만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차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놀랐고, 분노했다.

또 그게 어이가 없어 실소도 지었다.

“레아,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리고 놀자!

먹는 데까지 실컷 먹고 남으면 도로 싸가던지, 아니면 별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뭐 호호.”

나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저 여자, 내 아내도 변하고 있었다.

“웃음.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군.”

“아, 됐고. 그래서 대체 뭐죠? 그 후폭풍이라는 게.”

금새 독 오른 고양이마냥 뾰족하게 구는군.

왠지 아쉬웠지만 이건 뭐 이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으니.

“방금 가신단 회의를 끝내고 오는 길이지.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에 열렸어야 했는데 당신 때문에 앞당겨진 거고.”

“왠지 저에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그럴 뻔했지만 최악은 피했지.

당신은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산책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공표됐어.

늦은 밤 산책에 호위로 동행을 했던 예르딘이 그걸 구한 거고.”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한 말이었는데 아내는 살짝 치켜뜬 눈을 찡그렸다.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아, 네 뭐. 그런 그렇다 치고.

그래서 최악을 피했다면 그다음, 차악은 뭔데요?”

“사고로 인한 기억소실, 그걸 알리자 당신과의 이혼이 거론됐지.

아마 당신이 이번엔 진짜 백치라도 된 줄 알았던 모양이야.”

“네? 이혼이요?”

높아지는 목소리와 다시 치켜뜬 눈꼬리를 보니 놀란 건 확실한데 싫어서 놀란 건지 단순히 뜻밖이라 놀란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상대방의 의중을 눈썹의 움직임 하나로도 꿰뚫는 나인데.

아내의 표정은 답이 서질 않았다.

역시 이상해. 아니 이상한 건 나지.

아내는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게 확실했다.

“흠 이혼... 이혼이라... 그래서 당신은 동의했나요?”

“설마. 난 아직 당신에게 들어야 할 말이 많이 남았어.

그런데 이혼이라니.”

“그놈의 들어야 할 말 타령은. 지난번에 안 듣는 걸로 마무리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남자가 말을 이랬다저랬다 바꾸고 그래요? 멋짐 다 떨어지게.”

“뭐가 떨어진다고? 내가... ”

“아, 됐고. 그래서 이혼 이야기는 그냥 쑥 들어간 건가요?”

제국의 황제조차도 내가 말하는 중에 그걸 끊고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대체 무엇이 이 여자의 간을 이처럼 끝도 없이 키웠을까.

사고 이전에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제 발등만 쳐다보는 여자였다.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각했다.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했는데, 빈말이 아니라 정말 휘겐을 보내서 저 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봐야겠다.

“그 회의의 참석자들은 공작가를 위해 대대로 헌신해온 이들이고 그런 만큼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타협점을 찾았지.”

“그 타협점이 뭔데요?”

“1년 안에 후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혼을 유예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이었어.”

“후계를 세운다고요? 후계가 어디 있는데요?”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 예? 뭘 만들어요?”

처음이었다. 사고 이후의 아내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저건... 그래, 마치 어제 내가 식당에서 지었던 그 얼빠진 표정과 비슷했다.

간밤에 내 잠을 설치게 한 대가를 조금이나마 받아낸 것 같아 제법 흡족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 테레지아 후작가의 영애로 돌아간 것은 아니야.

여전히 나 칼리안 아스트리드의 아내고 우리에겐 지난 3년 동안 노력해왔던 걸 계속 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어.”

아내의 얼빠진 표정을 더 보고 싶어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었다.

귀족으로 태어나 가문의 수장이 된 이상, 꼭 해내야 하는 일이었다.

앞으로 방심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을 것이다.

중대한 비즈니스를 망치는 일은 한 번...

그래, 한 번이면 족했다.

아니, 지금 얘가 뭐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응? 나랑 지금 그거 하자는 거지?

진짜? 나랑 하고 싶다고?

아니, 해야 한다고?

...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츄에이션인데.

사실 내가 남편 씨에게 지금껏 막 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나에 대해서 단 1%의 관심도 가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략결혼이 아니었다면 둘이 청실홍실 맺는 게 가능이나 할 법한 비주얼이냐고.

격차도 어느 정도라야 비비고 들어가지.

그래서 거울로 내 몰골을 본 순간 딱!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거였는데.

그냥 러브(Love)가 어렵다면 피스(Peace)라도 쟁취해서 편안한 일생을 보장받아야겠다, 뭐 그 정도 설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동했었다.

하지만... 이거 아무래도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의무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니 일단 좀 제쳐두도록 하고. 아까 초대한 셈 친다더니 왜 내 앞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게스트를 대하는 호스트의 자세가 무척 불량하군.

호스트로서의 교양은... 잃은 건가, 아니면 원래 없던 건가?”

남편 씨의 말에 레아가 화들짝 놀라 내 쪽에 가까이 있던 샌드위치 접시를 옮겨주려 했지만 남편 씨가 손사래를 쳤다.

찾을 땐 언제고.

너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시비 걸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 잃은 거, 얻은 거 타령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기사라도 내지 그래요?

아 참, 기사 따위 안 내도 이 공작성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당신이 나한테 3년 동안 무관심했던 거.”

“정곡을 찌르는 말기술은 당신 아버지를 닮았군.

물론 후작은 차갑고 당신은 뜨겁다는 큰 차이가 있지만 말이야.”

“... ”

아니, 갑자기 아버지 얘기로 훅 들어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뭘 알아야 하지. 그게 동감이든 반박이든.

아무래도 조만간 레아와 둘이 있을 때 좀 공부해 둬야겠다.

로즐린의 가족사에 대해서.

“아, 당신도 당신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했군.

그럼 화제를 전환해보지. 뭐가 좋을까?”

“... 그런데 오늘은 한가하신가 봐요.

3년 내내 일이 바빠서 저를 한 달에 딱 두 번밖에 찾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무관심해서 사단이 났으니 이젠 좀 바꿔보려고.

그러니 당신도 협조 좀 하는 게 어때?”

어제 귀 빨개지는 거 보고 고지식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 오판인 것 같다.

그때는 당황한 게 아니라 열 받은 거였나?

이제 보니 남편 씨, 직진력이 장난 아니었다.

아주 내게 오는 길이 8차선 고속도로인 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들이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나와 같은 찻잔을 들어 허브차를 마시고 있는 남편 씨.

나와 눈이 마주치자 예의 그 수려한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리며 찻잔도 함께 들어 올렸다. 마치 나에게 함께 하자는 건배의 제스처처럼.

그 모습이 좀 짠해 보였다.

당신 진짜 부인은 죽었어라고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저 남자는 슬퍼할까? 아니면 분노할까?

내가 보낸 시선을 무언의 재촉으로 생각했던지, 음미하듯 머금었던 찻물을 삼킨 남편 씨가 곧장 입을 열었다.

“곧 장미의 계절이군.”

“... ”

뭐, 이젠 집착남에서 꽃을 든 남자니?

하긴. 복잡 미묘한 내 속을 댁이 알 리가 없겠지.

왠지 모를 찜찜함에 더해 남편 씨의 화제 전환용 소재가 썩 내키지 않아 나도 모르게 표정이 시큰둥해졌다.

“왜 그런 표정이지?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나?

꽤 고심해서 전환한 화젯거리인데 말이야.”

“아뇨, 그냥 좀 어울리지 않는다 싶어서.”

사실 비주얼적인 면에서 보자면 설령 만개한 꽃이 바로 옆에 있다 해도 남편 씨 쪽으로 눈이 더 쏠리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

어디 꽃 따위가 감히!

... 뭐 그 정도?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다.

왜 사람의 자격지심이라는 게 자기한테 유독 부족한 부분에서 폭발하지 않는가.

마치 지금처럼.

“방금 당신이 그 말 할 때의 시선, 꽤 흔들린 건 알고 있나?

보통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할 때 흔히 하는 실수지.”

“어유, 네네 그래요.

제가 좀 솔직하지 못했죠?

아까 했던 말, 다시 정정할게요.

사실은 당신 참~ 꽃 같아요!”

그래, 너 꽃 같은 놈이야.

진짜 꽃 같다고!

“뭔가 굉장히... 어감이 불량하군.”

“어머, 제가요? 설마요.

정말 당신이 꽃. 같. 이. 눈부셔서 잠시 질투했을 뿐이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뭐 딱히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도 그리 나쁘지 않아.”

어이쿠, 나쁘지 않다니 그것참 고맙수다.

“그런데 장미를 좋아하시나 봐요?”

“4월 중순이 되면 이곳에 장미가 피기 시작하지. 저기 입구부터 여기 중앙까지.

어머니가 생전에 장미를 좋아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정원을 만드셨다고 하더군.

하지만 딱히 내 취향은 아니야.”

“선대 공작전하께서는 로맨티스트셨군요. 부인을 위해서 정원도 만드시고.

보통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그런데 넌 어째 그러냐 하는 눈빛을 보내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3월의 볕치고는 꽤나 강렬해서 목을 축이며 말해도 금세 목이 말라왔다.

“정원을 만든 건 인부들과 정원사들이지, 아버지는 그저 돈만 대신 거고.

그게 로맨틱한 건가?

원한다면 당신도 하나 만들어주지.”

“아뇨,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꽃 싫어하는 여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정원을 받는 건 좀 다른 얘기 같거든요.

특히 우리 사이에는 말이죠.”

내 전 남친, 아니 전 남친 이라고 하기도 뭐하네. 옛날 남친 이라고 해야 하나?

죽기 직전의 마지막 연애가 무려 7년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깜짝 선물이라며 그 자식이 장미꽃 100송이를 사서 내게 안겼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저녁 먹는 내내 그 꽃을 15만 원이나 주고 산거라며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저녁 메뉴가 파스타였는데 면발을 말던 포크로 그 남친 놈의 주둥이를 찍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그리곤 그 날로 바이바이, 디 엔드.

물론 그날 저녁 값은 내가 계산했다.

왜냐고?

얻어먹는 거지근성, 먹튀 등등.

혹여나 고아 출신이라 그런가보다 라는 말이 나올까봐 그랬다.

그것 역시 자격지심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씨가 나에게 주려는 것들, 그 안에 담긴 게 단순한 의무감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라면 나는 맘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이 몸을 차지한 죄책감 따위가 아니었다.

남편 씨의 관심이 과거 아내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후 달라진 지금의 나를 향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였다.

“우리 사이라...

확실히 어렵군. 당신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거.”

남편 씨의 말을 끝으로 찾아온 침묵.

간간이 들려오는 정오의 새 소리만이 테이블 사이의 적막함을 메꿔 주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화제 전환을 시도해 봐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레아의 목소리였다.

“전하, 마님.

알베르님과 하이어 남작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한 50m쯤 전방에 알베르와 하이어 남작이라 불린 남자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의 절반쯤이 줄어들자 고급진 본부장님 포스의 알베르와 함께 걸어오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이태리에서는 거지도 꽃미남이라던데 여기도 그런 건가?

뭐가 이리 죄다 잘생겼데, 현실감 없게.

어느새 테이블 앞까지 다다른 두 사람은 남편 씨와 나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

“공작전하와 마님을 뵈옵니다.

마님께서는 밤 새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보다 안색이 한결 더 좋아 보이십니다.”

“어젯밤 꿀ㅈ, 아니 숙면을 취해서 그런 가 봐요.

알베르는 오늘도 여전히 멋지군요. 그 보타이 무척 잘 어울려요.”

“칭찬 감사드립니다, 마님.”

에이, 아쉽다.

오늘은 당황하지 않으시는 우리 집사님.

아무래도 변한 내 모습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혹시 저와 안면이 있는 분인가요?”

“그 날 호수에서 당신을 구한 기사지. 앞으로 당신의 호위를 맡게 될 거야.

예르딘, 정식으로 인사하지.”

“예, 전하.

안녕하십니까? 마님, 신 예르딘 하이어입니다.

앞으로 외부 활동 시 마님의 호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저음의 담백한 목소리.

절도 있게 고개 숙여 인사해오는 하이어 남작에게 나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기사라고 하더니 과연 어깨라인이 남편 씨에게 뒤지지 않았다.

게다가 검은 머리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색이 그야말로 꿀 조합!

딱 잘생긴 스포츠 스타 같은 느낌이었다.

꽃 같은 재벌 남편과 국가대표 훈남에 대기업 본부장님까지.

이런 조합의 피크닉이라면 그 곳이 산 꼭대기라 해도 올라갈 여자들이 수두룩 하겠지.

세 남자에게 둘러싸여 곱게 앉아있는 이 순간, 내가 박서연이 아니라 로즐린 아스트리드라는 게 절실히 실감이 났다.

“이 분이 제 호위를 하시면 원래 호위하셨던 분은요?

아, 혹시 호위가 따로 없었나요?”

“설마. 아무리 내가 당신에게 무관심이었다고 해도 공작가의 안주인에게 호위기사가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다만 그 기사가 멋대로 자리를 비우는 불상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더군.”

“죄송합니다 전하.

제 불찰입니다.”

“아니. 부단장이라고 해서 기사단의 모든 기사를 컨트롤 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 부분은 에두와르에게 맡겼으니 예르딘 그대는 이제 내 아내의 호위에만 신경 쓰도록.

이번과 같은 일, 두 번은 용납 못 해.”

어머머. 이게 어떻게 얻은 새 삶인데!

남편 씨, 그런 쓰잘때기 없는 걱정일랑 고이 접어두시죠.

다시 태어난 저의 꿈이 바로 호가호위에 무병장수랍니다.

“걱정마세요. 그 두 번째라는 거, 절대 일어날 리 없을 테니.

그럼 예르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소중한 나의 생명보험 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소를 보냈다.

응? 그런데 왜 다들 표정이 저래?

일순간 정적, 그리고 모두의 움찔.

뭔지 정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는 데 분위기가 묘했다.

내가 뭐 말실수라도 했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님.”

“... 볕이 점점 뜨거워지는 데 이만 자리를 파하시지요.

아무래도 기억을 잃으셔서... 크흠.

몸을 회복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 그게 좋겠어. 내 본성으로 가면 휘겐을 보내지.”

얼레? 이대로 집에 들어가라고?

나 지금 완전 괜찮은데?

저기요?

그렇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듯 순식간에 피크닉 자리가 마무리돼버렸다.

덕분에 레아가 애써 준비한 음식을 포함해 주사위나 체스 등의 놀 거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침실로 돌아와야 했고.

... 대체 뭐지? 이 부지불식간에 정리당한 느낌은.

“레아, 조금 전에 말이야.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니?

마지막에 뭔가 분위기가 묘했는데 말이야.”

“마님께서 하이어 남작님의 퍼스트 네임을 부르셨으니 그렇죠.”

응? 이건 무슨 소리?

그게 뭐 어쨌다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채, 내가 의문의 눈빛을 보내자 레아가 답했다.

“보통 귀족가의 여인들은 외간남자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지 않는답니다.

특히 남편이 있는 부인들의 경우는 더 하지요.

가장 개방적이라는 수도에서조차 귀족가의 영애가 처음 본 남자의 퍼스트네임을 부르면 당돌하다는 말을 듣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처음 본 남자를 이름으로 부르면 막 들이대는 적극적인 신여성, 혹은 끼 부리는 유부녀.

뭐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래층으로 이사 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어머, 김 씨.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 이게 이 세계의 예의 규범이란 말이지?

“아니, 그럼 알베르 집사는 왜 다들 아무렇지 않게 퍼스트네임으로 부르는 거야?”

“알베르님은 집사시잖아요.”

와,... 집사는 뭐 남자도 아니냐?

기준이 참 엿장수 마음대로네.

아무래도 이곳에서 공작부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았다.

“레아, 아까 너도 들었지?

나와 전하의 이혼을 유예하는 조건.”

“... 네에.”

이어진 내 질문에 레아가 볼을 붉히며 말끝을 늘여 답했다.

알아, 갑자기 나도 좀 민망하긴 한데 어쩌겠니.

기존 설계도를 수정하려면 현장조사는 필수라서 그래.

“혹시 말이야, 내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음...

그러니까 보통의 이혼한 귀족 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니?

너 혹시 아는 부인 이야기 없어?”

“네?! 마님, 이혼이라니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벌써부터 그 무슨 걱정이세요.

공작전하시라면 1년 안에 충분히 해내실 테니 그런 말씀은 마세요.”

응? 난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데?

단지 만약을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호오, 그런데 레아 요거요거 측근시녀라더니 진짜 볼꼴 못 볼 꼴 다 본 모양이네.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을 하네.

뭐... 굳이 충분하다는 데 나쁠 거야 없지만.

“아니, 레아야 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궁금할 뿐이야.

사실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당연하지. 결혼도 못해본 처자에게 이혼이 웬 말이냐.

“게다가 난 이곳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까 그 기사의 퍼스트네임을 부른 것도 그렇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어보이자 레아가 위로 섞인 어투로 답을 했다.

“마님, 그런 사소한 것들은 금방 익히실 수 있으니 너무 심려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귀족부인들의 이야기는 딱히 드릴 것도 없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은 이혼한 귀족은 없었거든요.”

“정말? 몇 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예, 별거 중인 귀족들은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혼까지 간 경우는 없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혼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제 폐하의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

내가 이혼하는 데 왜 나라님의 결재를 받아야 해?

“대부분의 귀족들이 연애결혼보다는 정략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얽힌 것도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마련이죠.

이혼하더라도 누구의 귀책인지, 추후 어떻게 그 관계들을 정리할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어떤 결론이 나든 뒤탈 없이 단박에 정리시킬 수 있는 건 황제폐하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치세력 간의 분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황제가 이혼조정을 담당한다 이 말이네. 그래서 웬만하면 귀족들이 이혼하지 않으려는 거고.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없다고 했으니 그 이전엔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부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니?”

“... 안 계십니다.”

“응?”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어익후야. 이건 또 뭔 장르니.

서스펜스 스릴러니?

“많은 것들을 망치면서까지 이혼한 딸을 받아주는 친정은 없으니까요.

귀족가의 수치라고들 여깁니다.

운이 좋아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곱게 자란 귀족가의 부인이 발붙일 곳 없는 상태에서 홀로 살아가기란 요원한 일이죠.

그러니 마님께서는 혹여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순둥순둥 하던 레아가 단호박 같이 잘라 말하는 걸 보니 이곳에서 이혼녀의 삶이란 정말 최악인 듯 했다.

이걸 어찌한다.

나 그럼 남편 씨랑 영락없이 그거 해야만 하는 상황인건가?

뭐 실전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후계자 만들기 자체에 딱히 거부감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았다. 솔직히 누가 봐도 남편 씨는 꽃같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돈도 많은 완벽남이니까.

하지만 기왕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거, 기성품이 아니라 나만의 맞춤제작을 하고 싶어졌다.

내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 씨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나인 게 확실했다.

틱틱대면서도 끊임없이 나와 대화했고, 나중에는 그걸 은근히 즐기는 것도 같았다.

그 원인이 전 부인에 대한 연민인지 나에 대한 호기심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뭐가 됐든 일단은 내게 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었다.

“레아, 여기서 본성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걸어서는 20분, 마차를 타면 10분이 채 안 걸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찌... 아, 혹시 본성의 처소로 돌아가시려고요?”

“아니, 작업 들어가려고.”

“예? 그게 무슨... ”

김 씨, 이 씨 말고.

남편 씨에게 들이대는 건 괜찮은 거잖아. 그치?

나 아무래도 꽃 같은 그자에게 연애작업 들어가야겠다 레아야.

"마님, 이 사파이어는 어떠세요? "

"아니, 거기 아래쪽에 있는 흑진주가 더 좋겠어.

자, 어떠니? "

"어쩜, 너무너무 우아하세요, 마님. "

"그래, 뭐 나쁘지 않네. "

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도 거른 채, 때 빼고 광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아에게는 샘물 쌤 정도의 메이크업 스킬이 없었고, 나에게는 미모가 없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고급지게 차려입고 우아한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였는데 벼락치기 연습이었지만 다행히 효과가 꽤 좋았다.

느슨하게 틀어 올린 물빛의 푸른 머리와 목덜미를 감싸는 단아한 그레이 톤의 실크드레스, 마지막으로 창백한 피부를 커버해주는 선명한 흑진주 귀걸이까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레아의 말마따나 우아한 귀족부인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판을 흔들 수 있을까?

그 꽃 같은 자는 좀 더 도발적인 스타일을 선호할 것 같은데.

“레아, 공작전하께서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니?

음, 그러니까 혹시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거나...”

“어머 마님,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혼인한 귀족이 후계를 세우기 전에 정실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건 귀족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인데 그런 걸 전하께서 하실 리가 없죠.”

“그럼 후계를 세운 뒤에는 괜찮고?”

“그렇긴 한데... 공작전하께서는 여색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님과의 혼인 전에도 정식으로 교제했던 여성분은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마님께서는 후일의 걱정은 접어두시고 온전히 후계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왠지 후계 만들기에 나보다 더 파이팅이 넘치는 레아였다.

그런데 레아야, 내 목표는 후계를 세워서 이혼을 막는 것, 그게 다가 아니거든.

하나 낳고 땡이 아니라 둘에 더해 셋.

그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 곁에서 늙어가는 것, 그게 내 새로운 설계도란다.

그러니까 가자! 꽃 같은 남편 씨한테 연애작업 치러.

“아침 식사를 거르셨다기에 밀크 티와 스콘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알베르. 그런데 전하께서는 언제쯤 오시나요?”

“곧 오전 회의가 끝날 시간이니 차를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 뵐 수 있으실 겁니다.”

빈약한 가슴 라인을 커버하려고 코르셋을 죽기 직전까지 바짝 조였다.

그래서 당연히 아침은 거른 거고.

하지만 그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떤 보람도 없이 남편 씨는 회의하러 가고 없단다.

짠! 하고 방문해 깜짝 놀라는 남편 씨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본성 하인들을 놀래키는데 그치고 말았다.

“예르딘 경도 앉아서 함께 들어요.”

“괜찮습니다, 마님.”

흐음, 기사라서 그런가?

믿음직스러운 감은 있어 뵈는데 사람이 너무 진중해서 재미가 없었다.

기왕 호칭 실수한 거 빨리 친해지자는 차원에서 그냥 그의 이름 뒤에 경을 붙여 부르기로 합의 볼 때도 어찌나 고지식하게 굴던지.

생명의 은인이니 친근하게 느껴진다며 첨언하지 않았다면 절대 호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터였다.

조여진 배에 무리가 가지 않게 고소한 스콘을 작게 한 입 베어 물고 소파에 등을 기대 주위를 둘러보았다.

출입구를 뺀 삼면의 벽이 모두 책장이었는데 천장까지 뻗어있는 책장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책들로 빽빽했다.

“여긴 마치 도서관 같네요. 전하께서 책을 좋아하시나보죠?”

“예, 주로 여가 시간을 독서로 보내십니다.

전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하시는 것이 도서 구입과 신진 작가들에 대한 후원이시죠.”

오호라, 우리 남편 씨가 문화예술에 대한 취미가 있었구나.

술, 도박, 친구, 여자.

이런 데 미치면 약도 없는데, 독서가 유일한 취미라니. 좋아, 아주 좋아.

그뤠잇! 도장 쾅쾅!

“그러면 주로 여가 시간은 언제 즐기시는 거죠? 항상 바빠 보이시던데.”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시는 게 다반사였지만 최근 가신들의 만류가 있은 후에는 자제하시는 편이십니다.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일정 없이 독서를 즐기시지요.”

“가신들의 만류요?”

고용주의 이혼도 추진 해, 심야 근로시간까지 신경 써.

아주 직원들이 열일을 하시는구먼.

“그 치들이 어디 내 건강을 신경 써서 그랬을까?

후계를 세우기도 전에 내가 과로사 해서 가문의 대가 끊길까 걱정한 거겠지.”

어머, 꽃 같은 우리 남편 씨 오셨네.

“오셨어요?”

채 서서 맞이하기도 전에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남편 씨는 내 맞은 편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어째 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꽃 같니.

3월이라 만개 시즌인가?

눈은 호강에 겨웠지만 아침부터 애써 꾸미고 온 의미가 퇴색되는 게 속이 좀 쓰렸다.

“집무실에서 당신을 보게 되다니. 정말 우리 사이가 변하긴 많이 변했군.”

“긍정의 의미인거죠?”

“물론. 그런데 어쩐 일이지? 본성으로 거처를 옮기려는 건가?

나는 당분간은 그 곳에 머무르는 게 당신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요?”

“이곳은 입이 너무 많거든.

잃어버린 기억을 정리하고 적응할 때 까지는 인적이 적은 별채가 나을 거라 생각했어. 물론 당신이 원한다는 전제하에.”

호오.

그뤠잇한 취미생활에 이어 은근한 배려심까지.

연애작업 걸려고 마음먹고 봐서 그런가, 처음엔 까칠하고 냉담한 남자인줄로만 알았는데 예상 밖의 매력이 뿜뿜이다.

“거처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볼게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일?”

“... ”

뭐라고 말을 꺼낼까?

숨을 고르며 침을 한 차례 삼킬 때였다.

“이만 물러가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편히 말씀 나누십시오.”

역시 알베르!

눈치 빠른 우리의 집사님이 차 시중을 들던 레아와 멀뚱히 내 뒤를 지키고 서 있던 예르딘 경을 데리고 방 밖으로 물러났다.

서재 정 중앙에 놓인 클래식한 소파에는 이제 남편 씨와 나 단 둘뿐이었다.

준비한 말을 꺼내기에 더 없이 적합한 분위기.

소파 테이블에 놓인 찻잔을 들어 반쯤 식어버린 밀크티로 마른 입안을 적셨다.

그러자 잠시간의 침묵이 답답했던지 남편 씨가 내게 재차 물어왔다.

“더 중요한 일이란 게 뭐지?”

지금 내가 꺼내려는 말이 과연 이 남자가 짠 판을 흔들 수 있을까?

"있잖아요..."

"?"

"당신 나랑 사랑해 볼 생각은 없어요?”

“... 뭘 해?”

“나랑 후계 세우기 말고 사랑해 볼 생각은 없냐고요.”

말을 잠시 멈추고 남편 씨의 표정을 살폈다.

짙고 수려한 눈썹 사이 미간에 일순간 주름이 모였다 흩어졌지만, 그 외에 부정적인 제스처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호기심이 생긴 듯, 내가 말을 계속 이어가길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래서 질렀다.

“사실 당신 계획은 너무 맥락이 없어요.

난 기억을 잃었고, 당신은 그동안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 전부 다 건너뛰고 그 일부터 하자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편 씨.

우리 속도감 있게 가는 건 좋지만 끊어진 다리 위로 점프는 하지 맙시다.

안전하게 다리 잇는 공사부터 좀 하고, 그리고 직진하자고요.

콜?

“... 이런 제안은 처음이라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제안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당신과 연애하고 싶다는.”

남편 씨 귀를 유심히 봤는데 색깔의 변화가 딱히 없었다.

그럼 당황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라는 건데.

나름 회심의 멘트였는데, 내 작업이 영 안 먹히는 건가?

“내가 말했죠? 같은 사고, 두 번째는 없을 거라고.

기억을 잃기 전의 내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기억을 잃은 지금의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그런 내게 당신이 말했죠. 우리가 공작부부로서 함께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과 내가 계속 해오던 거고.”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통상적인 부부관계에 적절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하려던 거 아닌가요?”

“당신이 생각해낸 그 관계개선의 방법이 연애라는 건가?”

“정확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이야. 연애라는 건 미혼의 남녀 사이에 성립되는 거고.”

하, 나 이런 연애 고자를 봤나.

그러니까 딥 한 몸의 교류 말고 말랑말랑 감정의 교류부터 하자는 거잖아!!

매력지수 –1이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결혼했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관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혼 하자는 말을 돌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우린 서로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간단한 것 조차도요.

그저 관계의 공식명칭이 부부일 뿐이죠.

이런 상태로 아이를 가지는 건 우리 둘 모두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자기소개라도 하면 되나?”

“그것도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죠.”

“우리 이혼의 유예기간은 1년이야.

예전만큼 뜸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바쁠 거고, 그만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란 소리지.

그런데도 그 ‘연애’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 지금 너랑 내가 공작가문 경제개발 1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 같니?

사랑에 연애까지 나왔는데 효율은 얼어 죽을 무슨 효율 타령이냐 이 남편 놈아!!

소파에 나른하게 기대 꼰 다리 너머 효율 운운하는 저 놈의 주둥이를 한 대 쳐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으로 본능을 꾹꾹 눌러 겨우겨우 다잡았다.

아무래도 감성 심쿵 멘트로 남편 놈의 판을 흔들기는 역부족인 듯 했다.

아... 진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해왔다는 그 의무, 혹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긴.

대충 눈치 챘으면서.

“당신과 내가 함께 했다던 그 의무, 난 그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좋았는지 별로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았다면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한 달에 두 번씩 3년간. 당신이 날 찾을 때마다 일이 성사됐다고 치면 대략 72번. 결코 적지 않죠.

게다가 내가 이곳에 와서 일상을 공유했던 사람은 레아 외에 당신뿐이었는데 말이죠.

내 생각엔 아무래도 당신과의 관계가 내가 일으킨 사고의 원인일 것 같은데요.

그게 당신의 무관심 때문이든, 아니면 함께 했던 그 ‘의무”때문이든.”

이 말을 꺼내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남편 씨의 반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자니 솔직히 심장이 쫄렸다.

소파에 기댔던 상체를 곧추세우고 입매를 굳힌 채 험악한 눈빛을 쏘아대는데...

마치 내가 여자만 아니었다면 한 대 칠 분위기였다.

저기 남편 씨, 그런 말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폭력은 꽃으로 해도 아프답니다.

어제 정원에서 본 건 독 오른 고양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고양이가 되어서 제발로 날 찾아왔다.

로즐린 아스트리드.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어디까지 흔들 셈인지.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

단언컨데 없었다. 단 한 명도.

뻔히 아는 이야기도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때문에 난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대체로 권태로웠고 가끔씩 짜증도 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기억을 잃은 아내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말이 내 평정심을 완전히 짓뭉개버렸다.

“난 거부하는 여자를 억지로 취하는 쓰레기가 아니야.

기억을 잃었다는 걸로 모든 게 용서된다는 착각은 말았으면 좋겠군.”

“그럼 그때 우리 좋았나요?”

“... ”

되물어오는 말에 대꾸 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의 밤은 내 기억 속에 그다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좋았다거나 혹은 별로였다거나 그런 평가를 내리기엔 적절치 않았다.

그건 말 그대로 그저‘의무’였으니까.

특별한 동의의 신호도, 거부의 몸짓도 없이 규칙적으로 치러졌을 뿐이었다.

“...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였을 뿐이야.”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이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시작은 도발적인 고양이였다가 어느 순간 미친 고양이가 되어 내 평정심을 깨부수더니, 이젠 가련한 고양이인가?

아내는 그에게 무척 다방면의 첫 경험들을 선사하고 있었다.

“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 뭘?”

“아, 여기서의 주어는 결혼, 우리 결혼생활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맞춰보자고요 연애부터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더해서 서로 즐길 수 있도록, 어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

“그러면 그 연애라는 거, 뭐부터 해야 하지?”

"데이트!”

"데이트? “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가끔은 나들이도 가고.

이것저것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

“그제 우리가 함께했던 저녁식사가 그럼 데이트였나?”

“뭐... 제목은 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줄거리가 별로였죠, 그때는.”

“솔직히 말하지.

난 연애라는 거에 별로 흥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어.

당신과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들과도 딱히 감정의 교류 따위는 없었고.

아니, 그런 교류를 여자들이 바라는 순간 관계의 끝을 냈지. 귀찮았거든.”

“귀찮았다고요?”

“자꾸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려 드는 게 무척 성가셨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비논리적인 기대 따위가 머리 아프기도 했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천천히 맞춰 보자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왜 그런 표정이지?”

“아무래도 후계 세우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쉽지 않아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러니 해 보자고. 그 데이트란 거.”

이걸로 당신이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 협조하지.

그런 기분 더러운 경험은 한 번이면 족하니까 말이야.

뭐? 귀찮았어?

연애작업 걸던 여자들이 성가셨다고?

그 꽃 같은 얼굴로 말하니까 재수는 없어도 심하게 수긍은 간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웬만한 남자들이라면 제 이름만 들어도 후달리게 만들 그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연애 한번을 안 했다니.

그것도 무려 귀찮다는 이유로.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귀차니즘을 어떻게 타파하고 진도를 빼나 걱정이 앞섰지만 남편 씨의 말마따나 이건 쉽지 않아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일단 들이대 보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개뿔, 1일은 무슨.

“레아, 그래서 대체 언제쯤 오신다던?”

“오늘도 일정이 바쁘셔서 저녁에나 시간이 나신다고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다면 9시에나 가능하시다고...

어찌할까요? 오늘도 거절의 답을 보낼까요?”

내가 확실히 기억한다, 남편 놈의 멘트.

‘쉽지 않아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러니 해 보자고. 그 데이트란 거.’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해 보자며 데이트!!

그런데 3일째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매번 전해오는 말이 일정이 바쁘시다?

그래도 바쁜 몸 알현하고 싶으면 9시까지 저녁 굶고 기다려라?

... 인도코끼리 코딱지 파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연애도 내가 먼저 걸었는데 첫 데이트 일정까지 내가 빌빌대면서 맞추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완전 갑을 관계가 될 판이었다.

밀땅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 시간이면 내가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하잖니. 뭐 전하께서 워낙에 바쁘시니 어쩔 수 없지. 식사는 다음에 하는 거로 하자고 전하렴.”

“네, 마님. 그리고 곧 있으면 케토톤 백작님께서 오실 시간입니다.”

“뭐? 벌써?”

아... 망할.

일어난 지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급작스럽게 졸음이 밀려왔다.

이게 다 케토톤 백작, 그 이름이 주는 효과였다.

그는 기억을 잃은 내게 귀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알려주기 위해 어제부터 배정된 일종의 과외 선생님이었다.

공작가 가신단의 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예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한 사람인데, 유유자적 노후 생활을 즐기던 중에 내 과외 선생님으로 초빙됐다고 했다.

그래, 앞으로 공작부인으로 성공하려면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케토톤 백작의 수업은 내가 예상했던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수업과는 아주, 매우,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있었다.

이곳 브란델 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대 황제의 업적, 고위 귀족들의 약력까지 줄줄이 쉬지 않고 뱉어내는데...

그랬다. 그야말로 뱉어내는 수준이었다.

이건 교양수업이 아니라 무슨 쇼미더머니 보는 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수업은 진정 지옥이 따로 없었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일장 연설에 내 동공은 갈 곳을 잃었고 멘탈은 바스라져갔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수업을 앞으로 매일, 한 달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망할 남편 놈은 내게 모욕감에 더불어 무력감까지 안겨줬다.

“그래서 영지 시찰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예, 에두와르 백작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짙은 고동색의 오크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층을 이루어 쌓여 있었는데, 그 서류의 주인인 칼리안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에 든 서류를 훑어보며 곁에 있는 알베르에게 다른 업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이었다.

“잘됐군. 어차피 인근 지역 분쟁도 잦아들었고 딱히 기사단에서 나설 일은 없으니 단장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

“예, 그러합니다. 저... 그런데 전하.”

항상 정돈된 어투만을 사용하던 알베르가 답지 않게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칼리안은 의아한 듯이 되물었다.

“왜? 아직 보고 할 게 남았나?”

“그것이 아니오라...

급한 것은 대충 처리가 된 듯싶은데 나머지는 가신들에게 맡기시고 별채에 들르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마님께서 계속 전하를 기다리시는 눈치셨습니다.”

“나를 기다려?

시종이 내게 들고 온 답과는 다르군.

아까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 청했는데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다는 답이 왔거든.”

‘어휴. 책 속에 작가가 숨겨놓은 행간은 잘도 이해하시면서 어찌...’

천직인 집사 일에 전념하느라 아직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는 알베르도 눈치 챈 걸 그의 명석한 주군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논리적이고 직감이 뛰어난 것과 연애센스란 것은 정말로 별개의 능력이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칼리안에게 직언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알베르뿐이었다.

“하지만 전하, 그것은 마님의 진심이 아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마님께서 본성에 오셔서 전하께 데이트를 제안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사실 로즐린이 칼리안에게 한 건 ‘제안’이 아니라 ‘고백’이었고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가벼운‘데이트’가 아니라 부부로서 나누는‘사랑’이었다.

하지만 식사 거절에 담긴 행간도 읽지 못하는 남자가 그런 세세하고 복잡 미묘한 단어의 온도 차를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전하께서 많이 바쁘셨다고는 하나, 그 날 이후 한 번도 별채로 먼저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고 소식 또한 서신으로 직접 써서 보내신 게 아니라 시종에게 전언을 남기신 거로 대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용기를 내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데 그에 대한 답신은커녕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셨으니 마님께서 무척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아까의 거절이 실은 거절이 아니란 소리군”

“예, 그러니 이만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별채로 갈 채비를 해 두겠습니다.”

알베르, 그는 주군의 연애사업까지 후원하는 진정 최고의 집사였다.

아...

산산이 부서진 멘탈이여

허공중에 흩어진 멘탈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런 남편노무시키!!

이 선생 네가 뽑은 거지?!!

두 시간 내내 같은 자세로 속사포처럼 뱉어내는 남편 놈의 업적.

꼬장꼬장한 생김새처럼 수업도 어찌나 가늘고 길게 하시는지.

쉴 틈 없이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에 나는 케토톤 백작에게 시선만 고정한 채 머릿속으로는 노래를 불렀다.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업적 같은 소린 모두 집어 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래, 비뚤어질 테다.

오늘 아주 제대로 비뚤어지고 말거라고!!

내가 이빨 말고 다른 데까지 날을 세우면 얼마나 어마 무시한 여자가 되는지 곧 보여주지.

남편 놈아 각오하는 게 좋을...?!

똑똑똑

“마님, 신 예르딘입니다.”

오오~ 역시 나의 수호기사!!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해주러 오셨군요.

“예르딘 경, 어서 들어오세요.

케토톤 백작님, 수업을 중단하게 되어 유감이에요.

하지만 예르딘 경이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면 수업 중간에 이렇게 문을 두드릴 분이 아니거든요. 잠시만 양해 좀.”

“...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어머, 그러시겠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호. 호. 호.”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내게 고개 인사를 한 케토톤 백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르딘과 교차하여 밖으로 퇴장했다.

프리덤!

나는 그렇게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백작이 나가자마자 수업 내내 썩어가는 표정을 참아내느라 경직됐던 안면 근육에는 환희의 미소가,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진 두 주먹은 굳어있던 무릎과 함께 무반주 훌라춤을 춰댔다.

그리고 극한의 고통에서 나를 구해준 영웅, 예르딘이 다가와 내게 고개를 숙여보였다.

“그래요, 예르딘 경 무슨 일이죠?”

“전하께서 취소된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더 당겨서 6시로 하는 것은 어떠신지 시종을 보내 물으셨습니다.”

남편 놈이?

3일 내내 개무시 하더니 어쩐 일이래.

내가 무시무시하게 변할 예정이라는 시그널을 그새 받았나?

좀 전까지 삐딱해지기로 다짐했던 마음을 살포시 정 중앙으로 되돌려놓으며 답했다.

“6시라면 두 시간 정도 남았겠군요.

좋아요. 준비하고 있겠다고 전하께 전해주세요.”

두 시간이면 충분했다.

사실 두 번째 데이트까지는 탐색전을 하고 세 번째쯤 됐을 때 들어가려던 작업인데 남편 씨가 생각보다 얼굴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았다.

오늘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것들.

드디어 그것들을 선보일 타이밍이 왔다.

저녁 5시 50분.

남편 씨가 오겠다고 한 시간에서 정확하게 10분이 모자랐다.

“마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수도에서 테라스 파티라는 게 유행한다고 듣긴 했지만 이렇게 야외 정원에서 하는 식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쩜, 너무 로맨틱해요.”

어스름 녘 하늘에는 반쯤 저물어가는 해가 붉은 노을빛을 뿌려대고 있었다.

곧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정원 분수대 앞에 놓인 벤치 테이블 주변으로 설치해둔 등불이 빛을 발할 테고 그러면 이곳은 지금보다 더 로맨틱한 장소가 될 터였다.

테이블 위에는 등불에 의존해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각종 핑거푸드와 몸과 마을을 이완시켜 줄 허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님께서도 오늘따라 무척 아름다우세요.”

“그러니?”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지금도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신다니까요.

어쩜, 의상과 머리도 멋지지만 그 화장법은 정말...”

“쉿! 그건 레아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알지?”

그래, 맞다.

나 오늘 힘 좀 줬다.

남편 씨가 나를 바람 아닌 바람을 맞힌 최근 사흘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 관리에 들어갔다.

깡마른 몸매와 퍼석퍼석한 피부 결을 개선하기 위해 고단백 영양식을 하루에 4끼씩 먹고 아침저녁으로 피부 마사지를 했으며 기력과 근력을 향상하기 위해 틈틈이 요가도 했다.

이전 삶에서 싼 맛에 동네 주민 센터에서 석 달 배운 요가인지라 딱히 고퀄리티 자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운동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매가리 없는 이 몸뚱이에는 그 동작들도 과분했다.

고작 3일 만에 무슨 큰 효과가 있나 싶겠지만 워낙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던 몸이라 그런지 조금만 손을 썼는데도 그 효과는 놀라웠다.

내가 처음 보고 경악했던 빈티는 타고난 빈티가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퍼석하고 창백하던 피부는 윤기가 제법 흐르게 되었고 짙던 눈 그늘과 푹 패였던 볼도 사람답게 메꿔졌다.

그것만으로도 빈티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는데, 나는 거기다가 회심의 한방을 더 얹었다.

그건 바로 이전 삶에서 얻은 스타일링 스킬을 직접 시연한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야 이곳저곳 몸이 쑤셔서 온전히 레아에게만 맡겨뒀던 거지 사실 내가 백화점에서 7, 8년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어디 보통이던가.

여느 뷰티 유투버들 못지않은 눈썰미와 솜씨가 내게는 있었다.

게다가 나는 돈도 많았다.

가녀린 체구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빈약한 가슴을 커버해 주는 벨 라인의 진줏빛 실크 드레스는 내 흰 피부 위에 올려지자 그 고급스러움이 빛을 발했다.

또 그 위로 풀어 내린 긴 머리는 허리께까지 닿았는데 그 끝에 살짝 웨이브를 주고 오일을 발라 손질했더니 엔젤링을 보이며 찰랑거리고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얼굴!

사실 얼굴은 단시간 내에 확 달라지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찬찬히 살펴보면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꽤 조화로워서 수수한 미가 얼핏 엿보이는 듯했고, 촉촉하게 물기를 되찾은 입술은 타고난 체리 색이라 크게 색조를 입히지 않아도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꽃 같은 남편 씨에게 턱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다.

바로 이름하여 펄 파우더!

쓰지 않아 쌓여있던 보석 중에 빛깔이 고운 진주만 골라서 만든 회심의 아이템이었다.

그걸 얼굴과 쇄골 등에 펴 발랐더니 그 은은한 펄 감이 등불 조명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위용을 뽐내기 시작하는 참이었다.

역시, 여자는 화장발에 조명발이 생명이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 오늘 좀 들이댈 예정이다.

어서 오라 남편 씨!

너만 꽃이냐?

흥, 나도 할 거다. 밤에 피는 꽃!

이히힝

어둠을 뚫고 별채의 정문 방향에서 희미한 말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전하께서 도착하셨나봅니다.”

“레아, 그것 좀.”

나는 마지막 외모 점검을 위해 레아가 들고 있던 손거울을 건네받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등불 쪽으로 다가갔다.

적당히 탁한 황색의 불빛은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진주 펄의 반짝임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예쓰! 썩쎄스!

화장도 조명도 완벽하니 이제 실전만 남았다.

미리 짜두었던 동선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자니 등 뒤쪽으로 잔디 위를 스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오케이. 출격!

“오셨어요?”

샤랄라하게 뒤돌며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스킬을 썼다.

그래, 쓰긴 썼지.

그런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흐드러지게 만개한 남편 씨의 꽃 미모 때문에.

“확실히 데이트를 얹은 저녁식사는 뭔가 다르군.”

짙은 중저음의 동굴 목소리.

그에 더해 정원 바닥에 설치된 등 불빛이 반사되면서 음영이 드리운 남편 씨의 이목구비는 오늘따라 뭔가 치명적이었다.

게다가 붉은 자수가 놓인 그의 검정색 제복은 명품 브랜드의 맞춤 슈트처럼 매끈한 바디라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은발은 살짝 흐트러져 가닥가닥 목덜미와 어깨를 덮고 있었다.

미모에 의상, 그리고 헤어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뒤돌아보며 머리카락 넘기기에 이어 살짝 도발적인 미소를 짓는 게 원래 내 계획이었는데 미소는커녕 나도 모르게 입이 헤 벌어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조명발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버프가 아니라는 걸... 미처 생각 못했다.

아, 젠장.

“... 그, 그렇죠? 메뉴에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

“아니, 저녁 메뉴 말고 당신.”

“!”

“이런 말 우습긴 한데 달리 표현할 말이 없군. 얼굴에서 빛이 나.”

어흑.

심장아 나대지 마.

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저 봐, 얼굴에 감동이 없잖아.

초장부터 내 심장을 강타한 남편 씨의 비주얼과 비록 감동은 담겨있지 않았지만 달콤하기 그지없는 멘트는 내 계획을 몽땅 일시정지 시켜버렸다.

젠장. 내 안에 금사빠 기질이 있을 줄이야.

꼬시기도 전에 나만 먼저 꼬심 당하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칭찬 고마워요.

그런데 그 말은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네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남편 씨는 눈치 챈 건지 아닌지 별다른 반응 없이 벤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나도 뒤따라 맞은편에 앉았다.

“마님, 이건 전하께서 준비하신 와인입니다.”

남편 씨의 뒤에 서있던 알베르가 손에 든 와인 병을 벤치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곤 뒤로 다시 물러났다.

금박으로 장식된 검은색 와인 병은 딱 봐도 비싸보였다.

데이트도 제대로 안 해본 남편 씨가 이런 준비물을 챙겨왔을 리가 없지.

알베르의 센스임이 분명했다.

“신은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 터이니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불러주십시오.”

“고마워요 알베르. 와인 잘 마실게요.”

“...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절도 있고 우아한 몸짓으로 인사를 마친 알베르는 와인 잔 세팅을 마친 레아와 함께 이내 물러갔다.

찌르릉대는 작은 풀벌레 소리.

그리고 적막.

그 사이 어슴푸레 남아있던 태양의 잔재는 사라지고 완벽한 어둠이 내렸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빛을 뿜어내는 등불, 그리고 남편 씨와 나.

말없이 부딪히는 시선을 몇 번이나 피하며 얼마간 시간을 허비했다.

어색함의 적막이 아니었다.

서로 마주앉아 부딪히는 시선에 실린 긴장, 그로 인한 적막이었다.

왜 갑자기 이런 숨 막히는 분위기가 됐을까.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핑거 푸드가 가득했지만 남편 씨도, 나도 접시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한잔 하겠나?”

후우. 드디어 무언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등잔불이 뚫지 못한 어둠에 기대 최대한 작게 밭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긴장을 남편 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한껏 머금었던 숨을 죄다 뱉어내지 않으면 정말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았다.

“주세요, 가득.”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떨쳐내기 위해 자신의 잔을 채우고 와인 병을 내려놓으려는 남편 씨를 향해 빈 잔을 들어 올렸다.

쪼르륵

노르스름한 불빛 때문일까, 잔에 채워지는 와인의 색이 무척 검붉어 보였다.

그리고 채워진 자신의 잔을 들고 나를 향해 건배의 제스쳐를 보내는 남편 씨는...

빌어먹을.

엄청나게 섹시했다.

이러면 안 돼. 로즐린, 정신 차려!

오늘 너의 컨셉은 금사빠 따위가 아니라고!!

그랬다.

먼저 두근대고, 티 나게 버벅대고, 혼자 마른침 삼키는 거.

이건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다.

고상하고 우아한, 어딘지 모르게 금욕적인 비주얼로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는, 그런 이중적인 매력의 공작부인이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컨셉이었단 말이다!!

잔의 3분의 2 정도 채워진 와인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런데도 급격히 차오른 갈증은 가시질 않았다.

그래서 테이블 한켠에 놓여있던 티팟을 들어 찻잔에 허브티를 따라 냉큼 들이켰다.

“으앗! 앗뜨뜨!! 커헉, 컥컥...”

왐마, 목구멍이 아주 그냥 녹아내리는 줄 알았네.

레아야, 아니 뭘 이렇게까지 팔팔 끓여놨니.

이게 무슨 쌍화탕이니?

아무래도 밤 기온이 쌀쌀할까봐 레아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둔 것 같은데 이런 게 바로 과잉충성의 부작용이었다.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떻게 하지?

지금 고개 들면 남편 씨랑 눈 마주치겠지?

불난 듯 후끈거리는 입 안에 손부채질을 하며 살짝, 아주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부딪혀 오는 시선.

“크, 크큭! 아, 하하하하...”

“... ”

아니, 이 자식이!

야, 너 지금 이게 웃기냐?

사람 목구멍이 샤부샤부 될 뻔 한 이 상황이 웃겨?

“웃다가 죽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 첫 번째 인류가 저였네요.”

“아하하.. 크흡, 흠흠.

그거 아주 섣부른 판단이군.

크흠. 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야.”

“조금만 더 웃으시면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아아. 그래 내가 너무 크게 웃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결코 당신을 불쾌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

“?”

“너무 웃기게 생겨서.”

“!”

하, 나 진짜 저 꽃 같은 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아주 막하시네.

니가 꽃 같이 생겼다고 지금 나 무시하냐?

이눔시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심쿵 한 거 죄다 물어내!!!

자리에 앉아 꽤 긴 시간동안 침묵을 지켰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남성의 에티켓이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나와 마주앉아있는 여자에게 집중하느라 입을 뗄 여유가 없었다.

정말 저기 앉아있는 여자가 자신의 아내, 로즐린 아스트리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신경질적으로 듬성듬성했던 눈썹은 붓으로 그린 듯 아치형으로 곱게 휘어져 내려와 있었고, 창백했던 피부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처럼 광채가 흘렀다.

하지만 이것만이라면 그저 굉장한 외모의 변화 정도로 여길 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그녀 정도의 외모는 흔했으니까.

그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그녀로 인한 자신의 변화,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째서인지 심하게 목이 탔다.

수십 날의 밤을 함께 보냈던 아내가 분명한데도 어쩐지 낯설고 이상하게 궁금했다.

기억을 잃고 난 후 보인 아내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나 딴판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 그런 단순한 흥미 따위가 아니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은 여유.

그 여유로운 자세로 결코 버텨낼 수 없는 진득하게 무겁고, 묘하게 답답한.

이런 감정을 대체 뭐라고 정의 내려야 하나.

전쟁터의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온 몸을 휘감아왔다.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쪽으로 당겨지는 몸을 뒤쪽으로 다시 이완시키며 와인 병의 코르크 마개를 열었다.

술이라도 한 잔 하면 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잦아들까.

“한잔 하겠나?”

“주세요, 가득.”

아내도 못지않게 긴장한 것 같았다.

붉은 입술을 그보다 더 붉은 혀로 연신 축여대고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식사의 메뉴가 뭐였는지 내일이면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으앗! 앗뜨뜨!! 커헉, 컥컥...”

뜨거운 차를 들이켰는지 앉은 자리에서 탁자를 쳐대며 아내가 온 몸을 베베 꼬고 있었다.

“크, 크큭! 아, 하하하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들이킨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급하게 들이켠 뜨거운 찻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붉어져 곧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해서는 꼬아대던 몸짓을 멈추고 쭉 밀어 내민 혀를 향해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

가끔씩 실소 혹은 어이없는 웃음은 지었어도 오늘 같이 박장대소를 했던 기억은 없었다.

지금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랫배가 찌릿찌릿한 게 전장에서 적을 향해 전속력으로 말 달릴 때와 비슷한가?

아니, 거기에 더해 목구멍 안쪽에서 요동치는 맥박까지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절대 와인 한잔에 취기가 오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아. 그래 내가 너무 크게 웃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결코 당신을 불쾌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너무 웃기게 생겨서.”

그래, 이건 모두 아내의 탓이었다.

아내가 파닥이던 손을 내리고 예의 그 독 오른 고양이가 되자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까 그 모습, 붉어진 얼굴로 동동거리던 모습이 계속 보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눈빛에 서려있기만 하던 독기를 내게 뿜어낼 테지.

그래서 은근슬쩍 화제를 전환했다.

“그런 독기 오른 눈빛은 그만하고 이제 당신이 원했던 그 데이트란 걸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는 게 어때?

더 야심한 밤이 되면 데이트가 아니라 다른 걸 해야 할지도 모르니.”

“방금 당신이 아주 비신사적으로 웃는 바람에 오늘 데이트는 이미 파토 났거든요!

눈치가 없으시면 분위기 파악이라도 좀 하시죠.”

“뭐 그럼 오늘 데이트는 실패했다 치고.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데이트, 그걸 대체 몇 번 정도 해야 서로에 대한 파악이 끝나는 거지 ?

보아하니 데이트란 게 준비과정이 꽤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나도 대충 당신 계획을 알아야 협조할 수 있지 않겠어?”

“당신, 그 날 내가 했던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사랑하자고 했던 거. 기억은 나요?”

“물론. 내 기억은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아주 잘 하고 있거든.”

“그러고 보니 당신, 그때 내 물음에 답하지 않았군요.

나랑 사랑해 볼 생각은 있는 거죠?

그랬으니 내가 연애하자고 했을 때 수락한 거 아닌가요?”

“나는 확신이 없으면 즉답을 하지 않는 편이지.

그날 당신이 사랑에 대해 언급했을 때도 그랬고.

도대체 당신이 하자는 사랑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더군.

뭇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밤을 나누었어. 그런데 그게 사랑은 아니지.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해서 헤어진다고도 하더군.

하지만 우리는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란 게 뭐지?”

아니, 당신에게 사랑은 어떤 거지?

뭐?

사랑이란 게 뭐냐고?

아, 진짜 이 연애고자.

사랑에 무슨 답이 있고 무슨 실체가 있겠어.

답이 없으니까 어려운거고, 실체가 없으니까 귀한 거지.

아냐, 이렇게 말하면 쟤 또 못 알아듣는다.

“사랑이 뭐냐고요?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죠.

음... 그러니까 당신에게 좀 더 와 닿게 설명하자면, 아무리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도 나와의 식사시간을 더 먼저 챙기는 거.

집무실의 아직 읽지 않는 책 보다 내가 더 보고 싶은 거.

귀족의 의무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 자체를 원해서 밤을 함께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밤에 후계 세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쁘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 그런 거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왜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나?”

얼레 지금 나 떠보는 거야?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하나?

이전 삶에서의 내 비루한 연애경력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몸이 결혼 전에 어떻게 놀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 맞다.

그리고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기억상실 중이거든요.

그런 거 물어도 전 모른다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남편 씨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로즐린이 아닌 박서연인 채로 생각하고 답할 뻔 했다.

“왜 답이 없지?

너무 많아서 세고 있는 건가?”

... 뭐지?

이 남자 대체 누구한테 뭘 묻는 거야?

“어머, 설마요.

제가 기억 잃기 전 생활 패턴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집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는 성격인데 어딜 나가서 연애를 했겠어요?”

“그런 것 치고는 사랑에 대해 논문이라도 쓸 기세라.

데이트에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연애를 책으로 배웠나봐요.”

“책?”

“네, 책이요.

로맨스 소설 서 너 권이면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꿈꾸게 된다죠.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 ”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남편 씨의 표정을 쭉 살피고 있었다.

혹시 나에 대한 의심이 한 톨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저 표정!

저거 저거... 설마 고민하는 거야?

로맨스 소설을 읽을지, 말지?

맙소사.

이 남자, 정말 제국 최고의 능력남이 맞긴 한 걸까.

이 정도면 연애고자가 아니라 그냥 바보 아닌가?

아까 내게 던진 질문은 그저 의식의 흐름을 따른 결과물이 분명했다.

바짝 곤두섰던 긴장감이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귀찮아서 찐하게 안 만났을 뿐이지 들이대는 여자 많았다면서요?

그중에 그래도 좀 괜찮았던 여자 없었어요?

뭐 사랑은 아니었지만 잊지 못할 뜨거운 밤을 보냈다든가 그런 거.”

“글쎄. 불쾌했던 기억 외에는 별로.

딱히 기억에 남는 여자는 없군.”

그의 기억 속에 남지 못하고 쓸려나간 뭇 여성들의 저돌성이 안쓰럽긴 했지만

부인된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

“그것 참 다행이네요.”

“다행?”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후계가 나타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별 걱정을 다하는군.

난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허술?

거 참 아까와 달리 어째 뉘앙스가 애매하네.

후계 생길 일을 안 했다는 거야, 했지만 알아서 꼼꼼히 조절했다는 거야?

... 하긴 뭐, 내가 남편 씨 과거까지 따질 입장은 아니지.

그래 과거가 뭐가 중요 하냐.

지금 우리의 러브가 성사되느냐 마느냐한 상황인데.

아니 근데 남편 놈은 지가 해야 될 답은 안하고 자꾸 뭘 묻기만 하네.

그래서 사랑 그거 할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의 결론이 뭐죠? 빨리 답 좀 주실래요?”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찾지 못한 답을 다시 구해보도록 하지.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게 사랑이라면 내 삶에서 1순위가 당신이 되는 거, 그게 사랑이란 말이군. 맞나?”

“정확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신에게 1순위인가?”

“아직은 아니죠.”

“그리고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은 나와 후계를 만들 생각이 없는 거고?”

“... 아마도요?”

답을 하랬더니 또 질문만 해대고.

안되겠다 싶어 한 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남편 씨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냐? 결투 신청이냐?

“이거... 아무래도 가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군.”

“가능성의 재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단 말이지.

하게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랑 때문에 1년을 소비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아 진짜 그놈의 개 코딱지 같은 효율 타령은.

아니,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저런 AI도 울고 갈 말라비틀어진 감성을 가지고 잘도 연애질 하겠다 그래!!

나 저 남자랑 1년 안에 그거, 진짜 성사될 수 있긴 한 걸까?

나야말로 그것에 대한 가능성 재고를 해야 할 판이었다.

... 갑갑허다 증말.

“그래서 그 놈의 효율은 대체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자 나도 놈 소리가 입 밖에 절로 나왔다.

공작부인의 품위는 얼어 죽을.

효율적으로 몸부터 맞춰보자, 뭐 그런 개코같은 소리를 하려거든 고이접어 넣어 두시는게 좋을... 어?

그런데 너 왜 갑자기 일어서니?

뭐야?

왜?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어!!!

황색 등 불빛을 차단하는 커다란 그림자.

그리고 순식간에 살갗에 닿은 뜨거운 온기.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같았다.

“당신 목덜미도 나만큼 떨리는 군.

심장의 박동이 손끝에 느껴져.”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숨이 차올랐다.

남편 씨의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부터 숨을 내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쇄골에서 시작해서 목덜미까지.

천천히 쓸어 올린 남편 씨의 손은 내 귓불에 닿기 직전에 멈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길에 내 심장 박동이 더욱 요동쳤다.

방금 전까지 재고에 효율, 이 따위 단어로 사람 갑갑하게 만들더니.

이 급작스러운 들이댐은 대체 뭐냐고!!

아,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먼저 몸을 빼야 되나? 아니면 나도 들이대?

머릿속으로는 오만가지 생각이 춤을 췄지만 내 몸은 처음 그 상태로 얼음이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극도의 긴장감에 아랫배가 조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저기... 그만 떨어져 줄래요?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내 무언의 간절함을 알아챘는지 남편 씨가 내 목덜미에 닿을 듯 가까웠던 자신의 얼굴을 뒤로 물려주었다.

아,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건 내 오판이었다.

차렷 자세로 빳빳이 굳어있는 내 두 팔중 하나를 잡아들더니 자신의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쥔 채 자신의 귀밑, 목덜미에 가져다댔다.

그리곤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게 시선을 마주쳐왔다.

“!”

“느껴지나? 당신보다 좀 더 빠르지.”

“... ”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 우리.”

그의 목덜미에 댄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고막에 울리는 내 심장박동보다 확실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이유가 짐작이 되자 심장이 곧 터질 것처럼 박동 수를 높였다.

이젠 내가 그보다 더 빨랐다.

헐떡임을 감추기 위해 애써 마른침을 삼키며 입술을 열었다.

“... 그럼 확인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래. 그러니 같이 해보자고.

그 사랑이라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아니었다.

고작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한마디, 그러니까 사랑 그거 한번 해보자는 멘트에 내 심장은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만신창이가 됐다.

그냥 심쿵 정도가 아니라 심우르르쾅쾅이었다.

이런 남자가 연애고자라니 말도 안 되지.

내 판단이 실수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경험과 노력으로 갈고닦은 연애의 기술이 아니라 타고난 작업의 기술.

남편 씨는 탁월한 기술자였다.

테이블에 한 손을 짚고 비스듬히 내려 숙인 그의 몸 선은 지나치게 유려했고, 내게 맞닿을 듯 가까운 얼굴에서 뿜어지는 와인 향의 호흡이 미치게 섹시했다.

그래, 이런 치명적인 남자가 내게 말한 거다.

같이 사랑해 보자고.

그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일까?

나도 모르게 뒤로 젖혔던 어깨를 다시 앞으로 당겼다.

일렁이는 금안의 시선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아까만큼 부담스럽지 않았다.

“당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거, 당신도 알고 있죠?”

“그럼 자리를 옮기는 데 동의하나?”

되물어오는 그의 아몬드형 눈매 속 동공이 번뜩였다.

“그게 설마 2층 제 방은 아니겠죠?”

“왜 아니겠어.”

“아쉽게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것 참 안타깝군.”

안타깝다는 그의 말에 솔직히 동의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명백하게 끌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겐 전에 없던 욕심이란 게 생겼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시간 또한 충분한 상태였다.

그렇기에 더더욱 본능에 휩쓸릴 수 없었다.

어렵게 만든 기회,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룬 감정의 진전을 단박에 불같은 밤으로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적절한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니까.

마주한 시선을 고정한 채, 내 손을 겹쳐 잡은 그의 손을 벗겨냈다.

그리고 자유를 찾은 손등으로 그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의 목선을 쓸어올렸다.

천천히 쓸어올리다 멈춰선 턱 끝.

초반에 하려다 실패했던 도발적인 미소, 그걸 장착한 채 입술을 열었다.

“그래도 키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마님! 마님!

이제 그만 일어나셔요.”

“으... 으음. 아우 머리야.

레아, 지금 몇 시쯤 됐니?”

“곧 있으면 정오이니 두 시간 뒤면 케토톤 백작님께서 오실 겁니다.

서둘러 식사와 채비까지 마치셔야 한다고요.”

레아 쟤도 이제 내가 좀 편해졌나 보다.

습니다, 합니다, 항상 이렇게 깍듯이 존대하더니 이젠 늦게 일어난다고 닦달까지 했다.

뭐, 사실 이쪽이 난 더 좋긴 하지만.

그런데 벌써 정오라고?

아무래도 어젯밤 먹었던 와인이 이 몸에게는 독했나보다.

예전에는 와인 한 병 따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 고작 한 잔에 숙취라니.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도 좋지 않았다.

“마님, 물 좀 드세요.”

레아가 건네준 컵을 들어 단번에 들이켰다.

차가운 냉수에서는 시큼한 레몬 맛이 났다.

내 숙취 해소를 위해 레몬워터를 준비한 모양이었다.

역시 우리 레아 센스쟁이!

“그런데 레아, 아침부터 웬 꽃이니?”

숙취 음료 다음엔 해장국이지.

손에 든 그 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마님, 놀라지 마세요.

글쎄 이 장미꽃, 전하께서 마님께 보내오신 거랍니다.

꽃을 들고 온 시종이 귀띔해 주기로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직접 정원사에게 꽃다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데요.”

아... 맞다, 꽃.

멍하던 머릿속이 갑자기 번쩍하더니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그래도 키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 ’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아니. 지금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적당히 라는 거, 그거 아무래도 지키기 힘들 것 같거든.’

그 말을 끝으로 남편 씨는 잡았던 내 손을 놓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숨 가빴던 우리 둘 사이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눈빛을 교환했던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다.

남편 씨의 말이 맞았다.

뭔가를 더 했다면 어젯밤 데이트는 아마 데이트로만 끝나지 않았을 터였다.

얼마 있지 않아 데이트를 겸한 저녁 식사는 준비한 음식들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렇게 끝이 났다.

그렇게 자리를 파하고 본성으로 가는 길을 배웅하는 내게 남편 씨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 난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없군. 원래 오늘이 그걸 알아보는 자리였어야 하는데 말이야.

당신은 뭘 좋아하지?’

‘꽃.’

‘꽃?’

‘네, 저를 위한 정원은 사양이지만 꽃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사실 요즘 하도 꽃, 꽃, 거렸더니 무심결에 튀어나온, 좀 급조한 대답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꽃이 아니라 단연코 현금과 맥주였다.

이전 삶에서 월급통장에 매달 꽂히는 현금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퇴근 후 집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는 내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돈과 술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꽃이라고 답을 했다.

“이걸 전하께서 내게 보내신 거란 말이지.”

“네, 그렇다니까요. 그것도 흔한 붉은 장미가 아니라 귀한 분홍 장미를 보내셨어요. 어쩜, 탐스럽기도 하지.”

물어오니 답을 했을 뿐, 다음날 바로 이렇게 꽃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다.

이거 나도 남편 씨에게 책 선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책을 읽어주는 게 나으려나?

레아가 팔에 안겨준 장미를 내려다보는데 배꼽 아래인가? 아니 그보다 위?

그 근처 어딘가가 간질간질했다.

가슴도 좀 울렁울렁한 것 같았다.

숙취 때문은 아니었다.

사랑 그거 한번 해보자는 남편 씨의 말.

그 말에 내 마음은 벌써 응답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지요.”

내 이빨보다 무서운 이빨의 주인이 드디어 방 밖으로 사라졌다.

“마님, 괜찮으세요?”

“... 아니, 전혀.”

이렇게 한 달이라니.

어젯밤 남편 씨의 질문에 꽃이 아니라 자유라고 답할 걸 그랬다.

공부하지 않을 자유!

그것도 아니라면 강사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

케토톤 백작 때문에 이 몸은 잃었던 우울증을 다시 되찾게 될지도 몰랐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레아, 지금 전하께서는 어디에 계시지?”

“오늘 오후에 기사단 훈련 참관 일정이 있으시니 아마 지금쯤이면 연무장에 계실 거예요.”

“연무장?”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하께서 직접 훈련 상태도 점검하시고 기사들과 함께 대련도 하시거든요.”

그래, 이거다.

둘 만의 데이트도 중요하지만 순탄하게 사랑을 하려면 그의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무척 중요하니까.

그에 더해 꽃다발에 대한 답례도 하고 케토톤 백작도 캐내 버릴 겸, 당장 남편 씨를 만나러 가야겠다.

낮에는 현숙하게, 밤에는 도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컨셉은 내조의 여왕이다.

아스트리드 공작가 본성의 중앙계단.

이곳은 공작 내외의 침실, 집무실 등의 개인 공간이 자리한 본성과 대회의장, 연무장 등이 자리한 외성을 이어주는 통로였다.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그만큼 공작성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의 청소는 본성 하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옅은 회백색의 대리석 계단과 난간 쪽에 하녀 셋이 달라붙어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청소만 하기에 지겨웠는지 재잘대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너희들 그 이야기 들었어?

공작전하께서 오늘 아침 마님께 꽃 선물을 보내셨대.”

“어머나 세상에.

루시, 그게 정말이야?

너 또 어디서 헛소문 들어놓고 여기저기 옮기는 거 아니야?”

“아이참, 너는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이건 전하의 심부름을 한 시종에게서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은 별채에서 로즐린에게 영업을 당했던 파랑새들, 루시와 메리였다.

“그래? 어제 장미정원에서 저녁을 함께하셨다더니.

이젠 정말 두 분 사이가 좋아 지시려나 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하긴, 마님께서 완전 딴 사람이 되셨으니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지.

어찌됐든 전하의 하나뿐인 부인이시니까 말이야.

아 맞다, 보니타 너도 그때 봐서 알지?

마님께서 확 달라지신 거.”

통통한 양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대리석 계단에 걸레질하던 루시가 시선을 주자 보니타라 불린 여자는 그에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흥, 그래봤자 아랫것들 시켜서 보내신 꽃다발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결혼하고 3년을 방구석 폐인으로 지내신 마님이야.

그런 마님에게 전하께서 갑자기 정을 주신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보니타. 너 전하께서 누군가에게 선물, 아니 뭐 그 비스무리한 거라도 보내시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알기론 절. 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전에 별채 식당에서 대놓고 전하를 유혹하셨던 것처럼 어젯밤엔 전하께 꽃 선물을 달라고 조르기라도 하셨나 보지.”

확신 어린 루시의 대답에도 보니타의 마님을 향한 비꼼은 멈추지 않았다.

사실 하녀들 사이에서 외모가 예쁘장한 편이었던 보니타는 대면대면한 공작부부의 사이를 틈타 내심 칼리안을 유혹하려는, 씨알도 안 먹힐 헛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루시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

“보니타, 입조심해!

안 그래도 네가 낸 그 헛소문 때문에 나와 메리가 날벼락을 맞을 뻔했던 걸 생각하면, 어휴.

그때 마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치도곤을 당하고 공작성 밖으로 쫓겨났을 거라고!”

“보니타, 그건 루시 말이 맞아.

우리에게 예전 일을 사과하시면서 선물까지 주셨어.

어디 그뿐이야?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언니들까지 다 찾아서 사과편지에 위로의 선물까지 보내셔서 다들 마님께 감격했다고 그러던걸.

이젠 정말 예전의 마님이 아닌 건 확실해.”

“다들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들 좀 차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니?

그거 다 오밤중에 사고 내놓고 전하께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수 쓰는 거야.

순진한 하녀 몇 꼬드겨서 이미지 세탁하려는 거라고!”

보니타, 그녀의 거친 말 속에는 놀랍게도 한 줌의 진실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마님의 파랑새가 된 루시가 보니타의 날 선 험담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러는 보니타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네가 아무리 찍어 바르고 그 엉덩이를 살랑거린다 한들 전하께서 눈 하나 꿈쩍하실 것 같아?”

“뭐, 뭐라고? 이년이!

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둘의 언성이 높아지자 안절부절못하던 메리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만류하고 나섰다.

“얘들아, 목소리 좀 낮춰 제발.

이러다 누가 듣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늦어도 너무 늦은 만류였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야!”

어이쿠야, 알베르 화내니까 엄청 무섭다야.

지켜보는 나도 움찔했는데 당사자인 쟤네는 얼마나 쫄릴까?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이곳에서 그런 저급한 말들을 지껄이다니.

너희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하아.

마님 이런 꼴을 보여 송구합니다.

모두 제가 아랫것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녀 셋을 향해 호통을 치던 알베르가 내게 용서를 청하며 허리를 굽혔다.

“아니에요 알베르, 난 괜찮아요.

어디든 사람 여럿 모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저 보니타라는 하녀의 말마따나 사실 제가 예전엔 꽤 예민하게 굴었었잖아요, 그렇죠?”

“송구합니다. 마님.”

“소, 송구합니다.”

“... 송구합니다.”

셀프 디스를 하는 내게 고개를 조아려오는 하녀 셋을 찬찬히 살폈다.

셋 중 둘은 내가 익히 아는 얼굴들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보니타... 보니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응? 보니타?

그래! 기억났다.

오호라.

네가 그 아내의 유혹이라는 찌라시성 기사로 여론조작을 한 장본인이었구나.

대체 왜 그런 헛소문을 지어냈나 했더니.

우리 남편 씨에게 흑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란 말이지?

어디보자... 뭐, 제법 예쁘장하게는 생겼네.

그날 식당에서는 오로지 남편 씨와의 눈싸움에 집중하느라 주변인들을 살필 겨를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 보니타라는 하녀는 꽤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다.

특히 눈 밑 점에 색기가 흐르는 게, 내 외모와는 정반대인 도발적인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예쁘장하든, 도발적인 매력이 있든 말든.

어차피 남편 씨 앞에 가면 그녀나 나나 오징어 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외모로 볼 승부는 아니라는 게 누가 봐도 확실한데.

얘, 넌 대체 무슨 깡으로 남의 남자 넘보는 거니?

땅바닥을 기던 평판을 뒤집기 위해 대대적인 사과와 화해의 퍼포먼스를 벌였고, 되도 않는 우아를 떨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다.

하지만 참고 티 내지 않는 건 거기까지였다.

내가 뭐 아낌없이 주는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애정과 자비를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루시, 메리. 됐으니 그만 고개를 들렴.”

숙인 고개는 셋인데 둘의 이름만 불렀다.

맞다, 일부러 그랬다.

너도 곱게 밥상 차려줘 놓고는 몰래 내 뒤통수 후려 깠으니 나도 한 대 까주마 뭐 그런 거였다.

“심약한 귀족 부인들이 들었다면야 치를 떨고 혀를 깨물 만큼 치욕적으로 느꼈을 테지만 기억을 잃어서 그런가.

난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러니 괜히 소란스럽게 처벌할 필요 없어요, 알베르.”

얘, 어떠니?

내 돌려 까기 기술이.

나긋나긋한 어투 속, 뼈가 담긴 내 말에 보니타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움찔거렸다.

그래, 겁 좀 나지?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또 보지는 말자, 응?

갈 길도 바쁘니 이쯤하고 끝내자 싶어 적당히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다.

입술을 짓씹으며 씰룩거리는 그녀의 볼따구를.

분하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나는 다시 한 번 그녀의 생김새와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다.

틀어 올린 흑발, 가늘고 짙은 눈썹에 언뜻 보이는 붉은 입술, 그리고 풍만한 몸매.

하녀답지 않은 도도함과 약간의 귀티가 묻어있긴 했지만 흰색 블라우스에 민무늬 잿빛 스커트, 그리고 손에 든 젖은 걸레까지.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그녀는 영락없는 공작성의 하녀였다.

그런데 왜? 아니, 어떻게?

그녀는 이토록 나를, 이 공작성의 안주인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지?

“보니타? 혹시 예전에 너와 내가 안면이 있었니?”

“... 일전에 별채 식당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인연이 있거나 대화를 나누어 본 사이는 아니라는 거구나. 그렇지?”

“... 예. 그러합니다 마님.”

내가 꼭 집어 자신에게 말을 걸자 살짝 숙였던 고개를 들어 답을 하는 보니타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이쿠, 근데 이걸 어쩌니.

난 이미 다 봤단다, 아까 네 그 싸가지 없는 표정.

내가 진상 슈퍼 갑 질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예의를 밥 말아 먹은 건데 말이지.

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휴, 내가 그 입 나불거릴 때부터 알아 봤어.

제 무덤 제 손으로 판 거지 뭐.

그러게 보니타 넌 측근시녀를 했던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마님을 못 씹어서 안달이...”

“루시, 제발 그만 좀 해에!”

“악! 아파, 아프다고 메리!!”

옆구리를 꼬집힌 루시가 엄살 섞인 호들갑을 떨어댔지만 메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꼬집었던 곳을 재차 꼬집으며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어디 남의 입 가지고 충고할 입장이야?

평소 네 입단속이나 잘 하고, 지금은 제발 눈치껏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네가 자꾸 그러면 별채 붙박이로 차출된 보니타에게 염장 질 하는 거 밖에 더 돼?

대체 그 놈의 빠른 눈치는 필요할 때는 안 꺼내고 왜 쓸데없는 데만 꺼내 쓰는 거니!”

둘이 자신을 두고 투덕거리던 말던 보니타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중앙계단 너머 외성 쪽을 향해 멀어져가는 로즐린의 뒷모습을 계단 가장자리에 서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제까짓 게 운이 좋아 후작가에서 태어난 거 빼고는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자기 부모한테서조차 버림받은 반편이 주제에.’

따로 안면이 없다더니.

사실 보니타는 이곳 공작성 내에서 로즐린이 공작부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테레지아 후작가의 영애였던 시절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이 공작성 내에서는.

어느새 로즐린 일행이 사라지고 이젠 아무도 없는 중앙계단이었지만 보니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기억을 잃었다고 본인이 새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우아 떠는 꼬락서니라니. 그래봤자 그 비루했던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깟 밥 몇 끼 같이 먹고 꽃다발 하나 받았다고 진짜 전하의 마음을 얻었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거야?

하, 웃겨 진짜.’

이를 앙다문 그녀의 시선, 그 허공을 향한 시선에 묻어나는 감정은 마님을 향한 하녀의 선망 섞인 질투 따위가 결코 아니었다.

그보다 더 어둡고 진득한, 분노 섞인 증오였다.

‘곁에 두고 괴롭히면서 내 피를 말리려는 속셈인가본데 내가 그딴 짓거리에 굴복이라도 할 줄 알고?

하!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신경질적인 귀족마님 상대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

1년, 딱 1년이면 다 끝이야.

그 잘난 친정가문의 이름값이 떨어져나가도 지금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을지, 어디 한 번 두고 보자고.’

자신이 예견하고 있는 그 날이 오면, 분명히 전하께서는 지금의 공작부인이 아닌 자신을 돌아봐 주시리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보니타였다.

“이야! 이야!”

“3열, 5열 다시!”

“하압! 하압!”

연무장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입구 쪽 단상.

해 질 녘이라 날씨는 선선했지만 웃통을 모두 벗어젖히고 선창자의 구령에 맞춰 목검을 휘두르고 있는 기사들의 몸은 온통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끝내줬다.

어머, 어쩜.

화가 많이 났네, 많이 났어.

아주 그냥 삼각근, 승모근, 광배근 애들이 전부 화가 많이 났어요.

보는 사람 빠져들게.

한창 훈련 중인 남편 씨와 기사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

“마님, 저기 맨 앞에 계신 분이 전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는 예르딘 경인 것 같고요.”

“그래, 그렇구나. 내 눈에도 그리 보여.”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사단 전체 훈련일이라 부단장인 예르딘도 오늘 오후는 내 호위를 쉬고 훈련에 참석했다.

그래서 예르딘 대신 오늘 내 호위를 맡은 다른 기사가 별채에서 본성까지 나를 데려다주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남편 씨는 아직도 내가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어디 보자~

저기 수많은 성난 근육들 중에서도 단연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남편 씨.

멀리서 봐도 잘생겼다.

자꾸 봐도 잘생겼다.

그런데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짜증도 좀 났다.

저런 남자를 매번 심우르르쾅쾅하게 만들려면 어찌해야 하나.

조만간 변신술이라도 배워야 하나.

“마님, 준비해 온 것들을 지금 저 아래로 내릴까요?”

“아니, 곧 훈련이 끝날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레아야, 우리가 지금 내려가면 훈련이 파토 나잖니.

그러면 좋은 구경도 끝이란다.

그러니 조금만 더 보고 내려가자, 응?

“저, 그런데 마님.”

아, 맞다.

여기 지금 레아랑 나만 있는 게 아니었지?

흐흠. 흠. 표정 관리.

“알베르,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까 그 아이를 왜 굳이 곁에 두시려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보니타 말인가요?”

“예. 그 아이가 이곳에서 일한지 한 3년쯤 되었습니다.

일머리가 제법 좋은 편이라 한 때 눈여겨 본 적도 있었지만...

제가 그간 지켜본 바, 마님께서 곁에 두시기에 적절한 성품과 능력을 갖춘 이는 아닙니다.

좀 전에 행실만 보아도 그러하지요.”

“그건 나도 알아요.

대충 봐도 하녀로 있기에는 좀... 부적절한 아이였죠.”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헌데 어찌...”

“알베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난 보니타를 별채로 보내달라고 했지 내 곁에 둔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2층 전담 하녀로 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별채 2층 전담.

그리고 난 이번 주 중에 별채를 떠나 본성의 내 처소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죠.”

보니타가 내게 불손한 언행과 행동을 보였지만 나는 현재 그녀를 체벌하거나 공작성 바깥으로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사고가 잠잠해지자마자 불쌍한 하녀나 괴롭힌다고 좋지 않은 소문이 흘러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역시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라는 둥, 말들이 많을 테지.

게다가 보니타가 남편 씨에게 흑심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한 명도 없을까?

어쩌면 투기심을 이기지 못한 마님이 예쁘장한 하녀 하나 골로 보냈다는 소문이 떠돌지도 몰랐다.

“별채 2층 룸의 유지 및 관리.

그게 내가 보니타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딱 봐도 허영심이 있어 보이던데, 인적 드문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 아이에게 나쁠 것 없겠죠.”

한 마디로 격리조치, 혹은 귀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내가 있으니까 본성 사람들도 드나들고 하는 거지 원래 별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원관리사와 마구간지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지원을 하러 오는 남자 하인 몇이 전부였다고 했다.

“아무래도 제가 마님의 행사에 주제넘은 참견을 한듯합니다.

송구합니다, 마님.”

“아니에요. 알베르가 날 걱정해서 한 말이란 걸 알아요.

그러니 그런 말은 마세요.”

“... 예. 그럼 앞서 명하신 것은 그럼 그리 알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성으로 옮기시는 건 이번 주 언제로 준비하올까요?”

“그건 내일이나 모레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날짜가 결정되면 레아를 통해서 미리 알베르에게 전하도록 할게요.”

원래의 내 설계대로라면 한 달 정도는 더 별채에서 지내려고 했었다.

결혼 전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살려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어젯밤 남편 씨와의 그 진득했던 긴장감을 겪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삼겹살도 불판이 달궈졌을 때를 놓치지 않고 끊기지 않게 계속 구워야 제맛인 것처럼 사랑의 설렘 혹은 심장의 두근거림도 끊기지 않게 계속 부채질해야만 뭐가 되도 되는 거였다.

아니면 그냥 썸 타고 마는, 이도 저도 아닌 관계가 될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남편 씨 앞에 수시로 알짱거릴 예정이었다.

“마님, 훈련이 끝나려나 봅니다.

기사님들이 대열을 정리하는데요.”

“그래, 그럼 이제 내려가 보자.”

나는 단상의 계단을 내려가 기사들이 도열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시꺼먼 남자들이 한데뭉친 쪽에 다가갈수록 진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볼 때는 참 은혜롭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오늘의 컨셉, 내조의 여왕은 성공할 수 없었다.

“어? 어... 누구...”

“혹시... 마님?”

“뭐? 에이 설마.”

흙바닥의 연무장을 가로지르는 나를 보고 저쪽에서 기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들 대부분은 아마 내 얼굴을 오늘 처음 보는 걸 테지.

너무 튀지 않게 소량으로 피부 결을 마무리한 진주 펄 파우더가 저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윗옷을 입다 고개를 돌린 남편 씨와 눈이 마주쳤다.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였지만 분명 남편 씨는 나를 보고 놀란 것 같았다.

입던 옷을 마저 입더니 긴 다리를 뻗어 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로즐린,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지?”

“그걸 몰라 물으세요? 당연히 당신 보러 왔죠.”

눈꼬리가 반달로 내려가는지 의식하며 오는 내내 연습했던 눈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남편 씨가 별 반응이 없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는데 사람 민망하게시리.

어떻게, 좀 같이 좀 웃어주면 안되겠니?

“그걸 몰라 물으세요? 당연히 당신 보러 왔죠.”

나를 보러 왔다고?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순간 멈칫했다.

“무슨 일 있나?”

내가 선택한 가장 무난한 대꾸였다.

“무슨 일은요. 그냥 아침에 받은 꽃다발에 대한 답례도 하고 당신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온 거예요.

아참, 레아야! 그 바구니 좀 이리 가져와주련.

그리고 알베르는 저 쪽 기사 분들에게 준비해 온 걸 나누어 주도록 하세요.”

“예, 마님.”

아내는 시녀가 들고 온 바구니를 열더니 안에 든 것들을 꺼내어 내게 내밀었다.

“여기 수건, 그리고 이건 이온음료예요.”

“이온.. 음료?”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을 보충해야 하잖아요.

염분과 그 외에 좋은 성분을 넣는 음료의 일종이에요.”

“... ”

“왜요? 혹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게 불편하세요?”

“아니, 그럴 리가. 단지... ”

“단지?”

“좀 놀라워서.”

정말 그랬다.

아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매번 겪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매번 새로웠고, 매번 놀라웠다.

낯선 사내들이 우글거리는 훈련장까지 나를 보기 위해 왔다니.

그것도 수건과 마실 거리를 생겨서.

이건 사실 보통의 귀족부인들도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거친 남자들의 세계, 그걸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의 손수건을 던지는 거라면 몰라도 흙바닥을 밟아가며 땀내 나는 사내들과 가까이 마주하는 건, 귀족부인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거라고 여기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럼 놀라는 건 오늘까지만 하세요.

앞으로는 여기서 볼 일 자주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길 또 온다고?”

“네, 당신이 오늘처럼 훈련에 참석하시면요.

설마 제게 선물한 꽃다발, 그거 오늘 한 번만 보내고 마실 건 아니죠?”

“당신이 원한다면 매일 아침 보내주지.”

“뭐, 마음에도 없는 사양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 꽃다발 이제 별채 말고 본성의 제 처소로 보내주세요.

내일이나 모레쯤, 처소를 옮길 생각이거든요.”

3층, 내 침소에서 복도를 하나 끼고 돌아나가면 나오는 아내의 침소.

그 공간으로 아내가 돌아온단다.

언제든 원하면 돌아오라 했지만, 글쎄.

어젯밤과 같은 긴장감이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그녀를 참아낼 수 있을까?

차라리 별채에 떨어져 있는 게 그녀가 계획하는 데이트를 진행하기에 나을 것 같다고 만류해볼까.

“그건... ”

“그런데 기사들에게 저를 언제쯤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아닌 척해도 지금 전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막아선 아내의 말에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둬 주위를 둘러보았다.

“...”

차라리 적군을 향한 사생결단의 눈 부라림이 더 낫겠군.

덩치는 산만한 것들이 떼거리로 힐끔대는 꼴이라니.

“다들 예의를 갖추도록. 이쪽은 내 아내, 로즐린 아스트리드다.”

해도 다 넘어가고 어두운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이것도 데이트인건가?”

“그럼요. 함께하는 스포츠 관람!

당신의 일을 존중하며 함께 공유하는, 아주 의미 있는 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왜요? 당신은 별로인가요?”

야간 훈련을 위해 설치해 놓은 가로등 불빛 사이로 단상 아래의 기사들이 토너먼트 형식의 대결을 하고 있었다.

매달 한 번, 자신이 참여하는 훈련일이면 전체 훈련 뒤에 추가로 진행하는 특별 훈련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길어진 전체 훈련 탓에 생략하기로 결정했고 별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이곳 외성의 연무장이 아니라 본성 집무실에 있었어야 했다.

그래, 별 일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 정기 훈련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아까 전체 훈련도 굉장히 멋졌는데 개인의 역량을 겨루는 대결이라니.

얼마나 멋질까요? 아...오늘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기사들과의 상견례 후, 아내가 던진 그 한 마디에 지금 이 꼴이 난 거였다.

테레지아 후작가의 영애를 주모로 맞이해야 한다며 못마땅해 할 때는 언제고.

녀석들은 갑자기 둘도 없는 불꽃 기사단이 되어 대결을 한다고 난리였다.

아무래도 아내는 내 기사들이 단순한 편이라는 사실을 눈치 챈 것 같았다.

“분명히 같이 즐기는 게 데이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당신만 즐거운 데이트 같군.”

“어머, 지금 그거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기사들이 들으면 어엄~청 나게 섭섭할 발언인 거 아세요?”

단상 아래에서 쓸데없이 열정적인 녀석들도 못마땅했지만 그걸 보면서 반짝거리는 아내의 눈빛이 훨씬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직은 여름이 아니니까.

기사들의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훈련 시 정복을 갖춰 입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다.

사방이 책으로 빼곡히 들어찬 공간.

집무실 중앙의 담갈색 가죽 소파에 기대앉은 칼리안은 탁자 위에 쌓여있는 결재서류를 훑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전하,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시지요.”

“후우... 몇 시지?”

“곧 자정이 됩니다.”

탁!

“어째 보고 또 봐도 이놈의 서류는 줄질 않는군.”

조금 전까지 칼리안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서류뭉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떨어졌다.

짜증 섞인 손길을 거두어 마른세수를 하는 칼리안.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전하, 뒷정리는 소신에게 맡기시고 이만 침소 드시지요.

고된 훈련에 이어 업무량까지 늘리시니 혹여 몸이 축나실까 저어됩니다.”

“아니. 마저 끝내는 게 좋겠어.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테니.”

하지만 답을 하는 칼리안의 시선은 다시 집어 든 서류뭉치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탁자 가장자리에 반쯤 펼쳐져 있는 양피지였다.

붉은색 벨벳이 덧대어진 양피지는 탑처럼 쌓여있는 서류 묶음들과 달리 무척 화려했는데, 문장이 끝나는 오른쪽 하단에는 붉은 태양을 형상화한 문양이 하나 찍혀있었다.

붉은 태양.

그것은 브란델 제국 황실의 인장이었다.

그리고 이 황실에서 온 서신이 칼리안이 뱉어낸 짜증의 시발점이었다.

“출발일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수도의 얼간이들이 한데 모일 틈을 주게 되면 퍽 골치가 아프거든.

더군다나 테레지아 후작, 그 여우 같은 자가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니 서둘러야 해.

하아. 그 치들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통이 이는군.”

“사흘 뒤면 영지 시찰을 나가셨던 에두와르 백작님께서 복귀하실 테니 그에 맞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두른다면 아마 닷새 안에는 출발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리하도록 해.”

칼리안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을 한 채, 손에 든 서류로 다시 시선을 가져갔다.

공작령을 비우고 수도 아크레테에 머무르게 될 기간이 짧지 않았다.

자신의 공백이 문제 되지 않도록 급한 업무들을 미리 당겨서 처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평소 같지 않게 그는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서류 한 장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질 때쯤, 쌓여있던 서류 묶음을 분리하며 칼리안을 보조하던 알베르가 입을 열었다.

“하온데 전하.

이번 수도 행에 마님께서는 아니 가십니까?”

“... ”

“빨라도 족히 두어 달은 걸릴 것이옵니다.

이제 막 본성 적응을 시작하시려는 마님을 홀로 두고 전하께서 수도로 가버리시면 혹여 불안해하시진 않을지...

신 염려가 되옵니다.”

불안?

그럴 리가.

사실 말을 하는 알베르도, 듣고 있는 칼리안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쓸데없는 걱정의 말을 알베르가 꺼낸 순간, 칼리안은 지글지글 끓어대던 짜증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가라앉고 있음을 깨달았다.

“함께 가자 청해보심이 어떨는지요?”

“그녀는 늘 수도 가길 꺼렸어.”

“예전의 마님은 수도뿐 아니라 침소를 나서시는 것도 꺼리셨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시지 않습니까.”

알베르의 말처럼 그의 아내는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다.

이젠 아크레테라는 말에 사지를 떨어대거나 괴성을 지르는 행동 따윈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한 끼 함께 하는 거로 하지.”

“예, 전하.

마님께서 내일 오전 중에 본성으로 거처를 옮기신다 하셨으니 점심을 청하여 자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칼리안은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짜증이 사그라든 그의 손길이 더없이 빨랐다.

걱정했던 그의 야근은 아무래도 예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았다.

‘서류처리가 순조로운 걸 보니 전하의 내일 오후 스케줄은 꽤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마님께서도 아침은 가볍게 드시는 편이니 점심은 코스 요리가 좋겠어.’

현명하고 충직한 데다 성실하기까지 한 집사를 둔 칼리안.

그는 참 인복이 많은 남자였다.

공작가의 본성 입구.

오늘은 그곳 풍경이 평소와 사뭇 달랐다.

납작한 대리석으로 다져진 길 위에 하인들이 모두 나와 양 갈래로 도열해 있었다.

그 수가 대략 오백에 가까웠는데,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로즐린의 본성 복귀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별채에서 본성까지는 마차로 겨우 10분 거리.

이를 맞이하기 위해 오백여 명이 모인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로즐린을 위한 알베르의 세심한 배려였다.

피에 절은 갑옷 대신 걸친 것이 신부를 상징하는 새하얀 드레스와 베일이었을 뿐.

3년 전, 로즐린은 적군의 추격을 피해 숨어든 패잔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결혼 전까지 철저하게 숨겨왔던 심각한 우울증이 그녀를 초라하고 은밀하게 공작성에 입성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입성한 날부터 최근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된 칩거.

자신의 처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극렬히 거부했던 로즐린이었기에 몇몇 시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인들은 그녀의 얼굴을 몰랐다.

물론 요 며칠, 로즐린의 전에 없던 활발함에 몇몇 정도는 얼굴을 봤겠지만 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알베르가 마련한 공작성 안주인과 하인들 간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라 할 수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온 마차 한 대가 대열의 끝부분에 멈춰 섰다.

그 앞에 다가선 알베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담아 공작성의 안주인을 맞이했다.

“마님,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알베르, 이게 대체 무슨...”

예르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차에서 내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나도 모르게 백스텝을 밟았다.

와우. 저게 대체 몇 명이야.

내 의문 섞인 탄성에 알베르가 부드러운 미소로 정중한 손짓을 건네 왔다.

“마님, 이쪽으로 가시지요.”

조금은 얼떨떨한 상태로 걸음을 옮겼다.

사실 내 의문에 대한 답은 알베르의 미소를 본 순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고용주의 귀환,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피고용인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흰색 상의와 회색 하의를 똑같이 맞춰 입은 수백의 사람들.

그들이 늘어서 만든 일직선의 통로를 걸었다.

내 발걸음에 맞닿는 이들이 순차적으로 고개 숙였고, 그것은 마치 파도처럼 이어졌다.

쏟아지는 복종의 예를 받으며 걷는 기분이란.

두렵냐고? 혹시 부담스럽진 않느냐고?

아니, 전혀.

완전 짜릿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

등골에 쫙 퍼지는 시큼한 소름이 너무나 짜릿해서 입꼬리가 씰룩이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익숙한 척, 의연한 척.

턱 끝을 바싹 당겨 붙인 자세로 갖은 척을 떨며 걷다 보니 어느새 본성 입구로 연결되는 계단까지 다다랐다.

이대로 그냥 시크하게 입성을 해버릴까?

아니면 뭐라도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

고민하며 몇 계단을 오르던 걸 멈추고 몸을 돌렸다.

돌아서자 두세 계단 아래에 멈춰 선 알베르와 레아, 그리고 예르딘이 보였다.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히자 가장 아래쪽에서 나를 향한 수백 개의 시선이 들어왔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하길 잠시, 나는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다.

훈화는 무조건 짧고 굵게!

그것이 갑이 된 자의 미덕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래, 짧고 굵게.

문장의 길이도, 그 내용도 매우 적절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갑으로서의 미덕을 얻은 대신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말았다.

“!”

“어머!”

“!!”

목소리가...

목소리가 커도 너무 컸다.

고상하고 우아한 마님의 우렁찬 목소리라니.

수백 명의 집중된 시선에 나도 모르게 성대의 악셀을 힘껏 밟고 말았다.

아...

나의 엘레강스여, 안녕.

이건 적어도 이불 킥 일주일짜리였다.

젠장.

이불 킥을 하려면 침대로 가야겠지.

“... 레아야, 내 방은 어디니?”

“오늘 야채도 당신 입맛에는 질긴 건가?”

“네?”

멍 때리던 중,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의 남편 씨가 턱 끝으로 내 앞접시를 가리켰다.

“아... ”

“이번에는 아주 다지다 못해 즙을 내먹을 기세로군.”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의 말은 틀림이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내 앞접시 위의 샐러드... 였던 아이들의 형태는 처참했다.

“식사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조용한 게 당신답지 않군.”

“그냥 좀...

입맛이 없어서요.”

그럴 수밖에.

새로운 삶에서 반드시 사수하고 싶었던 한 가지, 그걸 잃었는데 밥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 나의 엘레강스.

그리고 생각해보니 댁도 여태껏 말 한마디 없이 쭈욱 밥만 잘 먹더만요 뭐.

“그러는 당신도 오늘따라 이상했던 거 알아요?”

“내가?”

“그래요. 그러고 보니 확실히 이상했네요.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당신답지 않게 뭔가... 음... 뭔가...”

“뭐지?”

“뭔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황당한 말을 잘도 하는 게 역시 당신다워.

이제야 돌아왔군.”

아닌데.

눈치 봤던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궁금하군.

본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온 소감이 어떤지.”

말해 뭐해.

첫 끗발이 개 끗발이었지.

“뭐... 눈앞이 캄캄하고 속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좀 입맛도 없고요.”

“별로였단 소리군.”

“확실히 제 방 인테리어가 별로긴 했죠.

제가 우울증을 떨친 게 그 방을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본 내 방이었던 그곳!

본성의 침실을 봤을 때 난 정말 깜짝 놀랐다.

방문을 열자마자 중앙에 자리한 짙은 회색의 침구와 캐노피.

그리고 양쪽 벽면을 꽉 채워 덮은 검은 색 암막 커튼까지.

그것만으로도 칙칙해 죽겠는데, 몇 개 없는 가구들마저 죄다 고동색을 띤 원목이었다.

온통 회색에 검은색, 기타 등등의 똥색.

그 넓은 방에 유색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째 방이 이러냐고 묻자 레아는 확고한 나의 취향 탓이었다고 답했고, 알베르는 내 취향을 존중해서 특별히 그대로 보전했다고 답했다.

그렇게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었는데.

“하긴.

나도 취향이 꽤 담백한 편인데... 그 방은 좀 과하다 생각했었지.”

“그래서 직접 바꿔보려고요.

봄 분위기에 맞게 화사한 색으로다가.”

“직접?”

“네, 특별히 할 일이 없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방 꾸미기가 끝나면 초대할게요.”

“제집에 아내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 자는 아마 나뿐일 거야.”

어이없다는 듯이 실소를 지으며 말하는 남편 씨.

틀린 말이 아닌지라 나도 함께 피식 웃어버렸다.

하지만 뒤이은 남편 씨의 말에 그 웃음은 빠르게 식어버렸다.

“그런데 그 초대, 아무래도 꽤 오래 미뤄둬야 할 것 같군.

이번 주 내로 내가 수도에 가야 하거든.

두세 달은 걸리지 싶어.”

뭐?

두세 달?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너 보려고 같은 층으로 이사까지 온 나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니?

“어제까진 아무 말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수도행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두세 달씩이나 성을 비우신다는 거죠?”

“어젯밤에 황궁에서 서신이 왔어.

비어있던 제1 황후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으니 축하연에 꼭 참석하라고.”

아니, 황제 즉위식도 아니고.

대충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될 걸, 뭘 부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총출동을 시키겠다고 난리람.

아, 그래도 명색이 황후 책봉 축하연인데 공작이가 빠지는 건 좀 그런가?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도 축하의 말을 건네야겠군.

제국 제 1 황후의 하나뿐인 동생이 됐으니 말이야.”

응?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황후의 동생?

내가?!!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도 축하의 말을 건네야겠군.

제국 제 1 황후의 하나뿐인 동생이 됐으니 말이야.”

내 친정가문이 테레지아 후작가라는 건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로즐린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도 그 구성원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혈혈단신 고아로 살아온 내게 가족이란 건 로망이었고 소원이었지만, 그건 내가 만들어갈 가족에 한정된 선망과 애정이었다.

간난장이였던 나를 고아원에 버린 부모.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나는 오롯이 혼자 컸다.

때문에 이전 삶에서 내게 부모란 남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 그런 딸을 적대관계였던 가문에 시집보낸 아버지.

그 후, 3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는 친정가문.

딱 봐도 견적이 나왔다.

“저까지 축하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을 잃어 확실하진 않지만 언니와 제 사이가 그리 가까웠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지만 혹여 과거의 나와 언니와의 사이가 돈독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나.

과거의 로즐인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의 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결심을 한 이상, 어쩌다 한 번씩 만날까 말까한 친정식구들보다 우리 공작성 식구들이 내겐 더 중요했다.

“하지만 명색이 친언니의 행사에 제가 빠질 수는 없죠.”

그래, 천금같은 1년 중에 무려 이삼 개월에 이르는 시간을 허비할 수야 없지.

“저도 갈래요. 그래도 괜찮죠?”

안된다고 하기 만 해봐.

서울 구경은 너만 하냐?

부정적인 답이면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말을 꺼냈다.

하지만 예상외로 남편 씨는 무척 순순히 답을 했다.

“물론.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괜찮겠나?”

“뭐가요?”

“당신 아버지, 보게 될 텐데.”

큰딸이 황후로 책봉되는데 당연히 오겠지.

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일지 궁금은 했다.

“그게 왜요?

저랑 그분 사이에 뭐 문제라도 있었나요?”

“나야 모르지.

당신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다한들 그걸 가장 알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일 테니까.”

하긴.

내 친정가문과 공작가가 거의 원수지간에 가깝다고 했지.

“그런데 당신, 기억을 잃고 난 후, 테레지아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군.

보통은 가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 할 법 한데 말이야.”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당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어쨌든 잘 됐네요.

우리 사이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운 좋으면 잃어버린 기억도 좀 찾고요.”

“... 그래.

부디 그랬으면 좋겠군.”

어라. 그냥 한 말인데.

아직도 내가 기억을 찾길 기다리는 거야?

와... 저 놈의 집착.

백날 기다려봐라.

당신 바람이 이루어지나, 흥!

딸깍. 탁!

로즈골드의 광택이 빛나는 아치형의 식당 문이 열렸다가 이내 닫혔다.

식사를 마친 로즐린을 배웅한 알베르가 식후 티를 마시고 있는 칼리안의 옆으로 다가섰다.

“전하, 잘된 일입니다.”

“그런가.”

조금 전,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로즐린의 말에 칼리안은 내심 뜨끔했다.

그는 실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로즐린의 근심어린 표정과 급격히 줄어든 말투.

평소답지 않은 아내의 행동이 그를 그답지 않게 만들었다.

막상 본성으로 옮기고 나니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라도 떠오른 건가.

궁금했지만 뱉을 수 없는 질문을 삼키고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도 행을 알렸다.

‘저도 갈래요. 그래도 괜찮죠?’

티내지 않으려 담담히 답했지만, 칼리안은 아내의 그 말이 꽤 흡족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알베르는 공작부부의 수도 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혹여 마님께서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 숙지하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개를 한차례 끄덕인 칼리안이 말을 이어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의 조율이야.

후작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나?”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소문을 적절히 노출시킨 덕에 지금 꽤나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럴 테지.

그 교활한 여우는 약사 빠른 데다 신중하기까지 하거든.

하지만 그 신중함이 이번엔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될 거야.”

아스트리드 공작령은 제국 내 최고 수준의 치안과 철저한 검문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삼엄한 경비력을 보유한 공작령에도 세작은 존재했다.

성도 내, 거주 인구만 약 20만 명.

본성에 침투하려는 세작이야 조기에 잡아들인다지만 거주민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활동 하는 붙박이 세작들은 일일이 잡아들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칼리안은 로즐린에 대한 소문을 완벽하게 틀어막지 못할 바에야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공작성 내에서 소문이 도는 것을 일정 부분 방치했고, 본성과 성도를 오가며 출퇴근 하는 하인들의 입 또한 막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소문을 적당히 비틀어 부채질하기까지 했다.

호수정원에서 일어난 사고와 그에 대한 갖가지 억측들.

칼리안의 사전작업과 더불어 180도 달라진 로즐린의 행동들이 결합되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까지 소문이 와전되는 중이었다.

“매번 수도에 가는 게 고역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출발일이 무척 기다려지는군.”

“수도의 귀족들이 꽤나 놀랄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

특히 테레지아 후작, 그 자도 이번만큼은 놀라지 않고 못 배길 테니까.”

자신의 정치적 실익을 위해 딸을 이용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곤 했던 딸.

칼리안은 그래서 더욱 궁금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딸을 대면한 그자의 반응이.

“접니다. 무조건 이번에는 접니다.”

“...”

“단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가 이번 영지순찰에서 살과 뼈를 불살라가며 충성을 다 한 거 아시면서.”

외성에 있는 기사단장의 집무실.

그 곳에서 금발의 젊은 기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피는 중년인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단장님이라 불린 남자는 답도 않고 제 할 일에만 몰두했다.

“아이잉~ 백작니임~”

“...그 주둥이를 찢어주랴?”

“아니, 오죽하면 제가 이럽니까?

그러니 이런 꼴 더 보기 싫으시면 빨리 약속해 주시라고요.”

못 볼꼴을 봤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중년의 남자.

그는 공작가의 자랑, 아스테르 기사단의 단장인 에두와르 백작이었다.

“작년에 가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간다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수도를 못가서 안달이야?

베아스 너... 혹시 나 몰래 사고 친 거 있냐?”

그랬다.

아까부터 되도 않는 애교에 생떼를 쓰던 금발의 기사는 얼마 전, 별채를 살피려다가 알베르에게 걸려 혼쭐이 났던 베아스였다.

“에이, 사고는 무슨요.

작년에 못 갔으니 올해 가려는 거죠.

가끔씩 수도에 가서 분위기도 살피고, 중앙정치 맛도 좀 봐야...”

“그래서 넌 안 돼.”

“아니, 제가 뭘요!”

“쓸데없는 곳에 관심 쏟고, 영양가 없는 소리나 찍찍 해대고.

너 이러는 이유, 마님 때문이지?”

“... 그래서 정말 안보내주실겁니까?”

“베아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이번 수도 행은 예년과 달리 변수가 많아.

그리고 그건 대부분 테레지아... 그리고 마님과 관련된 일이겠지.

그래서 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냉정한 판단력과 객관성을 잃은 기사는 기사가 아니니까.”

“...”

“알아들었으면 이만 나가서 신입들 훈련이나 도와주도록 해.

이건 명령이다.”

“...명 따르겠습니다.”

단호한 에두와르 백작의 말에 풀이 죽은 베아스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백작의 표정도 거무죽죽하게 썩어 들어갔다.

‘에휴, 내 팔자야.

그때 저 녀석을 기사단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전하의 설득에 그리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테레지아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베아스의 심정을 백작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공은 공, 사는 사였다.

짠해보였던 베아스의 마지막 표정을 애써 지우며 백작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쪼로록.

“마님, 여기 얼그레이 티 입니다.”

“고마워 레아.

향이 좋구나.”

본성에 온지 오늘로 사흘째였다.

여유로운 아침, 방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로운 홍차 내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해사한 봄 볕.

이렇게 이곳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매일매일이 여유로웠고 따스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딱히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중’이라는 뜻이었다.

본성에 복귀하자마자 공작가 안주인으로서의 번뜩이는 능력과 재치를 발휘하여 성 내 모두를 경탄시키는... 뭐 그런 엄청난 반전을 노렸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공작성 내 최대의 관심사, 즉 부동의 원탑이 될 거라는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내 확신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수도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남편 씨.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었던 알베르 역시 이틀째 감감 무소식이었다.

하긴. 요즘 가장 바쁜 사람이 알베르이지 않을까.

본성 이곳저곳을 살피고 온 레아의 말에 따르면 공작성 내 수백의 하인들이 알베르의 명을 받아 이것저것 준비하고 확인하느라 분주하다고 했다.

남편 씨나 기사들은 말 타고, 나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마차 타고.

그냥 그렇게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준비하기에 사방팔방이 바쁘다고 이 난리인건지.

남편 씨나 알베르 둘 다 확고한 실용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원칙주의자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의 집사님은 어찌나 꼼꼼하신지.

알베르는 저 대신 사람을 보내와 내 침실 인테리어 변경 건을 챙기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수도에 다녀온 뒤에 하겠다며 그 시일을 미루었다.

다들 정신없이 바쁜데 그깟 침구와 가구 바꾸는 게 뭐 그리 급하다고.

내 비록 엘레강스는 잃었지만 개념까지 잃고 싶진 않았다.

창문을 덮고 있는 시커먼 암막커튼을 치운 것만으로도 한결 살 만 했다.

그리고 어차피 수도 행을 마치고 공작성으로 돌아올 때쯤 이면 봄은 다 지나가고 초여름이 시작될 터였다.

“드디어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레아, 출발시간은 언제라든?”

티 테이블에 차를 우려 두고 옷장을 열어 짐 챙기기에 분주하던 레아가 내 물음에 고개를 돌렸다.

“알베르 집사님께서 내일 오전 10시 경에 출발 한다 전해오셨습니다.

짐은 오늘까지 챙겨 내려서 짐마차에 미리 실어 두라 하셨고요.”

“짐은 너무 바리바리 싸지 말고 대충 필요한 것만 챙기렴.

필요한 게 있으면 그 곳에서 사면되니까.”

“그런데요 마님, 그... 나무상자.

그러니까 마님께서 혼인 후, 이곳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어찌할까요?”

“나무상자?”

“예. 제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마님께서 항상 곁에 두고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어떻게 그것도 수도 갈 때 가져가야 하는지... ”

“어디 이리 가져와 보련.”

레아는 침대 머리맡의 탁자에 다가서더니 세 칸 중 맨 아래 칸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곤 한손 가득 들어차는 크기의 적갈색 나무상자를 꺼내 내게 가져왔다.

상자에는 잠금장치가 있었는데 다행히 장치는 풀려있었고, 매듭이 벌어진 자물쇠만이 입구에 반쯤 걸쳐져 있었다.

엄청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것 마냥 자물쇠를 걷어내는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툭! 딸깍.

상자를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뭐야.

이게... 다야?

내용물에 놀란 게 아니었다.

그 구성이 너무 볼품없어 보여 놀랐다.

결혼 전부터 쓰던 물건을 결혼 후에도 가져와 애지중지 했다기에 뭔가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줄 알았다.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반지라든가, 아니면 추억이 담긴 편지 혹은 사진 같은 거.

하지만 상자 안에 있는 것은 손바닥 반만 한 사이즈의 검은색 수첩과 꽤 닳아버린 나무연필, 그리고 레이스로 수 놓인 하늘색 실크 주머니였다.

수첩과 연필은 그 용도가 뻔했지만 검지 두 마디 정도 크기의 주머니는 그 용도를 도통 짐작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 레아를 찾았는데 그녀는 옷장 앞에서 다시 짐을 싸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크 주머니는 제쳐두고 수첩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내가 이곳에서 눈을 뜨자마자 생전 처음 듣는 언어를 모국어인양 술술 사용했던 것처럼 글자 역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첩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수첩의 표지 한쪽에는 금빛의 가느다란 필체로‘쿠노’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는데 그건 아마 제작사, 그러니까 이 수첩의 상표인 것 같았다.

두근두근. 개봉박두!

드디어 이 몸의 숨겨진 비밀 끄트머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 조금은 기대했다.

그런데 맙소사.

이게 글씨야, 그림이야!!

도통 뭘 써 놓은 건지 읽을 수가 없었다.

흰 종이 위에 휘갈겨놓은 검은색 흔적들은 글씨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고 일부 몇 장의 페이지는 찢겨져 나간 듯한 흔적들이 보였다.

하지만 알아보기 힘들다고 그냥 덮을 수가 없었다.

이 엉망진창의 글씨가 마치 그녀의 불안정했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찬찬히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폈다.

수첩 속에는 그리 많은 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 많지 않은 글자 중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고작 문장의 일부분, 혹은 낱말에 불과했고 나는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나마 그 중 유일하게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장 하나.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

"슈슈"

슈슈?

디저트 이름 같기도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애완동물의 이름인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그녀의 글씨체가 너무나도 처절했다.

여러 군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단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낸다면 진짜 로즐린, 그녀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알아내긴 개뿔.

제 앞가림도 못 하는 주제에 뭘 밝혀내겠다고 설레발이었는지.

비밀의 수첩을 분석하는 것보다 지금은 내 달팽이관 옆 반고리관부터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다.

아... 쏠려.

“마님, 좀 괜찮으세요?

여기, 물 좀 드세요.”

“아니. 됐... 우읍!”

“아, 이를 어째.”

어쩌긴 뭘 어째!

빨리 오크인지 아크인지 거기 도착하는 수밖에.

출발하고 첫째 날까지는 좋았다.

공작성을 벗어나 잘 닦인 도로를 지나 들판도 나오고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

내가 살던 한국의 시골 풍경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서의 첫 여행이라 생각하니 왠지 더 특별해 보였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타임이면 짐마차를 끌고 오는 본성 하인들에게 애쓴다 다독이며 인심도 좀 얻고, 틈틈이 수행기사들을 찾아 수고가 많다 위문하며 잃었던 엘레강스도 좀 회복했다.

여기에 더해 우거진 수풀을 배경 삼아 남편 씨와 꽁냥꽁냥 같은 걸 시도해 보는 거, 이것까지 해냈다면 정말 완벽한 여행이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본격적인 산길,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의 낭만을 담은 여행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내 안의 천지가 개벽하는 극심한 멀미!

시간이 지나도 도통 적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나를 배려하느라 이동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신경 쓰여서 억지로 참는 중이긴 한데 완전 죽을 맛이었다.

알베르가 챙겨 준 멀미약이 있긴 했지만 무려 공작성에서 사들인 약일 텐데도 효과는 영 별로였다.

수도 가자는 말에 이 몸이 칠색 팔색 했던 게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놈의 멀미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 살면서 귀밑에 붙이는 그것이 이토록 절실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레, 레아야... 얼마나 남.. 우우웁!”

“마님, 저기 드디어 성벽이 보이는 게 오늘 중으로 도착 하려나 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진짜?

참말이지?

너 거짓부렁 하는 거 아니지?

여태까지 다 와 간다는 말을 들은 것만 수십 번이라 구역질하면서도 레아를 째려봤다.

그런데 이번엔 레아의 말이 참말인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마차의 흔들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포장된 도로에 접어든 걸 보니 진짜 수도에 도착한 것 같았다.

지옥의 익스프레스에서 드디어 하차다!

수도 아크레테 중심부에 위치한 아스테르 공작저.

중심부의 번화가 중에서도 최고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공작저는 적갈색 흙벽돌로 지어진 클래식한 느낌의 3층짜리 저택이었다.

제국 최고위 귀족인 공작이 머무는 저택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다 할 수 있겠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소박하지만은 않았다.

벽면의 굴곡을 싸고돌며 자라난 담쟁이덩굴과 정원 곳곳에 비치된 회백색의 조각상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층층이 설치된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창까지.

이러한 것들이 저택의 고풍스러운 품격을 한층 더 배가시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품격 있는 저택 앞마당에서는 안주인에 대한 하인들의 후기가 한창이었다.

“제가 본성에 있을 때만 해도 몇 달 새 측근시녀가 너덧 번은 바뀌고 그래서 엄청 까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 전혀 그래 보이지 않던걸요?

오히려 좀 가녀리고 청초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응, 한 나흘 정도 물만 먹으면서 구역질 계속해봐.

그럼 너도 그렇게 돼.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더니.

그래서 영 딴판이 되셨나?”

확실히 그때의 이 몸과 지금은 다르지.

아무렴.

“무슨 소리!

사람 본판은 어디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날 계단 바로 밑에 있어서 확실히 봤다고.

엄청나게 당황하시는 표정이 딱, 곱게 자란 귀족이시던걸 뭐.

게다가 수도로 올라오는 여정에서 어찌나 우리 아랫것들을 살펴주시던지.

역시 소문이란 건 다 믿을 게 못 돼. 암만.”

... 전체적으로 긍정의 뉘앙스니까 뭐.

댁도 통과.

“하긴, 테레지아도 제국에서 손꼽히는 고위귀족 가문인데 그 집에서 오죽 귀하게 자랐으려고.

곱게 자란 영애들이 낯선 곳에 시집을 가면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니 우리 마님이 딱 그 짝이었던 모양이야.”

그건 아직 분석을 못 끝내서.

일단 패스!

“에이,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방에만 있었던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아휴 됐고.

다들 아침부터 무슨 잡담이 이리 긴가.

인제 그만 하고 하던 일이나 빨리 끝내자고 응?

어서!”

한 중년 남자의 채근에 일손을 잠시 쉬며 수다를 떨던 하인들이 이내 흩어졌다.

아... 아깝다.

관리인 아저씨! 쫌만 늦게 등장하시지.

이 몸에 대한 긍정 여론 하나 정도는 더 청취할 수 있었는데.

“저, 마님?”

“으응?”

“전하께서 기다리실 텐데요.

이만 가시는 게...”

아, 맞다.

나 지금 남편 씨 보러 가는 길이었지.

일부러 지체한 건 아니었다.

가던 길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마님’이 어쩌고저쩌고.

그 소리에 누가 내 욕을 하나 싶어서 발길을 멈추고 기둥 뒤에 숨어서 살짝 엿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몰입한 거지.

그래도 청취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들이었다.

애써 작업한 신분세탁의 효과가 수도까지 번지고 있다는 게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래, 레아야.

어서 가자.”

그래, 어서 가서 다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지.

내 달팽이관 옆 반고리관을 혹사시키면서 겨우겨우 도착한 수도 아크레테였다.

이런 개고생까지 감수한 이상, 어떻게든 이곳에서 남편 씨와의 진도를 빼고야 말리라!

공작저 1층 중앙 홀의 식당.

그렇다.

오늘도 남편 씨와 마주한 곳은 식당이었다.

별채의 식당, 본성의 식당, 그리고 이곳 공작저의 식당까지.

저기요.

우리가 아무리 호적상으로 이미 한 식구(食口)라지만 말랑말랑 연애라는 걸 시작하기로 합의해 놓고 매번 밥 먹을 때만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다 애정이 아니라 밥정부터 들겠네.

“어제보단 한결 안색이 좋아 보이는군.”

“네. 도착하자마자 하루 온종일 침대에 묻혀있었더니 한결 낫네요.

그러는 당신은 어때요?”

“나야 뭐 말 타는 게 일상이고.

그리고 난 당신처럼 약골이 아니야.”

“네네, 당신 팔뚝 굵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알베르 말이에요.

매번 곁에서 챙겨주다 없으니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이틀이야.

가신단주에게 인수인계만 끝내고 곧 뒤따른다고 했으니.”

알베르의 합류.

이건 정말이지 나로서도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 하면

뿅! 하고 나타나서

짠! 하고 모든 걸 해결하시는

우리의 만능집사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알베르는 내가 남편 씨와 가까워지려는 것을 처음부터 기꺼워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알베르가 이곳에 와준다면 나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다.

“수도 행을 무척 서두르셨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바쁘실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하자 청하실 줄 몰랐어요.”

“어차피 책봉식에 축하연은 열흘 뒤고 입궁도 급할 건 없어.

내가 여기 아크레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

“... 뭐 그러니까 아직은 한가하시다는 얘기죠?”

“당신과 밥 먹을 시간 정도는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나저나 당신 속을 생각해서 특별히 식단에 신경을 쓰라 했는데.

어떻게, 입맛에는 좀 맞나?”

아... 그래서 식탁이 온통 풀밭에 과수원이었나?

내 앞쪽에 가까이 있는 토마토 가스파초(냉 수프)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들이 메스꺼운 속을 가라앉혀 주는 음식들이었다.

어머, 이 남자 좀 봐.

이렇게 무심한 듯 배려하는 바람직한 남편의 자세는 어디서 배웠데?

사람 심장 말랑말랑해지게.

“네, 속이 한결 편안한 게 제 입맛에 딱 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사실 좀 감동한 거 있죠.”

“?”

“당신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도 할 줄 아는 분이었나 싶어서요.

알베르가 함께 오지 못했으니 당분간 이런 쪽의 기대는 접으려 했거든요.”

내 핑크빛 감동에 남편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당황했나?

아니면 설마 쑥스러운 건가?

겨우 이 정도 감탄에?

“정말 당신은 날 잘 모르는군.”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부터 빨리빨리 알아가야 하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이트 좀 할래요?”

“오늘?”

그래, 오늘! 지금! 당장!

거절은 거절한다.

서울 구경 콜?

수도로 향하는 내내 마차를 뚫고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은 내 정신을 흩트려놓았다.

차라리 들리지 않으면 좀 나았을까?

그때만큼 남들보다 뛰어난 내 청력이 썩 달갑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체 얼마나 멀미가 심하기에 몇날 며칠을 마차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건지.

한참 후미에서 호위기사들과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달리는 아내의 마차로 다가간다는 것이 왠지 나답지 않아서 망설이길 몇 번.

그렇게 나는 출발했을 때의 대열을 그대로 지키다 수도에 도착했다.

식당으로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에 띈 생기가 어제와 달랐다.

다행이었다.

“저 지금 사실 좀 감동한 거 있죠.

당신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도 할 줄 아는 분이었나 싶어서요.”

아내가 감동이라 말하는 데 마음이 무척 불편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정말 당신은 날 잘 모르는군.”

당연히 식사 메뉴를 체크하게 된 것은 알베르의 조언 때문이었다.

자신이 챙겨준 멀미약을 수도 행의 마지막 날까지 복용하게 된다면 식단을 그리 챙기는 게 좋을 거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아내는 나를 잘 모르는 게 확실했다.

어떨 때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날카롭기가 이를 데 없더니 이럴 때는 또 절대 내가 못 할 행동을 내가 했다고 믿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이트 좀 할래요?”

바쁘냐고 물은 아내에게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사실 해야 할 일이 제법 많았다.

하지만 아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아내와 데이트를 가질 거고, 뭐가 됐든 꼭 한번은 아내를 감동시켜야겠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지.”

녹음이 우거진 작은 정원.

이곳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수백 그루의 장미나무였다.

개화 시기가 여름인지라 아직 채 여물지 않은 꽃망울이 아쉬웠지만, 그 푸르고 싱싱한 이파리만으로도 보는 이의 마음을 절로 흡족케 하고 있었다.

“곧 수확의 계절이 오겠지.”

“예, 후작각하.

이제 거둬들이실 일만 남았습니다.”

3월의 봄을 여실히 증명하는 장미꽃망울을 보면서도 후작이라 불린 남자는 수확의 계절이 머지않았음을 말했고, 이에 갈색 머리 중년인은 당연하다 답했다.

“아니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쭉정이를 제거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지.”

“당연히 해야지요.

헌데 그보다는 해충 박멸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로 물음을 가장한 정답을 말하는 중년인.

페레레 로쉬 백작을 향해 후작이 웃었다.

“ 아무렴, 그것이 우선이고말고.

하나를 말하면 둘에 셋을 답하니, 허허.

내 이래서 자네를 아낀다네.”

“영광이옵니다. 후작 각하!”

“허나 해충은 박멸이 무척 어렵지.

쭉정이나 잡초는 손을 쓰면 되지만 해충은 이 머리를 써야 하거든.”

자신의 연푸른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을 잇는 후작의 표정은 무

잠시 머물렀던 미소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가면을 쓴 것 마냥 한 줌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얼굴로 그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어제 오후, 함께 수도의 저택으로 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던가?”

“거리가 멀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말하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걷는 것은 또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허황하다 생각했던 소문 중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랐다라... ”

로쉬 백작의 말을 곱씹어 보던 후작의 무표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로즐린 테레지아.

연푸른 머리카락 외에는 자신을 닮은 구석이 단 한 톨도 없던 그의 둘째 딸.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 아이를 버려서 칼리안 아스트리드, 그놈이 황실의 식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남다 못해 차고 넘치는 장사라 생각했다.

그래서 버렸고, 자신은 큰 이문을 남겼다.

그렇게 잊고 산 지 3년.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그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았다.

로즐린 아스트리드.

쓸모를 다했다 여겼던 아이가 그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아스트리드라는 아주 커다란 패를 손에 쥐고.

“그럼 다시 주워다 쓰면 될 일이지.”

앙리 테레지아 후작.

그는 자신의 둘째 딸, 로즐린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저택 정문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나의 내리막길을 걸어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북적북적한 수도의 번화가에 들어섰다.

가로수로 구분된 차도와 인도.

인도 옆으로 반듯하게 늘어선 3, 4층의 상가.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화려한 건물 양식을 제외하면 무난함, 그 자체였다.

제국의 수도라고 해서 기대가 너무 컸나?

그냥 영화에서 보던 유럽 중세시대의 느낌, 그 정도였다.

굳이 눈길이 가는 걸 찾자면 차도에 말과 마차가 번잡하게 오간다는 것?

그래서 차도 중간 중간에 말똥들이 한 무더기로 짓이겨져 있다는 것?

“흠...”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아뇨, 그냥...뭐...

생각보다 감동이 없네요.”

“감동?”

“네, 그래도 명색이 제국의 수도인데.

전 처음 보면 ‘우와!’ 하는 뭐 그런 감탄사쯤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당신의 친정이 수도와 멀지 않으니까.

기억을 잃었어도 익숙함이 남아있는 걸 테지.”

“... 뭐 그런 가보네요.”

마차를 타지 않고 소박하게 걸어서 번화가에 나온 건, 무척 현명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이쪽을 쳐다보는 눈길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마차까지 타고 왔으면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타들어 가 재만 남았을지도.

‘이걸 타고 나간다고요?’

‘왜? 마음에 안 드나?

요즘 수도에서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한 거라 했는데.’

‘...’

과유불급!

마차가 어땠는지는 설명하기도 쉣이었다.

역시 알베르가 빨리 와야 해.

이곳 공작저를 맡고 있는 관리인은 미적 감각이 쥐똥인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당신, 뭐가 당최 보이긴 하나?”

“그럼요, 제 시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어, 저기 반대편은 가게 전면이 유리로 된 게 쇼윈도인가 봐요.

우리 건너가서 구경하며 걷는 건 어때요?”

오늘 외출의 주된 목적은 남편 씨와의 달달한 데이트가 맞았다.

하지만 얼핏 보이는 쇼윈도의 옷가지들을 보자 이참에 수도의 패션 트랜드를 파악해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궁에 파티참석 등, 사교계 정식 데뷔가 곧 다가올 테니까.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썸도 타고 옷도 사고.

반쯤 시야를 가리는 모자의 챙을 들어 올리며 남편 씨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자 그는 굉장히 모호한 표정으로 내가 구한 답 대신 권유를 빙자한 강요를 해왔다.

“그것부터 먼저 벗는 게 어때?

딱히 예뻐서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내 눈에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남편 씨에게 지적받은 하얀 모자의 디자인은 내가 봐도 무척 난해했다.

머리 부분은 역삼각형 형태로 봉긋했고, 챙은 어깨를 가릴 정도로 넓었다.

게다가 양옆에는 포도송이 형태로 비즈와 레이스가 한데 뭉쳐 달려있기까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챙이 무지막지하게 넓은 카우보이모자의 비쥬&레이스 버전이라고나 할까?

요즘 귀족부인들 사이에서 최신 유행템이라며 마땅치 않아 하는 내게 권했던 건 레아였다.

진짜 이건 아니다 싶긴 했는데...

급한 외출만 아니었다면 이 모자가 나의 최선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안돼요, 절대.

아직 사교계에 공식 데뷔도 하기 전이잖아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얼굴을 노출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조금만 덜 바쁘고, 그래서 내게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모자는 절대 안 썼을 거라고요.”

그럼, 그럼.

수도에서의 첫 데뷔를 이렇게 쌩얼로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고말고.

“그걸 쓰는 게 사람들 눈에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당신만 쳐다보고 있거든.”

이 남자야, 나 말고 너!

지금 다들 너 보는 거잖아!!

힐끔힐끔 보던 자들이 시선이 맞닿는 곳에 올라치면 다들 고개를 꾸벅꾸벅 숙여오는 것이 남편 씨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긴.

국무총리 얼굴이 최소 원빈 급이라면 세상 어떤 국민이 그를 못 알아보겠는가.

이래서 내가 쌩얼을 노출할 수 없는 거였다.

잘생긴 남자 옆에 그냥 생긴 여자.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저분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공작가의 안주인?’

‘헐, 공작이 아깝다.’

절대 그런 소릴 들을 수는 없... 어어!!

덥석!

포옥!

“대체 뭐에 정신이 팔렸기에 앞도 안 보고 그렇게!! ...왜 그러지?

어디 부딪혔나?“

“아... 아뇨.”

네.

방금 당신 가슴에 제 가슴이 부딪혔죠.

심장이 쿵. 쿵. 박동 수를 높였다.

고개를 살짝 들어 상기된 내 얼굴을 남편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지금 허그 중이라고.

당신도 나처럼 떨리냐고.

그런데 망할.

고개를 들어보니 이놈의 모자챙이 내 시야에서 남편 씨를 앗아갔다.

아이 씨, 아무것도 안 보여.

고개를 버벅대는 나를 자신의 가슴팍에서 떼어낸 남편 씨가 한숨을 쉬었다.

“하아. 그러게 왜 그런 모자를 쓰고 와서는.

제발 엄한데 보지 말고 내 옆에 바싹 붙어 걷도록 해.

조금 전엔 가로수였기에 망정이지.

그게 말이나 마차가 된다면 더 이상 당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

말을 마친 남편 씨가 저벅저벅 몇 걸음을 앞서더니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다.

안 오고 뭐 하냐는 눈빛이었다.

뭐야, 이게 끝이야?

그렇게 걱정되면 손이라도 좀 잡아주던가.

아, 진짜.

이왕 이렇게 된 거, 엉?

어디 불안해서 바닥에 놓질 못하게 한번 만들어 봐?

길을 건너려는지 나보다 약간 앞서 사거리 건널목 쪽으로 향하는 남편 씨.

어맛! 하고 비틀 좀 대보게, 어디 돌부리라도 없나?

바닥을 쓱쓱 훑어보며 꾸물꾸물 걸었지만 이놈의 바닥은 야멸차게 반듯했다.

에이, 그냥 내가 먼저 손잡아버릴까?

건널목 앞에 나란히 서서 차도의 마차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찰나였다.

“아하하하하!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어디 따라와 보라고!!

네까짓 게 나를... 어, 이럇 이럇!!

야! 이놈, 왜 이래?!

멈춰, 멈추라고옷!!“

이히히힝!! 푸르릉 푸우!!

엄마얏! 나 살려!!

본능적으로 내 옆에 서 있던 남편 씨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런 나를 감싸 안은 남편 씨가 휘리릭!

솔직히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다.

그냥 눈 떠 보니 4차선의 경계지점이었던 건널목 가장자리에서 한참 물러나 있었다.

“괜찮나?”

“네, 전 괜찮아요.

당신은요? 당신은 괜찮아요? “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 애틋하게 서로를 살피던 순간이었다.

“에이, 이놈의 말이 미쳤나.

이랴, 이랴.

이놈 정신 차려!

어서어서 다시 제대로 달리라고!! “

아. 어이 털려.

난폭 운전으로도 모자라서 사과도 없이 튀려고?

저런... 개념을 지푸라기에 쌈 싸 먹은 새끼를 봤나.

“... 저놈이 곧 안 괜찮아질 거라는 건 내 확실히 답해줄 수 있지.”

“그거참 마음에 쏙 드는 답이네요.”

나서는 남편 씨를 말리지 않고 등 떠밀었다.

어차피 이기는 건 우리 팀일 테니까.

“아하하하하!

이 머저리 같은 자식아, 어디 따라와 보라고!!“

만취승마가 일상인 이 남자, 카다브라 죠다.

얄쌍한 얼굴과 호리호리한 몸매, 그에 어울리는 야비한 이목구비까지.

수도 제일가는 거상의 늦둥이 아들인 카다브라는 얼굴값을 하듯, 세상천지 무서울 게 없는 망나니 중의 망나니였다.

오죽하면 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계집질이요, 가장 잘하는 것이 분탕질이었다.

그런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등을 처먹고, 그렇게 인생을 파탄 내고.

한껏 신이 난 상태로 평소처럼 만취승마를 즐기던 중이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골목을 지나 차로에 접어들려는 데, 느닷없이 그의 말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어, 이럇 이럇!!

야! 이놈, 왜 이래?!“

카다브라는 취중에 제가 중심 못 잡는 걸 모르고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말의 옆구리를 연신 차며 언성을 높였다.

“이놈 정신 차려!

어서어서 다시 제대로 달리라고!! “

반항하는 말을 체벌하기 위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제 허리춤에 달려있던 채찍을 꺼내려던 찰나.

“내려. 당장.”

은발 머리의 미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낮은 어조로 권유를 가장한 협박을 했다.

하지만 만취한 카다브라는 안타깝게도 그 말에 담긴 위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뭐야, 넌?

너나 내 앞에서 꺼져, 당장! “

그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성큼, 요단강을 건넜다.

퍽!

“으악! 아아아악!

내 다리, 내다리이~“

말에서 떨어진 카다브라가 바닥을 구르며 악악댔다.

그의 비명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를 후려쳐 바닥으로 끌어 내린 칼리안은 덤덤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 자식, 너 내가 누구인지 알...”

퍽! 퍽! 잘근잘근 퍽! 퍽!

“아악!! 악! 너 우리 아버지가 ... 허 흐흡, 윽!”

퍽! 퍽! 투탁! 퍽! 퍽!

“아아아아악... 그만! 제발! 살려줘!!... 끄륵.“

밟히면서 조금씩 굴러가던 카다브라의 얼굴이 차도에 떨어져 있던 말똥 더미에 처박혔지만 칼리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밟아댔다.

“저... 나리.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인제 그만 하시는 게...“

카다브라를 밟아대는 칼리안을 한 남자가 만류했다.

“뭐지?

너도 이놈 패거리인가?”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인걸요.“

손사래를 치던 푸른 머리의 남자는 자신의 물건을 카다브라가 잡아채 가 버리는 통에 그 뒤를 쫓아온 거라고 말했다.

“완전 쓰레기였네요. 저 작자.“

“당신, 쓰레기를 너무 폄훼하는군.”

“그랬나요? 제가 인류애가 좀 강한 편이라.”

근처 땅에 떨어진 보따리를 주워든 남자가 칼리안과 로즐린에게 다시 다가왔다.

“저... 나리, 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물건은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가게도 이번 달을 끝으로 문을 닫아야 했겠죠.“

“가게요?”

“예, 방금 찾은 이 보따리가 이번 시즌 저희 가게 신상품 샘플이거든요.

아, 전 이 근처에서 작은 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

흰 바탕의 수수한 명함을 수줍게 내미는 남자.

" 안단테살롱 by 앙드레 초이"

폐업 직전의 뷰티살롱 원장이자 디자이너인 앙드레.

그는 자기 인생 최대 귀인을 이렇게 아크레테 중앙로 사거리에서 만났다.

“저... 저기...”

저벅저벅

“저... 있잖아요.”

저벅저벅

“아이, 정말.

오늘 데이트도 이렇게 망치고 말 건가요?“

“칼리안.”

“네?”

반문하는 아내에게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또박또박 다시 말했다.

“내 이름.

‘저’나 ‘저기’가 아니라 칼리안이라고.“

기억을 잃고 난 뒤에도 내 이름, 몇 번 들어봐서 알지 않나?“

“당신 이름을... 부르란 말인가요?”

“그래, 그 말이야 로즐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 둘이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

그런 것이 데이트라 했는데.

지금 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았다.

아까 그 사거리를 지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허둥대는 아내의 모습은 꽤 즐거웠으니까.

하지만 아까 그 말 탄 쓰레기와 마주하면서부터 나는 놀랐고, 또 분노했다.

게다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후, 만났던 남자 앙드레 초이.

푸른 머리칼에 허여멀건 한 낯짝을 가진 그 작자를 만난 뒤부터 더욱 내 기분은 급격히 다운됐다.

“그래요, 칼리안.

이제 꼭. 꼭. 이름으로 부를게요.

자. 그럼 이제 왜 내게 화가 난건지 말해줄래요, 칼리안?“

“당신에게 화가 난 게 아니야.

그 쓰레기에 손을 댔더니 기분이 나빠진 거지.“

당신이 처음 본 그자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앙드레 초이.

“정말, 그게 다예요?

정말?”

“그럼 또 뭐가 있겠어?”

당신 품에 들어간 그 명함.

또 그자를 만날 건가?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난 또 당신이 나 때문에 화가 난 줄 알고 걱정했지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군.

당신에게 화가 났다면 바로 그 이유를 말해 줬을 거야.

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 풀 수가 없거든.“

그래. 그게 원래 내 방식이지.

그런데 이건... 이건 절대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군.

“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로드샵 구경 좀 해볼까요?”

“그게 무슨 재미를 가져다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덥석.

“자, 그럼 우리어서 저쪽부터 가 봐요.”

내 손을 잡아끌며 웃는 아내를 보자 조금 전까지 가슴 어딘가를 막고 있던 체기가 내려가는 듯했다.

조금 전까지 나빴던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 무척 좋아졌다.

아닌데.

무척 좋다는 거로도 뭔가 부족했다.

내 손가락 세 마디쯤, 겨우 쥐고 있는 아내의 작은 손을 더 크게 감싸 잡고 싶었다.

... 이게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사랑이 뭐냐고요?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죠.’

아까 한 눈을 팔다 사고가 날 뻔 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를 때는 화도 치밀었지.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흰 모자의 챙 아래.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아내의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따라 웃을뻔 했다.

그런 것 같다.

아마도 이 여자가 나는 사랑스러운 것 같다.

오늘 데이트에서는 ‘거짓’이 아닌 ‘진짜’ 나로서 감동을 주려 했는데.

그녀가 선수를 쳤다.

내게 ‘사랑’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 버렸다.

“이쪽으로.

이젠 당신의 집중력과 반사 신경을 도통 못 믿겠거든.“

차도 쪽 방향에서 씩씩하게 내 손을 잡아끄는 아내의 어깨를 잡아 건물이 있는 쪽으로 끌어다 놓았다.

“어디 불안해서 눈을 뗄 수가 있어야지.

모자 벗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 바지락 거리지 말고 이대로 걷자고.“

말을 끝내고 앞만 보고 걸었다.

가슴팍에 닿아있는 모자챙 사이로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감싸 쥔 아내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늘 데이트는 왠지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그 녀석은?

의사는 뭐라 하더냐.“

“한 달 반 정도는 자리보전을 면키 힘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 못나 빠진 놈! 멍청한 놈!”

거구의 몸을 푸들푸들 떨어대던 남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집어 던졌다.

그 충격으로 사방에 흩날리고 있는 서류들.

그것은 수도 제1의 상단으로 꼽히는 ‘쿠노’의 1분기 매출전표였다.

흩날리던 서류들이 바닥에서 진정할 때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인이 그의 주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갔다.

“대낮, 그것도 사거리 대로변에서 벌어진 일이라 아무래도 소문을 수습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사실 시간과 장소만의 문제였다면 막대한 돈의 힘으로 다들 쉬쉬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브라도 제 아들인 카다브라의 추태를 수습할 방도가 없었다.

“어쩌긴 뭘 어째!

우리 같은 장사치가 공작가를 상대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기나 해?

이대로... 시간에 덮이길 바랄밖에.“

“허면 그 살롱 주인이라는 자를 손볼까요?”

하인의 말에 순간 솔깃했지만 아브라는 이내 턱살이 두 겹 접힌 고개를 내저어보였다.

당한 것은 반드시 고리대로 계산하여 철저히 갚아주는 것!

그것이 평소 그의 철칙이라 할지라도 이번 사건만큼은 예외였다.

“아니, 그냥 둬라.

후작각하께서 신경 쓰고 계시는 판국에 괜히 나대다가 우리만 피 볼 수도 있으니.“

그랬다.

본디 중소 상단의 단주였던 아브라가 현재 수도에서 제일가는 상단의 단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기민한 눈치와 탁월한 판단력을 지닌 덕분이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능력을 적절히 발휘한 것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또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그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빨간불.

주행 금지의 신호를.

그리고 그 시각, 테레지아 후작가.

서재의 마호가니 소파에 앉은 후작이 깍지 낀 손을 풀며 허리를 뒤로 기댔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찻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한바탕 소문이 아크레테를 휩쓸고 황궁까지 닿겠군.”

“벌써부터 공작과 함께 있던 여인에 대한 호기심에 말들이 많습니다.”

로쉬 백작의 말에 테레지아 후작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럴 테지.

그 아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도 그럴 진데 다른 이들이야 오죽할까.

... 대로를 함께 거닐었다 했나?“

“예, 꽤 오랜 시간 함께 걷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내 예상을 벗어난 변수라는 놈이 찾아온 게.“

“어찌하시겠습니까?”

“황궁에 연통을 넣게.

책봉일 전에 시간을 내어달라고.

아무래도 내 입궁해서 마마를 뵈어야겠네.“

“명 받잡겠습니다, 각하.”

버린 패의 재활용도 탐이 났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재활용일 뿐.

손에 쥔 비장의 패!

후작에게는 황궁에 고이 모셔둔 그 비장의 패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해.

차원 이동과 빙의, 혹은 영혼체인지 등등.

그런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닐 텐데 말이지.

그래, 그건 확실히 아니야.

... 그런데 그거 말고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나?

“...가 시간을 낼 수가 없거든.

당신은 어떻게 할 거지?

로즐린?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아, 네네 그럼요.

저 다 듣고 있어요, 칼리안.”

그래서 내가 지금 댁 정체를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 밥상머리에서 묻지도 않는 본인의 일과를 낱낱이 내게 보고하다니.

게다가 내 일과는 또 왜 이렇게 샅샅이 파헤치려 드는 건데요.

... 진짜 칼리안, 당신 맞는 거죠?

“당신 그런 표정이 내 말문을 종종 막히게 한다는 걸 알고 있나?”

“제가요?

제 표정이 어때서요?“

“뭐랄까.

내 오장육부가 다 간지러워지게 만드는 표정이지.“

“네? 그게 무슨...”

“아마 당신이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

“!”

“아, 말하지 말 걸 그랬어.

그 표정이 이렇게 금세 사라질 줄이야.“

그래.

우리가 어제 했던 데이트에서 확실히 진도가 나가긴 했지.

남편 씨의 박력 적인 어깨 감싸기에 이어 집에 돌아올 때는 내가 팔짱도 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스킨십을 도전해볼까 설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갑자기 이런 애정표현이라니.

자고 일어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격이었다.

내가 사랑하자고, 연애하자고 말했을 때 저 사람도 이런 심정이었겠지?

아침부터 나답지 않게 말이 너무 많았나.

하지만 내 말에 시시각각 표정이 변하는 아내를 보는 재미에 도저히 말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아, 말하지 말 걸 그랬어.

그 표정이 이렇게 금세 사라질 줄이야.“

당황한 아내의 표정은 사실 여전히 귀여웠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해볼 생각 없냐며 자신에게 물어왔을 때.

그때 내 표정을 본 아내도 지금의 나와 같았을까?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이곳에 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다.

앞으로 아내를 어찌 대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결론은 명확했다.

자신은 아내를 원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자신을 원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려면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지.

그녀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자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이제부터 나를, 내 마음을 그녀에게 알려줄 작정이었다.

단, ‘천천히’라는 부분만 빼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도, 귀족으로서의 의무도 ,그리고 그녀가 꿈꾸는 행복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기다려마지않는 알베르는 아마 오늘 점심쯤 도착할 거야.

생각보다 업무인계가 빨리 끝났다고 하더군.

그리고 오늘 내가 무척 바빠서 아쉽게도 당신과 함께 드레스를 봐줄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일어나봐야 하거든.

허니 어제 고르지 못한 파티의상은 알베르가 오면 상의하도록 해.“

“그럼 종일 저택을 비우시는 건가요?

저 당신한테 물어볼, 아니 할 말이 있는데요.”

“아니, 저택 2층 내 집무실과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할 거야.

늦더라도 저녁쯤엔 얼굴을 보러가도록 하지.

아, 그리고 어제의 사고도 있고 하니 당분간 외출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그럴게요.”

덧붙여 아내의 외출을 관리하는 건, 결단코 그녀의 안녕을 위해서였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알베르,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편한 여정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그동안 강녕하셨습니까?”

한껏 품은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마님의 환대에 알베르는 잘 정돈된 공손한 표정으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요. 오는 길에 멀미로 고생한 것 빼고는 뭐, 호호.

물도 잘 맞고 저택도 편안하고.

단지 알베르가 없다는 게 허전할 뿐이었죠.“

“과찬이십니다. 마님.”

“저... 그런데 있잖아요, 알베르.

그러니까 칼리안, 그 사람은 좀 어때요?“

마님의 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주군의 이름.

약간 놀랐지만 알베르는 예의 그 공손한 표정을 지켜내며 답했다.

“예, 조금 전에 뵙고 왔는데 전하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오늘 하루는 일정이 가득 차 계신지라.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전하께 전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마님이 자신에게 뭘 묻고 싶어 하는지 알베르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하지만 답을 할 수 없으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조차 생전 처음 보는 주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기 때문이었다.

공작저에 도착한 직후, 알베르는 2층에 있는 주군의 집무실에 들어 인사를 올렸다.

그런 그에게 주군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

‘아내를 일정을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수도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곳이니까.‘

주군의 염려는 일견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랬다.

그의 주군은 오후 회의 중에만 무려 세 번, 쉬는 시간마다 마님의 동선을 체크했다.

특히 외출 여부에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헌데 마님, 혹시 오늘 외출이 필요하신 일정이 있으십니까?”

“뭐, 외출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드레스가 필요한 거죠.

어제 살짝 번화가에 있는 살롱들을 둘러봤는데 영 마음에 드는 게 없던걸요.

아무래도 주문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것이 한 벌도 없으셨습니까?”

“네, 단 한 벌도요.”

`

어제 살롱에서 봤던 드레스들 중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입고 있는 실내복을 리폼해서 입겠노라, 로즐린은 단언할 수 있었다.

제국의 패션메카로 불리는 이곳 아크레테의 최고급 살롱들을 죄다 훑고 다녔지만 건진 게 없었다.

문제는 이곳 수도의 트랜드와 로즐린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갭, 거기에 있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차치하고, 일단 그녀의 체형과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은 분위기의 옷들이 가득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 불고 있는 유행 자체도 대략난감이라, 로즐린은 그렇게 생각했다.

“허면 주문제작할 살롱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음... 잠깐만.

아, 여기.

이곳의 디자이너를 불러주세요.

한 20대 중반? 앙드레 초이라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 살롱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중앙로 사거리 안쪽에 살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은 어제 가보질 못했거든요.“

‘아, 이것이었구나.’

" 안단테살롱 by 앙드레 초이 "

마님이 건네는 명함을 받아든 순간 알베르는 직감했다.

주군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던 원인이 바로 이 명함의 주인이라는 걸.

하지만 마님의 명을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었다.

알베르 포드 자작.

그는 충성스러운 집사임에 틀림없었지만,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예, 마님.

바로 연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이 채 남지 않은 황후 책봉식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황실의 행사였다.

큰 행사이니만큼 이를 맞이하는 수도 귀족들의 준비는 일찍부터 분주했다.

때문에 각종 사치품의 수요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했는데, 그런 귀족들의 재화를 가장 크게 뽑아먹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살롱이었다.

드레스와 각종 장신구를 비롯한 토털 뷰티 서비스까지.

부르는 게 값인 이 업계 특성 상, 귀족들의 구미만 맞출 수 있다면 단기간에 몇 천, 몇 만 리엘 당기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에 허덕이던 앙드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최고가의 소재로 샘플 드레스를 제작한 것이었다.

아직 살롱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오는 단골은 없었지만 자신의 재능과 안목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내린 결단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드레스가 훌륭해도 구석진 골목에 위치한 작은 살롱까지 찾아오는 귀족이 없었다.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앙드레의 실수였다.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는 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낡은 벨벳 소파에 주저앉아 빚잔치할 날만 기다리던 앙드레였다.

헌데 조금 전, 공작가의 하인이 그의 살롱을 찾아왔다.

그리고 공작부인이 드레스 주문제작 관련하여 자신을 부른다고 전해왔다.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당최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얼떨떨한 심정으로 공작저 앞에 당도한 앙드레.

그는 붉은 벽돌의 저택을 바라보며 자신의 두 뺨을 손수 꼬집어보았다.

“아야!"

통증이 느껴졌다.

꿈이 아닌 게 확실했다.

"하... 하하하하...

맙소사! 이게, 이게 진짜 꿈이 아니란 말이지?“

아파서 웃음이 나는 앙드레.

그는 욱신대는 뺨을 쓰다듬으면서 느껴지는 현실감을 만끽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꽉 붙들어 잡고 말겠다고.

공작저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앙드레가 도착한 곳은 저택 1층에 있는 응접실이었다.

붉은 계열의 카펫 위로 놓인 옅은 체리 원목 장식장과 티 테이블.

정교하게 음각된 크리스털이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까지.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도 화려함을 잃지 않은 인테리어였다.

하지만 앙드레는 이것으로 공작부인의 취향을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 판단했다.

이곳은 그녀가 잠시 머무르는 임시저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관리인에 의해 유행을 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고급스럽게 꾸며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나저나 공작부인께서 과연 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때 착용하셨던 모자가 요즘 유행하는 아방가르드 스타일이던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로 인해 비록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디자인 스쿨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던 앙드레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롱 운영은 예술의 영역이 아닌 사업의 영역이란 걸 뼈저리게 깨달은 지금, 그는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안전하게 현 트랜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초조함에 빈 응접실을 홀로 서성이는 앙드레.

하지만 그는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냉큼 허리를 90도로 숙여야 했다.

“아, 안녕하십니까? 마님.

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인 앙드레 초이라 하옵니다.“

“그래요 앙드레, 우리 구면이죠?

다시 만나게 되어 저 역시 반갑네요.“

자신의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목소리가 퍽 상냥했음에도 앙드레는 숙인 허리를 들지 못했다.

“아, 그...

소, 소인이 오랜 유학 생활로 수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지라 그때는 미처 두 분을 알아 뵙지 못하였습니다.

혹여 무례를 범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화술의 힘’ 고급반 과정을 만점으로 수료한 보람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앙드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아뇨, 그때 우린 전혀 문제없었어요.

그것보다...

앙드레야말로 지금, 괜찮아요?“

아니, 얘는 명색이 수석 디자이너라면서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대?

이래서 어디 장사하겠니?

어제 그 난리 통에서도 해사하게 웃으면서 명함부터 주기에 아, 영업 한번 제대로 하는 자구나 했더니.

실전에 약한 타입인가?

“레아, 여기 물 좀 내 오렴.”

“예, 마님 여기 있습니다.”

내 눈짓을 본 레아가 잔뜩 굳어있는 앙드레에게 물 컵을 건넸다.

“꿀꺽꿀꺽. 크허, 헙.

괜찮습니다, 괜찮고말고요.

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마님.“

“...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안단테 살롱의 주력 디자인부터 좀 볼까요?”

보여 달라 하면서도 큰 기대는 없었다.

수도의 날고 긴다 하는 살롱들도 죄다 난해하기 그지없는 디자인으로 가득했으니까.

솔직히 ‘앙드레’라는 향수 돋는 이름이 기억에 남아, 한번 불러 본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유레카!!

“... 드디어 찾았다. “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

어떠한 장식도 달리지 않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매끄러운 실크의 광택이 실내등의 빛을 받아 물결치는!!

이전 삶에서 내가 담당했던 VVIP들이 즐겨 찾던 스타일.

‘그’ 것이 확실했다.

역시, 명불허전!

이 남자, 이름이 괜히 ‘앙드레’인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알아보고 채가기 전에 찜해둬야지.

“앙드레, 나랑 전속계약 하지 않을래요?”

“예에?

저, 정말 제가, 아니 제 디자인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완. 전. 내 스타일인걸요.“

그러니까 합시다!

내가 조건 잘 맞춰줄게, 응?

“전속 디자이너를 들였다던데.”

저녁 아홉 시 경.

바빴던 일정을 마치고 내 방을 찾는 남편의 첫마디는 추궁 같은 질문이었다.

“네, 아까 낮에 계약서를 썼어요.”

“이름이 앙드레 초이라지?

그때 그 허여멀건 하던.”

“맞아요, 어제 그 사거리!

당신도 기억하네요?

오늘 그 사람이 가져온 드레스가 완전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에 머무는 동안 제 의상을 전담하는 거로 계약했어요. “

“당신 마음에 들었다니 솜씨가 좋은가 보군.”

“네, 무척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화가 난 얼굴이죠?

오늘 회의가 뭐 잘 안 풀렸어요?“

“...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뭐지?

이 석연찮은 답변은.

대체 얼마나 피곤하면 이를 악물고 인상까지 쓰시는 겁니까? 예?

“그것보다 당신,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어서 말해 봐. 경청하지. “

맞아.

나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긴 해.

“아, 그게요.

그러니까 음... ”

“말해, 뭐든.”

진짜?

진짜 뭐든 말해?

“당신... ”

“?”

“당신 나랑 하고 싶어요?”

“어, 무척이나.

당신은?”

헐.

... 누구냐,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황하거나, 코웃음을 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답이 돌아왔다.

“또 그런 표정이군.

좋긴 한데, 웬만하면 밤에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 “

“... 뭐예요 대체.

회의 시간에 회의는 안 하고 로맨스 소설만 읽다 온 거예요?

당신 지금 완전 다른 사람처럼 구는 거 알아요? “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하게 된 거야.”

“... 네?”

뻔히 다 들어놓고 되묻는 진부한 클리셰.

근데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었다.

내 귀가 미쳤나?

“당신을 원하게 됐다고 했어.

사랑 그거, 나는 벌써 시작했다고.“

“... ”

“그러니까 당신도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는데.”

와.

태어나서 이렇게 센 고백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

내리꽂힌 고백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심우르르쾅쾅의 충격이 너무 거세서.

나는 간신히 한 마디로 그의 고백에 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 ”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깊은 빡침을 느끼고 있다.

‘아’ 라니.

원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한테 ‘아’ 라니!!

세상천지 무슨 그런 병맛 같은 답을 했단 말이냐, 이 몹쓸 로즐린아!!!

“아이, 마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출발해야 할 텐데, 자꾸 이리 움직이시면 머리 장식을 어찌 끝냅니까. “

“... 노력은 해 볼게.”

하지만 레아야, 곧 있으면 또 그 남자와 또 마주해야 할 텐데.

나 발 동동 구르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버티니.

한밤의 고백 이후 지난 이틀간.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나는 그것을 핑계 삼아 최대한 그를 피해 다녔다.

물론 그런 나를 남편은 내버려 두지 않았고 틈날 때마다 얼굴을 비추고 대화를 건네려 했다. 그래서 몇 번은 튀려다가 걸리기도 했고.

하지만 오늘은 피할 데도 없었다.

황후 책봉식 전에 부부동반으로 미리 입궁하여 얼굴 한번 비추라는 황제의 명 때문이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처제를 이리도 살뜰히 챙기시다니.

성은이 망극하여 이불킥이 마차에 앉아서도 절로 나오나이다~

“왜 그러지?

다리에 쥐라도 났나?“

“아뇨, 드레스가 좀 걸리적거려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알베르가 새로 주문한 마차의 쿠션이 그렇게 끝내준다 소문이 돌더니.

남편은 황궁으로 가는 길에 말을 타지 않고 나와 함께 마차에 탑승했다.

8인용 마차인지라 넓디넓어 최대한 떨어져 앉는 것을 노려봤지만, 굳이 역방향으로 앉아서 내가 앉은 위치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남자.

그러면서 가는 내내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대답은 사람을 마주보고 하는 게 예의라는 거, 안다면 나 좀 봐주지?”

“당신이 제 얼굴을 너무 열심히 보시기에 저라도 좀 덜 보려고요.”

“그래도 이제 대꾸는 잘 해주는군.”

피식 웃으며 건네는 그의 말에 뜨끔함이 열두 번은 왕복을 했다.

“...미안해요.

제가 요 며칠 좀 티 나게 당신을 피했죠? “

“뭐에 대한 사과지?

날 피한 거? 아니면 티 내버린 거?“

“둘 다요.“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면 좋겠군.”

옆으로 비껴두었던 시선을 살짝 앞으로 돌렸다.

나를 향한 남편의 시선에 여전히 웃음기가 묻어있었다.

규칙적인 말발굽 소리와 마차의 흔들림.

그 속에서 오롯이 느껴지는 남편의 시선.

제법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서로 바라봤다.

그 시간이 복잡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있던 내 마음을 서서히 진정시켜주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의 판을 흔들고, 그걸 제대로 휘어잡으면 내가 원하는 다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뭐, 어차피 덤으로 얻은 인생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생각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차선책을 찾으면 될 거라, 그렇게 편하게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연히 상상했던 남편의 고백을 듣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남자, 나에게 정말 진심이야.

끝내주게 잘생긴 연예인과 가상결혼한 것 마냥 설레고 들뜨고.

내가 해 보지 못했던 연애, 멋진 데이트들을 버킷리스트 작성하듯 설계하고.

그랬던 내 모습과 마음가짐들이 그의 진심 앞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밤새 이불킥 하다가 해 뜨면 또 해 질 때까지 피해 다니길 반복한 거였는데 그런 나를 이 남자는 여전히 사랑스럽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안 그럴게요.

이젠 안 그럴 거예요.“

그래요.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각성했어요.

앞으로는 완전 진지하게 당신과 연애 해 볼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런 다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쓸데없는 궁리 같은 건 이제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바랐던 말처럼... 최대한 서둘러도 볼게요.

“부디.

그 생각 변치 말라고.”

“어디쯤 오고 있다 하더냐.”

윤기 나는 검정 벨벳 소파에 앉아 냉랭한 목소리를 내뱉는 여자.

그녀의 외모와 차림새가 범상치 않았다.

새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탐스러운 적발.

또렷한 이목구비 위로 흐르는 도도한 기품.

선홍색 루비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가 감싸고 있는 육감적인 실루엣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의 시선을 훔칠 수 있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이처럼 한 눈으로 봐도 고귀한 신분임에 분명한 여자의 이름은 샤를로트 브란델.

브란델 제국의 현 1 황비이며, 며칠 뒤 황후의 봉작을 받게 될 로즐린의 언니였다.

“예, 마마.

조금 전 저택을 나섰다 하니 30분이면 입궁할 것이옵니다. “

시녀의 답을 듣던 샤를로트는 이틀 전 자신을 찾아왔던 테레지아 후작,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마마의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만이 진실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언제고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제 말 아시겠지요?‘

어찌 모를까.

열여덟, 자신이 성인식을 하던 그 날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왔던 말.

그리고 스물다섯, 뼈저리게 실감하고 자신을 통곡케 했던 그 말을.

3년 전, 자신의 발목을 옥죄어버린 족쇄.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준 그 족쇄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하지만 결코 이 고통을,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리라.

‘대신 너를 나의 위로로 삼으면 될 테니.’

그러니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샤를로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황궁의 정원과 맞닿아 있는 테라스 형 식당.

사사롭게는 인척관계이니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한 곳에서 밥이나 한 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황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금 이곳의 인원은 나와 남편을 포함해 총 다섯이었다.

황궁의 식당 치고 무척 작은 직사각형의 테이블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기에 충분했다.

일단 중앙의 상석을 차지한 남자, 카렐 폰 브란델.

브란델 제국의 황제이자 내 남편의 상사였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는데 금발의 푸른 눈동자가 헐리우드 배우를 연상케 했다.

한마디로 다 가진 남자였다.

그리고 황제의 오른쪽으로 첫 번째, 샤를로트 브란델.

1황비이자 다음 주면 황후가 될 여자.

화려한 외모와 섹시바디를 소유한 그녀는 자연광 아래에서도 빛이 났다.

이 몸의 언니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나란히 앉은 두 번째, 나탈리아 브란델.

30대 후반으로 나이가 좀 있어보였는데 굉장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예쁜, 그러니까 청초함과 고전미가 공존하는 여자였다.

평민 출신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 2황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더니 그럴 만 해 보였다.

아무튼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긴 것이, 눈은 즐거웠다.

그래, 눈만.

“어떻게, 음식이 입맛에 좀 맞나 모르겠소.

공작부인의 기호를 아는 이가 없어, 내 1황비에게 준비를 맡겼는데.“

“폐하, 로즐린 저 아이는 본디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가려 먹는 것도 없었지요. “

아닌데?

내 입맛 완전 까다로운데?

초딩 입맛이라 비린 거 입에도 안 대는데?

“아스트리드 영지가 바다와 맞닿아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이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기에 익숙한 것이 좋을 듯 하여 그리 준비해봤는데.

공작께서는 입맛에 맞으십니까? “

황제가 물어온 질문을 채가서 말문을 막는 것도 모자라, 3년 만에 만난 동생은 쳐다도 안보고 제부 입맛부터 챙기는 언니라니.

언니와 내 사이는 남보다 못한 게 확실했다.

워낙 고상한 말투와 목소리인지라 눈치 없는 사람이 들었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치는 5G를 후려치는 속도였고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시종에게 저와 제 아내의 식성을 귀띔해 두어야겠습니다.

당분간 입궁할 기회가 적지 않을 듯한데, 매번 에피타이저와 후식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헌데 폐하, 혹시나 해서 여쭙는 것인데 제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잊으신 겁니까? “

“하하하. 그럴 리가.

한 치의 틈도 없이 완벽해 보이는 자네에게 그런 빈틈이 있다는 걸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나.“

“그런데도 아까부터 자꾸 제 앞으로 이것들을 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접시 바로 옆의 커다란 랍스터를 비뚜름하게 쳐다보며 남편이 말하자 황제 역시 비뚜름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재미있잖나. 자네가 포크로 샐러드만 깨작대는 모습이.

그러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싶었으면 내가 오랄 때 재깍 왔었어야지.

매번 거절하는 건 무슨 배짱인가, 응?”

“오면 뭐합니까? 골치만 아프지.

그리고 폐하 곁에는 단테스 후작이 있질 않습니까?

저 좀 그만 찾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듭니다.“

와... 친 황제파의 핵심인사라더니.

이건 뭐 군신관계가 아니라 소싯적 군대 선후임 관계인 줄.

두 사람의 만담 덕분에 내 말을 막았던 1황비의 질문은 공중분해가 됐다.

그럼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쥔 손을 우아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강적이었다.

“제 군주에게도 이리 불성실한데 남편 노릇은 제대로 할까, 내 심히 걱정이 돼.

사사롭게는 자네의 부인이 내 처제 아닌가 말이야.

어떠시오. 공작부인이 보기에 공작이 배우자로 성실한 편이오?“

내가 아무리 이빨이 세다지만 무려 제국의 황제가 있는 자리였다.

때문에 평소 남편에게 하던 것처럼 톡톡 끼어들지 않고 적당히 분위기를 파악을 해 가며 식사에 열중하는 척 말을 아끼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황제가 나를 대화에 동참시키려 애써 주시는데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응답을 해야겠지.

“예, 폐하.

너무 성실해서 탈이옵니다.

1황비님의 말씀처럼 제가 원래 입이 짧고 소식을 하는 편이라 식사를 그리 챙기지 않은 편인데 전하께서 제게 매끼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하시니...

보기 흉하게 살이 붙으면 어쩌나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

내 말에 황제와 2황비는 호오? 하는 표정으로 놀라운 눈치였고, 1황비는 여전히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은 했을 거다.

하지만 나의 파워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지.

어디서 행복한 척 연기냐, 그 연기 꽤나 참신하다만 재미는 없구나.

뭐 이런 의미가 압축된 코웃음을 그녀의 입 꼬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코웃음은 3초를 채 넘기지 못했다.

“식사 시간이 아니면 도통 당신을 보기가 힘드니 그거라도 같이 할 수밖에.

그리고 매번 수프나 푸성귀 따위로 배를 채우면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라니.

난 어느 세월에 내가 당신 살 찐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문이야.

그러니 그만 깨작대고 이거나 좀 들지.

해산물은 싫어해도 생선은 좋아하잖아, 당신. “

여봉, 나이스샷!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

핑! 하면 퐁!

MSG가 듬뿍 첨가된 내 멘트에 남편은 아주 바람직하게 맞장구를 쳤다.

생선이 덜어진 앞접시를 보다 피식, 의기가 양양해서 다시 1황비를 쳐다봤다.

그런데... 저건 대체 뭔 표정이야?

그녀는 내가 아니라 남편을 향해 놀란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여전히 표정은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다물어진 입매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로열패밀리 멤버들 역시 남편을 보느라 그녀의 표정을 살피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건 분명 원망의 눈빛이었다.

지 앞접시에는 왜 생선 안 덜어 주냐는 눈빛은 아닐 테고.

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뭘 본건지 모르겠군. 허허.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두 내외에 대해 사실 걱정이 좀 있었는데 말이야.

정말 이거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군 그래. “

“신첩도 아스트리드 공작에게 저리 다정한 면이 있는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공작부인께서는 복도 많으십니다. “

“음... 나탈리, 그대의 말 속에 짐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는 듯 한 건 내 작은 오해겠지?”

황제의 능청스러운 말에 작게 웃고 마는 2황비.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정없이 햄을 볶아대고 있자 참고 있기가 힘이 들었는지 드디어 1황비가 감추어 두었던 이빨을 드러냈다.

“로즐린, 폐하의 말씀처럼 나도 그 소문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단다.

네가 우울증으로 방에만 칩거하다가 갑자기 호수에 몸을 던졌고, 그 일로 기억까지 잃었다기에 결혼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지만 차마 묻지를 못했지.

지금은 괜찮은 것이야? “

영지 내에도 파다한 내 우울증과 사고, 기억상실을 황실에서 모를 리 없다는 건 예상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내용인데다 개인사였으며 공작가에서 이미 단순사고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황제조차도 부풀려진 루머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헌데 이 분위기 훈훈한 상황에서 언니라는 여자가 그 소문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단어 선택이 매우 의도적이었다.

나와 남편의 불화가 존재했음을 확신하는 듯 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듣고 싶은 것 같았다.

“1황비께 저희 부부가 괜한 걱정을 안겨드렸군요.

송구합니다.

허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두셔도 됩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제가 아내에게 그동안 무척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해서 이제 일보다는 아내에게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 폐하, 저 좀 수도로 그만 부르십시오.“

나를 향한 질문에 남편이 답을 하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혼란과 원망.

그리고... 애증.

확실했다.

내가 느낀 그녀의 눈빛은 동생 남편, 혹은 남편의 신하를 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남편은, 칼리안 아스트리드는 남자였다.

와...

이건 뭐 판타지에서 스릴러 찍더니 이제는 막장이야?

그래, 어쩐지.

배다른 자매라서 날세우고 경계 하는 거라 여기기엔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어.

1황비와 이 몸은 이복자매였다.

아버지, 그러니까 테레지아 후작의 첫 번째 부인 소생이 샤를로트, 그리고 사별 후 두 번째 부인의 소생이 로즐린.

그리고 이 몸의 친모는 4년 전쯤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수도로 출발하기 전, 알베르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1황비를 향한 남편의 무관심과 철벽이 선명히 보였기에 무척 만족스러웠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1황비는 내가 지금껏 봤던 여자 중에 가장 예뻤다.

내가 남녀 가리지 않는 얼빠였다면 당장 사인이라도 받고 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런 그녀를 식어빠진 게살수프 보듯 쳐다보는 남편의 시선이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편 골키퍼가 아무리 신의 손이라 할지라도 페널티 라인 안쪽까지 치고 들어와 공을 차대는 불법 스트라이커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보, 이것 좀.”

몸을 남편 쪽으로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지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내가 보란 듯이 몸을 좀 많이 들어댔거든.

“아... 여기.”

얼마 뒤, 내게 되돌아온 앞접시 위의 생선은 먹기 좋게 가시가 다 발라진 채였다.

나는 내 앞에 접시를 내려놓는 남편을 향해 눈웃음을 치다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고개를 틀었다.

봤지?

넌 이제 언니도 아니야 이년아!

네가 먼저 좋아했든 말든, 이미 이 남자는 내 꺼야.

그러니까 짜져있어!!

황제는 지금 이 상황이 재미있어 죽을 지경이었다.

‘1황비의 표정이 아주 볼만 하군.

지금 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나본데.

하긴, 알게 된다면 그 고고한 자존심에 혀를 깨물지도 모를 일이지. ‘

며칠 뒤면 황후가 될 여인.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서게 될 반려.

하지만 결코 함께 걸어갈 수는 없는 찬신의 장녀.

이름자 뒤에 브란델이라는 성이 붙어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테레지아였다.

‘언니는 테레지아의 이름으로 결코 가질 수 없는 자리를 탐내고 있고...

동생은 테레지아라는 이름으로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남자를 가지게 됐군.‘

황제는 1황비, 샤를로트가 칼리안을 마음에 두었던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제국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황제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수년 전의 일.

게다가 칼리안은 정적의 딸인 그녀에게 눈곱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했다.

‘이루어지지 못할 사이라 포기했던 남자가 동생의 남편이 되어 나타났으면...

뭐, 저 정도 표정 관리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군.

저런 점만은 제국의 황후 자리에 부족함이 없는데 말이지.‘

본궁의 연회장이 아니라 이곳 별궁의 식당을 만남의 장소로 정한 것이 최근 그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황제는 자신의 앞에 놓인 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미세한 표정들도 한 눈에 보이는 거리감이 아주 흡족했다.

‘헌데 정말 이전의 소문들이 다 과장된 거였나?

아니야. 정보팀의 보고로는 심각한 우울증이 틀림이 없다 했는데. ‘

한 번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칼리안과의 정략혼이 결정된 순간부터 황제는 로즐린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였다.

테레지아 후작이 요구한 거래의 조건.

그것의 이면에 숨겨진 패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 후의 로즐린보다는 그 이전, 그녀의 성장과정에 관심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정보와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여보, 이것 좀.”

“아... 여기.”

꿈에서도 상상 못할 칼리안의 팔불출 짓이 황제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래, 아무려면 어떤가.

어차피 테레지아 후작은 본인의 야망을 위해 딸을 버렸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자신의 처제는 테레지아가 아니라 아스트리트의 이름을 선택한 게 확실해 보였다.

‘황후 책봉식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은 몰랐군. ’

그리고 후작도 며칠 뒤면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까드득 까드득

샤를로트는 앙다문 입술을 짓씹으며 매끈하게 잘 관리된 긴 손톱으로 연신 소파 팔걸이 부분의 벨벳을 긁어대고 있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자신의 행동이 품위 없어 보인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애써 삼킨 불덩이가 목구멍을 치고 나와 버릴 것 같았다.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시중들던 시녀도 방에서 물린 상태였다.

‘감히... 감히...

제까짓 게 미치지 않고서야.’

까드득 까드드드득 투둑

고조되는 분노에 손아귀의 힘이 점점 더해갔다.

손톱으로 긁어대던 부위의 벨벳이 까지고 패여 속살이 드러난 소파 팔걸이의 색이 흉측해졌지만 샤를로트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는 덜떨어진 반편이.

자신과 아버지의 수치이자 테레지아의 유일한 오점.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억하는 로즐린 테레지아였다.

타고나길 오죽 못났으면 열 살이 다 되도록 별채에만 가두어 키웠을까.

처음 그 아이를 대면했을 때, 불과 열한 살이었던 샤를로트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저런... 저런 버러지 같은 것이 내 동생이라니..."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후작가에 들어앉은 엠마 테레지아, 로즐린의 어미도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죽을 때까지 온전한 정신을 되찾지 못했다.

로즐린, 그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

자신을 닮은 그 푸른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면 그 씨를 의심했을 것이라, 아버지인 테레지아 후작이 언제고 이런 말도 했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

그저 황제와 제 아비 간 거래의 산물일 뿐이라고.

자신은 선택받은 거고, 로즐린은 버림받은 거라고.

정적의 딸이자 비루하기 짝이 없는 로즐린 따위를 칼리안이 아껴 줄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황제의 후궁이 된 자신에게 칼리안과 로즐린의 결혼 소식을 전하던 아버지를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은 진실은 그간의 확신을 처참히 짓밟았다.

자신을 거부했던 칼리안이 로즐린, 그 아이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상실이라던 로즐린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반편이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로즐린과 다정히 시선을 맞추는 칼리안의 모습에 샤를로트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어쩐지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젠 그를 향한 미련보다 원망과 분노가 더 커진 것 같았다.

이 정도의 변화를, 충격적인 진실을 자신의 아버지가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헌데도 이틀 전, 자신을 찾아와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이 진실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했었지.

지겹도록 들었던 그 말,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자 더욱 미칠 것 같은 샤를로트였다.

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신중하란 말인가.

황제 앞에서 참지 못하고 악다구니라도 쏟아낼까, 그리하여 혹여나 황후 책봉식이 취소되진 않을까 그것을 걱정했을 테지.

결국 자신도 아버지에게는 딸 둘 중에 하나요, 필요한 거래에 이용할 장사 패에 불과했던 거다, 그리 이야기가 정리되는 순간 샤를로트의 분노가 독기로 변했다.

부르르 떨어대는 전신과 함께 굽이치는 붉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독기를 대변했다.

‘결코... 내 이대로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3년 전 발목에 씌워졌던 족쇄가 이젠 아예 자신의 발목을 잘라내려는 듯 작심하고 고통을 주는데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견딜 수 없다면 아예 잘라내 버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족쇄, 로즐린을 잘라버릴 칼은 다른 누구도 아닌 테레지아 후작, 자신의 아비가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샤를로트가 내린 결론이자, 차기 황후로서 그녀가 가질 위엄과 품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로즐린!

너는 그저 나의 위로로만 남거라.

그것이 테레지아의 오점으로 나고 자란 네 몫이다. ‘

그리 된다면 칼리안, 그는 자신이 느꼈던 상실감과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될 것이었다.

방법을 찾은 샤를로트의 손가락이 분노에 찬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러진 손톱은 더 이상 소파의 벨벳을 긁지 않았다.

“어이, 거기 너 뒤로 빨리 안 빠져?”

“아이참, 단장님.

저도 아스테르 기사단원입니다.

우리 같은 편이라고요.

보는 눈들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박대하실 겁니까? “

에두와르 백작의 눈 부라림에도 기죽지 않고 답하는 남자는 베아스였다.

“에혀... 너같은 걸 친구라고 챙기던 토츠 그놈만 불쌍하지. ”

“아! 진짜 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렴 수도 오겠다고 토츠에게 설사약이라도 먹였을까봐서요?“

“시끄럽고 빨리 줄이나 제대로 맞추지.

수도에 왔다고 훈련을 게을리 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야.“

공작부부보다 늦게 수도로 올라올 알베르의 호위를 위해 아스테르 영지에 남아있던 기사 토츠.

출발 당일 급작스럽게 복통을 일으킨 그를 대신해 수도로 온 기사가 베아스였다.

그렇게 수도로 보내 달라 하던 걸 간신히 쳐냈는데 결국은 대타로 수도행에 성공하다니.

며칠을 두고 자신은 억울하다 항변하는 베아스를 보면서도 에두와르 백작은 여러 모로 그를 의심 할 수밖에 없었다.

‘음흉한 자식.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아, 진짜 저게 내 수하기에 망정이지.‘

저놈의 깝죽대는 말투를 들으니 벌써부터 혈압이 상승하는 것 같다 생각한 에두와르 백작은 차라리 베아스를 외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 신경 쓰다가는 훈련이 지체될 것이고, 그러면 오전 회의에 늦게 되어 공작전하의 심기가 불편해 질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예민하신 분이 절대 아니었는데.’

수도에 온 이후 그의 주군은 공작령에서와는 다르게 유독 식사 시간을 칼 같이 챙겼다.

혹여 업무 때문에 식사시간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때면 굉장히 조급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엊그제 부부동반으로 황궁에 다녀온 이후부터 그 증상이 부쩍 심해지더니 이젠 주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짜증까지 부렸다.

‘뭐, 그것도 마님 앞에서는 눈 녹듯이 단박에 풀려버리고 말테지만.

그나저나 어쩌다 두 분 사이가 저렇게 급격하게 가까워 지신거지?

거 참 남녀 사이라는 게 아무리 둘만 아는 거라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

이전과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이 아닌가 말이야. ‘

로즐린의 사고로 인해 칼리안 대신 영지 순찰을 가고, 또 그간 이래저래 밖으로 돌아다녀야 했던 에두와르는 공작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일을 잘 몰랐다.

하지만 그런 그도 단박에 눈치 챈 것이 로즐린을 향한 칼리안의 눈빛이었다.

그런 눈빛은... 장님이 아니고서야 모를래가 모를 수가 없었다.

‘전하의 그런 마음을 마님께서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

로즐린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칼리안의 곁에서 테레지아 후작가의 온갖 야비한 짓을 겪었고, 또 지켜봐왔던 에두와르의 눈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텐즈강 바닥의 돌멩이 개수는 헤아려도 사람 마음속은 헤아릴 수 없다 했다.

해서 이미 눈이 멀어버린 제 주군의 몫까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지켜볼 참이었다.

하지만 조심은 조심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군과 마님의 진도를 막을 재간은 없었다.

그저 마님의 변화가 진심이기를, 또 진심이라면 앞으로 변치 않기를.

에두와르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했다.

“알베르에게 들으니 앙드레 그자가 또 요상한 걸 들고 왔다고 하던데.”

알베르,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설마... 아니죠?

내가 시선을 보내자마자 레아에게 찻잎을 건네받아 뜨거운 물에 우려내던 알베르가 곧바로 반박을 했다.

“전하, 신은 요상하다 한 적이 없습니다.

‘특이한’이라고 했지요. “

“뭐가 됐든 그게 그 뜻 아닌가.”

‘댁의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표정으로 알베르가 내게 시선을 다시 보내왔다.

“칼리안, 당신 내가 하려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내 분명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분. 명. 히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삐딱함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게다가 지금도 앙드레가 돌아가자마자 제 방에 오셔서는 탐탁지 않다는 듯 추궁하시잖아요. “

“...글쎄.

난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이봐, 남편.

그 되도 않는 모르쇠 따위 저쪽으로 치우시지 당장!

“여보! 칼리안 당신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굴 거예요?”

“어지간히도 비싸게 굴더니.

그 놈의 여보 소리를 이리 쉽게 들을 줄 알았으면 진즉에 내 비협조적으로 굴걸 그랬어.“

“... 당신 그 여보 소리 며칠 새 벌써 한 백 번 쯤은 한 거 알아요? ”

“그러게.

나는 당신에게 백 번이나 해줬는데 당신은 달랑 한 번만 해주고 그만이니.

이건 너무 내가 밑지는 장사군.”

“전하, 방금도 한 번 들으셨으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아... 진짜.

누가 둘도 없는 군신지간 아니랄까봐.

이렇게 합공을 하시나.

이 마당에 레아 너는 내 편 들어야지, 그렇게 웃기만 하니?

“알았어요, 알았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보라고 부르는 게 뭐 어렵나요?

간간이 불러드릴 테니 억지로 부르라고 아무 때나 강요만 하지 마세요.

그거 의식하면서 부르는 게 얼마나 낯부끄러운지 알아요? “

그때 내가 황성 식당에서 ‘여보’를 간드러지게 뱉을 수 있었던 건 1황비에게 한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낯부끄러움을 뛰어넘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놈의 남편은 그것에 맛이 들렸는지 시시때때로 ‘여보’라 부르기를 요구했다.

“뭐가 낯부끄럽지?

우리는 엄연히 부부사이고, ‘여보’는 사이좋은 부부지간에 으레 쓰는 호칭인데.“

“아니, 아직 거사도 치르지 않았는데 무슨... 헙!!”

“크흐흠!”

“어머!”

아... 망했다.

이 무슨 동네 아주머니스러운 멘트란 말인가.

간신히 주워 담은 엘레강스고 나발이고.

텄다, 텄어.

“알베르, 잠시 나가있게.”

“예, 전하.”

알베르는 진즉에 자리를 뜨고 싶은걸 간신히 참고 있었다는 듯이 바람처럼 방 밖으로 빠져나갔다.

물론 레아까지 달고서.

“왜, 왜 갑자기 다들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불안하게시리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왜!!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려고.”

“뭘요?”

“당신이 방금 말한 거사.

그 거 우리는 언제쯤 치를 수 있나 해서. “

“그건 아직 우리가 데이트도 두어 번 밖에 안 했고, 에 또... ”

“아니.

그게 더 이상 우리 거사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그날 마차에서도, 그리고 당신 언니 앞에서도 우린 분명히 뭔가 진전됐어.

아닌가? “

“... 그랬죠. 그랬어요.”

저렇게 진지하게 물어오는 데, 아니라고 발뺌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은 피하거나 딴 궁리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나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왜지?

당신도 날 원하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걸 항상 데이트라는 구실로 가리려고 하지.

마치 나에게 심장이 뛴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기왕 말이 나왔으니 어디 한번 솔직히 말해 봐.

이런 느낌, 단순한 내 착각인건가? “

이 남자, 진짜 타고난 기술자인 게 분명하다.

평소엔 눈치도 드럽게 없더니.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파고들어 정곡을 찔러댄다.

“내가 말하면.

그러면 당신도 솔직하게 대답해 줄 건가요?“

“기꺼이.”

“그게 예전 우리 관계의 은밀한 부분까지 후벼 파는 거라 해도요?”

“...그래. 그러지.”

잠시 주춤했지만 남편은 연이어 긍정의 답을 했다.

그래.

마주하고 꺼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기왕 판이 깔렸으니 이 참에 하는 게 났겠다 싶었다.

“칼리안, 나는 예전의 나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잃긴 했지만 난 알 수 있어요.

몸만 같을 뿐이지 내 머릿속이, 생각이 완벽히 바뀌어 버렸다는 걸요. “

“그래. 그건 나도 동감이야.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같이 변했지.“

“그럼 예전의 내 모습, 그러니까 당신과 밤을 보냈던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나를 완벽히 분리해서 생각해 줄 수 있냐고요. “

그를 사랑 하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랑이란 내가 생각하는 남녀 사이의 종착점이고 완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를 원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원했다.

그리고 이토록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밤을 함께 보내길 피하는 이유.

그건 욕심이었다.

“완벽한 분리?

그게 가능할는지 생각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난 잘 모르겠군.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내 아내고 앞으로도 영원히 로즐린 아스트리드야.

그리고 난 지금 내 아내를 원하고 있는 거고. “

있잖아요.

되게 웃기는 말이긴 한데요.

당신에게 영원히 할 수 없는 말이란 거 아는데요.

당신과 잤던 몸으로 당신과 처음을 보내는 게 화가 나요.

이제 내 몸인데... 내가 로즐린인데.

이런 나를 가지면서 내가 아닌 로즐린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될 당신이 싫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만 신경 쓰게 될... 그런 내가 싫어요.

진짜 어이없죠? 내 욕심.

“예전에 우리 사이, 비참했을 거니까요.

그 순간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난 알 수 있어요.

당신과 나, 굉장히 비참하고 쓸쓸한 관계를 가졌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전부, 완전히 잊어줘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얘기해줄래요?

나랑 같이 하고 싶다고. “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지금의 나만 원한다고 확실하게 말해줘요.

내가 당신을 가질 수 있게.

“과거의 당신을...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건가? “

“말했잖아요. 이제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고.

불행했던 과거 기억이 낄 자리 따위, 만들고 싶지 않아요. “

“...”

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남편은 내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간의 침묵 후, 한차례 깊고 긴 한숨을 내뱉을 뿐이었다.

남편의 한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급해졌다.

저 남자가 이대로 방을 나가버리면 우리 관계는 한동안 또 소강상태겠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당장 답해 달라 말할 걸 그랬나.

그랬다면 저 한숨 대신 고백의 말을 내게 건넸을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준비가 되면 말해 달라 해 놓고선 나는 남편의 짧은 침묵 속에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원형의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 발걸음을 떼는 남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렸다.

“칼리안, 잠깐마...!! ”

덥썩!

그 순간, 방 밖으로 나가버리려는 줄 알았던 남편이 티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 걸쳐선 나를 잡아끌었다.

“아!!”

너무 꽉 잡아 쥔 남편의 손길에 어깻죽지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내 입술에 맞닿은 그의 거센 움직임과 뜨거운 호흡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신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으...우웁...”

그도 나도 눈을 감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댔다.

맙소사.

마주치는 시선에 온 몸이 후끈거렸다.

그렇게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진득한 키스, 또 키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호흡이 점점 가빠왔다.

구속된 입술 대신 숨을 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내 머리와 몸의 연결이 끊어진 것 마냥 그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아, 어떡해 해.

이제 멈춰야 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키스에 현기증이 나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감자 부딪쳐 오는 입술의 촉감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흐으... 으읍”

여보, 칼리안.

당신 키스 진짜 끝내 줘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쫌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나 이제 너무 힘든데.

그랬다.

타고난 기술자답게 그의 입놀림은 황홀했다.

하지만 부족한 연애센스 탓인지, 아니면 너무 참다가 터져버린 탓인지.

‘적당히’ 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멈출 기색이 전혀 없었다.

허공에 굳어 있던 양 팔을 휘젓다가 스치는 옷자락을 꾹 잡아 쥐었다.

토닥토닥. 버둥버둥.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그 대답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양 팔로 온갖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남편은 어깨를 잡았던 두 손 중, 오른손을 들어 내 뒤통수를 받치더니 위에서 아래로.

더 격정적인 키스를 이어갔다.

“으... 츄으...읍!! ”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퍽!!

“으윽!”

어퍼컷을 맞은 배를 움켜쥐고 남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주먹은 물주먹에 불과했지만 한가운데를 노리고 들어간 탓에 다행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자유를 찾은 입술로 숨을 들이키며 물러선 남편을 째려보았다.

“하아, 하아, 흐, 흐으...”

헥헥 거리고 있는 나를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로즐린... 당신...”

차마 괜찮냐고 묻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

뭐 이렇게 막 들이대나 싶어 뾰족해졌던 눈꼬리가 확 쳐지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아하하.. 하아.. 하하”

웃음과 함께 숨을 몰아쉬었더니 물러섰던 그가 다시 한걸음 다가섰다.

그런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툭.

이마만 기댔을 뿐인데.

잦아드는 내 숨소리와 반대로 남편의 숨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의 가슴께에선 거센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잠깐.”

툭 내뱉듯 짧게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이마를 떼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뭐야.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불타올라 어쩔 줄을 모르더니.

갑자기 표정이 왜 저래?

“알베르!!”

거친 목소리로 알베르를 부르는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예, 전하.”

“오늘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찾을 때까지는 들지 말고.”

“예, 전하.

그럼 두 분, 편히 쉬십시오.“

뭐?

일정을 취소해?

편히 쉬라고?!

아니, 저기요... 칼리안.

당신 급한 건 알아요, 내 다 안다고.

그런데 우리 점심 식사 끝낸 지 아직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무슨 일이냐, 두 번 묻지도 않고 알베르는 방을 나갔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말했다.

“당신과 하고 싶어.”

“...칼리안.”

“키스하는 내내,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순간도.

당신 말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 따위는 없었어.

완벽한 분리, 그게 가능하단.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단 얘기야. “

나를 당장 원한다고 고백하는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한 줌의 여유도 보이지 않는 그 표정이 낯설면서도 짜릿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공감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이젠 실체도 없는 과거 로즐린을 향한 질투 아닌 질투.

그리고 진짜 이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어딘가 모르게 찝찝했던 그 마음들이 남편과의 키스 앞에 힘을 잃었다.

아니,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더 정확했다.

내 부실한 심폐기능만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와의 키스는 진행 중이었을지 몰랐다.

정말 그 순간, 서로 닿은 입술의 감촉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과 지금 당장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다.

나도 나름대로 첫날밤을 위해 준비하려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거사가 좀 아쉬웠다.

이건 절대 그를 애태우려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일정까지 취소하시는 건 좀.

저도 준비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밤에... ”

“아니, 지금이어야 해.”

단호하게 말을 자른 남편은 내 팔을 잡아끌고 비어있는 벽난로를 지나 침실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오늘에서야 깨달은 게 있어.

연애나 사랑, 그리고 밤을 함께 하는 데 준비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것저것 따지다가 쓸데없이 복잡해지기만 하거든.“

“어...어... 저기요, 칼리안!

여보! 잠깐... ”

털썩

반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진 나를 양팔에 가두며 남편이 몸을 기울여왔다.

좀 전의 키스로 제법 흐트러진 그의 은발이 내 호흡에 나풀거렸다.

아니,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내 말은 들어 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끌고 와서 눕히면, 어?

얼굴 들이대고 쳐다보면, 어?

내가 뭐 막 그렇게 쉽게, 어?!

“그러니까 하자고.

우리 같이. “

... 어흑, 심장 아파.

섹시하게 조르는 그의 목소리가 심금을 울렸다.

이 상황에서도 빼면 난 진짜 몹쓸 년이야.

“그래요.

해요, 우리 같이. “

로즐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칼리안은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묻었다.

가늘고 흰 목덜미.

그 말랑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칼리안은 욕지기가 나오려는 걸 애써 삼켰다.

‘이런 여자를 3년이나 곁에 두고... 난 대체 뭘 한 거지?’

“흐으... 윽.”

몸을 부들거리며 앓는 소리를 뱉어내는 로즐린의 입술.

목덜미를 탐색하던 입술을 들어 반쯤 벌어진 그녀의 입술을 삼킬 듯이 빨아 당기는 칼리안의 아래에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다는 말, 칼리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정말 미쳐버리겠군.’

치솟는 강렬한 욕망의 순간, 이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 칼리안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단박에 로즐린을 가졌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 사이, 비참했을 거니까요.

그 순간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난 알 수 있어요.

당신과 나, 굉장히 비참하고 쓸쓸한 관계를 가졌을 거라는 거."

과거를 알지 못하는 로즐린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딱딱한 의무감만으로 행해졌던 비즈니스.

무언의 합의, 그리고 기계적 결합.

예전 공작부부의 관계는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 칼리안은 지금 이 순간, 더더욱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 할 수 없었다.

툭 툭 아무렇지 않게 제 뼈를 때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여자.

이제 행복해지고 싶으니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요구하던 여자.

그렇게... 기어코 자신을 사랑에 빠지게 만든 여자.

가식과 허영, 탐욕으로 점철된 정쟁만이 가득하던 그의 세계가 이젠 그녀, 로즐린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칼리안은 이 대단한 여자를 감동시키고 싶었고, 또 흥분시키고 싶었다.

지금의 자신처럼.

“당신 목소리로... 하아... 내 이름을 듣고 싶어.“

‘어서 말해. 당신도 나를 원한다고.’

“흐으음...으... 칼리안.”

“더... 더 크게.”

“흐윽.. 흐.. 카, 칼리안!

아... 칼리안!”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 요구하는 칼리안의 낮은 목소리에 로즐린은 즉각 호응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목덜미에서 입술. 그리고 어깨에서 쇄골.

곳곳을 누비는 칼리안의 입술에 로즐린은 온 몸이 으슬으슬 떨려 죽을 지경이었다.

방금 전까지 시야에서 나풀거리던 그의 은발이 뺨, 그리고 귓가를 타고 흘렀다.

이제 겨우 입술만 썼을 뿐인데.

“카, 칼리안! 으흐응...

제... 제발... 제발 나 좀 어떻게...“

‘그냥 해! 하라고!

...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여보야! ‘

입술 말고 이제 다른 걸 좀 써보라고.

로즐린은 시트를 움켜쥐었던 양 손을 들어 칼리안의 목을 휘감아 당겼다.

“...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거칠어진 호흡을 누르며 답을 한 칼리안.

아내의 호응을 확인한 그의 입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시 목덜미에서 어깨, 쇄골.

그리고 그 밑 좀 더 다른 곳까지.

그는 아내의 요구를 아주 성실히 이행하는...

세상 바람직한 남편이었다.

이른 아침, 잠이 깬 칼리안은 어슴푸레 새어드는 빛을 등으로 막아내며 잠든 로즐린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즈의 잠든 모습이 마치 천사 같다 생각하며 폴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

‘정말로 자는 모습이 천사 같군.

그 로맨스 소설이란 게 꽤 일리가 있어. ‘

연애 고자였던 자신에게 귀여움, 사랑, 그리고 삼각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준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칼리안은 지난밤의 후희를 즐기고 있었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잠들어 있는 로즐린의 뺨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으... 음.”

반복해서 뺨에 스치는 손길이 간지러웠던지, 천장을 향했던 로즐린의 뺨이 두어 번 도리질을 하다 오른쪽을 향했다.

칼리안이 누워있는 방향이었다.

사고 이후 한 달 가까이 잘 먹고 잘 잔 로즐린의 얼굴은 살이 올라 뽀얀 것이 생기가 가득한 상태였다.

예전의 그 퀭하니 빈티가 묻어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었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와 혈색이 도는 깨끗한 피부는 마치 10대 후반의 앳된 소녀 같았다.

‘로즐린... 로즈...’

자신이 읽고 있는 로맨스 소설의 여주인공과 아내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던 칼리안은 피식, 웃어버렸다.

잠들어있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로맨스 소설을 몰래 읽는 것도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꿈에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 책, 꼭 끝까지 읽어봐야겠군.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

여주인공 로즈를 향한 서브남의 질척이는 애정씬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서재 어딘가에 처박아 버린 책.

그 책을 다시 꺼내 마저 읽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칼리안은 흘러내린 이불을 아내의 어깨위로 끌어올려 매만져 주었다.

으... 눈부셔.

눈을 떠보니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캐노피 사이로 새어드는 4월의 햇살에 반쯤 열리던 눈꺼풀이 절로 닫혔다.

그 쨍한 눈부심에 드디어 그 길었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왔다는 게 실감났다.

아흑.

아이고 삭신이야.

안 해본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놈은 없다더니.

대체 몇 번을 한 거야.

눈은 떴지만 정신이 몽롱해서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밤새 땀에 절었던 몸이 보송보송했다.

잠들어 있는 동안 레아가 닦아준 모양이었다.

그간 내 목욕 시중도 들었던 레아인지라 알몸을 보였다는 게 부끄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몸에 새겨진 흔적에 민망함이 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닐 텐데 그냥 익숙해져야지 어쩌겠어.

그나저나 지금은 아침인가, 점심인가.

내가 이 침대에 누운 지 대체 몇 시간째인 거지?

중간에 한 번 깼을 때가 저녁 11시쯤이라 했었다.

그리고 내게 시간을 알려주던 자의 얼굴엔 그리 화색이 돌았더랬지.

자다 깬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단전 깊은 곳에서 한숨이 뿜어져 나왔다.

‘일어났나?’

‘... 으음... 지금이 몇 시죠?’

‘11시는 넘었고, 자정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

‘설마 그게 하루 지나 11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그런 소릴.

아직까지 우리의 첫날은 끝나지 않았다고. ‘

‘첫날... 이요?’

‘그래, 첫날.

당신과 나, 우리의 처음. ‘

‘... 그 처음이란 말에 저 지금 굉장히 감동 중인 거 알아요?’

‘당신만큼 지금 나도 감동 중이야.’

‘?’

‘당신이 언제쯤 다시 깨나,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

그 대화를 끝으로 다시 이어진 우리들의 뼈와 살이 불타는 밤.

정말 남편은 여러 모로 내게 과분한 남자였다.

어찌나 과분한지, 내 사지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었다면 니킥을 날려 침대 밖으로 쳐내고 싶을 정도였다.

“으으... 아야야... ”

누웠던 자세를 틀어 옆으로 누우려 했더니 온 몸이 쑤시고 아래쪽에 둔통이 일었다.

내 신음을 들었는지 닫혀있던 캐노피가 열리면서 레아가 다가왔다.

“마님, 기침 하셨어요?

여기 물 좀 드세요.”

“그래, 고... !”

“어머, 이를 어째.

그렇지 않아도 전하께서 마님이 깨시면 의원을 불러 진맥케 하라 하셨는데.

지금 당장 불러올릴까요?“

쇳소리가 나는 내 목소리에 말한 나도 놀랐고 들은 레아도 놀랐다.

하지만 의원을 부를까 묻는 레아에게 나는 그나마 기운이 남아있는 고개를 격하게 저어대며 거부했다.

의원이라니!

진맥이라니!!

밤일 때문에 몸져누운 게 뭐 자랑이라고 의원을 부른단 말인가.

절대! 네버!

남편 놈 입장에서야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빠른 눈치만큼이나 섬세하고 예민한 여자였다.

근육통에 며칠 앓고 마는 게 낫지, 수치사의 위험에 노출되고 싶진 않았다.

이런 배려 같지 않은 배려 말고.

말로는 첫날, 처음이라 했으면서.

흥!

아침을 같이 맞이해주는, 뭐 그런 배려나 좀 보여주지.

이렇게 떡이 된 나를 두고 대체 이 남자는 어딜 간 거야?

나를 일으켜 물마시기를 도운 레아가 베개 두어 개를 겹쳐 내 등에 받쳐 주었다.

푹신한 쿠션감에 기대 앉아 있으니 정신이 좀 더 또렷해졌다.

부시럭

나를 일으켜 앉혀놓고 반쯤 쳐져있는 캐노피 밖으로 사라졌던 레아가 다시 돌아왔다. 언젠가 본 적 있는 익숙한 것을 들고.

“이거... ”

“네, 마님.

전하께서 오전에 들러 직접 두고 가신 거랍니다.

정말 탐스럽죠? “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탐스럽긴 했다.

어찌나 꽃송이가 크던지, 장미꽃처럼 생긴 국화꽃인 줄.

그런데 이 분홍장미를 오전에 여기 두고 갔다고?

그것도 직접?

“... 오전?

지그.. 크흠 흠흠.

지금이 몇 시기에?”

“막 정오를 지났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점심식사는 전하와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할까요? 채비를 할까요? “

절레 절레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입 속도 깔깔하고 몸도 천근만근이라 그냥 뜨거운 물에 푹 담근 채 좀 더 쉬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방문 예정인 앙드레 초이 씨는 어찌 할까요?

우선 세시 방문 시간을 한 시간 늦춰두기는 했는데, 그냥 취소할까요? “

아, 맞다!

앙드레 만나야 하는데.

... 뭐 목욕이야 점심식사 할 시간에 간단히 하면 되니까.

남편은 내가 앙드레를 만나 무슨 작당을 하나, 계속 마땅치 않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앙드레를 결코 놓칠 수 없다.

그는 천재였고, 내 원대한 계획을 완성시켜 줄 핵심 인재였다.

“그건 그대로 두렴.

그리고 시간은 좀 더 여유를 두면 좋겠구나. “

“예, 마님.

그럼 넉넉하게 네 시 반에 방문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나의 성공적인 사교계 데뷔를 위해서는 황실 파티가 열리는 그날까지 최대한 자주 앙드레를 만나는 게 좋았다.

그만큼 나의 계획과 준비가 완벽해질 테니까.

반드시 성공해서 그 언니 년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 여인네들에게 알려줘야 했다.

칼리안 아스트리드.

이 남자 건드리면 국물도 없다고!

“...기 때문에 전하께서 수도에 입성하시고 나서는 모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르딘의 보고대로 실제 테레지아로 들고 나는 마차의 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도 저도 아닌 이들 다수가 눈치를 보고 있는 까닭이겠지요. “

“전하께서 마님과 함께 입궁을 하신 이후 그 정도가 더 한 듯합니다. “

2층 서재, 자신의 책상에서 기사 예르딘과 에두와르 백작의 보고를 받는 칼리안의 입매가 씰룩거렸다.

“그래, 그럴 테지.

소문은? “

“... 아... 예, 전하.

마님에 대한 궁금증에 다들 몸이 달았는지 최근 이틀간 저택을 기웃거리는 기척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사거리에서 있었던 사고를 목격한 자들을 찾아 마님에 대해 캐묻고 다니는 이들도 꽤 된다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회자될 만큼 알려진 게 없는지라 시끄럽기만 할 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저 두 분의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이더라, 그 정도의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

“... 그래?”

예르딘의 보고를 이어듣던 칼리안의 입매가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실룩거렸다.

‘알베르님, 뭡니까? 대체.’

‘알베르, 자네는 알고 있지?’

그들이 하루 외근을 다녀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주군의 모습에 예르딘과 에두와르는 책상의 가장자리에서 페퍼민트 잎차를 우려내고 있는 알베르를 향해 눈을 찡긋, 눈썹을 들썩여 보였다.

‘뭘 말입니까?’

하지만 자신은 아는 게 없다, 할 말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인 알베르는 손에 든 주전자를 다시 기울일 뿐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내의 경호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전하,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

“원래 중앙귀족들과의 사전접촉이나 정보 수집을 예르딘이 전담하고 있었던지라 마님의 경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오니... “

“그건 안 돼.”

에두와르 백작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칼리안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예전처럼 조용히 방안에만 있을 성정이 못 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자라고. “

단장인 에두와르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단원 중에서는 부단장인 예르딘의 실력이 가장 뛰어났다.

칼리안은 요즘 들어 부쩍 사부작사부작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는 로즐린이 불안했다. 그래서 수위를 다투는 실력의 기사가 아내를 호위하길 원했다.

그 때, 조용히 찻물을 따르던 알베르가 말했다.

“전하, 물론 예르딘이 손꼽히게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기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기사가 하나 더 있질 않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에두와르 백작님.”

“알베르, 나는 기사 레오가 어떤가 싶네만.

자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에이 설마... 그 놈은 아니지?“

“그렇군. 베아스가 있었어.”

‘그 놈’이라는 에두와르의 말에 단박에 베아스를 떠올린 칼리안이 긍정의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 그 자식... 아니 베아스는 안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아스가 테레지아에 가진 마음을. “

펄쩍 뛰며 반대하는 에두와르에게 알베르가 말했다.

“에두와르 백작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저도 압니다.

허나 마님께도, 기사 베아스에게도 오히려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

“허나... ”

“알베르의 말에 일리가 있어.

그리고 베아스의 실력이라면 나도 걱정을 덜 테고. “

“예, 단장님.

베아스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코 마님께 함부로 굴지 않을 겁니다. “

칼리안에 이어 예르딘까지 합세해 베아스를 밀어대니 에두와르는 더 이상 반대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군께 염려의 한마디를 올릴 뿐이었다.

“허면 마님께 베아스에 대해 언질이라도 주시는 게... ”

“아니.

괜한 편견만 생길 뿐이야.

그리고 에두와르 자네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

“?”

“내 아내는 말이지.

베아스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찜 쪄 먹고도 남을 여자야. “

이번에는 씰룩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크게 호선을 그리는 칼리안의 입매에 진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알베르도 은근슬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해서 저는 요즘 매일매일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마님을 뵈올 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돼버렸습니다.”

“호호. 앙드레도 참.

천재에게 자꾸 이렇게 극찬을 받다간 제 콧대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아부는 그쯤 해 둬요.“

“아부라니요 마님.

제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한 눈에 반해버린... “

휘장 너머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

다시 이어지는 꿀 바른 듯 매끈한 남자의 목소리에 칼리안의 심장이 펄떡였다.

점점 붉어지는 칼리안의 얼굴을 보던 알베르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안으로 드신다 아뢸까요?”

하지만 칼리안은 대답 대신 빈손을 들어 올려 알베르를 저지시켰다.

‘... 아침부터 보고 싶었다?

한 눈에 반했다?! ‘

나머지 한 손에 들린 초록의 줄기들이 죄어드는 손아귀 힘에 찌부러들었다.

평정을 되찾으려 한 번, 두 번.

손아귀에 들어간 힘을 풀며 칼리안은 거듭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펄떡이는 그의 심장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고객과 디자이너의 대화 내용에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불량하기 짝이 없는 말을 뱉어내는 디자이너 놈에게 하하 호호 맞장구를 쳐대고 있었다.

저 따위 뻔한 수작질을 알아채지 못하는 아내의 순진함에 혀를 차며 칼리안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궁리했다.

공작이라는 권위로 짓누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로즐린. 그녀의 남편으로, 남자로.

앙드레인지 보드레인지 허여멀건한 낯짝을 가진 저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알베르.”

“예, 전하.”

“펜과 종이 좀.”

귀족으로서의 품격도 지키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끝내주는 방법을 칼리안은 알고 있었다.

"...게 해서 폴은 돈쥬안 앞에 선포했다.

그 같은 폴의 고백에 그를 향한 로즈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책으로 사랑을 예습중인 칼리안.

그는 복습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드레스 룸 한 쪽에 놓인 화장대에서 나는 앙드레가 가져온 샘플들을 테스트 중이었다.

“마님, 어떠십니까?”

“어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앙드레가 하도 자신 없어 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빈말이 아니라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정말 며칠 만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유리로 된 자그마한 용기 속의 화려한 색감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

“만족하신다니 저 또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님.

정말이지 처음에는 황실 파티라는 큰 자리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 제가 천지분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귀하신 마님의 안목을 의심했던 어리석은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

아니, 저... 뭐 그게 그렇게까지 용서를 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을 꺼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만한 성과물을 가져온 앙드레의 추진력이 놀라워 한 감탄의 말이었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앙드레는 접이식폴더 허리와 함께 비장한 표정으로 내게 용서를 구해왔다.

전혀 개의치 않으니 그만하라는 내 말에 또 금방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심히 부담스러웠다.

“그저 거리 패 악사들이나 창부들만이 쓰는 천한 화장술이라 여겼습니다.

마님께서 그런 화장품의 제작을 제게 맡기셨을 때는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런 편견에 빠져있었던 제가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름다움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다는 진리를 5년 내내 공부해놓고서도 현실에서 써먹지를 못하니.

유학파다 학부수석이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의미 없고 썩은 지식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저는 요즘 매일매일 아침에 눈뜨는 순간부터 마님을 뵈올 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제 편협한 생각의 틀을 깨주실까 하고요.”

“호호. 앙드레도 참.

천재에게 자꾸 이렇게 극찬을 받다간 제 콧대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아부는 그쯤 해 둬요.“

“아부라니요 마님.

제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한 눈에 반해버린 천부적 감각과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는 처음입니다.

본디 새로운 양식이란 엄청난 창조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법이지요.

하오니 이를 깨우쳐 주신 마님께서는 제 진정한 페르소나이십니다!“

첫날에는 더듬더듬 부들부들 거리며 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앙드레가 이렇게 말이 빠르고, 또 많은 사람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제 눈에 새롭거나 아름답다 느끼는 것을 보면 흥분을 주체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았다.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감탄할 만큼 혁신적인 물건은 아닌데.

내가 주문했고, 그 주문에 따라 앙드레가 만들어 온 건 정말 별게 아니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립 밤과 펄 섀도우.

물론 기존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색감과 질감들이긴 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아니요, 이 시대에서 충분히 제작 가능한 기술과 재료로 탄생한 색조화장품이었다.

수수한 내 미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주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서의 색조화장술이란 귀족사회에서 취급하지 않는, 소위 싸구려 미용술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마님, 하지만 색조화장술은 황궁 파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찌 고귀하신 마님의 자태를 그런 저급한 화장술로 망치려 하십니까? ‘

앙드레와 계약서를 작성한 첫날, 드레스에 어울리는 화사한 색조화장품도 함께 준비해달라는 내 말에 앙드레가 펄쩍 뒤며 한 말이었다.

어쩐지.

수도 길거리에서 봤던 여자들, 혹은 살롱 안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귀부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얗고, 하얗고, 또 하얀 피부를 유독 강조하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마치... 반건조 찐빵 같았다.

물론 황궁에서 봤던 1황비와 2황비도 하얀 피부를 강조한건 매한가지였지만 그들은 타고나길 워낙 희었던지라 고급스럽고 우아함이 좔좔 흘렀던 게 다른 점이긴 했지.

‘색조가 천박한 화장술이라면 귀족들의 화장술이 따로 정해져있다는 건가요?’

의아해하는 내 물음에 앙드레가 알려준 사실은 이랬다.

짙은 눈썹, 붉은 입술은 남자의 정염을 부채질하려는 용도의 천박한 화장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의 드레스를 입고 붉은 입술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몸을 팔아 삶을 연명하는 창녀의 상징이라 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귀족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가느다란 눈썹에 창백한 피부.

때문에 고급 살롱에서는 희고 고운 백분가루와 섬세한 눈썹연필이 화장품의 전부였고 화장술 대신 갖가지 보석과 향수, 그리고 레이스가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수단이라 했다.

어두운 피부를 타고난 여성들은 백분가루로도 부족해 일부러 다량의 피를 뽑거나 햇볕을 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창백한 피부를 가지려 한다고도 하니, 철옹성같이 단단한 그들만의 미적 기준에서 보자면 내가 하려는 화장술은 파격적이라 할 만 했다.

하지만 앙드레의 걱정 섞인 설명을 듣고도 나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다.

도도한 창백함과 선정적인 붉은 색.

그 간극을 파고 들 수 있는 새로운 색감이라면 내가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고나 할까?

내가 공작령에 있을 때 했던 진주펄의 화장술, 그걸 목격했던 레아와 남편의 반응을 떠올려보면 화려하고 강한 색조라 할지라도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만 결합할 수 있다면 수도 사교계에서 충분히 먹힐 거라는 게 내 판단이었다.

그리하여 대여섯 번에 걸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샘플들.

다양한 핑크와 코럴, 베이지 톤의 색조를 뽑아내는데 성공했고, 그 색조들에 쟁여두었던 상급의 진주를 아낌없이 갈아 넣었다.

그리고 촉촉한 입술을 강조하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 굳힌, 바셀린 비스무리한 제형을 만드는 것도 성공했다.

“세상에... 마님.

너무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빛이 나신다니까요. “

“예, 빛이 난다는 그 말이 정확합니다.

정말 이 화장술에 제 드레스가 더해질 생각을 하니 소인 가슴이 떨려와... 하아.

이번 황실 축하연의 주인공은 단연코 마님께서 차지하실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 뒤에서 레아와 앙드레가 손뼉을 이어 치며 감탄의 말을 뱉었다.

뽀얀 피부에 복숭아 빛 볼터치.

아치형의 가지런한 눈썹과 동그란 눈매를 밝혀주는 진주 펄 골드섀도우.

끝으로 유리알 같은 광택의 탐스러운 핑크빛 입술까지.

훗!

내가 봐도 꽤 사랑스러운 비주얼이었다.

핑쿠핑쿠 소녀소녀한 이 얼굴을 누가 27세라고 믿겠는가.

진짜 이 정도면 성공적인 역변이라 할만 했다.

이제 드레스만 완성되면 모든 게 완벽해지겠지.

“앙드레, 드레스 가봉은 언제까지... ”

“어떻게, 책봉식 때 입을 드레스는 잘 나왔나?”

어이쿠, 깜짝이야.

이 남자야, 노크 몰라? 노크?

기척도 없이 등장한 남편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렸다.

아니, 사실 놀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

갑자기 마주한 남편의 얼굴에서 떠오른 다른 얼굴.

어젯밤 열기로 땀에 젖어 나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이 떠올라서 그랬다.

뺨과 귓불을 감싸는 열기.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붉어졌을 얼굴이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칼리안,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왐마.

원 펀치로 심장어택!

이렇게 달콤한 말을 저렇게 무심하게 던지는 남자.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 이 남자 어디 연애코치라도 받으러 다니는 거 아냐?

“... 그런데 지금 당신, 내 기대에 너무 넘쳐.

적당히 하는 게 어때?

이러다가 우리 둘, 낮과 밤을 자꾸 건너뛰게 될지도 몰라. “

“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릴 하는 거예요!

당신 한창 회의할 시간에 여긴 어떻게... ”

“회의는 무슨.

지금 시간이 벌써 여섯시가 다 되어 간다고.

당신, 점심도 거르더니 설마 저녁도 건너 뛸 생각은 아니겠지?

겸사겸사 온 거야.“

“아... ”

나와 저녁을 함께 하려고 왔다니 더 이상 뾰족하게 굴 수가 없었다.

“헌데... 자네.”

“예, 공작전하.

소인 앙드레 초이라 합니다.“

“나도 알아, 알고 있어.

앙. 드. 레. 자네가 내 아. 내. 의 일을 그리 열심히 돕고 있다지?“

“과찬이시옵니다.

소인 그저 마님의 높으신 안목에 감탄하며 따를 뿐이옵니다. “

“돈 받고 하는 일에 뭘 따르기까지 하나.

그냥 돈값만 제대로 하면 될 일이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알베르에게 말하고.

내 그게 무. 엇. 이든 다 해결해 줄 테니. “

“예, 예 전하.

송구하옵니다. “

“그럼 이제 볼일은 다 끝난 건가?”

“예... 그게 아직... ”

“칼리안, 왜 그렇게 앙드레를 닦달하는 거죠?

우리 아직 상의할 게 남았단 말이에요. “

“우리는 당신과 내가 우리고.

그리고 황궁 파티가 이제 겨우 이틀 남았어.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덜됐다?

실력이 좋다고 들었는데... 일하는 속도는 느린가보군. “

... 그게 아니라 댁이 내 몸에 남긴 이러저러한 거시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드레스 디자인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글쎄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모기라도 들었는지 온몸이 물. 어. 뜯. 기. 고.

아주 난리도 아닌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답. 답. 하고 고. 루. 한 드레스를 입게 생겼지 뭐예요. “

형형하게 빛나는 내 눈빛과 앙다문 입매를 뚫고 나오는 강한 악센트에 헛기침을 몇 차례 하던 남편이 재빨리 말을 돌렸다.

“크흠!

내 자네에게 수고비를 더 챙겨주도록 하지.

최대한 서두르도록.”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 성심을 다 하겠사옵니다. “

말 다 끝나셨으면 이만 퇴장하시는 게 어떨는지.

나 바빠서 당신과 놀 시간이 없어요.

틈만 나면 달큰한 눈빛을 보내오는 남편이 신경 쓰여서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얼른 나가라 눈치를 팍팍 보냈는데...

“그리고 이거.”

“... 꽃은 아침에도 받았는데... ”

“아직은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걸 모르니까.

꽃이 지겹다면 다른 걸 말해줘.

그럼 그게 무엇이든 난 항상 그걸 가지고 당신을 보러 올 거야. “

“... ”

“그리고 이번에는 편지도 썼지.

연애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연애편지라더군. “

... 확실하다.

이 남자 연애코치를 받고 있는 게.

그런데 받으려면 좀 제대로 받던지.

어려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낸 아이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의 남편은 내게 어서 편지를 읽어보기를 종용했다.

연애편지라는 게 혼자 있을 때 몰래 읽어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불 위를 뒹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었나.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읽어보지 않으면 퇴장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강요.

레아와 앙드레, 그리고 알베르까지 있어 낯이 좀 뜨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꽃다발 사이에 묻혀있는 흰 종이를 꺼내 펼쳤다.

"분홍 장미의 꽃말이 행복한 사랑이라더군.

그래서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

나는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거든.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편지를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편지지에 이렇게 큰 글씨로 쓰인 편지도 처음이었고.

“... 여보, 칼리안.

이건 편지가 아니라 전단지 아닌가요? “

다 펼치자 내 얼굴 두 배는 될법한 크기의 편지지.

아니, 이건 그냥 큰 종이였다.

그 큰 종이에 그리 많지도 않은 글씨 몇 자.

... 이건 뭐 붓글씨니?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

“대체 누가요?”

“... 있어.

당신은 모르는 사람.”

대체 그 놈이 누구냐 응?

하지만 벙찐 나를 뒤로 하고 남편은 앙드레에게 수고하라는 말을 남긴 채, 알베르를 뒤에 달고 유유히 퇴장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미소... 그건 대체 뭐였을까.

“어쩜... 마님.

전하께서는 너무 적극적이세요. “

“그... 확실히... 그러하시군요.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소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따 밤에 남편을 만나면 꼭 알려줘야겠다.

연애편지는 은밀하게.

전단지는 게시판에.

“... 당신한테서 달콤한 향이 나.”

“어떻게, 다시 내보내드릴까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드디어 디데이 하루 전.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질척거리는 남편을 제압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그동안은 남편과의 이런 저런 일들, 그리고 파티 참석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눈을 감자 졸음 대신 여러 생각들이 밀려들었다.

“칼리안, 자요?”

“설마.

내가 당신보다 빨리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

“그러게 당신 침대에서 편하게 주무시라니까.”

“따로 자는 건 결단코 어제가 마지막이어야 해.

부부는 따로 자는 게 아니라고 했어.”

“... 그 자가 누구인지 이제 말 좀 하시죠?”

“... 피곤하군.

당신도 어서 자도록 해. “

어물쩡 이번에도 답을 피하네.

남편의 연애 멘토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으로 연애를 배운 자가 틀림없었다.

분명 로맨틱한 말과 행동은 맞는데 때와 장소가 에러인 걸 보면 확실했다.

배우려면 진짜 연애 고수한테 잘 좀 배울 것이지.

하지만 자신의 멘토를 밝힐 마음이 없는 남편은 은근슬쩍 내게서 등을 돌렸다.

쳇.

들이댈 때는 성가셨는데 막상 등을 돌리니 좀 섭섭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뒤척이길 여러 번.

“... 자요?”

“... ”

슬쩍 남편을 불러보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바보.

이럴 때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 게 부부의 로맨틱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의 등이 얄미웠다.

내일 화장이 잘 먹으려면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저녁에 따뜻한 케모마일 티까지 챙겨 마셨는데 효과가 별로였다.

나는 대체 왜 깊은 밤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

그건 바로 내일 처음 대면하게 될 앙리 테레지아 후작 때문이었다.

대체 그자, 로즐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처음 갖는 아버지란 존재, 그것에 대한 궁금증 따위가 아니었다.

낯선 세계에서 낯선 몸으로 눈을 떠 새 삶을 얻게 됐을 때, 나는 박서연이 아닌 로즐린 아스트리드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게 테레지아의 차녀였던 과거까지 받아들이겠단 것은 아니었다.

우울증의 시초였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그녀의 결혼 전 과거.

내 삶에, 앞으로의 행복에 그딴 찜찜한 과거를 끼워 넣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앙리 테레지아 후작, 그는 내게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내 남편의 정적이고, 내일이면 황후가 될 못된 년의 아비일 뿐이었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공작가 모든 사람들의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몸의 주인이었던 진짜 로즐린이 그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그럴 수 있었던 걸까.

“당신 잠을 방해하는 게 대체 뭐지? 응?

혹시 긴장돼서 그러나? “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마주 등 돌린 내 어깨를 감싸 안아왔다.

“잠든 거 아니었어요?”

“말했잖아.

당신보다 먼저 잠들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러니까 말해봐.

당신 잠을 방해하는 게 뭔지. “

“말하면?

당신이 뭐 다 해결해줄 수나 있고요?“

“최선은 다 해본다고 약속하지.”

귓가에서 들리는 다정한 목소리.

등을 다시 돌려 남편과 마주했다.

그리고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그 사람.

앙리 테레지아는 어떤 사람이죠? “

“... 만날 생각을 하니 걱정 되나?”

“아뇨, 걱정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제게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궁금해졌지?”

“알아야 이기죠.”

“이겨? 당신이 후작을?”

“기억을 잃기 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면서요?

그 정도 반응이라면 평범한 부녀지간 사이는 아닌 게 확실한데.

그럼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죠. “

“정리... 정리라.

당신은 참 그 말을 쉽게 하는군. “

“... 지금 그 말 설마 저를 비꼬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꽤 복잡해보였다.

갑자기 자기 친정을 정리해버리겠다는 아내의 발언이 놀랍긴 하겠지.

하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거란 걸,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친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곤란은 것은 그일 텐데.

뭐라 말할까.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 같은 그의 행동에 가만히 침묵으로 기다려주었다.

생각을 정리한 듯 그가 입을 열었다.

“핏줄과 가문이란 건, 생각처럼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은 아직 기억을 찾지 못한 상태고.

그런데도 당신은 테레지아를... 정말 그럴 수 있나? “

이제야 알겠다.

남편의 복잡했던 심경을.

지금 이 선택이 정말 완전한 나, 로즐린으로서의 선택이 맞는지 걱정되었던 거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했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하지만 나는 그 걱정에 대한 답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칼리안, 나는 테레지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그건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붙여져 있던 이름표에 불과했죠. “

내가 아닌 로즐린.

그녀 스스로 테레지아라는 이름을 쥐고 있었다면 그렇게 충동적인 죽음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살짝 굳어있는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기꺼이 그가 기다리던 답을 말해주었다.

“내 이름은 로즐린 아스트리드, 이게 내가 기억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

“... ”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말해 주세요.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왜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

“아니. 당신은 확실히 지지는 않을 거야.

그래, 어쩌면 지지 않는 걸 넘어 거하게 한방 먹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 “

말을 하다 마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 봐.

그리고 판단이 끝나면 그때 다시 말해 줘. “

“뭘요?”

“당신의 이름에서 테레지아를 완전히 떼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애초에 가진 적도 없다니까.

단박에 테레지아란 이름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무겁고, 또 진지했다.

지금 답을 한다 해도 그건 남편이 원하는 답이 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나를 잠시 바라보던 남편은 내 목과 등을 감싸 끌어안고 아이 달래듯 등을 토닥여주었다.

“그러려면 어서 자.

내일은 아주 힘들고 피곤한 하루가 될 거야. “

규칙적인 토닥임.

그리고 따뜻한 체온.

나는 남편 품에서 그렇게 잠이 들었다.

.

.

.

그래, 나는 그렇게 잘 잤다고.

아주 꿀잠을 잤지.

그런데 남편은 영 아니었나보다.

“칼리안, 당신 괜찮아요?”

“별일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좀 설친 것 치고는 눈이 너무 빨간데.

정복을 갖춰 입고 입궁 채비를 마친 남편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피곤해보였다.

... 32년 만에 비로소 밤의 즐거움을 알게 된 남자에게 내가 너무 심했나.

반질반질 윤이 나는 내 피부를 보다가 남편의 벌건 눈을 보니 양심이 콕콕 찔렸다.

“칼리안, 오늘 황궁파티는 몇 시쯤 끝날까요?”

“글쎄. 책봉식 후에 이런 저런 부대행사까지 끝나면 3시고.

뭐, 축하파티는 4시부터 시작이니까 대충 눈도장만 찍는다면 아마 7시?

빨리 마무리 한다면 그쯤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당신, 오늘 파티를 즐길 생각 아니었나?

나 때문에 굳이 일찍 끝내고 올 필요는 없어.“

아무래도 축하파티 준비에 올 인했던 내 모습에 남편이 오해를 한 모양이다.

아니, 뭐 내가 거기서 부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목을 도모할 것도 아닌데.

세 시간이면 아주 충분하다 못해 넘치네요.

당신한테 임자 있다고, 도장 찍고 침 발랐으니 넘보지 말라는 경고하는 거, 그게 오늘 내 주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하고 빠집시다!

“당신과 함께 참석하는 첫 사교모임이라 신경 썼던 것뿐이에요.

시끄러운 파티보다 전 당신과 오붓하게 있는 시간이 더 좋은걸요.

그러니까 칼리안, 우리 오늘은 꼭 일찍 자요. 네?

우. 리. 함. 께. “

“우리... 함께?”

“네, 우리 함께!”

내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는지 남편이 아주 환하게 웃어보였다.

기대와 어떤 의지에 가득 찬 눈빛.

그 시뻘겋게 충혈 된 눈으로 짓는 미소가 좀...

아니, 많이 무서웠다.

오늘의 책봉식과 사전 행사가 남편을 많이 피곤하게 해주길 바라면서 방을 나서는 남편을 배웅했다.

그런데 왜 같이 안가고 배웅이냐고?

책봉식과 부대 행사, 그러니까 황실의 본 행사는 세습작위를 가진 남성귀족들만 참석 하는 게 법도란다.

에이...어딜 가나 이 망할 놈의 성 차별.

그런데 뭐 법도라는 데 별 수 있나.

그리고 솔직히 황후 책봉식 따위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거 볼 시간에 몸단장에 더 신경 쓰는 편이 훨씬 나았다.

“마님, 곧 앙드레 초이 씨가 방문을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래? ”

드디어 화려한 변신,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왔다.

오케이.

레아야, 가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쇼타임이다!

“어때요?”

“... ”

“오늘 저 좀 괜찮죠?”

“...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적당히 하라고. “

“그럴 수야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아내라고 눈도장 찍는 첫날인데. “

마차에 앉아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그런 나를 보고 신음하듯 낮게 웅얼거리는 남편의 반응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제 손은 언제쯤 잡아 주실 거예요?

저 마차에서 내리지 말아요? “

“그럴까?

이대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

농담의 어조로 진담을 던지는 남편의 어깨를 톡 치며 눈을 살짝 흘겼다.

‘당신도 적당히 하시고 빨리 손이나 잡아주세요’ 라는 뜻이었다.

마차에서 내려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황궁 대연회장 입구로 걸음을 옮겼다.

공작가 일행을 비롯해 각자 자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마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귀족 무리가 내 쪽을 살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종래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좋았어!

모든 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 놀랐지?

놀랐을 거다.

이런 비주얼은 처음일 테니까.

메이크업은 일전에 시연했던 대로 완벽하게 재현됐다.

핑쿠핑쿠 소녀소녀 블링블링

아침에 바나나꿀팩을 하고 난 뒤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아주 찰떡같이 잘 먹었다.

역시 메이크업 스킬에 있어서는 내 손이 최고의 금손이었다.

기존에 이런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이 없었던 만큼 어울리는 헤어를 선정하기 위한 고심 또한 깊었는데 이 부분은 레아의 도움이 컸다.

굵게 땋은 다음 말아 올린 머리는 볼륨감 있게 마무리되어 얼굴을 한층 더 작아보이게 만들었는데 뒷덜미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것 같이 연출한 머리카락이 키포인트였다.

그리고 일주일간 앙드레의 손과 발, 머리를 바쁘게 했던 대망의 드레스!

내 가녀린 몸매를 강조한 옅은 하늘색 실크드레스는 사랑스럽고도 우아했다.

군더더기 없이 일체의 장식을 넣지 않고 소재와 실루엣에 승부처를 걸었는데, 쇄골을 드러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지만 대신 등을 깊게 파서 반전 섹시미를 강조했다.

또 마지막 날 디자인을 수정한 팔 부분은 촘촘한 흰색 망사를 덧대어 퓨어한 시스루룩을 표방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목덜미 부분에 드레스의 팔 부분과 같은 소재로 만든 코르사쥬를 묶어 연출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앙드레가 감탄을 했었는데, 이제까지 보석목걸이가 아닌 다른 소재의 장신구를 목에 착용한 사례는 전무후무 하대나 어쨌다나.

아무튼,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나는 지금 거의 사람이 아니었다.

푸른 머리의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요정.

그게 오늘 내가 정한 컨셉이었고 결과물도 무척 성공적이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빈티 줄줄 흐르던 얼굴이 어떻게 요정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자란 원래 그런 불가사의한 존재가 아니었던가?

허름하게 다니고 일절 꾸미지 않았지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미모.

그런 소수의 선택받은 천상계 미인 말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돈 들이는 만큼 예뻐진다는 것!

그게 불변의 진리였다.

그리고 내겐 평범의 언저리를 살짝 넘는 동안외모와 넘치는 돈, 획기적인 화장술, 거기에 더해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이너 앙드레 초이가 있었다.

이런 조건으로도 미모를 뽐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똥손이었다.

딸랑 딸랑

“칼리안 아스트리드 공작내외분 이하 에두와르 필리프백작 드십니다!”

두 번의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연회장 정문을 지키고 서 있던 시종이 남편과 나의 입장을 알렸다.

백작 위 이상의 고위귀족들에 한해 시종이 종을 울리며 입장을 외쳐준다고 했다.

“다들 당신만 쳐다보는군.”

“절 보는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당신도 나만 봐요.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

내 말에 남편이 시선을 내게 고정시켰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넓은 연회장 중앙으로 길게 뻗어있는 붉은 카펫을 남편의 팔에 기대 천천히 걸었다.

“저분이 그 테레지아의?”

“뭐야, 소문이랑 완전 딴판이잖아!”

“어머어머 어쩜.

특이한 드레스며 저 화장술은... 대체 뭐죠?“

감탄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을 아낀 채, 썩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도 보였다.

아마도 귀족파의 세력들이겠지. 아니면 황후의 측근들인가?

뭐가 됐든 여기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다.

그리고 분수를 모르는 적에게 자비란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엉?

걸리기만 해봐.

내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줄라니까!

아. 에. 이. 오. 우~~아! 아! 아!

만들어진 미소를 띠고 여러 사람에게 인사를 하느라 조동아리에 경련이 오기 직전이었는데 부채 뒤에 숨어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한 결 편안해졌다.

디자인이 영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두고 오려고 했는데.

레아가 억지로 챙겨준 레이스 부채는 생각보다 요긴했다.

“휴우.”

“마님,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차가운 냉수입니다. “

“아, 고마워요 라티 경.”

금발의 기사가 건네주는 유리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빈 잔을 공손히 받아드는 기사 베아스 라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예르딘 대신 어제부터 내 호위기사가 된 남자였다.

테라스 정원으로 이어지는 창가 쪽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아까부터 열심히 호위 중이었는데, 덕분에 웬만한 쩌리들은 내 주변으로 얼씬도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자들의 접근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금 전에 남편이 라티 경에게 남기고 간 명령이었다.

그럴 만한 것이 남편이 옆에 있는 데도 어찌나 내게 달라붙는 사람이 많던지.

대부분 황제파에 속한 중소귀족들이었는데 강철같이 단단하고 뻣뻣한 남편을 공략하는 것보다 소녀소녀한 내 쪽을 공략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지, 내가 듣던 말든 제 이름과 소속, 장점 등등을 마구 어필해댔다.

... 악몽의 그 케토톱 백작이 재림한 줄 알고 식겁했다.

어쨌든 남편은 황제파 주요 귀족들에게 나를 인사시킨 후, 공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다른 귀족 무더기로 걸어 들어간 상태였다.

쩌어기... 멀리 남편의 뒤통수가 보일랑 말랑했다.

에휴, 얼마나 피곤할까.

나는 아까 잠깐 겪었을 뿐인데도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대체 귀족들은 이딴 재미도 없는 파티를 왜 참석하지 못해 안달인 걸까.

온통 아부에 가식, 마음에도 없는 말투성이 인 것도 참기 힘든데, 향수를 아예 각자 한 통씩 들어붓고 오신 건지.

독한 향수 여러 개가 섞이다보니 내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데도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정제된 말투, 고급스럽고 정갈한 옷차림.

제일 처음 인사를 했던 노귀족 두 분은 무척 점잖고 기품 있으신 분들이었다.

그냥 딱 봐도 나 귀족이요, 아주 높은 귀족이요 하는 티가 팍팍 났달까?

‘드디어 부인을 뵙게 되는군요.

이리 아름다우신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에드먼 단테스라 합니다.

과분하게도 황궁 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지요. ‘

‘테레지아의 핏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구료.

아, 물론 이건 칭찬이라오.

루이스 아델하이트, 전 황후마마의 아비 되는 사람이오.‘

에드먼 단테스 후작과 루이스 아델하이트 대공.

두 사람은 남편과 함께 황제파의 중심이라고 했다.

비록 두 사람 중 아델하이트 대공의 태도가 좀 까칠하긴 했지만... 뭐 참을 만 했다.

오히려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자신의 딸이 죽고 비어있던 황후 자리를 꿰찬 샤를로트의 동생이자 웬수같은 테레지아 후작의 둘째 딸이 바로 나 아닌가.

어찌 보면 그 정도로 까칠하고 만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나저나 로열패밀리는 대체 언제쯤 오시나.

황제 뿐 만이 아니라 내가 한바탕 결전을 각오했던 테레지아 후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이 벌써 다섯 시 반.

보통 황제는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인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 사이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최종보스 등장하고 테레지아까지 오면 본격적으로 아껴뒀던 힘을 발산해야 했다.

그때부터가 귀족파 나부랭이들이 내게 본격적으로 달려들 시점이 될 테니까.

곧 다가올 썰전을 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지고 있는데 뒤에 서서 사방을 야려보던 라티 경이 내게 말을 걸었다.

“마님, 헌데 아직까지 테레지아 후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뭐 올 때 되면 오겠죠.”

“마님께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봅니다.”

얘... 뭐지?

이거 지금 나 멕이는 건가?

왜? 나 너님 고용주 와이픈데?

“저보다는 라티경이 더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베아스라고 부르시라니까요.

아니면 혹여 예르딘에 비해 제가 불편하시다거나, 못마땅한 부분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

응, 불편해.

방금 전 네 질문도 못마땅하고.

“뭐... 썩 편하진 않네요.

제가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거 참 이상하죠? “

싱긋

어쭈? 웃어?

“원래 제가 처음엔 좀 어색한데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허니 조금만 더 지켜 봐 주십시오, 마님. “

그래서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잘 지내자는 거야?

내가 두루두루 다양한 또라이들을 상대해봤지만 그 중에서 유독 상성이 안 맞는 게 이런 애들이다.

실실 웃으면서 의뭉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편인 듯 내편 아닌 적군 같은 놈이랄까?

“네, 쭉 지켜볼 테니 앞으로는 노력 많이 하세요, 라티 경.”

그래 나도 이제 좀 궁금해졌다.

너란 놈이.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

물리력 빼면 내 아내가 더 세니까 . “

뒤 편 테라스 소파 쪽을 연신 돌아보는 에두와르에게 칼리안이 덤덤하게 말했다.

대체 마님의 성정이 어떠하시기에 주군께서는 저리 천하태평이신지.

밝아지시고 웃음이 많아지셨다는 등, 긍정적으로 바뀌셨다는 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인데.

에두와르는 답답할 따름이었다.

“... 아무래도 마님을 가까이서 뵐 기회를 한 번 마련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마님과 전하께서 말씀하시는 마님의 간극을 좁히기엔 제게 정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

“어허, 공작께서 하시는 말씀을 수하된 자가 의심하니 이거야말로 불충 아닙니까?”

“아, 단테스 후작 각하!”

과장된 표정으로 익살스럽게 말하는 노인을 보며 에드와르가 허리를 숙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여러 번 말했는데 제 말은 콧등으로 듣는 건지.

스승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

“스승님은 무슨.

어릴 적 일 이년 훈수 좀 드린 걸 가지고 공작께서 이 늙은이에게 과한 감투를 씌워주십니다. 허허. “

스승이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는 에드먼 단테스 후작은 황궁 제1 기사단인 피닉스 기사단의 단장이자 황제의 검술 스승이기도 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은 폐하와 사형제지간 먹으려는 계산이 더 큽니다. “

“어이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작께서 손해십니다.

폐하께서 사제가 된 공작전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마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실 겁니다. “

“뭐, 대신 이 사제의 간절한 소원 한번쯤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소원, 그 추상적인 말에 둘 사이에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말을 한 칼리안도, 들은 단테스 후작도 그 소원이 아마도 테레지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 ‘그 소원’은 쓰는 일이 없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시지요? “

하지만 칼리안은 단테스 후작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했다.

“제 아내를, 로즐린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폐하께 전해들은 바가 있긴 했습니다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무척 기품 있고 아름다우신 귀부인이시더군요.

여러 모로 남달라 보이시기도 했지요. “

“예, 그래서입니다.

제가 그 소원을 쓸지도 모른다는 게. “

“... ”

로즐린을 위해 테레지아에 관한 소원을 쓸지도 모른다는 칼리안.

그를 바라보는 단테스 백작의 눈에 근심이 드리웠다.

그리고 그때, 두 번의 종소리와 함께 시종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앙리 테레지아 후작 각하 드십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용납지 않겠다는 듯, 정갈하게 빗어 넘긴 푸른 머리.

회백색 바탕에 금색으로 수놓아진 슈트.

담백함 속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이 뭔가 이중적이면서 묘하게 위압적인.

175cm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였다.

저벅 저벅 저벅

붉은 카펫위로 걸음을 옮기는 그 흐름을 따라 사람들이 시선이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신에게 달라붙는 시선들을 흘려내며 덤덤한 표정으로 연회장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어느덧 카펫 끝자락에 멈춰선 남자에게 일련의 무리들이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테레지아 후작 각하를 뵈옵니다.”

“후작 각하를 뵈옵니다.”

앙리 테레지아, 그는 자신을 맞이하는 귀족들을 향해 난감하다는 듯 멋쩍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허허, 사람들 참.

내 이리 부산스럽게 맞이할 필요 없다 누누이 말했건만.

자네들도 알다시피 여기 내 위에 사람이 몇인가.

이리 소란을 떨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황후마마께도 누가 될 수 있음이야.”

“각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국의 하늘아래 어느 누가 후작각하께 존경의 예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리 자작의 말이 맞습니다.

후작각하의 위라 해보았자 딱 두 분이신데...

아무리 작위의 서열이 중요하다해도 통일전쟁의 일등공신이신 각하께 올리는 이 정도의 예를 과례라 질타한다면 만백성의 비웃음을 살 것이옵니다.”

무리의 선두에 위치한 갈색 머리의 중년인, 자타공인 테레지아 후작의 오른팔로 불리는 페레레 로쉬 백작의 말에 좌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사람들 참.

적당히 하란 소리에 뭘 그리 또 정색을 하누.”

못 말리겠다는 듯 허허 웃으며 허리 숙인 귀족들에게 이만 예를 거두라 손사래를 치는 테레지아 후작이었다.

그때, 후작의 곁으로 왜소한 체구의 인영 하나가 다가섰다.

“그러게나 말일세.

‘적당히’란 말이 무사무탈의 비책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후작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다들 어찌 그걸 모르는지.

아니 그런가, 테레지아 후작?”

아델하이트 대공의 가시 돋친 말에 테레지아 후작이 웃는 낯으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대공전하.

이들 중 대부분이 수도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신인들이옵니다.

하여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지요.

경솔타 질타마시고, 정치선배로서 너그러운 조언을 해 주심이 어떨는지요.

어찌됐든 이들 모두가 장차 제국을 이끌어갈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비굴하지도, 예의에 어긋나지도 않을 적당한 기울기로 허리를 숙인 테레지아 후작.

그의 유려한 말솜씨에 아델하이트 대공의 입매가 일그러졌다.

“이거 소인이 괜한 말을 해 후작각하께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공전하, 이만 마음을 푸시지요.”

그에 더해 로쉬 백작까지 아델하이트 대공에게 사죄의 말을 올리자 좌중의 시선이 대공에게 쏠렸다.

“... 허!”

이제 사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아델하이트 대공의 꼴은 우습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때,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칼리안과 단테스 후작이 아델하이트 대공 곁에 다가섰다.

“공작전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에드먼, 자네도 함께 있었군.”

“앙리, 자넨 오늘따라 좀 늦었군.

혹여 폐하보다 늦게 오는 건 아닌가 걱정했다네.”

“그럴 리가.”

테레지아 후작의 인사, 그리고 단테스 후작의 화답.

하지만 칼리안은 테레지아 후작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후작의 곁에 선 페레레 로쉬 백작을 향하고 있었다.

“사죄의 대상이 한참 잘못됐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이봐 로쉬 백작. 내 말 잘 들어.

자네가 진정 누를 끼친 건 여기 테레지아 후작이 아니야.

이 제국의 주인이신 황제폐하지.”

고저 없이 싸늘한 목소리.

칼리안의 말에 일순간 사방이 조용해졌다.

그 일시적인 침묵 속에서 귀족파 무리들을 훑어 내린 칼리안이 말을 이었다.

“고작 후작의 작위 앞에 이리 허리를 숙여놓고 폐하께서 납시시면 대체 어찌할 생각들이지?

자네들 모두 바닥에 이마를 붙여 납작 엎드리기라도 할 건가?”

“!”

“이런 덜떨어진 감으로 살벌한 중앙정치에서 어찌 수년 째 버텼는지...

나로서는 참 의문이군”

바짝 얼어붙은 귀족무리에서 로쉬 백작, 그리고 테레지아 후작에게까지.

천천히 시선을 돌리는 칼리안.

그 싸늘함에도 테레지아 후작은 예의 그 미소를 지우지 않고 담담히 응대를 했다.

“로쉬 백작과 이들의 처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계산에 앞서 매사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충신의 기본 자질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 진심의 방향이 크게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단테스 후작에게 대했던 것과 달리 테레지아 후작에게는 하대를 서슴지 않는 칼리안과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면에 띤 미소를 지울 생각이 없는 테레지아 후작.

이 둘 사이에 튀는 불꽃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던 아델하이트 대공이 다시 참전할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황제파와 귀족파의 구도로 설전이 확대되는 건 좋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단테스 후작이 중재에 나섰다.

“자, 자. 이제 곧 폐하께서 납시실 시간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이리 분위기가 어수선해서야 이거야말로 불충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다들 이쪽만 쳐다보고 있느라 연회장 분위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허니 이만들 하시지요.

그리고 앙리, 자네는 꼭 만나 봐야 할 사람이 있을 텐데.

무려 3년 만에 보는 딸을 지척에 두고 여기서 이럴 여유가 있는가?”

아무리 버린 딸이라지만.

그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테레지아 후작이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답을 하는 후작의 어조는 담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쓸데없이 호들갑을 떨 이유는 또 뭔가.

언제, 어디서, 얼마 만에 보건 간에 로즐린이 내 딸이고 내가 그 아이의 아비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오른쪽, 테라스 소파에서 여전히 휴식 중인 로즐린 쪽으로 시선을 던진 테레지아 후작이 다시 칼리안을 향해 미소 지었다.

“ 본디 피를 나눈 사이란 그런 것이지.

그런 게 가족이고 핏줄 아닌가. 허허”

핏줄.

그 부정할 수 없는 말에 칼리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테레지아 후작입니다.”

알아.

나도 보고 있거든.

연회장 중앙에서 이곳 외곽 테라스가 그리 멀지 않아 꽤 선명하게 후작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60대의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이었고, 매끈한 미남이었다.

가문의 후계가 따로 없는 외동딸들만 꼬셔서 두 번이나 결혼에 성공했다기에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젊었을 때 여자 꽤나 울렸을만한 외모였다.

나는 푸른 머리색과 동안외모만 친탁을 했고 이목구비는 외탁을 한 모양이었다.

쳇, 이왕 줄 거면 다 줄 것이지.

“가보지 않으실 겁니까?”

아... 진짜 얘는 뭔 캐릭터야?

무슨 호위기사가 지킬 생각은 않고 자꾸 어딜 가재.

“아직 다리가 아파서요.

그리고 후작도 공사가 다망하신 것 같고.

뭐 급할 거 있나요?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은 만나겠죠.”

아무리 비싼 수제화라 해도 첫날은 길이 들지 않아 발이 아프기 마련이었다.

내가 야심차게 직접 디자인 한 아이보리 색 펌프스 또한 마찬가지였고.

소파에 앉아 진주로 장식된 구두에서 살짝 부은 발을 뺀 채, 부채를 팔랑였다.

그런 나를 보는 라티 경의 표정이 웃겼다.

이 마님이란 여자,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억지로 감추려다 실패한 표정이랄까. 후후.

내가 아버지를 후작이라 칭하며 시큰둥해 하는 것에 꽤 놀란 것 같았다.

서로를 보며 같은 생각을 했지만 승리는 내차지였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저쪽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네요.

테레지아 후작을 따르는 이들이 언뜻 더 많기도 하고.”

“그래봤자 쪽수만 많은 겁니다.

다들 저자의 낯짝과 언변에 속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신진귀족들이지요.”

저자.

내 반응을 좀 더 떠보려는 건지, 아니면 말하다 보니 제 성질에 받친 건지 테레지아 후작에 대한 라티 경의 어조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런데 신진귀족들이라.

그 젊고 야망 넘치는 귀족들이 제국의 젊은 영웅인 칼리안이 아니라 왜 늙다리 후작에 불과한 앙리 테레지아에게 붙은 거지?

그것도 황제와 척을 지고 있는 걸 알면서.

내 의문 섞인 시선에 라티 경이 말을 이었다.

“왕국이었던 우리 브란델이 통일전쟁으로 제국이 된 건 아시지요?”

끄덕끄덕

“그 수혜를 톡톡히 얻다 못해 손바닥 만 한 공훈을 엄청나게 부풀려먹은 작자가 바로 테레지아 후작입니다.

당시 황자이셨던 지금의 폐하를 목숨으로 지키신 선대 공작전하의 공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한 공훈일 뿐인데 말입니다.”

극히 일부이긴 했지만 케토톱 백작이 쏟아냈던 말들 중에 몇 가지는 기억이 났다.

27년 전, 전쟁에서 지금의 황제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후안 아스트리드 백작.

적국이었던 레노아의 성을 최종 함락시킨 에드먼 단테스 백작.

그리고 얼추 괜찮은 외교력으로 레노아 왕국의 항복을 이끌어내 전쟁을 종식시킨 앙리 테레지아 자작.

그 셋 중에 최고의 공훈을 세운 아스트리드 백작가가 공작의 작위를 받았고 단테스 백작이 후작의 작위를, 테레지아 자작이 백작의 작위를 받았는데 얌생이 같은 테레지아 백작이 어린 황제에 맞서는 귀족파의 수장을 자처하며 20여 년간 세력을 키웠고, 결국 후작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어찌나 케토톱 백작이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던지 놓쳤던 정신줄을 나도 모르게 부여잡았더랬지.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레지아 후작의 수완에 나도 모르게 감탄했었다.

선대 황제가 전쟁 중에 입은 상처로 일찍 죽고 15살의 어린 황제가 즉위한 틈을 타서 세력을 불려나간 그 과정들.

돈, 정보, 인맥, 그리고 결혼장사.

보통의 사람이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

하긴 그랬으니 지방 어디 촌구석 준남작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나 자력으로 후작자리까지 올랐을 테지.

라티 경의 계속되는 성토를 귓전으로 흘리며 중앙 쪽에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칼리안과 대치중이던 테레지아 후작이 갑자기 내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칼리안을 바라보며 뭐라 뭐라 말하더니 활짝 웃는 게 아닌가.

아, 꼴 뵈기 싫어.

나를 보고 웃었든, 칼리안을 보고 웃었든 이미 내 기분은 더러워진 상태였다.

외교력으로 공훈을 쌓고 명연설로 뭇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지?

하지만 나도 댁 못지않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라 이거야.

“마님, 테레지아 후작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라티 경, 나 좀 일으켜 줄래요?”

그렇지.

아쉬운 놈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이지.

붓기가 가라앉은 발을 구두에 다시 끼워 넣었다.

그렇게 바닥을 디딘 후 들어 올린 시야에 남자 둘이 들어왔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테레지아 후작과 갈색 머리를 한 그의 꼬붕 하나.

“안녕하셨어요?”

입 꼬리를 최대한 끌어올려 세상에 다시없을 미소를 지어보였다.

후작의 얼굴에 발린 미소가 흔들릴 정도로 환한 미소를.

내가 아는 승리 불변의 법칙, 그것은 선빵이었다.

“안녕하셨어요? 테레지아 후작님.”

칼같이 선을 긋는 내 인사에 주변이 작게 웅성거렸다.

로티 경의 철저한 물 관리로 내 반경 5미터까지는 인적이 없는 상태였지만 유명인사의 복잡한 가정사 만큼 흥미로운 게 어디 있다고.

다들 안보는 척 하면서 귀를 이쪽으로 쫑긋거리고 있었다.

“좋아 보이는구나.”

애틋한 막내딸을 보는 듯, 자상범벅의 미소.

이 몸의 아버지란 작자는 그렇게 내 선빵에 맞불을 놓았다.

“후작께서도 저 못지않으신 걸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기에 걱정이 많았다.

그 이후 바깥출입을 시작했다기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여겼고.

헌데 3년 만에 만난 아비에게 너는 후작이라 부르는구나.”

씁쓸하지만 이해한다는 표정.

옅어진 미소와 부드러운 시선 콤보로 후작은 내게 연타를 날렸다.

어쭈!

불효녀 공격이라 이거지?

“각하께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다 서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폐하의 명으로 아스트리드 가에 영애를 시집보내신 뒤, 각하께서는 불면의 밤을 자주 보내셨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공작가 내에서 영애의 입지를 좁힐 수 있음을 염려하셨던 각하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십시오.”

얼레.

이 씹다 뱉은 마른 멸치 같은 놈은 또 뭐야.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오네.

사람 열 받게.

“로쉬 백작님, 호칭을 똑바로 하시지요.

영애라니요!

이분은 저희 아스트리드 공작가의 안주인이십니다.”

“허! 감히 뉘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아, 그래. 낯이 익다 했더니 그 때 그자로군.

자네 이름이 베아스라 했던가?”

내 대신 발끈하는 로티 경을 보며 눅눅한 마른멸치를 닮은 갈색머리 꼬붕이 인상을 썼다.

뭐야.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지?

나서서 한 방 먹이려던 걸 멈추고 둘의 반응을 좀 더 살폈다.

“헌데 자네, 후작각하의 자비로움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끊어졌을 목숨이란 걸 그 새 다 잊은 겐가? 쯧쯧.

이래서 평민 나부랭이에게 기사도를 가르치는 게 부질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지.”

“... 지금 그 말씀, 아스테르 기사단에 대한 모독이라 여겨도 되겠습니까?”

“이 내 말이 아니라 자네의 존재 자체가 아스테르 기사단의 흠 아닌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각이 잡혔다.

굳이 아스트리드 가의 기사라서가 아니라 로티 경 개인적으로 테레지아와 얽힌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다.

에구... 그래서 유독 테레지아와 나를 엮으며 떠보려 했던 거구나.

다시 발끈하려는 로티 경을 손을 들어 제지했다.

로티, 아니 베아스.

네 맘은 내가 다 알겠는데 넌 일개 준남작, 그리고 쟨 백작.

짜증나지만 어쩌겠어. 현실적으로 네가 직급에서 한참 꿀리는걸.

그러니까 이번 건은 내게 다 맡겨.

입으로 싸우는 건 내가 하고 몸으로 싸우는 건 네가 하고.

오케이, 콜?

“거 참 말 많네.

후작께서 달변가라고 하시더니.

아랫것들에게 아주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푸셨나 봐요.

어떻게,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나요?

그러면 내 여기 좀 앉아서 기다리고.”

얼굴에는 감탄, 목소리에는 비꼼을 집어넣어 2차 공격에 들어갔다.

계급에서 밀리는 로쉬 백작이 쩔쩔 매는 건 당연지사.

“아! 저 그것이 아니오라...”

“그만! 되었네.

페레레, 자네는 더 이상 나서지 말게.

지금은 나와 내 딸의 시간이니.”

“... 예, 후작각하.”

단번에 찌그러든 백작 나부랭이.

베아스, 잘 봤지?

계급 질 하는 놈에게는 똑같이 계급으로 눌러줘야지 맞상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척 하는 놈에게는 딸인 척 상대하는 거고.

“로즐린, 네가 믿어 줄지 모르겠지만 난 단 한 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어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이냐.”

“뭐, 보통은 그렇지만 소수의 1%는 어디든 있는 법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 1%가 확실하다 결론 내렸답니다.”

“내가 아스트리드와 황실의 결합을 막기 위해 너를 이용했다는 말이 세간에 떠돈다는 건 알고 있다.

허나 소문이란 게 근거 없이 덧붙여지고 점점 불어나서 종래에는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게 다반사인 것을.

정말이지 너의 혼인은 내 야망을 향한 발판 따위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아무튼 내겐 무척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 그것만은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까고 있네.

내가 그 말을 믿느니 아메바가 노벨 문학상 탔다는 소리를 믿겠소 이 양반아!

지금 후작이 보이는 수준급 연기는 나를 설득하려는 것보다 좌중에 보여 주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았다.

최대한 사방에 울릴 수 있게 감정을 실어 읊어대는 데, 정말 기가 찼다.

“제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공작성 내에서 종종 패악을 부렸다는 말이 세간에 떠돌았다죠? 그래서 저도 소문의 허황됨을 익히 잘 알고 있답니다.

이제와 후작께서 저를 아스트리드 가에 보내신 걸 탓 할 마음도 전혀 없고요.”

“한데 그걸 알면서 어찌 이리 모질어.

네 언니까지 황후마마가 되셨으니 이제 내게 아버지라 불러줄 사람은 너 뿐인데.”

딸의 정을 그리워하는 늙으신 아버지 코스프레.

아주 자알 구경했습니다.

이제 그 답례로 제가 좋은 구경 시켜드리지요.

“그럼 후작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 치고.

제가 아버지라 불러드리면 저를 위해 제 남편과 손잡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아스트리드 공작가 밑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냐는 말이 더 정확하겠군요.”

“!”

“뭐,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듣지 않아도 이미 들은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후작께 제가 드릴 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답니다.”

내 스트레이트 펀치에 시종일관 미소를 짓던 후작의 표정이 변했다.

“허! 기억을 잃었다더니...

예전의 네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마치 다른 사람이라 여겨질 정도로.”

미소가 거의 사라진 얼굴에 덮인 의구심.

이 말인 즉, 다른 사람이 로즐린 행세를 하는 게 아닌 가 의심된다는 소리로군.

하지만 난 전혀 찔릴게 없다 이거야.

이 몸이 당신 딸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의심되시면 후작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확인시켜 드리죠.

그런데 제 신체 어딘가의 비밀을 아실 정도로 저희가 친밀했던 부녀관계는 아니지 않았나요?”

“나는 몰라도 수잔느라면 알겠지.”

수잔느?

그건 또 누구야?

아... 진짜 망할 놈의 신 같으니라고.

기왕 새 몸 주는 거 기억도 좀 같이 얹어줄 것이지.

사사건건 모르는 거 투성이라 피곤해 죽겠네.

“수잔느? 그게 누구죠?”

“슈슈.

아, 어차피 너는 기억을 잃었으니 그 이름도 알지 못하겠구나.”

“!”

“네 어머니의 유모였고, 너의 유모이기도 했던 여자지.”

슈슈.

로즐린의 수첩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다.

“조만간 수잔느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마.

그리고 그때는 너와 나, 우리 둘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슈슈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나를 본 후작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차올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진실의 열쇠 하나.

그리고 그걸 쥔 자의 여유.

내 약점을 쥐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찬 그 여유로움이 내 발걸음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평상 보폭으로 딱 세 걸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나와 후작의 거리가 좁혀졌다.

이 말 만큼은 다른 귀족들의 귀에 들리면 곤란했으니까.

흥미로운 기색을 띤 채, 나를 내려다보는 후작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이듯 말했다.

“지랄 똥. 싸. 고. 있네.”

“...므... 뭐...?! ”

“내 기쁨은 댁을 영원히 안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신경 끄시라고.

오케이?”

로즐린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진실.

물론 궁금했고 알아내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삶의 부차적인 것일 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런 것 없이도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했다.

다시 뒤로 딱 세 걸음.

같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본 후작의 얼굴은 그새 평정심을 되찾은 상태였다.

역시 보통 노인네가 아니었다.

조금 전의 황당함 대신 진한 호기심이 어린 미소.

여우같은 자라던 남편의 말이 단박에 이해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저 노련함과 교활함이라면 뭣도 모르는 젊은 귀족들 낚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지.

“로즐린. 네가 나에게 예상치 않았던 즐거움을 주는구나.”

“... ”

“조만간 공작가로 연통을 넣으마.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거라.”

애틋한 부정이 물씬 느껴지는 멘트를 끝으로 후작은 그의 꼬붕과 함께 멀어져갔다.

나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했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베아스 경, 물 한 잔 부탁해요.”

“아... 예, 예 마님.”

아무리 내가 작게 속삭였다 해도 청각이 일반인 보다 뛰어난 기사라면 다 듣고도 남았을 테지.

얼이 빠진 베아스는 내가 자신을 퍼스트 네임으로 불렀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다.

“하아... 시원해.

베아스 경, 지금 몇 시쯤이죠?

폐하께서는 곧 오시겠죠?”

“예. 막 여섯 시를 넘겼으니 곧 입실하실 것입니다.

저... 그런데 마님.”

뭔가를 내가 물으려는 베아스.

그때였다.

데엥... 데엥... 데엥...

“황제 폐하 내외분 이하 황족 분들 드십니다.

모두 예를 갖추어 주십시오!”

로열패밀리의 등장을 알리는 세 번의 커다란 종소리.

드디어 최종보스의 등장이었다.

붉은 카펫 위를 나란히 걷는 황제와 황후.

그리고 그 뒤를 나탈리아 황비와 처음 보는 여자 하나, 열댓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 하나, 이렇게 셋이 따르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는 예를 갖춘 채, 낮은 목소리로 베아스에게 물었다.

“저 뒤 쪽은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저분이 폐하의 여동생이신가요?”

“예, 마님.

보라색 드레스를 입으신 분이 폐하의 여동생이신 시오네 공주님이시고 그 옆이 폐하의 장자이시자 나탈리아 황비님의 소생이신 니콜라우스 황자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전 황후마마의 소생이신 엘리야 공주님이 계시긴 한데, 오늘은 참석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아직 어리시고 몸이 워낙 약하시어 바깥출입을 자제 하신다 들었습니다.”

“베아스 경도 수도는 오랜만이라면서 황실 사정에 빠삭하네요?”

빠삭하다는 내 표현에 베아스가 슬며시 웃었다.

내가 자신의 호칭을 퍼스트 네임으로 바꾼 것도 알아챈 눈치였다.

그래. 나 이렇게 털털하고 쿨 한 성격의 고용주야.

게다가 테레지아 따위에는 티끌만큼의 애정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은 테레지아 안티끼리 날 세우기는 그만하는 게 어때?

우리 잘 만 하면 서로 꽤 유익한 갑을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소식통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볼수록 정감 가는 매력의 소유자가 저라고.

능력 없는 남자는 매력도 없는 법이죠.”

“그 능력을 저를 위해 발휘할 생각은 있고요?”

“기꺼이 그래야지요.

마님께서는 주군의 하나뿐인 반려 시니까요.”

공작가의 안주인이 아니라 주군의 하나뿐인 반려라.

적군 같았던 놈이 세상 바람직한 내편으로 갱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럼 이제 슬슬 이동해볼까요?

돌아가기 전에 황후마마께 하례는 드려야죠.”

2차전 상대는 아마도 황후 이하 귀족파 찌끄레기들이 될 테지.

남편에게 달려드는 날파리들을 경계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기에 이미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

그보다는 나를 우습게보고 나를 짓밟음으로써 저 남자에게 어필하거나 혹은 망신을 주려는 자들이 오늘의 주적이었다.

그리고 그걸 알기에 후작과의 노선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였다.

황제파 귀족들이 더 이상 나를 테레지아로 생각지 않길 바랐다.

건너편에서 남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뚫고 지나가려는 수많은 불법 스트라이커들.

그들에게 니킥을 날려서라도 내 골대는 반드시 사수해내고 말리라, 다시 한 번 전의를 불태웠다.

멀리서 봐도 잘 난 내 남편.

내 사람.

저기 가장 빛나고 있는 내 반려를 지키기 위해.

연회장 맨 안쪽 중앙에 설치된 단상 위.

로열패밀리들이 서열 순으로 자리를 잡자 최종보스 황제님의 짧은 연설과 함께 공식연이 시작됨을 선언했다.

선언의 끝마디와 함께 터지는 축포.

그와 함께 연회장에 낮게 깔리던 잔잔한 연주곡이 경쾌한 춤곡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본격적인 축하연의 포문이 열리자 아직 짝이 없는 청춘남녀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의 손을 잡고 물 만난 고기처럼 스테이지를 누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외 귀족들은 다시 제각기 흩어져 삼삼오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무리를 지었다.

이렇듯 분위기가 새롭게 재정비 되는 사이를 틈 타, 나는 나란히 서서 황제의 선포를 지켜보던 남편에게 테라스 쪽으로 잠깐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조금 전, 후작과의 썰전에서 내가 결코 밀리지 않았음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오붓한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다.

남정네들만의 리그가 있노라, 허니 아낙네들은 알아서 뭉쳐 친목을 다지라는 황제의 권유를 빙자한 명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황제의 명으로 참석한 그 아낙네들의 친목 도모 현장에서 씹다 뱉은 껌딱지 취급을 받으며 사정없이 밟히고 있는 중이었다.

여성들만의 전용 휴게공간이라.

베아스가 곁에 없는 게 무척 아쉬웠다.

“공작부인께서는 어째서 이제야 사교계에 얼굴을 비추셨습니까?

무려 제국에 하나뿐인 공작가의 안주인 아니십니까?

가문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들과 부지런히 좋은 인연을 쌓으셔야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맥을 쌓는 것도 귀족가의 안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내조의 일부 아닙니까?

이제껏 소홀히 하셨으니 로쉬 백작부인의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힘쓰시는 게 옳지요.”

“어휴, 제리 자작부인께서도 참.

어디 공작부인께서 책임감이 없으셔서 그리 하셨겠습니까?

듣자하니 마음의 병 때문에 혼인하시고 3년을 내리 앓으셨다고 하던데.

방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사교계 참석이 어찌 가능하셨겠습니까?”

“오즈 남작부인. 저도 그 소식이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고 오히려 멀쩡해지셨다고... 아!

이런. 제가 그간의 사정을 고려치 못하고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공작부인께 더 큰 무례를 저지를 뻔했군요.

공작부인, 저의 경솔함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허이고.

그래서 기억을 되찾으면 다시 방구석에 처박히게 될지도 모른다, 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아주 짝짜꿍 손뼉이 척척 맞는 게, 한두 번 짜고 치신 솜씨들이 아니시네.

원, 투, 쓰리.

삼각 편대로 진영도 아주 잘 짜셨고.

“제리 자작부인이 저리 용서를 청하는데 공작부인께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주시지요.

오늘은 새로운 황후께서 책봉되신 경사스러운 날 아닙니까?”

고상한 말투로 공격을 시작해 중재자 역할로 마무리를 하려는 이 여자.

로쉬 백작부인.

그러니까 아까 그 씹다 뱉은 마른 멸치 같은 후작 꼬붕이의 안사람이자, 이 삼각편대의 대가리 되시겠다.

“... ”

“공작부인, 어찌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 생각 중이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 뭘 봐?

이것들이 내가 소녀소녀하게 생겼다고 속도 말랑말랑 한 줄 아나.

계급장도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들이 앞뒤 없이 들이받아 놓고 어디 말 한마디로 퉁을 치려고!

“...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공작부인보다 연장자이자 사교계의 선배로서 조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마음은 고맙지만 사양하죠.

제가 나이 많은 부인들과는 이상하게 상생이 맞지를 않아서요.

백작 부인의 말처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언성이 높아져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그만!”

드디어 참전인가.

아낙네들의 최종보스, 샤를로트 황후가 입을 열었다.

“다들 그만 하세요.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자고 마련한 자리에서 이 무슨 소란입니까?”

“송구합니다, 황후 마마.”

“송구합니다, 마마!!”

로쉬 백작부인을 필두로 서른 가까이 되는 귀족부인들이 모두 송구하다 고개를 숙이는 지라 나도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나마 남들보다 고개를 15도 정도 덜 숙이고, 송구하단 말을 립싱크로 메꾸는 게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존심의 전부였다.

아, 짜증나.

내가 쓸 때는 참 좋은데 남이 쓸 때 열 받는 게 바로 계급장이었다.

“그리고 로즐린.

아무리 그간 몸이 성치 않았기로서니 어찌 연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잊었단 말이냐.

내 전해 듣기로 네가 조금 전 연회장에서 아버님께도 언성을 높였다지.

좋은 날 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잠자코 넘어가려 했다.

헌데 이런 자리에서까지 좁은 속내를 내보이며 경거망동하니 내 어찌 너를 훈계치 않을 수 있을까.

네가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스트리드와 테레지아, 두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진배없음이니.

그것을 항시 잊지 말거라.”

조금 전의 노기가 묻어있던 말투와 달리 내게는 조곤조곤한 말투를 건네는 샤를로트 황후.

누가 봐도 가문의 장녀로서 가족 간의 불화를 속상해하며 동생의 잘못을 타이르고자 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 숨겨진 승리자의 미소를 읽어버렸다.

그 미소가 전하는 메시지는 ‘꿇어!’

그녀는 내게 복종을 원했겠지만 이기는 싸움을 마다할 내가 아니었다.

내게는 그녀의 가식을 응징할 희대의 돌려까기 기술과 국민배우 뺨치는 연기력이 있었다.

“예, 황후 마마.

제게 내려주신 마마의 훈화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분고분 자신의 말에 수긍하는 내 모습이 통쾌했는지 미소 짓는 샤를로트 황후.

그런데 미세스 샤!

아직 내 말 안 끝났거든?

“하온데, 마마.”

“?”

“마마께서는 제게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꾸짖으셨지요.

헌데 저들이 제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기정사실인양 이야기하여 아스트리드 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찌 꾸짖지 않으십니까?”

“로즐린, 그래서 제리 자작부인이 먼저 네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걸 받지 않은 건 너였다.

이곳에서 가장 고위 귀족인 네가 그리 속 좁게 행동하니 내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게 아니냐.”

말꼬리를 잡는 내 행동이 구차하게 보였는지 황후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묻어났고 삼각편대를 위시한 서른 중 절반 이상의 귀족부인들이 고소를 지었다.

“예, 마마.

마마의 말씀처럼 마마를 제외하면 이곳에서 가장 고위 귀족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마마와 저, 둘 뿐인가 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꺼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생각중입니다.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라는 두 마디였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하던 말을 잠시 멈춘 나는 황후에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서른 남짓의 귀족부인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삼각편대의 세 꼭짓점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을 이었다.

“고위 귀족인 제게, 그것도 초면에 자기소개도 없이 어째서 이제야 모습을 보이냐 건방지게 추궁하는 자!

그리고 이 말을 받아 공작가의 안주인인 제게 내조에 소홀타 주제넘게 충고하는 자!

거기에 더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기정사실인 양 언급하여 감히 아스트리드의 이름에 흠집을 낸 자!

이런 몰상식한 자들의 말을 참고 듣기만 하다 겨우 꺼낸 첫마디가 그 말이었단 말입니다.

헌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용서치 않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생각중이라는 말로 제 분노를 달랠 시간을 벌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용서를 재깍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건방진 연장자는 분수도 모르고 감히 충고를 하려 들더군요.”

세 꼭짓점을 차례로 훑던 내 시선이 그들의 대가리, 로쉬 백작부인에게 멈췄다.

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로쉬 백작부인이 흔들리는 시선을 밑으로 내리깔며 마른침을 삼켰다.

그래, 이제 좀 느낌이 오니?

오늘 너 X된 거야.

“황후 마마께서는 마마의 권위를 짓밟고,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며, 시건방진 충고를 하려는 아랫것들에게 어디까지 관대하십니까?”

“...황후인 내 처신과 너의 처신이 어찌 같을 수 있단 말이냐!”

“예 다르지요.

황후마마와 일개 신하일 뿐인 공작가 안주인의 처신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허면 마마.

조금 전 제게 훈계를 주신 분은 제국의 황후마마이십니까?

아니면 테레지아의 장녀이십니까?”

“!”

그래, 할 말 없을 거다.

제국의 황후로서 나선 것이라면 전후 사정을 따진 다음, 먼저 하극상을 벌인 저들을 훈계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황후는 그러지 않았다.

소란의 원인이 내 탓인 양,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작부인이 아닌 동생으로 대하며 하대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사실 이것부터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어떻게든 내 기를 꺾어볼 심산에 내게 잘못이 있다는 걸 빌미로 질러버린 것이 뻔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황후에게는 자충수가 됐다.

황후로서 권위를 부리자니 공정치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요, 언니로서 훈계를 내렸다고 하자니 귀족부인들 간의 분란에 끼어들어 그 귀책의 주인이 로즐린이라, 이미 판결 내려버린 자신의 월권 아닌 월권을 수습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내 질문 아닌 질문에 황후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십의 귀부인들이 들어찬 휴게실 내부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금 입을 여는 자는 황후를 대신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 어디 버텨 보시지.

답답한 건 내가 아니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샤를로트 황후의 위엄은 훼손될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황후를 따르는 저 삼각편대와 이하 찌끄레기들의 숨통은 점점 조여들 것이다.

어디 한 번 지켜볼까?

그나마 저들 중 머리가 돌아가는 귀족부인이 누구인지.

벌컥

“어머, 다들 기도라도 하는 중이었나?

여기 분위기 왜 이래?”

“고, 공주님!”

“시오네 공주님!”

에헤이.

들어와도 왜 하필 지금 들어 오냐.

절대 환기 되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제대로 된 새바람이 들어와 분위기를 환기시켜버렸다.

덕분에 멘붕 상태였던 귀족부인들이 하나 둘 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자연히 긴장감에 굳었던 그들의 머리는 곧 활력을 되찾게 될 터였다.

공짜로 개망신 단체관광 한번 보내드리려 했는데 비행기가 뜨다 말았으니.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고, 공작부인!”

털썩

가장 빠르게 두뇌의 활력을 되찾은 사람은 삼각편대의 대가리, 로쉬 백작부인이었다.

“어찌 감히 공작부인께 제가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주제가 못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궁금해만 해왔던 분을 직접 뵙게 되니 들떠서 그만...

혹여라도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제 행동거지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하오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십시오.”

역시 대가리는 대가리였다.

자신이 어찌해야 이 상황이 무난하게 수습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저, 저도 용서를 빕니다.

공작부인의 명예에 흠집을 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

“죄, 죄송합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를... ”

대가리 꼭짓점에 이어 나머지 두 꼭짓점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게 용서를 빌었다.

“휴... ”

내 긴 한숨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던 휴게실의 공기가 서서히 순환하기 시작했다.

꼭짓점 셋을 제외한 나머지 귀부인들의 눈동자도 그와 함께 좌우 순환에 몰두했다.

나와 황후, 양쪽을 번갈아 가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저기요? 클레어 남작부인?

비토 자작부인?

... 뭐야 다들 나만 빼고.”

바깥 스테이지에서 한창 흔들다가 휴식 차 들어온 공주님은 분위기 파악 따위 일절 없는 물음을 던져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주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최종보스 황후가 저렇게 저기압인 상황인데 딱히 실권 없는 공주에게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늘어놓을 간 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 그 정도 간댕이가 부은 귀족부인은 없었다.

나만 빼고.

“시오네 공주님.

제게 공주님의 고견을 청해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와아!”

내 몸 선을 따라 흐르는 실크드레스의 우아한 주름을 홀린 듯이 바라보던 시오네 공주가 감탄성을 터트렸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샤를로트 황후의 서늘한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하긴. 황후 눈치를 개미 눈곱만큼이라도 봤다면 아까 같이는 말 못하지, 암.

‘하! 미친.

하극상이 참신하다 못해 아주 획기적이네요.

감히 황실에서 주최한 축하연을 그리 저급한 언행으로 흠집 내다니.

황후마마, 설마 무릎 한번 꿇리는 것으로 저들을 용서하실 건 아니시죠?’

내게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대차게 코웃음 한 번.

이어서 비딱한 웃음과 함께 던진 공주의 물음이 황후를 향했다.

그것으로 바닥에 꿇어앉은 삼각편대는 직접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그 공은 침묵을 고수하던 황후에게 넘어갔다.

감히 황후에게 황실의 위엄과 로열패밀리로서의 처신을 운운할 수 있는 자.

황제를 제외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시오네 공주였고 그녀의 말에는 틀린 구석이 없었다.

비록 공식적인 서열은 자신이 위였지만 정통 로열패밀리인 공주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샤를로트 황후는 입안의 혀처럼 굴던 삼각편대에게 제 손으로 일주일간의 자택근신과 이곳에서의 즉각적인 퇴장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미친 드레스를 디자인한 사람이 신진 디자이너란 말이죠?”

황후의 심기가 불편하든 말든.

나머지 귀족부인들이 둘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숨이 막히든 말든.

온리 마이웨이.

천하의 황제도 이겨먹는 똥배짱이라더니.

시오네 공주는 내 편으로 끌어들일 가치가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사람이었다.

“예, 공주님.

얼마 전, 아크레테의 살롱 거리를 둘러보러 나갔다가 인연이 닿은 자이온데 이제 막 살롱을 오픈한지 두 달이 채 못 되는 신예였습니다.

하지만 한 눈에 봐도 그 솜씨가 범상치 않았고 마침 전담중인 고객도 없다하기에 제가 전속 계약을 맺었지요.”

“하아, 정말이지 그... 아!

이름이 앙... 뭐라고 했죠?”

“앙드레 초이, 안단테 살롱의 주인이자 수석 디자이너랍니다.”

내 자세한 답이 만족스러웠는지 시오네 공주는 몽롱하게 내리깔았던 시선을 들며 손뼉을 쳤다.

“그래요, 앙드레 초이!

그 자는 미친... 아니, 어마어마한 천재인 게 틀림없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사교계에 발도 담근 적 없는 초짜가 이런 미친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와...

그 짧은 문장을 말하는 데 대체 ‘미친’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쓰는 건지.

눈부신 금발, 작은 얼굴에 댕그란 눈과 큰 입이 무척 매력적인 공주는 로열패밀리답지 않게 털털한 말투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나와의 결혼 전에 시오네 공주와 남편 사이에 오갔다던 혼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잘난 여자일까 내심 신경 썼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황제의 소개로 첫 인사를 나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오네 공주는 내게 무척 큰 호감을 보였다.

내 전신을 쉴 새 없이 훑어 내리며 눈을 반짝이는 것이, 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동네 체육공원에서 백년 근 산삼을 발견한 심마니의 표정이랄까?

흥분한 공주가 손뼉을 치며 몸을 들썩이자 담갈색 카우치(소파와 침대의 중간 기능, 한쪽 팔걸이가 없는 소파)가 그녀의 몸짓에 따라 출렁였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내 몸도 따라 흔들렸고 덩달아 내 드레스까지 찰랑거렸다.

내가 아무리 멀미에 취약하다지만 이 정도의 흔들림 쯤은 별 문제 될 게 없었다.

하지만 태연한 나와 달리 같은 라인에 앉아있던 다른 귀족부인들은 저마다 신음을 삼키느라 난리였다.

“어흑!”

“흐읍!”

“아.. 으...”

부인들만 출입하는 휴게실에서 이토록 찰진 신음이라니.

바깥의 남정네들이 들으면 여성 전용 휴게실이고 나발이고 당장 쳐들어올 정도였다.

“어마, 나도 모르게 흥분을...

그런데 아무리 파니에의 크기가 우아함의 척도라지만 다들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앉기도 힘들어서 끙끙대기 바쁜데 우아함은 무슨.”

“하지만 공주마마.

오늘처럼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제대로 된 파니에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장에 귀족의 품위를 잃었다, 예의가 없다 온갖 뒷말을 들어야 할 게 뻔한 텐데 어쩔 도리가 없질 않습니까?”

“예, 공주님.

비토 자작부인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리 원통형의 파니에를 감싸는 드레스가 유행이랍니다.

그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작은 불편쯤이야 감수해야지요.”

“그나마 클레어 남작부인처럼 재력 좋은 가문의 부인들이야 최고급 고래수염으로 만든 파니에를 착용하시겠지만 저희 같이 평범한 가문에서는 철사나 등나무를 이용한 파니에를 구입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마저도 유행이 금세 바뀌고 마니.”

“하지만 내 눈엔 파니에 따위 없이 툭 떨어지는 공작부인의 드레스가 훨씬 우아해 보이는데.

거금을 들여서 일주일 전에 최고급으로 맞춘 내 드레스보다 공작부인의 드레스가 더 탐난다니까요.

거기다 저 목에 착용한 코르사주하며 반짝이는 화장술까지.

이건 정말 패션의 혁명이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시오네 공주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시선을 모았다.

스커트 부분의 실루엣을 얼마만큼 부풀렸는지.

풍성한 레이스는 얼마만큼 덧대었는지.

색감은 얼마나 화려하고 보석은 몇 개나 달았는지.

이렇게 크고 풍성하며 화려한 것을 우아함의 척도로 여겼던 그들에게 내 패션은 가히 혁명이라 할 만 했다.

“하지만 혁명은 위험하죠.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갑자기 끼어든 황후의 말에 휴게실 안은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그 긴장감과 침묵이 마음에 들었는지 황후가 느긋하게 말을 이었다.

“분명 공작부인의 차림새는 매력적이에요.

또한 새롭고도 파격적이죠.”

말을 하다 멈추고 자신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뱉어내는 냉소.

입은 존대를 하는데 눈은 천대를 하네.

이거 재대결 신청이니?

흠... 맞은 데 또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하지만 이런 내 배려를 너는 받아들이지 않겠지.

뭐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한 번 계속 해보렴.

“하지만 새롭다는 건 낯설다는 거고, 낯설다는 말 속엔 아주 약간의 감탄과 아주 많은 거부감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여지껏 많은 귀족들이 파격과 변화보다 전통과 질서를 중히 여겼던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개인의 취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하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막 사교계 데뷔를 하시는 분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차림새를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생각되는데.

공주께서는 어찌 보십니까?”

“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게 무슨 잘못이죠?”

이거였구나.

황후가 노렸던 게.

“귀족은! 황족은!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잘 하면 칭찬받고 잘못해야만 벌을 받는 일반 제국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한 일이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지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자리지요.”

“황후께서는 제 차림새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 그리 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리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황후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긴다 말했다면 나는 그 말에 충분히 반박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뒷말이 걱정된다고 하며 슬쩍 빠지는 모양새가 실로 여우가 따로 없었다.

칼리안이 테레지아 후작을 보고 그렇게 여우같이 교활한 놈이라 하더니.

그 아버지에 그 딸이었다.

“그러면 제가 어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제 차림새의 숨겨진 위험성을 발견하시고 지적해주신 황후마마 아니십니까?

고견을 들려주시지요.”

“고견이랄 게 있겠습니까?

두루 살피고 조언을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인 것을요.

그저 공작부인께서 스스로를 돌아보시어 나쁜 추문에 휩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얼씨구.

그러니까 기어이 내 입에서 경솔했다, 앞으로 주의 하겠다 이 말을 듣겠단 거로군.

이 여자야, 됐고.

내 패션 지적질 할 시간에 그 포도송이 같은 머리장식이나 떼시지!

“황후마마께서는 이리 걱정이 많으시니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으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

어, 반응이 왜 이래?

여긴 이런 공격 안 먹히나?

아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똑 똑 똑

“실례지만 잠시 들겠습니다.”

다음 멘트를 급히 생각하는 와중에 내 말을 가로막는 거센 노크소리.

그리고 이어진 저음의 동굴 목소리가 무척 낯이 익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어쩜. 아스트리드 공작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긴 왜 오신 걸까요?”

웅성거리는 귀족부인들의 시선을 흘려낸 남자의 걸음은 내가 앉은 카우치 뒤쪽에서 멈추었다.

헐!

남편? 여보!

“... 칼리안, 여보!

맙소사.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아니, 여긴 금남의 구역 아니었던가?

이 남자, 왜 갑자기 여긴 들어온 거야?

“황후마마와 공주마마 이하 귀부인들께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길.”

“아... 예... 그런... ”

“아니, 뭐... 저희는 괜찮은...”

꽃 같은 미소로 정중히 용서를 청하는 남편에게 다들 얼굴을 붉혔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란 건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20대에서 30대, 40대, 그 이상까지.

남편의 미소 앞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 급히 공작부인을 청하실 일이면 시종을 보내도 되었을 것을.

공작께서는 이곳이 여인들만의 장소임을 잊으신 겁니까?”

제가 들으려했던 말을 듣지 못한 것도 열 받을 일인데 하필 그 방해꾼이 칼리안이니.

따져 묻는 황후의 얼굴에 당황 섞인 짜증이 묻어났다.

첫사랑에게 건네는 말치고 까칠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물론 잊지 않았습니다.

해서 원래는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시종에게 청하여 제 아내만 불러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리 하시지 어째서?”

“황후마마께서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을 신하된 도리로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 이리 실례를 무릅쓰고 들게 되었습니다.”

응? 실수?

이 남자 뭐하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밑밥을 까는 거지?

절대 황후 걱정 따위를 할 남자가 아닌데.

“황후께서 무슨 실수를 하셨단 거죠?

공작께서 들이닥치실 만큼 중대한 실수인가요?”

시오네 공주의 채근하는 물음에 남편은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어, 이거... 백퍼 만들어진 미소인데.

칼리안, 당신 진짜 뭐하려고 그래요?

“예, 실은 아내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문 앞까지 왔고, 시종에게 막 언질을 주려던 참에 황후마마께서 제 아내에게 하시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몰래 엿듣게 된 셈이 되어 송구합니다.”

“그래서 공작께서는 제 그 조언이 실수라,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실수지요.

그것도 아주 큰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이십니다.”

날카로운 황후의 말에 남편이 단호하게 답하자 좌중이 웅성거렸다.

그에 따라 황후의 표정이 점점 구겨졌다.

흥분한 듯 말투도 점차 격해졌다.

“공작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야기의 맥락을 한참 잘못 짚으신 듯 합니다.

조금 전 공작부인과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그저 신중치 못한 공작부인의 차림새, 그에 대한 것이 다였습니다.

오해를 논할 만한 소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옷차림 말입니다.”

“?”

응?

옷차림이 왜?

여보, 설마 전혀 파격적이지도 않고 예쁜데 왜 그러냐.

뭐 그런 팔불출 멘트 하려는 건 아니죠?

그런 말로 쟤 못 이겨요!

앉은 채 뒤돌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나에게 남편이 걱정 말라는 듯 눈을 맞추어 주었다.

그리고 다시 단호한 어투로 말을 이었다.

“가문의 후계를 잇는 것은 귀족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 신하로서 주군께 마땅히 바쳐야 할 충정이다.”

“... 귀족법 3조항이로군요.

그런데 대체 그게 이 일과 무슨 관계죠?”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만든 데는 아내의 색다른 차림새가 큰 몫을 했지요.

귀족법 3조항에 성심을 다하려면 애정 넘치는 부부관계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

흥분한 황후를 마주보며 남편은 허리 숙여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것만으로도 황후에겐 시큰거리는 통증일 텐데.

꽃 같은 내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이은 강펀치를 날렸다.

“아내는 온전히 저를 배려했을 뿐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뜩 부푼 드레스와 창백한 피부는 영 제 취향이 아니라서.”

“... 망측하기도 하지.”

“하아... ”

“어머나...”

노골적인 남편의 발언에 카우치에 앉아있던 귀부인들은 저마다의 감상을 쏟아냈다.

시샘이 담긴 발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부러움의 탄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웅성임은 금세 잦아들고 말았다.

“... 저를 포함해 이곳에 있는 부인들께 대단히 실례되는 발언을 하시는 군요.

아무래도 공작께서는 귀족법 3항에 앞서 레이디에 대한 기본 매너를 먼저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냉랭하게 쏘아 붙이는 황후의 말에 모두들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였다.

에혀... 대체 저 부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야말로 감정 노동의 생생한 현장.

말이 휴게실이지 여기는 절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합죽이가 된 귀부인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인 남편이 진중한 표정으로 황후에게 답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제 발언에 불쾌함을 느끼셨다니 송구합니다.

하지만 황후 마마.

저는 진심으로 제 아내가 수도의 유행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내가 어떤 차림새를 하던 저는 그녀를 사랑하겠지만...”

황후와 마주하던 시선을 내려 나와 눈을 맞춘 남편.

그 남자의 입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확실히 제 가슴을 더 뛰게 하는 건 이쪽이라서.

무릇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백한 피부와 붉은 입술.

전형적인 귀족의 화장술로 치장한 샤를로트 황후의 냉랭한 얼굴이 남편의 소신 발언에 무너져 내렸다.

나를 향한 공격기술을 보고 여우같은 테레지아 후작을 빼다 박았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최대의 무기인 포커페이스 기술은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았다.

잔뜩 부풀려진 드레스 자락을 움켜 쥔 황후의 안색이 창백하다 못해 파리해져갔다.

“저도 아스트리드 공작의 말에 동의해요.

다른 이의 취향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고 존중하는 건 황족 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매너니까요.”

그리고 황후의 눈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 1인, 시오네 공주가 남편의 말에 동의를 외쳤다.

그럼 나는 거기에 더해 제청을 외쳐 볼까.

하지만 내게 더 이상의 공격 기회는 없었다.

황실의 꽃 시오네 공주와 꽃 중의 꽃 우리 남편!

두 꽃들의 맴매가 많이 아팠는지 황후는 곧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퇴장해 버렸다.

축하연의 주인공임에도 전혀 즐겁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가는 샤를로트 황후와 그녀를 따라 나서는 찌끄레기들.

나는 패배한 적군을 동정할 만큼 너그러운 귀족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게 왜 생각 없이 덤벼, 덤비길.

나랑 척 지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이 여편네들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걸 앞으로 저들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 줄 작정이었다.

그렇게 흐뭇하게 황후의 퇴장을 배웅하고 있는 내게 시오네 공주가 다가왔다.

“공작부인, 여기 계신 부인들도 저처럼 새로운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랍니다.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테라스 쪽에 새로 자리를 마련하려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지 않겠어요?”

공주와 그 곁에 서 있는 대여섯의 귀부인들.

그녀들은 조금 전, 황후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던 무리였다.

아마도 친황제파 귀족의 안사람들이겠지.

뭐, 앞으로 사교계에서의 내 영향력을 높이려면 적당히 무리 짓는 작업도 필요하니까.

칼리안도 어차피 곧 돌아가 봐야 할 테고.

“그럼 그럴... ”

“죄송합니다, 공주님.

저희 부부가 따로 급한 일정이 있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 급한 일정?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래서 이곳까지 공작께서 발걸음을 하신 거군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대신 제가 다시 자리를 마련하면 그때는 꼭 참석해 주셔야 해요. 네?”

“아... 그럼요 공주님.

공주님께서 주최하신 자리에 게스트로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큰 영광이랍니다.”

“호호. 뭘 영광씩이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공작저로 초대장을 보낼게요.

그럼 공작부인, 조만간 우리 다시 봐요.”

시오네 공주는 상큼한 미소를 남기고 귀부인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제 휴게실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편과 나, 둘 뿐이었다.

“그럼 우리도 이만 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칼리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딜 가긴.

벌써 일곱 시가 넘었어.

당신, 내게 아침에 했던 약속을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아침에 했던 약속이요?

그게 뭐... !!!”

세상에.

당신, 그래서 여기까지 나 데리러 온 거예요?

7시 종 땡 쳤으니 이만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우리 함께.”

나를 향한 남편의 미소.

하지만 ‘우리 함께’를 내뱉는 남편의 미소는 마냥 꽃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갈증과 기대.

그 순간 남편은 꽃을 문 짐승이었다.

5월에 아직 닿지 않은 4월 언저리의 실내 온도는 적당히 선선했다.

열락의 밤이 끝나고 땀에 젖은 몸이 그리 찝찝하지 않은 이유였다.

맨살에 감기는 실크 이불의 서늘함과 상체를 감싸고 있는 뜨거운 살갗.

그 감촉을 만끽하며 베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남편의 팔을 쓰다듬었다.

내 손길이 마음에 들었을까.

등 뒤에서 느껴지던 더운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아까는 그만하자더니.

당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빠른 설명이 필요한데.”

“그만하자고 한 건 백 프로 진심.

그리고 이건 당신이 좋아서.”

“... 일 프로의 여지도 없을 만큼 그렇게 별로였나?”

남편의 착 가라앉은 물음에 몸을 돌려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설마 아니겠지? 응?

남편의 눈빛에 담긴 무언의 물음을 읽었다.

좋다고 한 말은 어따 갖다 내버렸는지 다른 말에 꽂혀서 내 답만 기다리는 남편.

그게 너무 귀여워서 나는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크흡.. 큭.. 큭큭큭.”

“... 그 웃음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하지.”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가는 남편.

아... 미치겠다.

섹시하고 절륜한데다 이렇게 귀엽기까지 하면 대체 날더러 어쩌라는 건지.

“당신, 아까 휴게실에서 얼마나 멋졌는지 모르죠?”

“그랬나.”

“그럼요.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홀딱 반했을 걸요?

저를 향한 부러움과 시샘의 눈빛이 한둘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하나.

정작 당신은 내게 반하지 않았는데.”

“어머, 누가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고.”

“...당신도 반했나?”

한 톤 밝아진 얼굴로 되묻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배꼽 밑이 아렸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건 사랑스러운 거고.

즐거운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게 있었다.

“여기 아크레테에서 아스트리드 영지까지 꼬박 말을 달려도 사흘은 걸린다죠?”

반했냐 안 반했냐 답하다 말고 갑자기 웬 말 이야기냐.

불퉁하게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그 거리를 반나절 만에 달리는 명마가 있다고 쳐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리 달리면 반나절 만에 도착이 가능하지만 대신 그 말은 죽게 되요.

반면 중간 중간 쉬어가며 달리면 이틀로 도착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말은 무사할 거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명마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지.

경각에 달린 일이 있다면 모를까, 괜히 무리를 해서 명마를 잃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귀한 말이면 아껴 타야죠.

괜히 욕심냈다가 한 번 타고 끝장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말은 타고난 성격이 엄청나게 예민하고 섬세하다던데.

저처럼.”

“... ”

그래요, 이제 당신도 눈치 챘죠?

내가 하려는 말.

솔직히 가능만 하다면 당신 바람에 난 언제나 호응하고 싶어요.

내 맘도 당신과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 체력이 안 따라 주는 걸 낸들 어쩌겠어요.

“물론 그 명마도 틈틈이 운동을 하고 체력을 꾸준히 기른다면 쉬는 시간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보, 우리 적당히 해요.

이자 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일시불로 당겨 쓸 필요는 없잖아요.

무이자 1200개월 할부!

우리 그렇게 천천히 백년해로 합시다. 네?

“... 그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군.

그런 명마라면 내 평생을 함께 달리고 싶을 테니.”

이히힝 말 말고 좀 더 고급지고 우아한 비교대상이 떠올랐다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남편은 내 개떡 같은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것 같았다.

어느새 식어버린 땀에 살짝 한기가 들어 몸을 떨자 남편이 나를 끌어당겨 품속에 가두었다.

그 아늑함에 절로 잠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애써 졸음을 쫓아내려 나를 덮은 남편의 상체를 밀어냈다.

즐거운 부부생활 말고도 오늘이 가기 전, 남편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 왜 안 물어요?”

“뭘?”

“테레지아 후작. 그 사람과의 일이요.

황궁을 나와 집에 도착하고 지금까지 물어볼 시간은 충분했는데.

당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내 물음에 남편은 이마에서부터 내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당신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싶었어.”

“무슨 시간이요?”

“후회 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설마 이 남자.

“... 당신은 내가 테레지아를 포기하지 못한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인가요?”

“그럴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모두들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혼하라고 가신단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건 내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딴 건 염두에 두지 마.

당신이 그랬잖아. 이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러니 그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이 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마.”

덤덤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

그의 표정에서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읽을 수가 없었다.

이건 뭔 똥배짱이래.

진짜 내가 테레지아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물론 나는 그럴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지만.

“내가 이겼어요.”

“그래, 알아.”

“알아요?”

“테레지아 후작.

그 자가 당신을 만나고 돌아서는데 환하게 웃고 있더군.”

“웃음을 보고 알았다고요?”

“테레지아 후작은 결코 과장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자가 아니야.

그 자의 얼굴에 묻어있는 은근한 미소가 그래서 위험하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

웃어도 너무 웃고 있더군.

당황함과 분노를 감추려는 몸부림이란 걸 바로 알아챌 만큼.

그래서 알았지.”

테레지아 후작의 마지막 모습을 되새겨보았다.

나 때문에 즐겁다며 웃음 짓더니 조만간 다시 보자 말했지.

그런데 그게 당황함을 감추려 한 것이었다고?

“그걸 안다면서 왜 내 결정을 묻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부녀지간의 연을 끊는 것과 남편의 손에 아비가 죽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

“당신이 테레지아를 버린다는 의미는 그런 거야.”

죽여?

그 테레지아 후작을?

게다가 내가 테레지아를 버린다는 게 ‘그런 의미’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 내가 테레지아를 버리면 후작을 죽일 거예요?”

“아니.

당신이 테레지아를 버려서 후작이 죽는 게 아니야.

후작의 죽음은 당신과 별개로 오래전에 결정된 거니까.”

... 오래전에 결정됐다고?

“하지만 후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인 건 맞아.

말했잖아. 당신이 테레지아를 포기하지 못한다 해도 난 받아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후작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지.”

모로 누운 채 나를 보는 남편의 시선은 고요했다.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말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내뱉는 어투도 담담했다.

내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남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

그의 고요함과 덤덤함에 당황스러웠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후작을 죽여야 하지만 제가 원한다면 죽이지 않겠단 말이군요.”

“맞아.”

“... 아주 죽여주는 결정권이 제 손에 쥐어졌네요.”

그래, 죽여주다 못해 아주 그냥 숨이 턱턱 막힌다 야.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후작이 당신에게 사사건건 수작질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그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야.”

“네? 뭐가 아니라는...”

“후작을 죽이려는 거.

그건 황제의 뜻이야.”

“황제의 뜻이라고요?

대체 왜?”

“역심.”

“... 네?”

“후작은 신하된 도리를 저버리고 역심을 품었어.”

역심이라면...

헉, 설마!!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꾸미는 그... 그거?

아니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흙냄새 맡고 싶으면 혼자 땅 파고 기어들어갈 일이지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 벌이길.

나중에 누구 발목을 잡고 들어가려고!!

“말도 안 돼요!

지금 테레지아 후작의 나이가 몇인데.

아니, 다 늙어빠진 건 제쳐두더라도 일개 후작이 대체 무슨 명분으로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앉은 나를 따라 남편이 몸을 일으켰다.

“로즐린, 진정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 했어.”

“아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 자가 그런 미친 ㅈ...”

혹여 누가 들을까 언성을 높이지도 못하고 말을 씹어 잇새로 뱉어내려는데, 내 양 어깨를 감싸 쥔 남편이 시선을 맞춰왔다.

“후작이 노리는 건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게 아니야.”

“...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역심이라면서요?

황위 말고 그럼 그자가 노리는 게 대체 뭔데요?”

“자신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

그렇게 그 이후로도 쭉 자신의 핏줄이 제국의 주인으로 이어져 영원히 군림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자가 원하는 거야.”

그럼 차기 황좌?

그걸 노린다는 말이었어?

...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 정도야 딸을 황후로 앉힌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부릴 수 있는 욕심 아닌가?

니콜라우스 황자는 장자이긴 하지만 모친이 평민 출신이니 황권과는 거리가 멀고, 엘리야 황녀는 현재 황위계승서열 1위이긴 하지만 딸인데다가 몸까지 약하니 샤를로트 황후가 아들만 하나 쑥 낳으면 바로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굳이 야심이 큰 후작이 아니었다 해도 자신의 딸이 황후라면 누구나 가질 법 한 욕심이었다.

“칼리안. 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왜 역심이죠?

물론 황제와 후작의 사이가 껄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후작이 그런 욕심 부릴 거 모르고 샤를로트를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그게 싫었으면 다른 가문의 여식을 황후로 들였어야죠.”

“당신 말이 맞아.

후작이 황태자 자리를 바라는 건 역심이 아니라 욕심이지.”

“그런데 왜 황제는 후작을 죽이려는 거죠?”

“그 욕심을 위해 후작이 엘리자베스 전 황후를 독살했으니까.”

“도, 독살이요?!!”

“당시엔 심증뿐이었지만 비밀리에 조사를 해 오다 최근에 그 실마리를 찾았지.

물론 아직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곧 찾게 될 거야.”

와... 실실 쪼개면서 낯짝 두껍게 다가올 때부터 알아봤다만.

테레지아 이거 진짜 희대의 쌍놈이네.

아니지, 쌍놈한테 라스트 네임이 웬 말이야.

앙리! 앙리! 앙리! 앙리! 이런 개노므스키!!!!

엘리자베스 황후는 엘리야 황녀를 낳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원래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약해져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독살이었다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죽였으니 후작 자신도 결코 편히 죽지는 못할 것이다.

솔직히 아까 테레지아를 버린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약간 움찔했었다.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연 끊고 평생 안보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을 관계였기 때문에 후작이 이 몸에게 붙여놓은 테레지아라는 성 따위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내 선택이 그 자의 생사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대목에서 나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내 결정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 거라는 사실, 그것도 물론 두려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나는 후작의 죽음을 결정지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버림받지도, 이용당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그의 진짜 딸이 아니니까.

후작과 나는 정말로 완벽한 타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아버지로서도, 신하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을 상실한 앙리시키!

그런 놈을 상대할 때 자격증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로즐린, 당신 괜찮나?”

독살 이야기를 듣고 말이 없는 내가 걱정이 됐는지 남편이 바짝 다가앉으며 내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이제 막 진실을 알게 된 내 얼굴보다 진실을 알린 남편의 얼굴이 훨씬 더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네, 칼리안.

전 괜찮아요.”

“...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신에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어.”

“알아요.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는걸요.”

미안해하는 남편의 한쪽 어깨와 가슴에 등을 기대 앉았다.

그런 내 자세가 기꺼웠는지 남편은 나를 살포시 안아주었다.

그의 손길에서 혹여 충격을 받진 않았을까, 나를 다독이는 세심함이 느껴졌다.

“전 황후의 일은 말하지 말까도 생각했지.”

“그랬으면 그 구멍 숭숭 뚫린 허술한 설명에 제가 당신을 추궁했을 텐데요?”

“알아. 그래서 이실직고 했잖아.”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장구를 치는 남편의 노력이 귀여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런 내 웃음에 남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칼리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

“대체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죽어 마땅한 대역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그거요.”

“... ”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당신이 황제와 각별한 군신지간이라지만 대역 죄인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원권.”

“소원권이요?”

“그래. 소원권.

공을 세우고 부상으로 받은 거였어.

황제 자리를 제외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 주겠다 폐하께서 친히 언급하셨지.”

무엇이든 들어주는 소원권이라니.

엄청나게 큰 공훈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랬으니 황제가 그런 절대 반지를 하사했겠지.

근데 이렇게 끝내주는 아이템을 앙리시키에게 쓴다고?

그건 안 되지. 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당신도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런 큰 죄까지 지은 사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하겠어요.”

“아니.

후작의 대역죄, 그게 당신이 그를 버리는 이유가 될 순 없어.”

“당신 왜 그렇게까지...! ”

“핏줄이란 그런 거니까.”

“...”

“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상해서요.”

“뭐가?”

“후작을 살리고 싶다고, 당신은 내가 그렇게 말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 난 그저 당신이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 뿐이야.”

아닌데.

방금 내 말에 움찔거리는 게 내가 다 봤는데.

남편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게 말했다.

시간을 더 가져라, 신중해라,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그 결정이 테레지아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라 해도 괜찮다고.

처음에는 기억을 잃은 내가 섣불리 결정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내 아비의 목을 베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 내가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테레지아를 버리겠다 말 하려할 때마다 답 듣기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남편이 내게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 하나를 알게 됐지만 나는 그걸 덮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게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약속해요.”

후회 없을 결정도 이미 다 내렸지만 그것 역시 숨겨둘 것이다.

“... 나도 약속하지.

당신의 결정이 뭐가 됐든, 꼭 그걸 지켜주겠다고.”

“그래요, 꼭 지켜요.

그 약속.”

내게 자신의 약속을 다짐하는 남편을 보며 나도 다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썩어빠진 핏줄들을 죄다 발라내버려야겠다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말해줄 것이다.

내게 가족은 당신밖에 없다고.

내 핏줄은 당신과 내가 갖게 될 아이들뿐이라고.

자, 그래서 골 때리는 이 몸의 족보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그제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눈 뒤 요 이틀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이었다.

내가 황궁 연회장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인연 끊자고 막말까지 했지만 후작은 그런 내 말을 웃어넘겼다.

하긴.

내가 공작과 금슬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꺼리가 무궁무진할 테니 약아빠진 후작이 내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그리고 후작이 그렇게 가식적이나마 아버지 코스프레를 지속한다면 내가 원하는 깔끔한 족보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곳 브란델 제국은 쇄골이 보이는 드레스나 쫄쫄이 타이즈 등은 너그러이 허용되었지만 그 외 사회적 통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특히 신분의 구별, 가문의 이권, 귀족의 도덕성 등.

귀족법이라는 제도 하에 많은 것들이 묶여 있었다.

자식의 혼사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요, 후계는 반드시 장자가 이어야 했고, 첩의 배를 빌어 낳은 자식에게는 가문의 지분을 단 한 톨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보수적인 귀족사회에서 효, 부모에 대한 도리는 중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앙리 테레지아와 칼리안 아스트리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로즐린.

깍두기 같은 내 사연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그건 바닥에 깔린 가쉽일 뿐.

공표된 진실은 양가의 화합을 위한 황제의 중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다.

그러니 내 쪽에서 후작과의 연을 억지로 잘라낸다면 불효녀를 넘어 패륜아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이요, 천륜을 끊어놓은 주범으로 엄한 남편이 여론의 공격 받을 수도 있었다.

후작은 그렇게 몰아가고도 남을 자였다.

당장 연을 끊으려 매몰찬 행동을 보이는 것보다는 후작을 응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전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저열한 수작질 따위에는 말려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을 얻자마자 공작저를 나섰다.

앙리시키의 수작질을 무사히 버텨내기 위해서는 나도 내 나름대로 비장의 한 수를 쟁여둘 필요가 있었다.

“흐음.”

“그... 저... 그래도 신경 쓴다고 쓴 건데...

너무 누추하여 송구합니다. 마님.”

“아니에요 앙드레.

뭐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가구들이 낡긴 했지만 인테리어 컨셉이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안단테 살롱을 찾은 내게 가게 내부를 보여주던 앙드레는 민망해하며 고개를 푹 수그렸지만 그에게 내가 건넨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좁은 건물 입구와 낡아빠진 내부의 천정, 체리 색 원목으로 덧대어진 복층 계단은 고급스러움 따위 1도 없이 세상 칙칙했다.

내부공사 따위 할 돈도 시간도 없어 급하게 살롱을 오픈했다고 하더니.

허영심 가득한 귀족부인들을 상대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돌바닥에 깔려있는 에스닉한 카펫과 중앙에 비치된 고풍스러운 응접테이블, 복층 계단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 세 점이 절묘하게 그 칙칙함을 잡아주고 있었다.

허름한 살롱이 한 끗 차이로 빈티지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역시, 앙드레의 감각은 진짜였다.

“역시 마님께서는 알아봐 주시는군요.

살롱의 주 고객층이 귀족이라는 걸 감안해 제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인테리어 소품에 최대한 신경을 썼었답니다.

이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소품가게 사장과 얼마나 흥정을 했던지 혀가 다 마를 지경이었지요.

뭐... 물론 그리 애쓴 보람도 없이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렸지만요.”

그때 했던 마음고생이 떠오르는지, 앙드레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아주 많이.

안 그래요?”

“하하하. 네 다르지요, 다르고말고요.

어제 오늘만 벌써 마흔 명 가까이 저희 살롱의 카탈로그를 구매해갔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는 공짜로 준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말입니다.”

“호오. 돈 주고 카탈로그를 사갔단 말이죠?”

“예, 마님.

방문하는 자마다 이곳이 공작부인의 의상을 전담하는 살롱이 맞느냐며 물어보더니 맞다 답하면 하나같이 카탈로그를 구매해 갔습니다.

아직까지 구매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는 없었지만 사교계의 모든 귀부인들이 마님께서 착용하신 드레스와 장신구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신제품의 디자인스케치와 제품의 사양, 가격 등이 담긴 살롱의 카탈로그는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최고급 살롱, 혹은 인기가 많은 살롱의 카탈로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귀부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했다.

“앙드레. 자네도 참 당연한 말을 뭐 그리 입 아프게 늘어놓나.

앞 못 보는 장님이 아니고서야 지금 아크레테에서 마님께서 이용하신다는 살롱에 관심을 갖지 않을 귀부인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내 호위를 위해 따라나선 베아스가 앙드레를 타박하더니 내게 말했다.

“마님, 제가 뭐 딱히 고상한 안목을 가진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날의 마님께서는 정말 차원이 다르셨습니다.

허연 밀 빵 같은 귀족부인들 사이에서 홀로 빛이 나셨다니까요.”

“어머, 베아스님.

그런 당연한 말씀을 입 아프게 어찌 하세요.

전하께서 마님을 괜히 귀애하시겠어요?”

베아스에 이어 내 영원한 1호팬 레아까지.

평소보다 한 톤 업 된 목소리로 내 칭찬을 해댔다.

다들 수도에 퍼진 나의 미친 아름다움에 관한 소문에 흥이 난 듯 했다.

그런데 잠깐 워 워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진정 좀.

지금 우리는 그 떠도는 소문에 흡족해하고 말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그럼 시장 반응도 확인했으니 슬슬 움직여야겠네요.”

“예, 마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데로 이 앙드레, 그저 믿고 따르겠습니다.

뭐든 분부만 하십시오.”

돈, 그리고 명성.

세상에 이 둘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돈은 사람의 몸을, 명성은 그 몸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건 내가 살던 대한민국이나 이곳 브란델 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앙리시키가 지방 촌구석의 보잘 것 없는 준남작가 차남에서 제국의 후작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결혼장사로 얻은 재력과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명성을 얻은 덕분이었다.

결국 튼튼한 돈줄과 수려한 말발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다.

물론 지금의 내게도 돈은 많았다.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유명세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공작가의 안주인으로 내게 그저 주어진 부산물들일 뿐, 진짜 내 것은 아니었다.

그런 부산물들로 귀족파의 수장인 후작을 맞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생각했다.

그놈이 한 걸 나라고 왜 못할까.

사업 밑천은 충분했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이템도 넘쳐났다.

게다가 이런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훌륭한 인재도 있었다.

“앙드레.

1단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네, 마님!

맡겨주십시오.”

내가 건넨 사업계획서를 두 손으로 받아든 앙드레가 힘차게 답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비장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

여자들의 욕망, 그리고 귀족들의 허영.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채워줄 아크레테의 핫 플레이스.

새롭게 단장을 마친 안단테 살롱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졌다.

“... 로즐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 쉿!

조용히 좀 해요.

당신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름 부르지 말랬죠?

우리가 누구인지 광고할 일 있어요?”

“... ”

“저, 마님.

벌써 두 시간째인데 이제 그만...”

“쓰읍!”

“... 하아.”

“... 후우.”

아 진짜.

이 남정네들 도움은 못 줄망정 자꾸 잡음이나 넣고 말이야.

개업하는 날 시장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알고 이러는 거야?

그랬다.

오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 데이(Dday)!

다 망해가던 안단테 살롱이 새롭게 태어난 개업 1일차였다.

사실 원래는 실질적 CEO의 자격으로 개업 첫날의 오픈과 고객 응대를 직접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을 비롯해서 알베르, 레아, 베아스, 앙드레, 기타 등등.

여하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극구 만류를 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곳에서는 귀족들이 장사치들의 뒤는 봐줄지언정 직접 나서서 상업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여기기 때문이란다.

아니, 이게 무슨 하와이에 알파카 서식하는 소리냐.

고깃집 가서 주문하는 건 괜찮은데 집게 들고 삼겹살 굽는 건 쪽팔려서 안 할래, 딱 이거 아니냐고.

참 별 그지 같은 통념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돈 뿐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까지 포함이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으려면 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주변의 만류를 받아들였다.

아, 내가 나서면 진짜 끝장나게 전제품 완판 시킬 자신 있는데.

그 아쉬운 마음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장 반응을 파악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같이 행동해도 모자랄 판에 헛기침만 해대며 빨리 나가자고 재촉하는 남편과 베아스가 무척 못마땅했다.

“... 해서 다들 난리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경삼아 한번 가볼까 생각중인데.

르미에 영애는 거기 관심 없으세요?”

“아뇨, 저도 궁금은 한데...

그럼 케이트 영애께서는 올해 축제 때 입을 드레스를 거기서 맞추실 생각이세요?”

“음... 그러고 싶긴 한데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게... ”

“아이참, 뭔데요.

저 궁금한 거 못 참는 거 아시면서.”

“그러니까... 좀 가까이.”

아이 이것들아.

사운드 볼륨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그냥 크게 말 해!

여기 편하게 수다 떨려고 들어온 거 아니니?

“저... 마님. 그... ”

콱!

마!!

어?!!

눈빛으로 베아스를 닥치게 한 다음 뒤 쪽 테이블에서 속닥이는 소리에 두 귀를 초 집중시켰다.

“그 살롱의 디자이너가 황후마마께 단단히 찍혔다는 소문이 있어서... ”

“네에? 황후마마께서요?”

“쉬이~~ 쉬잇!

르미에 영애, 목소리 좀 낮춰요”

“아! 흐음음.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요?”

“저도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황후마마께서 그 디자이너가 만든 드레스에는 귀족의 품위는 없고 파격만 가득 담긴 실패작이라고 하셨데요.

근본이 없는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 아니냐고...”

뭐? 실패작?

근본이 없어?

...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 마님. 이제 그만... ”

지는 뭐 근본이 차고 넘쳐서 유부녀 주제에 딴 남자한테 눈길 주고 앉았냐?

그것도 남도 아니고 제부한테?!!

“저... 마님. 진짜... ”

“아 그래, 진짜 왜!

왜요! 뭐?!!!”

안 그래도 열 받아있는데 자꾸 보채는 베아스에게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움찔

움찔

웅성웅성

느닷없이 높아진 내 목소리에 주변 테이블에의 사람들이 놀라 웅성댔다.

... 아 씨 쪽팔려.

“... 즐린. 벌써 한 시 반이야.

시오네 공주님께서 살롱에 들리신다던 시간이 두 시 아니었나?”

“예. 제가 아까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아!

그래 맞아.

나에게는 시오네 공주님이 있었어.

“둘 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여기 중앙로에서 6번가까지 가려면 마차 막히는 거 뻔히 알면서!

얼른 서둘러요, 얼른.”

망사로 장식된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테이블을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전에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 썼던 그 비쥬&레이스 모자였다.

그러자 남편과 베아스도 각자 쓴 모자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 마차는 건너편 잡화점 입구에 대기시켜 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30초, 이곳과 최대한 가깝게 주차한 게 거깁니다.”

“... 베아스 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은 그냥 넘어가주지.”

아니 저 인간들이.

뭐 저리 쓸데없이 심각하데.

그깟 모자 좀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내거에 비하면 디자인도 양호하구만 뭘.

우리가 먹은 차와 케이크 값을 계산하는 베아스를 두고 남편과 먼저 길을 건너 마차에 올랐다.

막 마차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베아스가 바람처럼 달려와 마부석 옆에 올라탔다.

“빨리, 빨리.

일단 달리게. 이 삼거리에서 멀어지게 어서!”

마부를 재촉하는 베아스의 음성에 마차가 6번가 쪽을 향해 움직였다.

다행히 길은 막히지 않았고 마차는 금세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략적인 컨셉만 내가 정하고 공사와 인테리어 모두를 앙드레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완성된 살롱의 모습을 보는 건 나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멈춰선 마차에 난 창 밖으로 매끈하게 빛나는 간판이 보였다.

“드디어 보는군.

당신의 그 계획.”

모자를 벗고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남편이 나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에 나도 따라 활짝 웃었다.

“기대해도 좋아요.”

빼곡히 줄지은 붉은색, 혹은 회백색의 건물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건물 하나가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고급 살롱들 특유의 고풍스러운 붉은색 벽돌이나 값비싼 대리석보다 훨씬 우아하고 로맨틱한 감성을 뽐내고 있는 크림색 파벽돌.

그것으로 둘러싼 2층 높이 건물의 측면에는 하얀색 스테인드글라스로 채워진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정면에는 검은색 원목으로 둘러진 큼지막한 출입문, 그리고 왼쪽 벽면에 양각으로 새겨진 검은색 세 글자.

‘안단테’

오케이!

완벽해!!

남편에게 호언장담했던 대로 새롭게 태어난 안단테 살롱은 내가 봐도 끝내줬다.

초장부터 화제몰이를 하려면 여타 살롱들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게 내 사업계획서의 핵심이었기에 내부 인테리어 재정비에 그치지 않고 건물에도 손을 좀 댄 건데 결론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형형색색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빼곡히 채운 여러 개의 창문과 온갖 미사여구로 화려하게 치장된 대형 간판들.

그 특유의 ‘귀족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안단테 살롱의 모습에 남편과 베아스도 감탄의 기색을 보였다.

“호오! 이건 뭐랄까...”

“이야! 그러게요. 뭔가...”

“꽤 신선하죠?”

“그렇군. 신선해.”

“아, 신선!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거.”

후훗.

이제 겨우 출입구일 뿐인데.

여러분! 아직 감탄하긴 이르다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보이는 탁 트인 높은 천정.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복층 테라스로 이어지는 검은색 원목 계단.

곳곳에 달린 은은한 간접 조명.

그 조명이 비추는 벽면의 진열대.

그리고 그 위를 채우고 있는 앙드레의 작품들.

시원함과 가지런함, 화려함이 잘 어울어진 살롱 내부는 해외 명품들을 한데모아 놓은 감각적인 편집샵의 느낌이 제대로 살아 있었다.

내가 원했던 딱 그 느낌이었다.

살롱 내부에 들어선 이들은 하나 같이 감탄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들 중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준, 아니 여전히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 이게 말이 돼?

완전 미쳤어.”

“고, 공주님, 제발요.

보는 눈이 많으니 제발 좀 진정 하시고...”

“진정?

이걸 보고도 내게 진정하라는 거니?

오 맙소사 세실!

그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내 심장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시오네 공주는 측근시녀의 만류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오라비인 황제에게는 툴툴대고, 새언니인 황후에게는 톡톡 쏘고.

제국의 짱과 부 짱에게도 그리 막 대하는 공주님이 환희에 가득찬 얼굴로 내게 이리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내는 이유, 그 답은 이곳 안단테 살롱에 있었다.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긴 했는데 사실 너무 파격적이라 접하는 이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을까 걱정이 많답니다.

실제로 오늘 공주님 이외의 귀족들은 방문하는 이 하나 없었다고 하니...

요즘 유행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호호, 공작부인도 참.

그런 쓸데없는 걱정일랑 접어두세요.

이런 걸 보고도 지갑을 열지 않을 귀부인이 과연 있을까요?

결단코 없을 거라, 내가 장담하죠.”

“그리 좋게 봐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공주님의 안목이야 제국에 소문이 자자하시니까요.”

“그래봤자 내가 잘 하는 게 돈 쓰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멋진 걸 만들어낸 공작부인의 안목이야말로 제국 최고라 할 만 하지요.”

“과찬이십니다. 공주님.

“아니. 인사치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내가 안목 말고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칭찬에 인색하다는 거거든요.”

역시 시오네 공주는 말하는 것부터가 딱 내 스타일이었다.

쭉쭉 내지르는 돌직구 하며 앞뒤가 똑같은 투명한 성격.

게다가 어찌나 내 마음에 드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지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 했다.

“아스트리드 공작께서는 좋으시겠어요.

부인께서 이리 안목이 뛰어나시니.”

“예, 그렇지요.”

남편의 대답은 당연히 긍정이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떠름한 기색이 느껴졌다.

흐흠. 살롱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음... 나중에 살짝 물어보지 뭐.

지금은 영업해야 되니까.

“공주님, 칭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과 감탄은 반만 저의 몫이고 나머지 반의 주인은 따로 있답니다.

앙드레! 이쪽으로.”

앙드레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시오네 공주의 눈이 반짝였다.

내 드레스를 처음보고 흥분감에 초롱초롱하던, 예의 그 산삼 발견한 심마니의 눈빛이었다.

“아! 그럼 이 사람이 안단테의 수석 디자이너라던?”

“예, 시오네 공주님.

만나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소인 앙드레 초이라 하옵니다.”

늘씬한 태를 드러낸 하늘색 슈트를 입고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싱그럽게 웃는 남자.

핏기 없이 허여멀건한 얼굴로 배시시 웃던 앙드레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이렇게요?’

뻣뻣

‘아니, 허리는 좀 더 꼿꼿이! 입꼬리는 바짝!’

부들부들

‘이... 이만큼이요?’

‘좀 더 끌어 올리고 치아는 살짝!’

싱긋

‘그래, 그거예요. 합격!!’

당근과 채찍.

온탕과 냉탕.

고기반찬과 깍두기반찬으로 어르고 후드려 단련시킨 결과, 앙드레는 안단테의 총괄매니저 겸 수석 디자이너라는 자리에 걸맞은 애티튜드를 완벽히 몸에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 유감없이 발휘하는 중이었다.

“제국 최고의 안목을 가지신 시오네 공주님께 제 작품들을 직접 소개할 수 있다면 디자이너로서 이보다 더 큰 광영은 없을 것이옵니다.

공주님, 소인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기꺼이.”

앙드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2층 계단을 내려가는 시오네 공주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다.

황족의 품위 때문에 억지로 참아낸다고 참아냈겠지만 내 예리한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지.

지금 공주의 쇼핑 욕구는 풀 파워 상태인 게 틀림없었다.

후훗.

여봐요 미세스 샤!

당신이 황후라는 권위로 어떻게든 내 사업을 방해 하겠다 꼼수를 부리신 거 같은데.

공식적인 서열은 댁이 높을지 몰라도 이쪽 패션계에서의 셀럽은 누가 봐도 시오네 공주님이거든?

내 이번 참에 셀럽 마케팅의 효과가 얼마나 센지 제대로 보여주지.

“아... 아... 오호호호호.

여긴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시오네 공주의 괴성이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웠다.

시오네 공주가 돌아간 이후, 얼마간의 시간을 더 살롱에서 보냈다.

매장을 점검하고 제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하지만 그 이후로 딱히 살롱에 들어오는 귀족들은 없었다.

간간히 귀족가의 시녀들이 들러 카탈로그를 구매해 갈 뿐이었다.

황제파 귀족가의 부인들도, 공주를 따르던 귀족부인들도 아직은 눈치를 보는 중인 듯했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고작 그 한마디에 수도의 온 귀족부인들이 눈치를 보다니.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황후라 할지라도 황후는 황후였다.

이대로 간다면 기대했던 입소문이 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랐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니었다.

폭풍처럼 불어닥친 사교계의 핫 플레이스 안단테!

그걸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다.

시오네 공주로 인한 홍보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다.

“다들 이쪽을 쳐다보는 군.

당신 계획, 절반쯤은 성공한 거 같은데.”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가슴 아레께에 봉제선을 넣은 벨라인 스타일의 올리브그린 드레스, 여기에 안단테에서 제작한 로브카디건을 걸치자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바뀌었다.

너무 귀족스럽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드레스.

나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옷을 입고 길거리 홍보, 그러니까 영업에 나선 중이었다.

내 쪽으로 한껏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레이스란 드레스에 덧대거나 모자를 장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카디건의 형태로 보는 것은 처음인 사람들.

더군다나 이곳은 레이어드룩의 개념이 없었다.

더울 땐 시원한 소재로.

추울 땐 따뜻한 소재로.

여기에 부채나 모자, 숄 등의 소품만이 사용될 뿐, 주로 드레스의 소재와 색감에 차이를 주어 시즌별로 유행이 조금씩 달라지는 정도가 다라고 했다.

그러니 지금 내 옷차림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 저기 저쪽에.

아스트리드 공작님이시다!”

“그럼 공작님 옆에 계신 저 분이 공작부인?!

세상에... 제국 제일가는 추녀라는 소문, 그거 대체 어떤 눈 먼 놈이 낸 거야?”

“세상에... 두 분 옷까지 맞춰 입으셨나봐.”

“어머, 어머. 어쩜.

저런 드레스는 태어나서 처음 봐.”

“근데 저게 드레스야, 숄이야?”

“이 바보들아! 둘 다 아니야.

저게 바로 그 안단테 살롱에서 만들었다는 ‘카디건’이라고.”

와... 여기는 인터넷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빨리 도는 거지?

시오네 공주가 쇼핑 짐을 마차에 한가득 싣고 황궁으로 돌아간 지 겨우 한 시간.

그런데 그 새 아크레테 거리에는 안단테 살롱의 이름이 퍼지고 있었다.

뭐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래도 신기한 건 신기한 거였다.

“지금 저 반응들, 긍정적인 게 맞겠죠?”

“당연한 소릴.”

“흠... 너무 빨리 답이 나오니 신뢰가 훅 떨어지는데요.

당신 설마 지금 나 위로하는 거 아니죠?”

“그러기엔 지금 당신 너무 예쁜데.”

“... ”

“부채 줄까?”

“... 됐어요.”

“크크큭.”

아... 심장이 쿵.

남편의 웃음소리에 귓불이 더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길거리 홍보에 나서겠다는 내게 산책 컨셉으로 보조를 맞춰주겠노라 말한 남편은 내 드레스와 커플룩 느낌이 나는 올리브 그린의 타탄체크 슈트를 입고 나와 함께 아크레테 사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모델 같아서, 그림 같아서 나는 매 걸음, 매 순간 반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거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매번 밥상 데이트만 하던 그 때가 너무 먼 옛날 같이 느껴졌다.

나를 보며 웃는 남편의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뿌듯했다.

“그나저나 안 됐어.”

“뭐가요?”

“저기.

어제까지만 해도 수도 제일의 고급 살롱들이었을 텐데.”

남편의 고갯짓을 따라 길 건너편 건물로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색감에 화려한 글씨체.

이곳 살롱의 간판들은 귀족의 고급스러움을 표방하고 있었다. .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진리를 미처 깨우치지 못한 듯 했다.

줄줄이 붙어있는 살롱거리에서 제각기 화려함을 뽐내는 간판들이 한데 모이자 화려한 고급스러움은 난잡함이 되었다.

물론 그 살롱들에서 쇼핑 중인 우아한 귀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지만.

“저길 봐요. 손님들 가득한 거.

아직도 사람들은 저기를 최고급 살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젠 아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번이라도 그 곳을 본 사람이라면 저곳들을 최고급 살롱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단호한 남편의 대답.

확신이 없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 성격을 알기에 안단테 살롱을 인정하는 그의 대답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그의 말에 나는 백 프로 동의했다.

“이틀, 그 정도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아크레테 최고의 살롱이라는 그 이름.”

“살롱?

그 아이가?”

“예. 우연히 인연이 닿은 신진 디자이너를 후원한다는 명목인데 조사 결과 실제로도 그와 다르게 의심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그쪽도 구린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문 그대로 아크레테 토박이인 아비가 죽고 유학 중에 급히 귀국하여 가계 빚을 갚기 위해 살롱을 차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흐음.”

자신의 서재.

마호가니 소파에 깊숙이 허리를 묻고 기댄 테레지아 후작의 입가에 침음성이 흘렀다.

황궁에서의 만남 이후 심복인 로쉬 백작에게 로즐린을 주시하라 지시를 내렸고 자신 또한 얼마 없는 로즐린에 대한 기억을 짜내어 가늠하던 중이었지만 느닷없이 살롱이라니.

장사치의 뒷배를 서겠다 나섰다고? 그 아이가?

게다가 그 살롱이라는 곳이 아크레테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 뜻밖의 사건.

그런데 그런 것에 또 의심할 만한 게 없다라...

“좋지 않아.”

“각하. 제가 좀 더 조사를 철저히... ”

로쉬 백작이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테레지아 후작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로즐린 그 아이야.

아스트리드 그 놈이 수를 아주 제대로 썼어.”

“확실히 보통의 귀족들이라면 쉬이 쓰지 못할 수이긴 합니다.”

“온갖 추문들이 나도는 걸 어째 어설프게 통제한다 싶었지.

헌데 그걸 제 손으로 그리 부풀려서 이용할 속셈이었을 줄이야.”

“그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잡스러운 소문들까지 난무하여 이젠 모든 추문들이 애초부터 헛소문이었다, 그리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쉬이 나오지 않는 답에 테레지아 후작은 소파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다시 침음을 흘렸다.

톡 톡 톡 토독 톡

“흠... 그리 애쓴 걸 보면 뭔가 있음이 분명한데.”

“각하.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서... ”

“아니. 그쪽은 더 이상은 들쑤시지 말게.

본성에 발도 들이지 못한 첩자들을 닦달해봤자 무슨 소득이 있겠나.”

“하오시면... ”

“로즐린 그 아이.

그날 내게 제 속을 거침없이 다 내보였지.

십수 년 간 입도 제대로 못 떼던 그 반편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

눈을 맞추고 말을 섞었는데도 도통 그 속내가 뭔지... 다 드러내며 덤벼드니 오히려 알 수가 없더란 말이지.”

누군가의 속내를 파악하고 약한 부분을 흔들어 제게 유리한 쪽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테레지아 후작이 가장 잘 하고 즐겨 하는 정치술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둘째 딸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다.

‘지랄 똥. 싸. 고. 있네.

내 기쁨은 댁을 영원히 안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신경 끄시라고. 오케이?’

예전처럼.

3년이 지났지만 그때처럼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 안일 것이라 여겼던 로즐린.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폭탄은 1년 365일 매순간 굳건하던 테레지아 후작의 평정심에 사정없이 난타를 가했다.

그렇게 어처구니가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던 기억이 떠올라 헛웃음을 짓던 후작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 혹시 대역일 가능성은...”

“그랬다면 그 ‘슈슈’라는 말에 그리 반응하지는 않았겠지.”

차라리 그 편이 더 좋았을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테레지아 후작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로즐린이 가짜였다면 그리 티 나게 굴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파 팔걸이에 걸쳐두었던 양 손을 끌어 모으며 후작은 생각에 잠겼다.

스스슥 스윽

주먹 쥔 자신의 왼손을 나머지 손바닥으로 감싸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한 후작.

무거운 정적 속, 살갗이 마찰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쉽지 않은 난제 혹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치러지는 테레지아 후작만의 의식이었다.

이를 익히 알고 있는 로쉬 백작은 침묵으로 가만히 그 옆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윽고 주먹 쥐었던 왼손을 펴, 양손을 맞댄 테레지아 후작이 입을 열었다.

“페레레.”

무언가 중요한 일을 지시할 때마다 습관처럼 로쉬 백작의 퍼스트 네임을 부르곤 하는 테레지아 후작이었다.

제 주군의 부름에 로쉬 백작이 온 힘을 담아 제 충성심이 드러나도록 절도 있게 고개를 숙였다.

“예 각하!”

“수잔느를 불러올리게.”

역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려는 건가.

로쉬 백작은 여섯 번째 안가에 유폐되어 있는 늙은 여인을 떠올렸다.

수잔느.

그 늙은이야말로 180도 바뀌어버린 저 로즐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 즉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명하십시오, 각하.”

“남쪽의 전서구.”

“!”

“그걸 이번에 한번 제대로 써볼 참이네.”

남쪽의 전서구.

수년 전, 아니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테레지아 후작의 손아귀에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겁 많은 새.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써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허니 남쪽에 지급으로 전하게.

로즐린 그 아이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라고.

단, 아주 은밀하고 정확하게.

아까운 패를 허투루 쓸 수야 없지 않은가.”

“존명!”

그렇게 후작의 숨겨져 있던 패 중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 이게 레아 네가 직접 만든 거라고?”

화장대 옆 탁자에 올려져있는 가방 하나.

그 자그마한 것이 아침부터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었다.

“예... 그게 저...

앙드레 님께서 자꾸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셔서요.

좀... 볼품이 없지요?”

세상에!

이런 깜찍한 걸 만들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좀 볼품이 없지요오?!!

“마님, 아무래도 이건 그냥 두고 가시는 게...”

“대박!”

“예?”

“대박이야!

레아 네가 만든 이 가방, 끝내준다고 진짜!!”

“아... ”

쭈그리가 되어 손가락만 꼼지락대던 레아가 내 감탄 섞인 말에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저, 정말이세요 마님?

이... 이 가죽 주머니가 정말 마음에 드세요?”

“어. 완전!”

베이지색 가죽으로 꼼꼼하게 바느질 된 복주머니 형태의 가방.

방수처리가 된 가죽을 썼는지 은은하게 감도는 광택은 고급스러웠고, 깜찍한 크기에 더해 입구에 잡혀있는 사랑스러운 주름은 정말이지 소녀소녀함의 끝판왕이었다.

얼마 전, 안단테 살롱의 오픈 준비로 정신이 반쯤 나가있는 앙드레를 좀 도와주라며 레아를 보냈었지만 사실 특별히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내 측근시녀가 되기 전, 레아가 침방에서 일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 염려 없이 매장의 정리나 상품의 점검 등에 한 손 거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고, 더불어 다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레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더 활동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전부였다.

그런데 소심쟁이 레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었을 줄이야.

“그런데 앙드레가 네게 이걸 만들어오라고 시켰다고?”

“예. 제가 들고 있던 천주머니를 보시더니 같은 걸로 하나 더 만들어오라시며 그 귀한 송아지 가죽을 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휴... 저 가죽을 자르고 꿰매면서 어찌나 심장이 벌렁거리던지.

헌데 앙드레 님께서는 어찌 아랫것들이나 들고 다니는 주머니 따위를 천이 아닌 값비싼 가죽으로 만들라 하신 걸까요?”

왜긴 왜겠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나도 드레스에 화장품, 구두를 비롯한 각종 장신구들 만들기에는 신경을 기울였었지만 가방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로즐린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지 불과 몇 개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부인의 일상에 완벽하게 동화됐었나보다.

제 손에 뭐 하나 직접 들고 다닐 일이 전혀 없는 귀족들에게 가방 따위 필요할 리가 있나.

각종 짐이나 휴대해야 하는 물건들은 모조리 각 귀족들을 보좌하는 시종 혹은 시녀들 몫이었고 당연히 천 혹은 질긴 말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내내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것은 오직 신분이 낮은 을들뿐!

한마디로 갑에게는 주머니든 가방이든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가방이라는 게 꼭 짐을 넣고 다녀야만 쓸모가 있는 것인가?

아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었다.

가방은 그 존재만으로도 패션의 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끝내주는 아이템이었다.

아니 근데 나야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

숨겨진 레아의 재능을 발견한 것도 모자라 그새 이런 새로운 아이템까지 발굴한 거야?

와... 앙드레 이 남자 진짜 끝내주잖아!

안단테 살롱이 오픈하고 어느새 일주일째.

시오네 공주가 마수걸이를 제대로 해준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입소문이 번지고 번져 그저께부터는 물건이 없어 못 팔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게 당초 내 계획대로 안단테 살롱은 사교계에 돌풍이 되었다.

살 수 있는 물건이 몇 없어도 찾는 이가 줄지 않는 기현상.

‘매진임박’

고객들의 소비 욕구를 부채질 하는 이 마성의 단어 때문에 오히려 안단테 살롱을 찾는 귀부인들과 시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손님의 안내와 물품의 포장을 맡아 하는 직원 둘을 뽑았지만 그거로는 한참 부족했다.

해서 바쁜 앙드레도 도와주고 내 명성도 높일 겸, VVIP 고객들에 한해서는 직접 응대를 해야겠다 싶어 사흘째 내리 안단테로 출퇴근 도장을 찍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음...

“레아, 아무래도 당분간 안단테에는 너 혼자 다녀와야겠구나.”

“예? 저 혼자요?”

눈을 댕그랗게 뜨는 레아에게 웃으며 말해주었다.

“그래, 너 혼자.

지금 저 가방 만든 실력이면 너 혼자서도 충분히 앙드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하, 하지만 마님.

저는 그저 바느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걸요.”

“그래. 맞아

저렇게 끝내주는 ‘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바느질 솜씨지.

그러니 그거면 충분해.”

지금 안단테 살롱에 가장 필요한 건 기술자였다.

앙드레를 도와 디자인과 바느질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기술자.

“그치만 제가 가면 마님의 시중은 누가 들고요.”

“여기 이쪽.

내 말이라면 목숨 바쳐 뭐든 해낼 기사님이 있잖니.”

“예? 저 말입니까?”

뜬금없이 저를 지목하는 내 손길에 화들짝 놀라는 베아스를 보며 나는 화사하게 웃어 주었다.

“왜 아니겠어요.

어머,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주군의 하나뿐인 반. 려.를 위해 능력 발휘 확실히 하겠다고 맹세했던 거.”

“아니 뭐 그거야... ”

응? 뭐? 왜?

“... 하하. 예 그럼요.

당연히 잊지 않았지요. 잊지 않았고말고요.

주군의 하나뿐인 반려이신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래.

내가 뭐 너한테 속옷 빨래를 시키겠니, 머리 손질을 맡기겠니.

적당히 분위기 맞춰 대답하는 걸로 협조 잘 하자 응?

“하, 하지만 그래도 ... ”

“거기다 따로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저택에만 있을 건데 무슨 걱정이니.

레아 너 올 때까지 잡일쯤이야 저택의 시녀들을 시켜도 되는 거고.

당분간만이야, 당분간만.

그러니 내 걱정 그만 하고 어서 다녀오렴.

지금은 앙드레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니까. 응?”

평소 성격은 소심해도 나랑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세상 고집불통이 되고 마는 게 바로 레아였다. 그래서 설득을 가장해 반 강제로 등을 떠다밀 수밖에 없었다.

방금 말한 대로 지금은 앙드레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레아가 가준다면 나는 그 사이에 다른 아이템을 궁리해 볼 참이었다.

똑똑 벌컥

“로즐린! 오늘도 아침부터 나가려는 건가?

가려거든 나랑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고.”

... 그리고 며칠째 앙탈을 부려대는 남편의 비위도 좀 맞춰주고.

노크가 끝난 지 0.1초 만에 거세게 열어젖혀진 문 쪽으로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남편과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는 알베르가 보였다.

“칼리안.

응답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쳐들어올 거면 대체 노크는 왜 한 거죠?”

내가 그새 나갔을까봐 급하게 올라온 건가.

서둘러 움직인 기색이 역력한 남편은 내 물음에 대꾸하는 대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점심은 하고 가지.”

“칼리안, 오늘은... ”

“당신이랑 함께 하려고 아침도 거르고 회의부터 끝냈어.”

“... ”

“배고파.”

... 아 진짜 이 남자를 어쩌니.

나 오늘은 안 나간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답을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이 왠지 짠했다.

하긴. 내가 요즘 이 남자에게 좀 소홀하긴 했었지.

그래서 그랬을까.

며칠째 묘하게 저기압인 남편이 신경 쓰여 어젯밤, 침대머리 대화를 시도했었다.

‘칼리안, 당신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럼 혹시 뭐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요?’

‘아니, 전혀.’

‘... 제게 화난 것도, 잘 안 풀리는 일도 없다면서 왜 당신 얼굴은 지금도 화가 나 있는 거죠?’

‘하. 하. 내가?

난 아무렇지도 않아 로즐린.

오히려 당신이 좀 예민한 거 같은데.’

‘제가요?’

‘몸이 피곤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진다지.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어때?

누가 보면 앙드레 그자가 아니라 당신이 살롱의 마담인 줄 알겠어.’

딱 봐도 꿍한 게 있는데.

하지만 남편은 곧 죽어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며 억지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쿨 한 척 답을 하더니 이내 자는 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때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마 저 남자는 모르겠지.

하루 종일 바쁜 너 때문에 나 아주 심통 제대로 났으니 빨리 알아 달라, 딱! 그 표정이었다.

“알베르.”

“예, 마님.”

“오늘 스프는 콩소메가 좋겠어요.”

내 말이 식사 요청에 대한 화답임을 알아챈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나도 같은 걸로 하지.

아, 그리고 구성은 풀코스가 좋을 거 좋은데.”

“예, 전하.

“주방에 일러 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풀코스라면 기본이 두 시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내 얼굴 보고 싶다 이 뜻이었다.

그렇게 알베르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던 남편이 내게 물었다.

“아, 참!

로즐린 당신 시간 괜찮나?”

벌써 주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묻는 척하는 것 좀 보소.

이것이야말로 답정너 아닌가.

정말 눈앞의 이 남자가 너무 귀여워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그렇다면 아내 된 입장에서 마땅히 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그 풀코스, 정원 테라스에서 맛보는 건 어때요?”

“정원 테라스?”

“알베르. 준비 가능할까요?”

“예, 마님.

마침 1층 안 뜰에 수국이 만개하여 식사 중 감상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식사 후 티타임까지 그곳에 준비해줘요.

아, 참!

칼리안 당신 시간 괜찮죠?”

내 물음에 살포시 걸려있던 남편의 미소가 활짝 만개했다.

후 하 후

저 미소 앞에 곧 쭈그러들 수국에게 미리 심심한 위로를.

달콤한 커스터드푸딩을 끝으로 식사를 마무리하고 쌉싸름한 홍차로 입가심을 했다.

5월의 햇살과 함께 하는 티타임이라니.

간만에 찾은 여유가 무척 황홀했다.

“정말 안 가봐도 괜찮나?”

“그럼요. 어차피 전 후원자일 뿐인걸요.”

“하지만 다들 그 앙드레보다 당신을 더 만나고 싶어 난리라던데.”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다.

직접 살롱을 찾은 귀족들은 모두 하나같이 나와의 만남을 원했다.

황후가 덮어놓은 ‘불순함’이라는 평가.

그리고 그 평가 때문에 더욱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안단테 살롱.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인 내가 어지간히도 궁금한지 시녀를 보내 내가 언제쯤 살롱에 나오는지 묻고 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살롱에 나가지 않으려고요.”

“어째서?”

“뭐든 쉬우면 금방 질리니까요.

적당히 애를 태워야 오래오래 활활 타오르죠.”

“... 미리 말해두지만 난 참 당신이 어려워.”

“네? 그게 무슨... ”

“매일 매일 볼 때마다 새로워.

그래서 늘 설레고.”

“... ”

“그러니까 적당히 애태우는 거.

나한테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 남자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매번 생각한다.

이번 생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칼리안. 방금 당신 고백 엄청나게 저돌적이었던 거 알아요?”

“그래서 별론가?”

“설마요. 저 방금 완전 설렜다고요.

아무래도 은유적인 고백보단 저돌적인 고백이 제 취향인가 봐요.”

내 답이 마음에 쏙 든다는 듯 남편이 크게 웃었다.

그래, 지금이다!

진솔한 찻상머리 대화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

답이 뭔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야했다.

“그러니까 속에 쌓아두지 말고 저돌적으로 말해줘요.

당신, 나한테 섭섭한 거 있죠?”

“... ”

“없다고 하지 말아요. 이미 들켰으니까.”

“... 당신은 너무 눈치가 빨라.”

“그래서 별로예요?”

내 말에 졌다는 듯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다가 곧 자신의 속내를 고백했다.

“섭섭하거나 화가 났다기보다는... 답답했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걸 말하는 게 내 욕심 같았거든.”

요즘 당신 너무 바쁜 거 같다, 나에게 소홀해서 섭섭하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저렇게 자학 비스무리한 거까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 내가 그 정도로 심하게 무관심했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하지만 담담하게 읊조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내 의문은 곧 사그라졌다.

“처음으로 당신이 몰두하는 일이니까.

방해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

항상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해서 말 못한 거라고?

살살 달래 줘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웬걸.

갑자기 엄청나게 미안해졌다.

“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칼리안.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진지모드였던 게 간만이라 좀 어색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내 사과가 끝나자 착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랑살랑 떠오르며 훈훈해졌다.

낯간지러운 고백과 사과의 말은 이걸로 끝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편도 나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함께 웃었으니까.

역시, 부부섭섭은 칼로 물베기야.

“그런데 칼리안. 누가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뭐가?”

“항상 응원하고 같은 편이 되어 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다면서요.”

“아 그건 책에서 봤... 콜록 콜록 콜록.”

응? 책에서?

말하다말고 갑자기 격하게 기침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새 찻물을 들이던 알베르가 답을 했다.

“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하의 유일한 취미가 독서이시지 않습니까?

요즘 저녁마다 철학서 한 권을 즐겨 읽고 계십니다.”

“철학서요?”

“예. 후원하시는 작가의 신작이라 응원 차 구매하셨지요.”

“쿨럭, 크흠.

맞아. 그 작가 글 솜씨가 제법이라.”

아, 우리 남편 취미가 독서였지.

아니 근데 예술가 후원하는 게 뭐 그리 쑥스러운 일이라고.

저러다 곧 얼굴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있었다.

“당신이 제법이라 칭찬할 정도라니 어떤 책인지 막 궁금해지는데요?

다 읽으면 얘기해줘요. 저도 한번 읽어보게.

아,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으... 응?

아! 그런데 로즐린.

당신 이만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응? 나 나가라고?

아깐 함께 있고 싶다더니.

... 이 뜬금없는 멘트 무엇?

“저요?”

“그래, 벌써 두 시가 지났어.

이만 자리를 파하고... ”

“전하.

마님께선 조금 전 당분간 살롱에 나가시지 않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 ”

“칼리안, 당신 괜찮아요?”

“... 물론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이번에도 저 남자는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는 게 분명했다.

흠... 갑자기 기침도 하고 얼굴도 시뻘겋고.

혹시 감긴가?

“여보, 칼리안.

오늘 오후 일정 비우고 좀 쉬는 게 어때요?

당신 아무래도 열 있는 거 같아요.”

손을 들어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니 제법 뜨끈뜨끈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맞벌이보다 내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았다.

최근 아크레테의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안단테 살롱 1층 매장은 오늘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중이었다.

“저... 미스터 초이.

공작부인께서는 몇 시쯤 나오시죠?”

“아, 케이트 영애시군요.

아쉽게도 공작부인께서는 오늘 살롱에 들르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아! 그럼 혹시 언제쯤... ”

“그것이 소인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지라.”

앙드레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고객에게 전담 직원을 붙여준 뒤, 2층 작업실로 걸음을 옮겼다.

‘어휴. 이거 내가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마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게나 효과가 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니.

그나마 레아 양이라도 와줬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예약주문 물량도 맞추지 못할 뻔 했잖아.

컨설팅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약 물량도 그렇고.

아무래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사람이 거의 들지 않았던 오픈일을 제외하고 겨우 닷새.

그 짧은 시간동안 로즐린이 시전한 ‘뷰티 컨설팅’이라는 서비스 때문에 앙드레는 아침부터 앵무새처럼 ‘공작부인 없다’를 무한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앙드레는 로즐린에게 어찌해야 할까를 묻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아니, 보낼 수가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최대한 빨리 인력 충원부터 끝내야 해.

몸도 약한 마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순 없으니까.

이 정도로 도와주신 것만 해도 내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건데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야.’

쫄딱 망해 파산 직전이었던 자신에게 엄청난 사업 자금과 아이템, 그에 더해 아스트리드의 이름값까지 얹어 후원해주신 은인.

그 분께 받았던 은혜만큼은 못 될지라도 하루빨리 보답하고 싶다, 앙드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그 진심 속에 섞여있는 한 줌의 두려움이 공작부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겠지만.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손님이 많지 않군.’

‘예, 전하.

조금 전까지 정신이 없다가 이제 겨우 한 숨 돌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이 와중에 한. 숨. 돌. 리. 고 있었군.

내 아내는 아직도 저 상담실이라는 곳에 들어앉아 머리카락 하나 볼 수가 없는데 말이지.’

‘그... 그것이... ’

‘이봐, 앙드레 초이.’

‘예, 예 전하.’

‘아무래도 자네가 고용인, 내 아내가 피고용인이 되는 걸로 계약서를 잘못 쓴 건 아닌가 싶어서 내 지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는 중이거든.’

‘그, 그럴 리가요 전하.

어찌 감히 제가...’

‘그러게 말이야.

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 ’

‘아내는 자네의 재능을 무척 아끼고 있지.’

‘소, 송구합니다 전하.’

‘그리고 나도 자네을 아끼고 싶어.’

‘...’

‘오늘 내가 여기 온건 아내에게 비밀로 하지.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알아서 잘 좀 하자.

눈빛으로 자신을 따끔하게 타이르던 칼리안을 떠올리며 앙드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절대, 절대! 마님께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

마님을 향한 걱정과 애정이 넘치시는 공작전하를 위해서라도 살롱의 경영은 앞으로 자신이 전담하겠다, 굳게 다짐하는 앙드레였다.

와... 미쳐버리겠네.

이건 뭐 반송시켜 버릴 수도 없고.

“마님, 여기도요.”

“뭐? 또?!”

아침부터 책상 위에 쌓여있는 편지더미를 보고 있자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편지는 보낸 이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안단테 살롱의 특별 서비스는 대체 언제쯤 다시 진행할 계획이신지.

발신인 모두가 나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었다.

“마님께서 발길을 끊으신 지 벌써 열흘이 넘어가니 다들 몸이 달았나 봐요.

앙드레님께도 마님을 뵙게 해달라는 청탁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던 걸요.”

“ 앙드레?

지난주 매출 동향 보고하러 왔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거야 마님께서 당분간 살롱에는 들르지 않겠다, 미리 언질을 하셨으니까요.

애초에 앙드레님께서 그런 청탁들을 받아들이실 리도 없거니와 그런 걸 마님께 전하실 리는 더더욱 없죠.”

살롱의 대표 디자인은 물론 까다로운 고객들의 사후관리까지.

수석디자이너로서뿐 아니라 총괄매니저로서의 역량까지 멋지게 발휘하고 있는 앙드레였다.

하지만 그런 앙드레의 정중한 거절이 성질 급한 귀부인들에겐 먹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 저걸 다 어쩌지.

“그냥 아예 답장을 안 하는 건... 안 되려나?”

“네, 그건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선 ‘마, 마님’밖에 할 줄 모르더니.

그새 살롱 물 좀 먹었다고 제법 단호해진 레아였다.

“... 레아 너 변했어.”

“제 변한 모습이 멋지다고 칭찬하신 게 30분 전이세요 마님.”

“쳇! 그건 네가 뽑아낸 다음 시즌 디자인이 끝내줬으니까 그런 거고.

방금 대답은 완전 별로였거든.”

안단테 살롱에 사람이 충원되자마자 레아는 더 이상의 출근을 마다하고 다시 내 껌딱지로 돌아왔다.

마님 곁엔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매장을 박차고 나갔대나 어쨌다나.

인력 현황을 보고하러 공작저에 들른 앙드레가 전해준 말이었다.

으이구 기특한 우리 레아!

하지만 이렇게 뿌듯해하던 것도 잠시.

지금까지처럼 측근시녀로만 두기에 레아의 재능은 너무나 빛이 났다.

그렇다고 측근시녀 자리를 다른 이가 맡는다는 건 나도 레아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타협점을 찾은 것이 재택근무였다.

‘아스트리드 공작부인의 측근시녀& 안단테 살롱의 액세서리 디자이너’

현재 투잡 중인 레아를 위해 내가 파준 명함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며 얻은 성취감 덕분일까.

레아는 애초에 내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성격이 활발하게 변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간단한 초대장에도 손수 답장을 보내는 것이 사교계의 관례인 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으시고 답장 한 통 하시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올 거예요.”

“누가 한 통도 안 보낸다고 했니?

보낼 만 한 사람에게는 보내야지.”

그래. 보낼 거야.

잡다구리한 이들 말고 진짜 보낼 만 한 이에게만.

나는 이미 읽은 편지 중 하나를 다시 집어 들었다.

정갈한 글씨체와 함께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말이 얼마 전 만났던 한 귀부인을 상기시켰다.

친애하는 아스트리드 공작부인께.

최근 외부 활동이 뜸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듭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자니 안단테 살롱에서 처음 뵈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부인께 ‘뷰티 컨설팅’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더라면 과연 지금의 저는 어땠을는지.

아마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그저 버텨내기 급급했겠지요.

하지만 부인께서 추천해주셨던 ‘펄 파우더’와 ‘슬립원피스’ 덕분에 오랜 시간 어둠속에 갇혀있던 제 일상은 빛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자존감뿐만 아니라...

... 하여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릴리안 판커스테인 드림.

수많은 편지 중에 유일하게 답장할 가치가 있는 편지의 주인.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은 내게 ‘뷰티 컨설팅’을 받은 첫 번째 고객이었다.

덕분에 입소문 마케팅이 제대로 성공했으니 나도 성의 표시는 해야겠지.

“답장은 여기 한통이면 충분해.”

“네? 그럼 이것들은 다 어쩌시게요?”

“어쩌긴.

담당자에게 맡겨야지.”

“담당자요?

아! 설마... ”

응, 그 설마야.

“어차피 죄다 안단테 살롱과 관련된 요청이잖니.

그리고 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건 절대 갑 질이 아니었다.

후원자로서 앙드레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과 귀한 인맥을 나누어 주려는 내 큰 그림이었다.

진짜로.

“그러니까 잠잠하단 말이죠?”

“예. 뭐 간간이 귀족파 쪽 인사들이 황후궁에 들어 마님을 씹는... 크흐흠!

아, 그러니까 마님을 성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는 쓰고 있지만 호응하는 수가 그리 많지 않기도 하고... 뭐 황후 스스로도 처음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더 나서봐야 득 될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눈치랄까요?”

“하긴. 궁인들 앞에서 그리 험한 꼴을 보였으니 더 나서긴 쉽지 않겠죠.”

자신의 말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내 태도에 기가 살았는지 보고를 이어가는 베아스의 어투에 흥이 붙기 시작했다.

“그렇지요.

황실 정원 한복판에서 그런 개싸움이라니.

고귀하신 황후마마께서 언제 그런 일을 겪어보셨겠습니까?

게다가 최종 승자 또한 시오네 공주님이 차지하셨으니.

그 일이 있고 빠득빠득 이 가는 소리에 황후궁 시종들이 며칠 밤잠을 설쳤다는 소문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황후의 치아 수명이 3년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럼 나탈리아 황비는요?

그때 황비가 나서서 중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황후에게 밉보이고도 별 탈이 없나보죠?”

“워낙에 황제폐하의 총애를 받고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평소 크게 나서는 법이 없으시고 궁 내 평판도 워낙 좋으시다보니 아무리 황후마마라 할지라도 대놓고 황비마마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황제의 총애가 나탈리아 황비에게 쏠려있긴 했지.

입궁 첫날 식사자리에서도 그렇고 황실 축하연에서도 그렇고 어찌나 샤를로트 황후를 보는 시선과 나탈리아 황비를 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크던지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물론 샤를로트 황후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당당했지만.

“게다가 황후 측 인사의 언행 불순이 그 싸움의 시발점이니 명분마저 황후의 편이 아닐 테고.”

“예 맞습니다.

그나마 황제폐하께서 모른 척 넘어가시어 체면을 지켜주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있는 게 황후에게 최선일겁니다.”

제 이름으로 주최한 티파티에서, 누가 봐도 제 측근인 자의 입을 빌어 내뱉은 속내.

그 시작은 안단테 살롱,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황후가 조장한 내 뒷담화였단다.

VIP 고객들에게 특별 선물로 뿌린 ‘슬립원피스’를 두고 품위가 없다, 망측하다 등등.

하지만 그게 시오네 공주의 심기를 제대로 타격하고 말았으니.

나름 평화롭던 티파티는 열 받은 공주의 폭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당연히 그 파티의 호스트였던 황후는 망신살이 뻗치고 말았다.

시오네 공주가 이미 나와 앙드레의 광팬이 된 걸 미처 파악 못한 황후의 실수였다.

그러게 왜 되도 않는 수작질을 벌여, 벌이길.

‘슬립원피스’가 지금 귀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핫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사건 덕에 마님의 명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셨으니 정말 뭘 해도 될 놈은 될... 크, 크흠.

아 마님, 저 그러니까 그게... ”

“맞아요. 될 놈.

확실히 내가 운이 좋긴 하죠.

하지만 뭐 운도 실력 아니겠어요?

뭐가 됐든 이기면 장땡이죠.”

“자, 장땡!

암요, 그렇지요 이기면 장땡이지요.

흐흐...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분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법!

역시! 마님께서는 이 베아스의 충성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내 장땡 드립에 베아스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눈을 빛냈다.

흐음.

그나저나 얘는 평민 출신이라 황실에 따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황실에서 일어난 일에 이렇게 빠삭한 거지?

바깥소식을 궁금해 하는 내게 그런 건 자신에게 맡겨 달라, 큰 소리 뻥뻥 치기에 어디 얼마나 잘 하나 두고 보자 했는데 웬걸.

아크레테 구석구석에 개인 정보통이라도 심어 놓은 건지, 물어오는 소식마다 따끈따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베아스는 하루 종일 내 옆에만 붙어있는데도 어쩜 사방팔방 그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능력 좋고 매력적인 남자가 저라고. 흐흐.”

매력은 모르겠고, 능력은 인정.

“헌데요 마님.

뭐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응?

여태껏 실실대다가 갑자기 웬 진지모드?

“그럼요. 말해요.”

“어찌 한 번도 묻질 않으십니까?

저와 테레지아와의 사연을요.”

“... ”

“그날, 황궁 연회장에서의 일이 있고나서 저는 마님께서 바로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아... 아픈 거 같아서요.”

“예?”

“그 사연이 뭔지는 몰라도 베아스에게 큰 상처 같아서.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

입술을 꾹 다물고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는 베아스의 시선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 베아스, 미안.

사실은 다 뻥이었다.

이런 저런 일로 바쁘다보니 그 사연이라는 거, 솔직히 까먹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궁금해 할 새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원만한 갑을관계를 위해 진실은 영원히 묻어두는 거로.

“베아스만 괜찮다면 듣고 싶은데.

그 사연, 내게 말해줄 수 있어요?”

“... 앙리 테레지아, 그 자는 비열한 위선자입니다.”

얼마간의 침묵을 끝내고 입을 연 베아스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평소 쉽게 흥분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 흡사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열 살 무렵까지 길거리를 전전하며 구걸이나 하던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고작 마차 행렬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제 눈앞에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단 행렬을 가까이서 보겠다며 앞으로 나서는 바람에...

손을 쓴 기사를 향해 울부짖는 저를 본 앙리 테레지아, 그 자가 말하더군요.

함부로 검을 휘둘러 귀족의 명예를 더럽힌 기사를 당장 끌고 가 처형하고 다친 자는 치료케 하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자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역시 제국의 영웅답게 공명정대하다, 귀족다운 귀족이다, 감탄과 찬양 일색이었지요. 흐흐.

저도 그땐 그리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때의 감정이 떠오른 걸까.

과거의 자신을 탓하며 내뱉는 실소 뒤에 분노가 묻어났다.

내내 담담하던 베아스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그때 입은 상처로 내내 앓던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멀쩡하게 살아있는 기사 놈을 보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앙리 테레지아, 그 자가 세간의 이목을 의식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후작각하의 위신을 상하게 한 너희 무지렁이들의 탓이다, 달려드는 제게 그 기사 놈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놈에게 딱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날 길거리에 버려진 저를 에두와르 백작님께서 발견하시고 거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그냥 죽었을 겁니다.”

아... 그렇게 아스트리드 공작가에 들어오게 된 거였구나.

인생 참.

“그럼 그 기사 놈은요?”

“그 일이 있고나서 1년 후쯤, 그 놈은 결국 제 쓸모를 다하고 후작을 위해 죽었습니다.

결국 복수할 기회조차 제게서 빼앗아간 겁니다. 테레지아 그 자는.”

베아스는 그 기사가 했던 짓이 테레지아 후작의 뜻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된 이후, 복수의 대상을 후작으로 삼게 됐다고 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특별할 것 없는 흔하디흔한 사연이었다.

전형적인 갑 질, 그리고 그에 짓밟힌 을의 분노.

하지만 특별하지 않아서, 흔하디흔해서, 베아스의 고백은 더 슬펐다.

간절히 바랬던, 겨우 찾아온 행복을 짓밟은 원흉이 제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원통했을까.

앙리 테레지아, 이 나쁜 놈!

진짜 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몸의 아버지란 놈이 한 짓이니까.

왠지 사과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미안해요 베아스.”

“아니, 마님께서 왜 제게 사과를 하십니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물론 이건 테레지아 후작을 대신해서 하는 사과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짓은 사과 따위로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해요.

아주 철저히, 모든 것이 무너져봐야 그 자도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핏줄의 심판을 당연하다 말하는 나며 보며 베아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의심? 아니면 확신?

“예, 반드시 그리 되게 만들 겁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당신이 내게 바치겠다던 충성이 온전한 진심이 되기를.

베아스의 다짐에 답하며 속으로 그렇게 바랐다.

아스트리드 공작령에서 가장 큰 도시, 트라비타.

이곳 변두리 골목에 위치한 한 여관에 여러 대의 짐마차가 들어서고 있었다.

“어이쿠, 드디어 끝났구먼.

이번엔 물건도 별로 안 실어왔는데 어째 몸이 이래 쑤셔대는지.”

“이제 그럴 때도 됐지 뭘.

자네나 나나 벌써 쉰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내년부터는 이 짓도 못해먹을 건가보네 그려.”

상단의 일꾼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며 짐마차를 정돈하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다가섰다.

“아저씨, 저 좀 잠시...”

“아! 그래, 그래. 어서 가 봐.

일 년에 겨우 두 번인데 동생 얼굴은 보고 가야지.”

손을 휘휘 내젓는 중년 남자에게 꾸벅, 인사를 마친 젊은 남자는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아이고, 어지간히도 보고 싶었나보네.

저리 달음박질하는 걸 보니.”

“왜 안 그렇겠나. 하나 뿐인 여동생인데.

둘이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다달이 편지도 주고받고 벌어 모으는 틈틈이 용돈까지 보내는 모양이더라고.”

“상단주 눈에 들어 회계 공부하랴, 돈 벌어서 동생 챙기랴.

하여간 필립 저 놈이 난 놈은 난 놈이야.

아, 그런데 그 동생 이름이 뭐랬지?”

“그게 보니타...라고 했었지 아마.”

보니타는 반 년 만에 만난 오빠의 얼굴에도 심드렁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인적도 없는 별채에서 하루 종일 걸레질만 하며 보내길 벌써 한 달 째.

마님께 제대로 밉보였다, 소문까지 퍼진 통에 공작성 내에서 그녀를 챙기는 사람은 다 늙어빠진 마굿간지기 쿤 밖에 없었다.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된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만나자는 거야?”

“하지만 보니타.

이렇게 정기 상행 때라도 보지 않으면 이 오빠가 네 얼굴을 언제 또 볼 수 있겠니.”

“흥! 오빠는 무슨.

저 살겠다고 혼자 도망칠 땐 언제고.”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시달리다 자살한 어머니.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오빠 필립.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가.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술에 찌들어 폭력을 일삼던 보니타의 아비는 그녀에게 제법 큰 액수의 노름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렸다.

필립이 제때 나타나 그 노름빚을 갚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는 어딘가로 팔려가 사창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살갑게 구는 필립의 모습에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와 왜 이러나 싶어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던 보니타였지만 몇 년째, 아주 가끔 들러 대단치도 않은 이야기나 지껄이다 가기를 반복하는 통에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할 뿐이었다.

뭐, 매달 용돈이라고 보내주는 돈을 생각하면 일 년에 두어 번 만나 얘기하는 것쯤이야.

“요즘 지내기는 어때?

아직까지 별채에서 일하는 거야?”

“너, 그걸 어떻게... ”

저 자식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대체 나불거린 거냐, 따져 물으려던 보니타는 이내 그 질문을 도로 삼켰다.

하긴, 모르는 게 이상했다.

자신이 공작가의 하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저 필립이 힘쓴 덕분이었으니까.

“이익!

너 내 앞에서 별채의 별 자도 꺼내지 마! 알았어?”

하... 망할.”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보니타, 진정 좀 해. 응?

조금만 참고 열심히 일하면 공작부인께서도 곧 용서해 주실 거야.

말실수 한번 한 걸 가지고 설마 널 계속 그 곳에 두시겠니?

요즘 들리는 소문에 그 ‘사고’ 이후 아랫것들에게 굉장히 관대해지셨다고...”

“하! 관대? 웃기고 있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 병신 같은 년이 작심하고 날 전하 곁에서 쳐낸 거라고!”

“보, 보니타! 너 무슨 말을... ”

당황한 표정의 필립을 보고 다시 한 차례 코웃음을 친 보니타가 입을 열었다.

“왜? 맞잖아, 병. 신! 내 말이 틀려?

오, 맙소사 필립!

그딴 멍청이 같은 표정은 제발 집어치워!

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야?

로즐린 그 망할 년의 과거, 그걸 내게 말해준 게 바로 너잖아.”

로즐린 테레지아.

제 아비에게 버림받은 반편이에 극심한 우울증 환자.

자신이 공작성의 시녀로 들어갈 때 필립이 귀띔 해 준 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저보다 훨씬 비참한 로즐린을 지켜보며 보니타는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고, 칙칙했던 외모도 날이 갈수록 화사하게 피어났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보니타는 지금의 상황을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다.

처음 느겼던 우월감, 그 ‘행복’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다들 그 년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 사고라는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3년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갑자기 야밤에 산책이라니, 그것도 맨발로.

그게 말이 돼?

이혼 당해 곧 쫓겨날 거 같으니까 그 병신 같은 년이 작심하고 수작질을 부린 거라고!”

맨발, 이혼.

세간의 떠도는 소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단어가 나오자 필립의 눈이 일순간 번뜩였다.

하지만 흥분한 보니타는 미처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보니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세히 좀 말해봐.”

“그러니까 그게... ”

보니타가 쏟아내는 말을 듣고 있는 필립의 손이 탁자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중년의 귀부인이 홀로 창가에 선 채,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 귀부인의 이름은 안젤리카 라보르.

눈가에 진 주름이 다소 아쉬웠지만 마흔 줄을 훌쩍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청초함을 유지하고 있는 안젤리카는 라보르 남작가의 젊은 가주, 앨런 라보르의 어머니였다.

‘언니... 엠마 언니.’

차마 부르지 못할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두 눈을 질끈 감는 안젤리카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똑똑

“마님, 로보상단의 단주가 뵙기를 청합니다.”

“안으로 들이게.”

아련함이 서려있던 안젤리카의 눈빛이 어느새 서늘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런 그녀의 시선을 맞으며 방으로 들어온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마님을 뵈옵니다.”

“어찌됐는가?”

“심려해주신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여기, 이번 상행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애썼네.”

남자에게 건네받은 서류는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개봉한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안젤리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필립, 그 자가 아카데미 입학을 원한다 했던가?”

“예, 마님.

늦은 나이에도 공부 욕심이 대단합니다.”

“일을 무사히 끝냈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게.

단, 이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아카데미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남자가 방을 나가고도 한참 동안, 안젤리카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가능성 – 밤 10시 경 맨발로 10분 이상 이동

건강 이상의 가능성 – 사고 발생 하루 전 주치의 방문 및 탕약 복용

※사고 발생 보름 전 가신단 회의에서 후계 지연 관련 공작부부의 이혼 문제 거론.

단, 회의 결과 비공개로 공작부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이 보고서는 안젤리카가 원한 게 절대 아니었다.

차라리 보지 말 것을.

숨 막힐 듯 밀려드는 죄책감에 안젤리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끊어지지 않는 속박의 고리, 앙리 테레지아.

자신의 오빠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남편을 죽게 만든 악마.

그자가 쥐고 있는 게 앨런 라보르,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만 아니었더라면 또다시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엠마 언니... 미안해.

이번엔 나 절대... 절대 용서하지 마.’

엠마 테레지아.

비참하게 죽어버린 자신의 언니를 생각하며 안젤리카는 소리 죽여 울었다.

아... 신경 쓰여.

“거기!”

“에.. 예, 예?

저 말씀이십니까요, 마님?”

그래요, 너!

너님 왜 자꾸 내 뒤에 붙어서 종종대고 난리신지?

“어딜 가기에 그리 걸음이 방정 맞는가.

급한 일이면 내 뒤로 물러나주고.”

“아, 아니옵니다.

소인 그저 이것을 전하께 가져다드리기만 하면 되는지라.

이대로 마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 맞아.

이쪽으로는 남편의 집무실밖에 없지.

가슴팍에 종이봉투를 끌어안은 하인이 연신 내 앞에서 굽실거렸다.

뻔히 같은 곳에 가는 걸 알면서 상전을 앞지르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근데 저게 대체 뭔데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 손에 든 건 뭐지?”

“전하께서 후원하시는 작가의 신작이옵니다.”

“신작?”

“예, 전하께서 특별히 챙기라 명하셔서 출간되자마자 구입해오는 길입니다.”

“아! 이리 주게.

그런 거라면 내가 가는 김에 전하께 전해드릴 테니.”

하인에게 건네받은 종이봉투는 입구가 봉해져있었다.

그리고 겉면의 아래쪽에는 글자도 적혀 있었다.

음... 이게 필명이라고?

무슨 철학서 저자 필명이 이렇게 감성적이래?

“로쉬 백작의 최근 행적이 수상하여 예르딘이 따라붙었습니다.”

“페레레 로쉬?”

“예. 전하.

테레지아 후작의 측근 노릇을 하면부터는 그자가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어쩐 일로 북부의 접경지역까지 이동하더니 그 근처에서 행적이 끊겼다합니다.

아마도 그 근처 어딘가에 새로운 안가가 있는 게 아닐까, 저희는 그리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가, 안가라... ”

이번엔 또 무슨 작당 질을 하려는 건가.

칼리안은 에두와르 백작에게 주간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 외에 귀족파나 황궁 쪽은 별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로쉬 백작 쪽은 예르딘이 수도에 복귀하는 대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게 하고.

당분간 영지 쪽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세작들이 활동을 일시에 멈췄다는 게 오히려 더 찜찜해.

테레지아 그자가 그리 쉽게 포기할 리가 없거든.”

“예, 전하.

그리 하겠습니다.”

“하! 오전 내내 그 치들 얘기만 했더니 기분이 아주 더러워.”

주간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며 칼리안은 연거푸 마른세수를 했다.

골이 다 지끈거렸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로즐린과 함께 하며 웃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은 황제파네 귀족파네 하는 것들이 성가시게만 느껴지는 칼리안이었다.

“전하,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는 케모마일티입니다.

에두와르 백작님께서도 오늘은 함께 드시지요.

요 근래 바쁘셔서, 매번 차 한 잔 들지 못하고 그냥 가셨지 않습니까?”

때맞춰 알베르가 따라내는 찻물에 집무실의 무겁던 공기가 향긋함을 머금었다.

차 한 잔의 여유.

간만에 주군과 마주앉아 티타임을 즐기게 된 에두와르 백작이 차향을 음미하다말고 갑자기 씨익, 요상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의뭉스러운 물음을 던졌다.

“전하, 대체 무슨 묘수를 부리신겁니까?”

“묘수라니?

“제가 주로 살피는 곳이 우리 편 빼고 남의 편, 죄다 그쪽이지 않습니까?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가장 많이 보고 듣는 이름이 로즐린 아스트리드, 바로 마님의 이름입니다. 앙리 테레지아가 아니라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하하.”

“묘수는 무슨.

내가 한 건 없어. 다 아내가 한 일이지.”

최대한 심드렁하게 말하려 노력하는 칼리안의 뺨이 흐뭇함을 이기지 못하고 씰룩댔다.

‘전하의 기분이 좋지 않으실 때는 마님에 대한 얘기가 제격입니다.

대면보고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역시 전하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알베르답게 그의 조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반쯤 비워진 자신의 찻잔에 찻물을 채우는 알베르를 보며 에두와르 백작이 눈을 찡긋거렸다.

“고맙네, 알베르.”

“별 말씀을요.”

“그런데 에두와르, 그 회자된다는 이야기들 중에 혹시 크흠!

내 이야기는... ”

“어머! 다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세요?”

집무실로 들어가니 소파테이블 쪽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남편과 에두와르 백작, 그리고 차 시중을 들고 있는 알베르가 보였다.

“노크해도 답이 없기에 전 아직 회의 중인가 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것만 살짝 두고 가려고 들어온 건데 모두 서재에 나와 계셨네요.”

“신 에두와르 필리프, 마님을 뵙습니다.”

“네. 에두와르 백작님, 오랜만이에요.

어? 그런데 예르딘 경이 안 보이네요.”

“예르딘은 외근중이라 당분간 얼굴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보세요 백작님.

당분간이 아니라 여. 전. 히. 겠죠.

애를 어찌나 밖으로 내돌리시는지.

에두와르 백작이 차출해가고부터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얼굴 보기 힘든 예르딘이었다.

그래도 내 첫 호위기사 맡아준 정이 있는데...

정말 보약이라도 한 재 해 먹여야 하나.

“로즐린, 당신도 앉아서 같이 들지.

당신이 좋아하는 허브티야.

그런데 뭘 가져왔다고?

그 손에 든 건 뭐지?”

“아, 제가 가져온 건 저쪽.

레아야, 여기 테이블에 내려놓으렴.”

“예, 마님.”

남편과 에두와르 사이에 놓인 1인용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초코머핀 좀 만들어봤어요.

당신 매번 아침 회의 때문에 아침 거르시잖아요.

공복도 면하고, 또 피곤할 땐 이렇게 달달한 거 하나씩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사근사근한 내 웃음과 말투에 남편의 입꼬리가 씰룩대는 게 보였다.

에두와르와 베아스의 리액션도 굿~

부하직원 앞에서 어깨 제대로 올라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오전 내내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다.

아...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내조의 여왕인 듯!

“아, 그리고 하나 더.

짜잔! 당신이 기다리던 철학서예요.”

내가 준비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다고 하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품에 끼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보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대번에 변했다.

... 뭐지? 저 표정은.

“다, 당신이 그걸 왜?”

“요 앞에서 이걸 들고 오는 하인과 마주쳤거든요.

오는 김에 제가 전해주겠다고 들고 온 건데.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마님, 여기 갓 우린 케모마일티입니다.

그건 제게 주시고 차를 드시지요.”

응? 알베르는 또 왜 이래.

무슨 사채업자가 빚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짜고짜 손부터 들이미는 거 너무 알베르답지 않은데.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지금 뭔가 나만 모르는 게 있어, 분명히.

... 그러니까 이 책이 문제인거지?

대체 어떤 책인가 싶어 봉투의 입구를 열었다.

아니, 열려다 말았다.

“칼리안, 이 책이 그렇게 재미가 있...”

“안 돼!”

“안 됩니다!!”

... 뭐야.

이거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마님께서는 정말 다방면으로 솜씨가 좋으시지요.”

“맞아. 나도 가끔씩은 놀랄 때가 있기도 해.”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유명 파티시에가 만든 머핀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하하하...”

조금 전 종이봉투를 알베르에게 넘겨준 뒤부터 계속 분위기가 이랬다.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려 무던히 애쓰는 알베르.

좌불안석 내 눈치를 살피는 남편.

열심히 맞장구치며 과잉 리액션 중인 에두와르.

에혀... 다들 애 쓴다, 애 써.

여기서 내가 봉투 안에 그게 뭐였냐, 그렇게 추궁하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지?

머핀 먹다 체했다는 뒷말이 나올까봐 내가 일단은 그냥 넘어가준다.

“에두와르 경, 그러면 갈 때 좀 싸가세요.

넉넉하게 만들어서 양이 제법 되거든요.

레아, 따로 포장 좀 부탁해.”

“네,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

그렇잖아도 바쁘다보면 점심, 저녁 챙기는 것도 일이었는데.

오늘은 마님 덕분에 제때 허기를 면하게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

내가 입을 열자 이제야 넘어간 건가,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추궁과 궁금증은 별개의 것.

그냥 물어보는 건 괜찮잖아?

순수하게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참 여보.

당신 그때 그 철학서는 그럼 다 읽은 거예요?

“으.. 으응?”

“아까 그 봉투안의 신작, 당신이 특별히 챙기라고 했다면서요?

그 철학서랑 같은 작가 맞죠?

얼마나 재밌기에 따로 사람까지 보내서 사왔는지 저 너무 궁금한데.

다 읽은 거 저 좀 빌려주세요. 갈 때 가져가게.”

자, 빨리 내 놔라.

그 꿀잼이라던 철학서.

“어... 지금 없는데.”

“없다고요? 왜요?”

“빌려줬어.”

“누굴요?”

“예르딘!”

“예르딘이요?”

“그... 예르딘이 나와 취향이 꽤 비슷하거든.

어제 아침 회의를 마치고 빌려줬지.

그렇지 않은가, 에두와르?”

“아... 예, 예 맞습니다.

예르딘도 책을 아주 좋아 하지요.”

“... 외근 나가는 길에요?”

“... ”

“... ”

“그러니까 외근 나가면서 철학서를, 굳이?”

“...혼자 가니까 적적하다고.”

“...예, 혼자 하는 외근이 좀 많이 적적하긴 하지요.”

진짜 둘 다 거짓말 더럽게 못하네.

이 사람들아! 차라리 말을 말어, 알베르처럼.

“... 찻물이 다 떨어졌군요.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책이기에.

혹시 야시꾸리 빨간책이라도 되는 거야?

... 결정했다.

오늘 하루는 내조의 여왕 파업이다.

“공작부인, 여기 말씀하신 작가 ‘잇츠미’의 작품입니다.”

“...”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작가긴 하지만 필력 좋기로 입소문이 나 요즘 귀부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신작은 이미 초판이 전량 매진됐지요. 호호.”

“...”

“저... 공작부인?”

“... ”

“아, 혹시 찾으시는 게 이게 아니신... ”

“크크큭...”

“공작부인?”

“아하하하하하!! 하하학학! 큭크으.. 윽...”

“마님, 괜찮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이걸 보고도 내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니, 응?

아이고마...

내가 미친다 진짜악!! 크크크크...

핑크색 표지.

심하게 감성적인 문구.

제목은 또 어찌나 직설적이신지.

" 사랑을 그대 품안에 It’s me"

로설계의 돌풍을 몰고 올 신예, 잇츠미의 데뷔작!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을 몰랐던, 그래서 서툴렀던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

사랑을 내 품에 안겨주려고.

그 남자는 이 책을 그렇게도 몰래 읽었나보다.

아... 진짜 지금 당장 이 남자, 칼리안 아스트리드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 완벽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절로 나왔다.

아무렴.

무려 세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결과물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저택에 돌아오자마자 때빼고 광내기에 열과 성을 다했다.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 위 발그레한 뺨.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입술.

한 듯, 안 한 듯,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화장술과 쇄골 라인이 아찔하게 드러나는 상아색 드레스의 조합은 더 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비주얼은 그저 거들 뿐, 정작 중요한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사랑해요!”

...음.

“칼리안, 난 이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 흐음.

나쁘진 않아.

그래, 나쁘진 않은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지.

좀 더 심쿵스럽고 아찔하면서도 치명적인!

뭐 그런 멘트 어디 없나?

“당신을 가지고 싶어!”

이건 너무 돌격 앞으로 스타일이고.

“나 너 사랑 하냐?”

... 이건 창작성이 부족하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연습했지만 결국 만족스러운 멘트를 건지지 못했다.

뭐, 사실 나도 고백은 처음이라.

나 좋다는 몇 안 되는 남자.

그 중에서 나쁘지 않은 더 몇 안 되는 남자.

그렇게 추려진 남자들과 짧게는 보름, 길게는 1년 반의 연애를 했다.

선택적 연애.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사랑을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위로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천애고아 박서연.

그 외롭고 팍팍한 삶에서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했던 순간이 꽤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들 중 누구에게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나도.’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했던 고백의 전부.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나와 함께 할 아침식사를 위해 회의 시간을 바꾸고, 하루에 꼭 한 번은 꽃다발을 들고 내 방을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연애편지로 가끔씩 나를 당황시키는.

그렇게 내 사랑을 갖기 위해 책으로 몰래 사랑을 공부하는 남자를 나는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

“로즐린!”

그래서 지금 내게 다가오는 저 남자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한 것임을.

이젠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로즐린, 왜 식당에 내려오지 않은 거지?

당신... 혹시 오전의 그 일로 아직 날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

내 눈치를 볼 때, 그때 자신의 표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남자는 알까.

“휴, 왜 하필 예르딘은 그 책에 관심을 가져서는... 크흠.

내 그 철학서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해주지.

사실 그 철학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영 별로였거든.”

어설픈 거짓말에 묻어나는 그의 안절부절이 내 심장박동을 부채질했다.

그래서였다.

연습했던 여러 개의 고백 멘트들을 죄다 잊고 본능대로 질러버린 것이.

“그러니 이만 내려가지.

오늘 저녁은 특별히 당신이 좋아하는... ”

“필요 없어요.”

“로즐린, 그러지 말고... ”

“칼리안!

당신... 당신이면 돼요.”

“...나?”

“그래요, 당신!”

“... ”

이게 무슨 말인가.

홀로 심각한 얼굴의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기댔다.

잠시간 뻣뻣하던 남편이 이내 팔을 내 허리에 둘러 마주 안아왔다.

“철학서 말고 다른 거.

다른 게 갖고 싶어졌어요.”

“다른 거?”

“아이.”

“!”

“공작가의 후계 말고 당신과 나.

그냥 우리 둘의 아이요.”

얼굴에 느껴지는 남편의 심장박동이 요동치고 있었다.

순간 정신이 번뜩 들며 얼굴이 홧홧해졌다.

맙소사! 내가 대체 무슨 말을...

생애 첫 번째 고백이 무려 ‘내 아를 낳아도’ 라니.

내가 계획한 건 치명적인 고백이었지 치명적인 유혹이 아니었는데.

에이씨.

이왕 지른 거, 뭐 어쩌냐.

못 먹어도 고다!

민망함을 억누르며 애써 고개를 들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시선에 얼굴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시선을 견디며 나는 다시 한번 고백했다.

“부부 관계 말고.

당신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로즐린, 당신... ”

“사랑해요!”

“...”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 그 말, 내내 기다렸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옅은 떨림이 느껴졌다.

그에 나 역시 울컥, 목이 살짝 메어왔다.

“알아요.”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오해하는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요?”

“당신 사랑은 절대 나와 같을 수 없어.”

응?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달달한 로맨스엔 반전 따위 필요 없다는 거, 잇츠미 씨한테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칼리안, 그게 무슨... ”

“내가 더 사랑해.”

아아...

“언제나, 항상.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믿어요, 그 약속.”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거.”

허리에 감겨있던 남편의 손이 방향을 틀어 내 몸을 받쳐 안았다.

그러자 이전보다 가까워진 서로의 얼굴.

그 뜨거운 시선을 내려 남편은 내 이마에 입술을 맞췄다.

“그게 뭐든 전부 다 들어준다는 것도 약속하지.”

침실로 이동하는 남편의 발걸음이 속도를 올렸다.

그 품속에서 나는 미친 듯이 나대는 심장을 움켜쥐어야했다.

남편의 다급한 발걸음에 의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폭풍 같이 몰아치는 폴의 움직임에 로즈는 풍랑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쉴 새 없이 흔들렸다.

... 그 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열락과 환희로 가득한 밤이었다. "

곧 다가올 영원히 잊지 못할 밤.

그 구절을 떠올리다 차오르는 호흡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후... 하... 후...

내 남편은 교재 선정조차 탁월한, 뭐든 끝내주게 잘하는 남자였다.

“으... 음”

목이 따끔거렸다.

밤새 혹사당한 팔다리도 욱신거렸다.

눈을 떠 살핀 침대 옆자리를 남편 대신 채우고 있는 분홍장미 꽃다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느 때와 무척 달랐다.

“흐... 히힛.”

전신을 압박하는 근육통을 이겨내면서 넓은 침대를 데구르르.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또 한 바퀴.

사정없이 굴러다니며 허공에 발길질도 몇 번 했다.

어젯밤, 그 오글대면서도 낯 뜨거웠던 밤을 생각하니 절로 나오는 행동들이었다.

‘후... 사랑해, 사랑해 로즐린.

당신도... 당신도 말해줘.’

‘으.. 흑... 사... 사랑해요.

사랑... 해요, 칼리안!’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런 마법 같은 효능이 숨어 있을 줄이야.

비루하기 짝이 없던 내 체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밤을 보냈다.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그런 천지가 뒤바뀌는 격정적인.

정말 예상했던 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밤이었다.

“헤... 후훗.”

“어머, 마님.

기침 하셨어요?”

으음. 흠.

표정 관리, 표정 관리.

“레아야, 나 물 좀.”

“예, 여기 있습니다 마님.”

“지금이 몇 시니?”

“이제 막... 한 시쯤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 알베르님께서 마님의 식사를 챙겨 물으시던데.

어떻게, 방으로 올릴까요?”

오! 갓...

어쩐지 햇살이 심하게 눈부시다 했다.

그래도 그렇지.

한 시라니.

이건 뭐 밤새 열일 했다고 사방팔방에 광고하는 꼴이었다.

“그, 그래. 방으로 올려주렴.”

민망해서 오늘은 그냥 방콕 할란다.

잊지 못할 밤과 민망한 아침은 세트라는 거.

... 책으로 배운 사랑은 실전과 많이 달랐다.

눈앞의 카드 두 장.

초대장으로 보이는 카드를 바라보고 있는 내게 레아가 물었다.

“어찌 하실 생각이세요, 마님?”

“어쩌긴 뭘 어째?

당연히 고객님이 우선이지.”

“예에?

그럼 친정... 아, 아니 테레지아 후작 각하의 초청을 거절하시겠다고요?”

놀라 묻는 레아에게 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 그럴 거야.”

이틀 뒤 오후 2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신의 저택으로 나를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드 두 장.

발신자는 언제나 극혐인 앙리 테레지아 후작, 그리고 요즘 극호감인 릴리안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이었다.

“레아야, 여기.

가든 안 가든 초대한 성의가 있는데 답장은 보내줘야지.”

승낙과 거절의 내용을 담은 답장 두 개를 레아에게 건네주었다.

카드를 받아든 레아가 밖으로 나갔다.

두 곳 다 도성 안에 있으니 두세 시간이면 내 답장을 받아들겠지.

책상 위 놓인 두 개의 카드 중, 푸른색 카드를 재차 들어 훑어 내렸다.

카드 상단에 찍혀 있는 방패 모양의 인장.

말 몇 마디로 전쟁을 종식시킨 공을 기려 선황제께서 테레지아에 직접 내린 인장이라고 했다.

구국의 방패라는 뜻이라나 뭐래나.

"수잔느를 불러들였다.

너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더구나.

아무렴 키운 정은 네 어미보다 더 할 테니 오죽할까.

전에 말했던 대로 셋이서 오붓하게 점심이나 한 끼 하자꾸나.

우리 서로 해야 할 말도, 들어야 할 말도 많지 않니.

기다리마. 너를 항상 걱정해마지않는 아비가. "

이건 초대장을 빙자한 결투장이었다.

“지랄이 아주 풍년이라.

작황이 우라지게 좋아서 올 겨울 배때기가 아주 그냥 뜨뜻하시겄어, 어!”

아, 아쉽다.

이 말을 면전에다 대고 해주지 못한 게.

망할 놈의 카드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었다.

공작성에서 처음 발견하고 수도로 가져온 나무상자.

황후의 축하연에서 ‘슈슈’가 ‘수잔느’였다는 걸 알게 된 그 날, 그때 꺼내 본 이후로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상자 속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세 개의 물건.

검은색 수첩, 몽당연필, 하늘색 실크 주머니.

손바닥 반만 한 수첩을 펼치자 예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넘어가면 안 돼"

"슈슈"

확실히 수잔느를 만나면 내가 모르는 진짜 로즐린의 과거를, 그녀의 비밀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뭐?

그까짓 거 몰라도 그만이야.”

애초부터 비밀에 대한 내 호기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그 크지 않던 호기심이 지금 와서는 아예 쪼그라들어 없어진 거나 진배없는 상태였고.

물론 테레지아 후작은 그걸 모르고 의기양양하고 있겠지만.

“그래, 괜히 알았다가 찜찜할 바에야 모르는 게 약이지.”

정리를 끝내자 다시 졸음이 밀려왔다.

조금 전, 아침 같은 점심메뉴로 먹었던 라비올라가 이제야 소화가 되는 모양이었다.

배부르고 잠도 오고.

일단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간만에 외출도 좀 하고.

안단테 살롱에 들러볼 생각이었다.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작업을 할 게 있었다.

“자고로 손님은 왕!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암.”

VIP 관리는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

“와아! 진짜... ”

끝내줬다.

백작씩이나 되어서 어째 이렇게 수도 외곽 쪽에 저택을 지었을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판커스테인 백작의 저택은 수도의 귀족들 사이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그러게요.

확실히 소문날 만하네요.”

판커스테인 백작의 저택 입구에서부터 본채까지 이어지는 길은 꽤나 길었다.

도로 양 옆으로 곧게 뻗은 침엽수, 사방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꽃, 이 길의 끝에 보이는 웅장한 산맥과 그에 둘러싸인 흑갈색의 고풍스러운 저택까지.

달리는 마차의 창밖으로 감상하는 풍경은 조금 전 북적이던 아크레테 사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 싱그럽고 수려하기 그지없었다.

“오늘 티파티는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정원 구경하다가 산토끼나 노루 구경까지 덤으로 할지도 모르겠는걸요?”

“뭐, 백작에게 멧돼지도 가끔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군.”

“네에? 멧돼지요?”

“테라스에서 점심을 들고 있는데 멧돼지가 음식 냄새를 맡고 식탁으로 돌진했다던가.”

헐.

“그래서요?”

“그날 저녁 메뉴로 멧돼지 스테이크라도 나왔겠지, 뭐.

판커스테인 백작이 황실 기사단 소속이거든.”

... 집이 아니라 무슨 국립공원이냐.

아니. 때려잡았다니 사냥터라고 해야 하나.

워우웅~ 우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이 앓았던 그 우울증의 시작이 너무나 와일드한 이 환경 때문은 아니었을까.

“마님, 판커스테인 백작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마차의 움직임이 멈추고 베아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창 밖 정원 쪽으로 삼삼오오 뭉쳐있는 귀부인들이 보였다.

내가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을 확인한 남편이 마차의 문을 열었다.

“자, 여기.”

“고마워요, 칼리안.”

마차 바깥쪽에서 내게 내밀어진 남편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바닥을 디뎠다.

아니, 디디려고 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좁은 드레스의 통에 갇힌 내 두 다리가 내리 디디기엔 마차계단은 너무나 높았다.

“어... 어, 어, 엇!”

다음 시즌을 겨냥한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의상이 내게서 셀럽의 품격을 앗아가려던 찰나였다.

휘리릭

“읏샤!”

“카, 칼리안!”

“로즐린, 당신 괜찮나?”

빛의 속도로 공주님 안아 들기를 시전해주시는 우리 남편!

사방에서 어머머머!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나, 난 괜찮아요.”

헉 헉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뛰쳐나오는 줄 알았다.

너무 놀라서.

“미안해요, 칼리안.

나 때문에 많이 놀랐죠?”

“나야 뭐 당신만할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가?”

나를 바닥에 고이 내려주는 남편이 어찌나 듬직하던지.

벌렁대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나는 멀쩡하다, 남편을 향해 웃어주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봐.

티파티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다시 데리러 오지.”

“당신 바쁘잖아요.

번거롭게... 안 그래도 돼요.”

“글쎄.

아까 여기 올 때도 내게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안 왔으면 조금 전에 당신, 나를 두고 엄한 흙바닥과 키스 할 뻔 했지 아마.

아닌가?”

“... 맞아요.

당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죠, 아마.”

당신이 없었으면 베아스가 대신 잡아줬겠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말 말고 티파티가 끝나면 내가 데리러 올 때 까지 얌전히 기다리라고.

응?”

“네, 그럴게요.”

되돌아가는 마차를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괜히 얼굴이 후끈.

헤... 후훗.

고백의 밤 이후 요즘 묘하게 박력적인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나도 모르게 고분고분해지는 게, 왠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나도 꽤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고! 이거였네, 이거였어.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배웅에 에스코트까지 직접 하시겠다고... ”

“음? 뭐라고요, 베아스?”

“아, 아닙니다. 마님.

그저 경치가 하도 좋아 혼자 감탄 좀 했습니다. 하하!”

참, 베아스도 은근 싱거운 구석이 있다니까.

저택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훑었다.

나무, 나무, 나무, 꽃, 나무, 꽃, 나무.

사방이 푸르른 자연 속에 삼삼오오 뭉쳐있는 무리들.

그들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여보였다.

오늘 이곳에 초청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했던가.

그런 만큼 오늘은 내게 시비 거는 이가 부디 없기를.

나도 귀부인들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어머,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고객님들!

“어머나,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네요.

제가 다과 점검 때문에 저택 안에 있느라 까맣게 몰랐지 뭐예요.

공작부인, 혹시 어디 상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그럼요. 판커스테인 백작부인.

정말 별 일 아니었는걸요.

모두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민망할 따름이에요.”

“아휴, 참.

별 일이 아닌 건 아니었죠.

아깐 전 정말 공작부인께서 영락없이 바닥에 고꾸라지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리 가볍게 해결하시다니.

공작전하께서는 정말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홍홍.”

“그러게 말이에요. 어쩜.

전 운 좋게도 바로 앞쪽에서 목격했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 팔...을 직접 쓰시고.

공작전하께서는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것 같아요. 호홋홋”

...그러니까 저기요, 어머님들?

대체 무슨 힘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그 훌륭하다는 게, 설마 제 남편의 팔 근육은 아니겠지요?

“훌륭하신 건 공작부인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솜씨도 훌륭하시고, 안목도 훌륭하시고, 거기에 다정하신 성품까지.

그러니 그 훌륭하신 공작전하께서도 마님께는 꼼짝 못하신다는 소문이 아크레테에 파다한 거겠죠? 호호호.”

역시.

릴리안 판커스테인, 당신은 나의 VIP!

“어머, 그 무슨 과찬의 말씀을.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이야말로 안색이 어찌나 화사하신지, 누가 보면 백작부인이 아니라 백작가 영애인 줄 알겠어요.”

출산 직후 찾아왔다던 산후 우울증.

망가진 몸매, 칙칙해진 피부, 열기가 식어버린 부부관계.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자존감마저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상태에서 나를 만나게 된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이었다.

안단테 살롱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세상 무기력한 얼굴로 휘익, 휙!

매장을 성의 없이 훑어보고 나가려던 걸 냅다 붙잡아 좋은 차가 있으니 한 잔 하고 가라며 살살 꼬드겼다.

물론 VIP 고객님 전용으로 준비해둔 찻잎의 퀄리티는 확실히 훌륭했다.

하지만 아무리 찻잎이 고급지다 한들 내게 일방적인 정략혼, 극심한 우울증,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 등의 이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내게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와 나는 공통점이 많았고 뷰티 컨설턴트로서의 내 역량 또한 매우 훌륭했다.

자신의 아픈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내 상담 실력에 그녀는 결국 홀딱 마음을 빼앗겼더랬지.

“그게 다 공작부인께서 제게 뷰티컨설팅을 해주신 덕분이죠.

요즘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랍니다.

예전에는 왜 그리 무기력하게만 하루를 보냈나, 후회도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저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보니 정말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의 우울증은 완치된 것 같았다.

“사실 오늘 티파티를 열게 된 것도 그 때문이랍니다.

제가 공작부인께 받았던 그 뷰티컨설팅에 관해 몇몇 부인들께 귀띔을 좀 드렸더니 다들 큰 관심을 보이셔서...

귀족가의 안주인들이라면 다들 묵혀둔 고민 한 가지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공작부인을 직접 뵙고 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좋은 정보도 두루두루 나눌 겸 마련한 자리이니만큼 서로 허심탄회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존감을 되찾아서 그런가.

말도 어찌 저리 청산유수신지.

시종일관 시큰둥하기만 하던 그때의 백작부인이 맞나,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비록 부족한 솜씨지만 저로 인해 여기 계신 부인들의 흉중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제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 자, 고객님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랍니다.

그러니 왔을 때 얼른 골라 잡으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볼에 혈색을 돋아주는...”

“저는 레드 계열보다는 여기 이 핑크 계열이... ”

“공작부인, 이게 입술에 혈색을 더해주는 그거, 맞죠?”

다과세트는 저만치 치워버린 지 오래.

정원 한복판에서 열린 메이크업 품평회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뭐 좋게 말해 품평회지 사실 오늘 영업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판!

그러니까 이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방문 판매의 자리였다.

저렇게 잡고 뜯고 바르고 즐겼는데... 지들이 안사고 배겨?

어제 안단테 살롱에 들러 새로 제작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검수할 때도 느꼈지만 이번 신상들은 생각 이상으로 색감이나 케이스가 잘 뽑혔다.

대충 컨셉만 잡아주고 모든 걸 앙드레에게 맡겼는데 결과물은 그야말로 꿀이었다.

길거리에서 얻어 걸린 인연이 이리도 나와 찰떡궁합이라니, 역시 될놈될!

나는 어차피 될 놈이었나 보다.

그렇게 세상 흐뭇하게 열성적인 고객님들의 반응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다다다다닥.

어디선가 일제히 몰려드는 시녀들.

“저... 마님, 잠시만.”

“마님?”

“마님!”

“마님, 어디 계세요?”

... 뭐냐.

이 쎄한 느낌은.

“죄송해요, 판커스테인 백작부인.

일전에 꼭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자리라서요.

그... 공작부인께도 송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저도 이만.”

“그럼 저도... ”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 게스트들의 단체 행동에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이 다급히 일어섰다.

“아니, 그렇다고 다들 이리 일어나시면 어찌합니까?”

“저희 자작님께서 챙기시는 사업에 로쉬 백작가의 영향력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 백작부인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초대 정말 감사했어요, 판커스테인 백작부인.”

이곳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내 눈치를 안 볼 수야 없겠지만 어차피 파티의 호스트는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이었다.

주최자인 백작부인에게 다들 한 마디씩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멘트를 남기고 자신의 측근시녀가 알려온 장소로 이동하려는 모양이었다.

구린내가 솔솔 풍겼다.

보통 지인들 간, 그러니까 2, 3인 정도의 소규모 티파티가 아닌 이상 최소 이틀 전에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사교계의 관례였고, 그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여러 개의 모임에 겹치기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예의였다.

그런데 로쉬 백작부인이 얼마 전 취소했던 티파티의 재개를 오늘, 그것도 하필 내가 참석하는 티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시점에 일부러 사람까지 보내 알려온 것이었다.

정말 단순히 취소했던 파티의 재개가 목적이었다면 오전 중에라도 연통을 보냈어야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겹치기를 이유삼아 뒤늦은 자신의 초대가 거절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

판커스테인 백작가는 황제파도 귀족파도 아닌 중립 성향을 고수하고 있었다.

덕분에 자리에 있는 인원 3분의 2 이상이 귀족파, 혹은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가문의 안주인들이었다.

과반이 넘는 그들이 일시에 자리를 뜬다면 티파티는 반강제로 마무리될 게 뻔했다.

하지만 이대로 겹치기 참석을 하는 게 그들에게도 썩 달가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요, 판커스테인 백작부인.

이만하면 오늘 모임의 취지도 충분히 달성된 것 같으니 더 좋은 날,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하시죠.”

귀족파 노선의 한 귀부인이 던진 말에 지금의 거지같은 상황의 실마리가 잡혔다.

아! 이거였나.

정식 초대장이 아니라 갑자기 연통을 보내 귀부인들을 소집한 이유.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자리를 파한 다음에 다른 티파티에 참석하는 건 겹치기가 아니라는 명분, 그걸 내밀어 귀부인들의 선택을 반강제하려는 꼼수인게 분명했다.

촉이 왔다.

이런 무례한 짓을 대놓고 벌인 로쉬 백작부인은 샤를로트 황후의 삼각편대, 그러니까 황궁 연회장에서 내가 무릎 꿇렸던 세 꼭짓점 중 대가리였다.

황후의 입김이 작용한 게 틀림없었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명분이지만 말이 된다 우기면 또 말이 되는 상황.

저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밉보이고 싶지 않을 테니 못이기는 척, 그 명분을 받아들이려는 걸 테고.

아... 이런 망할 샤 씨!

개망신 당한 이후로 좀 자중하며 지내나 했더니.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깔짝깔짝 시비를 걸어온다 이거지?

실소를 내뱉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선 레아와 눈이 마주쳤다.

흥! 내가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면 내가 로즐린 아스트리드가 아니지!

레아야, 판 깔아라.

아무래도 행사 일정 당겨야겠다.

내 손끝을 따라 움직이는 눈동자들.

스스슥

톡톡 팡팡

“오오!”

“어쩜! 신기하기도 하지.”

“완전 다른 사람이지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죠?”

“저야말로 매일 보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은 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확실히 전후 차이가 극명하긴 했다.

일부러 그럴 만한 얼굴을 모델로 골랐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에 지목됐을 때는 긴장감에 입도 못 떼고 앉아 있더니.

클레어 남작부인의 측근시녀는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울을 보며 커다래진 눈을 연신 끔뻑였다.

“호호. 확실히 그 백분가루와는 차원이 다르죠?

클레어 남작부인, 저게 제가 말했던 바로 그 펄파우더랍니다.”

“... 판커스테인 백작부인께서 왜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

물론 나와 판커스테인 백작부인의 피부에도 미세 진주펄이 반짝이고 있긴 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훑는 것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의 임팩트가 어찌 같을까.

제대로 된 조명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한 게 아쉽긴 했지만 급조한 이벤트치곤 효과 만점이었다.

일어서던 귀족부인들을 죄다 자리에 도로 주저앉혔다.

확실히 백 마디 설명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답이었다.

눈앞에서 시시각각 화려했다, 청초했다, 우아해지는 모델의 변신!

화장술 시연회를 홀린 듯 지켜보다 각자의 소감을 뱉어내는 고객님들의 모습에 흡족한 손길로 작업을 마무리를 했다.

“자, 다들 어떠세요?

참 쉽죠?”

쉽긴.

이게 보기엔 쉬워보여도 최고급 스킬로 탄생한 결과물이란 말씀!

막상 집에 가서 직접 해보면 다들 느낄 것이다.

뭐지? 살 때는 이게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

예쁘긴 한데... 그때만큼 예쁘진 않은데?

왜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다른 거지?

그리고 깨닫게 되겠지.

물건이 아니라 그걸 쓰는 손기술의 차이라는 걸.

고객님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전생에서 수도 없이 갈고 닦은 내 화장기술은 거의 사기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기 수준의 홍보로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고객님들의 컴플레인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고?

다들 숨 쉬는 것만큼 돈쓰는 게 생활인 이들이니까.

오히려 역시 특별한 화장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감탄하면서 다들 전문가의 손길을 찾아 안단테 살롱으로 몰려들 게 뻔했다.

귀족들이란 ‘특별함’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오늘 이런 돌발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다음 주쯤 안단테 살롱에서 진행했을 텐데.

화장술 시연회는 애초에 1회용 이벤트로 계획된 게 아니었다.

다른 살롱들의 폐쇄적인 뷰티서비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나의 큰 그림 중 일부였다.

그리고 그 그림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안단테 살롱 한켠에서는 메이크업 부스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시연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어머! 그러고 보니 벌써 네 시가 훌쩍 넘었네요.”

내 말에 앞쪽 모델을 향했던 시선들이 일제히 갈팡질팡 흔들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보고 간다는 게 10분, 20분, 30분...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다들 안절부절 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조금 전처럼 서둘러 나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내 영업이 먹혀들어간 게 분명했다.

이럴 때 한 방 더!

“마님, 여기 랜덤 박스 추첨권 준비됐습니다.”

쏘 굿!

확실히 우리 레아는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예술이란 말이지.

레아의 손에 들린 바구니 쪽으로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추첨권.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공짜가 아니라면 더더욱.

“다들 어떻게... 시간 괜찮으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

레이스와 비즈로 한 땀 한 땀 장식된 핸드백을 열어 그 속에 담긴 명함들을 살폈다.

어디보자.

클레어 남작부인, 비토 자작부인, 푸에르토 자작부인...

핸드백 속 명함은 얼추 훑어봐도 열 장이 훌쩍 넘어갔다.

오늘 티파티의 총 참석인원이 나를 포함해 총 열다섯이었던 걸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받은 거였다.

“파티가 즐거웠던 모양이지.”

“네, 무척이요.

예상보다 부가수익이 제법 쏠쏠했거든요. 후훗.”

암, 쏠쏠했지.

아니, 쏠쏠하다 못해 흘러넘쳤다는 게 더 알맞은 표현이었다.

랜덤박스의 추첨이 끝나자 각자 받아든 당첨권에 적힌 상품명을 보며 기뻐하는 이들이 반, 이게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가 궁금증 폭발 중인 이들이 반.

황제파 쪽은 물론이고 중도파까지 내 영업에 홀라당 넘어와 적극적으로 질문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눈치만 보던 귀족파 무리들도 일제히 참전!

뷰티를 향한 여자들의 욕심 앞에 정치적 노선 따위는 그렇게 자근자근 밟혀 바스라져갔다.

저... 공작부인?

혹시 그 메이크업 서비스라는 거, 출장도 가능한가요?

저희 딸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예식 행사 관련 토털 케어를 받고 싶은데...

곧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방문판매를 시작으로 출장서비스까지 확대!

공작부인께서 들고 계신 그... 핸드백이라는 거.

그것도 안단테 살롱에서 판매하는 물건인가요?

전 화려한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혹시 사파이어나 루비로 장식된 핸드백은 출시 예정이 없나요?

아니면 주문 제작이라도...

다음 달 런칭 예정인 액세서리 브랜드 ‘레아&초이’의 확실한 홍보!

공작부인, 혹시 안단테 살롱 2호점 낼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저야말로 진작부터 뷰티 사업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제 명의로 아크레테 중앙로 1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주...

내 사업에 발을 담그고 싶어 하는 잠정적 투자자까지!

아마 저들은 내일,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단테 살롱에 들러 랜덤박스를 받아갈 기세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몸의 이름이 사교계를 강타하겠지.

자동적으로 샤 씨는 뒷목을 부여잡을 테고.

황궁 축하연 때 나를 몰아붙였던 샤 씨, 그러니까 샤를로트 황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새롭다는 건 낯설다는 거고, 낯설다는 말 속엔 아주 약간의 감탄과 아주 많은 거부감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여지껏 많은 귀족들이 파격과 변화보다 전통과 질서를 중히 여겼던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 이유가 있기는 개뿔.

그건 안 꾸며도 예쁜 너 같은 황금 상판때기나 할 수 있는 말이고.

“... 즐린! 로즐린!?”

“아! 칼리안.”

나를 향해 살짝 미간을 찌푸린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는 마차의 창밖으로는 붉은 벽돌과 담쟁이덩굴도 보였다.

그새 공작저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무슨 생각을 했기에 코앞에서 부르는데도 듣지를 못하나, 응?

이제 웬만하면 나한테 집중 좀 해 주지?”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남편의 뾰로퉁.

그 귀여움에 나도 모르게 웃었다.

자신을 향한 내 웃음이 흡족했는지 남편의 주름졌던 미간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래.

샤 씨가 깔짝대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는데 뭐.

어둠이 내려앉은 마차 입구에 서서 남편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안정감 있게 나를 받쳐 드는 그의 두 팔.

가까워진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여주었다.

“이젠 정말 당신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이네요.”

마차에서 내리는 절차가 어찌도 이리 므흣하단 말인가.

이글대는 남편의 눈빛을 즐기며 바닥에 내리지 말아 달라, 무언의 몸짓을 했다.

아니, 하려던 참이었다.

저 어르신만 아니었더라면.

“아, 아가씨!

로즐린 아가씨!”

깡마른 체구의 노부인이 저택 입구에서 나를 애절하게 부르고 있었다.

... 어째 낯선 할머니에게서 이 몸, 내 과거의 향기가 진득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뜨거운 김에서 풍기는 알싸한 홍차의 향.

찻잔에 코를 박고 그 향을 음미하다 찻물을 한 입 머금었다.

그리곤 연속으로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

알베르가 엄격하게 선별하여 구입했다는 홍차답게 그 맛과 향이 무척 훌륭했다.

... 하지만 그래봤자 지가 홍차지.

솔직히 잠시도 입을 떼지 못하고 흡입할 만큼 꿀맛인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에 든 찻잔을 입에서 떼어 내릴 수가 없었다.

그건 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 앉은 할머니, 그러니까 수잔느 때문이었다.

이 몸의 유모였다는 그녀의 침묵어린 시선이 어찌나 집요한지, 나도 모르게 찻잔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버텨내는 중이었다.

“... ”

“... ”

아... 미치겠네.

이보세요, 할머니.

제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러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 ”

“... ”

대체 뭐라고 말하려나, 지켜보고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 먼저 입 떼길 기다리다가 우리 남편 독수공방 시키게 생겼으니 별 수 있나.

그냥 일단 질러보는 수밖에.

“슈슈.”

“아, 아가씨!”

“우리 꽤 오랜만인 거죠?”

“ 아... 저, 정말... 정말 로즐린 아가씨이신 겁니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묘하게 낯익은 느낌.

왠지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로 습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다.

... 왜 울고 그래 갑자기.

감동에 찬 그녀의 눈물이 어쩐지 좀 불편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고로 예전 기억을 몽땅 잃었어요.

그냥 눈 떠 보니 다들 날 보고 아스트리드가의 안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죠.”

“하지만 아가씨, 방금 저, 저더러 분명히 슈슈라고...”

“그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안 거예요.”

자리에 앉기 전에 레아를 시켜 가져다 둔 나무상자를 열었다.

달깍

“여기 이거.

이것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아! 이, 이건...”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본 수잔느의 눈에서 고여 있던 습기가 방울져 내렸다.

이게 그렇게 사연 깊은 물건이었나.

어쩐지 좀 불편했던 마음이 많이, 아주 많이 불편해졌다.

“이, 이걸 여태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억을 잃기 전, 내가 애착을 보인 유일한 물건이었다네요.

물론 지금은 이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였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젠 내게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을 하는데도 수잔느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진짜 로즐린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저 감격의 눈물이 당장 절망으로 바뀔 테지.

아니, 분노로 바뀌려나?

수잔느가 진정하기를 기다리며 텁텁한 입 안을 다시 찻물로 적셨다.

식어버린 찻물이 조금 전보다 유독 쌉싸름했다.

“이... 수첩과 여, 연필은 아가씨의 열 살 생일에.

그리고 향수 주머니는 열여섯 성년을 맞으시던 해에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저, 정말 보잘 것 없는 것들뿐인데...흐윽 흐읍.

이걸... 이걸 여태 가지고 계실 줄은 모, 몰랐습니다.”

보물단지마냥 애지중지 하던 이것들이 수잔느, 그러니까 유모의 선물이었다고?

“후우... 그만 진정해요 슈슈.

아니 수잔느.”

“... 정말 로, 로즐린 아가씨 마, 맞으신 거지요?”

“정 의심되면 확인해 봐도 좋아요.

그러라고 후작이 내게 수잔느를 보낸 걸 테니.”

내 말에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사람 마냥 수잔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확신할 수 있었다.

수잔느는 그저 수단에 불과했다.

테레지아 후작, 그자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렇다면 왜?

왜 테레지아 후작은 수잔느를 홀로 내게 보낸 걸까?

대체 그자가 노리는 게 뭐지?

혹시 키운 정을 미끼삼아 내 마음을 흔들려고?

아니야.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얕은 수를 쓸 리가.

맞은편 자리에서 일어난 수잔느가 내게 조심스레 다가섰다.

가까이 느껴지는 그녀의 가쁜 호흡에서 긴장감이 읽혔다.

“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뭐든 확인해도 좋아요.

수잔느가 확인해준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겠죠.

날 길러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내 허락에 수잔느가 내 오른쪽 귀 뒤의 머리카락을 살짝 젖혔다.

그리고 드러난 살갗 위를 자신의 손끝으로 조심스레 더듬기 시작했다.

이 몸이 간지러움에 취약한 편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세상 진지한 이 상황에서 못 볼꼴을 보일 뻔했다.

“아!”

내 머리 쪽에 무슨 흉터라도 있었던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수잔느가 밭은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 아가씨... 로즐린 아가씨... 흐흑.

정말 아, 아가씨가 맞으시군요.

이, 이리 되실 것을... 이리 되실 수 있었던 것을... 흐으윽.

제가, 모든 게 제가 부, 부족했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 흐흐흐윽 흐읍.”

꿇어앉은 채, 수잔느가 가느다란 몸을 덜덜 떨어대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순간 불편했던 감정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그녀를 팔을 잡아 올려 안았다.

“그만, 진정해요 수잔느.

쉬이... 괜찮아요, 괜찮아.”

“아, 아가씨... 우, 우리 아가씨...

에, 엠마... 로즐린 아가씨... 흐흐흐흑.”

엠마.

이 몸, 로즐린을 낳아준 생모의 이름이었다.

후작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으려 과거 따위 모르는 척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기어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과거.

여기서 다시 회피한다 해도 후작은 포기하지 않고 내 앞을 수시로 깔짝댈 게 분명했다.

그래, 들어줄게.

당신이 그렇게 내게 들려주고 싶은,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를.

“수잔느, 말해줘요.

앙리 테레지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부 다.”

뜨겁고 까슬까슬한 손이 침대 위에 흐트러진 내 머리를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 다정한 감촉과 온기에도 내 마음은 심란하기만 했다.

"네 어미보다도 너를 더 살뜰히 보살폈던 수잔느 아니더냐.

원한다면 네 곁에 두고 남은 여생 잘 살펴 주거라."

대체 뭘까.

그 자가 노리는 게.

“돌려보낼 건가?”

“...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

곁에 두는 게 나을지, 돌려보내는 게 나을지.

후, 후작님... 아가씨의 아버님은 가정보다는 이, 일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보통의 귀족 나리들이 그러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엠마... 아니 어, 어머님께서도 아가씨께서 다정한 부군을 만나시길 늘 바라셨지요.

헌데 이렇게 잘 사시는 모습을 뵈오니 저도 모르게 그만... 주, 주책을 부렸나봅니다.

송구합니다. 아가씨.

거짓말.

대체 왜?

진실을 말해주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어?

그, 그저 수도에 오셨다기에 어, 얼굴 한번 뵙고 싶어 이리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가씨께서 혼인하시고 저도 고, 고향으로 내려가 쭉 지냈습니다.

아주 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럼요.

편안하게 지냈다고?

그런데 왜 얼굴은 그 모양인 건데.

아가씨, 행복하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정말 해,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

자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내 행복이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이상하던지.

“내 질문에 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질문이 뭐였기에.”

“진실이요.”

“진실?”

“로즐린 테레지아의 과거.

그걸 알면 후작과 저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끊어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거기에 더해 제가 앓았던 우울증의 원인도 알 수 있을 테고.”

“... 그녀는 당신을 정말 아끼나보군.”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녀가 저를 키워준 사람이라서?”

“망설였으니까.”

“네?”

“알아서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면 소중한 이에게 결코 말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결국 말하지 않았지.”

내가 너무 심각하게 굴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걸까.

답을 하는 남편의 표정이 근래 보기 드물게 어두웠다.

여전히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손.

그 단단한 남편의 손을 그러잡아 내 뺨을 쓸었다.

“ ... 제가 붙잡아주길 바랄까요?”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게 그녀가 원하는 걸 거야.

당신을 아끼는 이니까.”

그래서 더 고민된다고요 여보.

왜 그렇게 아끼냐고 나를!!

먹이고, 씻기고, 똥기저귀 갈아가며 그렇게 이 몸을 키웠다는데 나는 하나도 고맙지가 않았다.

이 몸을 키운 거지 날 키워준 게 아니니까.

그냥 조금 부담스럽고 왠지 미안했고... 딱 그 정도였다.

이건 배은망덕 혹은 냉혈한,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었다.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라고.

세상에! 댁이 전생에 바보온달이었다네.

아니, 그럼 제 영혼의 단짝, 평생의 은인, 평강공주는 대체 누군가요?

응, 해남 땅끝마을에서 고구마 농장을 하는 김 아무개 씨라네.

세상에! 그럼 김 아무개 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귀농을!

... 이게 쉬워?

이게 가능하냐고!!

아, 짜증나.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돌려보내자니 찜찜하고, 또 곁에 두자니 후작놈 수작질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열 받고.

그 놈의 편지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았을 거다.

설마... 이노무시키!

처음부터 이거 노리고 편지 쓴 거 아냐?

여하튼 후작 그놈은 진짜 약아빠지기로는 우주최강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반쯤 열린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2층 게스트룸이 있는 저택의 동편, 외벽이 보였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 하나.

수잔느, 그녀도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하아... ”

“결정은 내일 하도록 하고 이만 자자고.

당신 오늘 많이 바빴잖아.”

“그래요.

수잔느와는 내일 아침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뭐.

당신도 어서 자요.”

어깨를 끌어당기는 남편의 손길에 몸을 돌려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그 품이 너무도 포근해서 생각보다 금방 잠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뭐... 5월이니 겁나 쨍쨍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수잔느 할머니!

푹 자고 우리 내일 다시 봅시다.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진솔한 토킹 어바웃을!

오케이?

어슴푸레 동이 터 오는 이른 새벽.

공작저 동편의 2층 방 하나가 밤새 켜두었던 등불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후우. 벌써 아침이구나.

오늘 다시 아가씨를 뵙게 되면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전날 입고 있던 빛바랜 베이지색 원피스, 그 옷차림 그대로 침대 위에 꼿꼿이 앉아있던 수잔느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할 말과 행동들이 테레지아 후작, 그 악마가 바라는 것은 아닐는지, 두렵기만 했다.

제게 대체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그저 네 소원을 들어줄 참이다.

로즐린 그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 그리 바라지 않았더냐.

제 큰 주인이 죽고, 작은 주인이 팔려가듯 떠나고 그렇게 4년.

차라리 죽어버릴까.

수십 번을 생각하면서도 끝내 그러지 못한 이유.

그것은 자신의 큰 주인이었던 엠마 테레지아, 그녀의 마지막 부탁 때문이었다.

‘엠마 아가씨, 부디... 부디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악마에게서 로즐린 아가씨를 지킬 수 있는 힘을요.’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수잔느는 그렇게 하염없이 빌고, 또 빌었다.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지도 않은지, 주간보고를 하는 앙드레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다.

“... 하여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이면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준비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포함된 거겠죠?”

“당연한 말씀을요.

모두들 솜씨만 보자면 오늘 당장 서비스를 시작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부 공사만 지연되지 않았다면 오픈일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가 참 아쉽습니다.”

수도 중심가의 조각공원부터 외곽 쪽의 자그마한 자연공원들까지.

5월에 열리는 공원축제들이 이번 주 중에 대거 몰려있어, 아크레테의 이곳저곳은 나들이 인파로 절정이었다.

당연히 그 나들이를 떠나려는 귀부인들의 폭풍 쇼핑으로 살롱들은 대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하필 안단테의 내부공사와 그 시기가 겹친 것이 앙드레가 아쉬워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마님, 대체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미술학도들에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길 권하시다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라... 하하.

아마 서비스가 시작되면 아크레테가 또 한바탕 뒤집어질 게 분명합니다.”

“내가, 아니 우리 안단테가 추구하는 메이크업 기술이 뭐예요?

바로 다양한 색감의 조화와 균형미, 그거잖아요.

그리고 색감과 균형미의 전문가를 꼽으라면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미술가죠. 후훗!”

의상이나 액세서리뿐 아니라 토탈 뷰티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 계획한 메이크업 서비스!

하지만 이 내 야심찬 계획을 아주 제대로 막아서는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력 부족,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였다.

시설물 공사야 돈으로 바르면 어떤 컨셉이든 해결이 가능했지만 전문가만큼은 단기간에 키워낼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

여타 살롱들보다 후한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살롱계의 황소개구리 격인 안단테 살롱은 이미 아크레테 살롱거리의 마담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다.

안단테로의 이직이나 취직을 시도하는 기술자들은 다른 살롱에서 두 번 다시 일할 수 없을 거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이 때문에 면접을 보러 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실력이 발바닥에 붙은, 그저 그런 자들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하품도 안 날 잔머리로는 내 앞길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총 다섯이었던가요?

각자가 원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살펴서 앙드레가 신경 좀 써 줘요.

곧 있으면 영업 시작인데 일 할 맛은 나게 해 줘야죠.

내가 직접 챙기고 싶지만 지금은 다른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염려 마십시오, 마님.

이번에 출시 예정인 블러셔며 섀도우들의 색감에 푹 빠져서 다들 시키지 않아도 연습하느라 난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눈썹 그리기는 또 어찌나 다들 잘 하는지.

확실히 미술학도들이라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웬만한 살롱의 수석 화장술사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입니다.”

“호오, 그 정도예요?”

“예. 게다가 본인들도 적성에 잘 맞는다 싶었는지 그 다섯 중 셋은 아예 이쪽으로 전향할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받기로 한 후원금을 연봉에 얹어 받을 수 있겠냐고 어제는 저한테 슬쩍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뭐,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인데 그렇게 못해줄 것도 없죠.

원하는 대로 조치해주세요.”

“예, 마님. 그리 하겠습니다.”

애초에 수도에 머물 것으로 예정됐던 기간은 3개월.

이곳에 온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대략 두 달이 채 안 된다는 말인데...

뭐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앙드레에게 전권을 맡기는 데까지는 두 달, 아니 한 달이면 충분할 듯 싶었다.

일찍 정리가 되면 아스트리드 영지에 2호점 낼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지.

“자, 그럼 오픈 행사일 확실히 나오면 연락주고, 그 외에는 앙드레가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오케이?”

“예... 에? 아, 예예.

오, 오케이입니다. 네.”

자, 그럼 순조로운 사업생활은 여기까지.

이젠 묻어둔 사생활 좀 캐내러 가보실까?

1층 안채의 테라스 식당.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수잔느의 표정이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보였다.

아침에 알베르가 전해오길, 이부자리가 깨끗한 것이 한 숨도 자지 않은 것 같다 했는데.

피곤해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옅은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

... 그새 낮잠이라도 좀 잤나?

원래는 남편까지 포함해 셋이서 아침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침 일찍 입궁을 했고, 나도 어영부영 앙드레의 주간보고를 받다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화창한 날씨에 꽃구경까지 더해 훈훈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면 어떻게 좀 더 속내를 풀어놓진 않을까 싶어 식사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좋았다.

어제는 내가 묻는 말에만 겨우 답을 하더니 오늘은 그녀가 내게 먼저 물었다.

“로, 로즐린 아가씨.

정말 공작님께서 아가씨를 그리도 아껴주십니까?”

에?

첫 질문부터 뭐 이리 들이대?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그, 금슬이 무척 좋다고.”

“아... 네, 뭐.”

좀 그런 편이죠.”

기대감, 뿌듯함, 안도감, 그리고... 또 뭐지?

하여튼 온갖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잔느가 묻는데, 나도 모르게 답을 얼버무렸다.

별 물음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민망한 거지?

“좀 그런 편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러신 편이죠.

세상에 어느 귀족나리께서 황실 행사도 아니고 일개 티파티까지 챙기시며 부인의 에스코트를 서시겠어요?”

“레아, 너도 참 별 소리를...으흠흠.”

내 곁에서 식사 시중을 들던 레아의 말에 수잔느의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다.

“그,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세상에... 아가씨. 우리 로즐린 아가씨가.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말 편하게 해요.

나이로 보면 레아는 수잔느의 손녀뻘인 걸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제게 마, 말씀을 놓으셔야지요.

유, 유모에게 존대를 하는 귀족은 없답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반말을 하라고?

... 아니 뭐, 반말하는 거야 좀 어색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다가 너무 가까워 질까봐 그러지.

우리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여러 모로.

“수잔느, 하지만 그건 좀... ”

“슈슈!

슈슈라고 그리 불러주세요 아가씨.”

맞아, 슈슈!

그 노트에 쓰여 있었지.

"슈슈"

"넘어가면 안 돼"

검찰도 심문할 때는 막 반말하고 그러던데.

그럼 나도 해보지 뭐.

당신 입에서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반말쯤이야 뭐.

“알겠어 슈슈.

이제 슈슈라고 부를게.”

“아, 아가씨... ”

“그런데 그 슈슈라고 쓰여져 있던 노트, 그게 슈슈가 준 생일선물이라고 했었지?”

“예, 아가씨.

글쓰기를 즐기시는 아, 아가씨를 위해 제가 연필과 수첩을 선물해드렸지요.“

“그 향수 주머니도 슈슈가 준 거고?”

“예, 그랬습니다.

아가씨께서 서, 성년을 맞으신 기념으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아가씨께 참으로 잘 어울리는 향이었는데 이, 이젠 다 날아 가버렸겠지요.

세월이 벌써 이리 지났으니까요.”

“정말 내가 슈슈를 좋아하긴 했었나봐.

그 옛날에 받은 선물을 시집갈 때 까지 싸들고 간 걸 보면.”

음... 내가 너무 감성을 자극했나?

수잔느, 아니 슈슈의 눈가에 설핏 물기가 어렸다.

있잖아 슈슈, 미안한데 감동은 잠시 넣어 두도록 해.

지금 그런 눈물 흘릴 타이밍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왜 달랑 그것들뿐이었을까?

생일이야 매년 있는 거고 받은 선물도 여러 개였을 텐데.

아! 설마 다른 선물은 하나도 못 받은 건가?”

“아... 아닙니다 아가씨.

그런 게 아니라... ”

“하긴.

아버지란 사람도, 언니란 사람도 모두 내게 애정 한 줌 보이지 않더라고.

알다시피 내가 기억을 다 잃었잖아?

그래서 처음엔 내가 혹시 그 집 친 딸이 아닌가...”

“아가씨!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절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엠마 아가씨께서 아가씨를 낳으시는 걸 제가 직접 받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라?

내내 말을 슬쩍슬쩍 더듬더니 흥분하니까 전혀 말을 안 더듬네?

“그럼 더 슬픈데?

친 딸인데도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그, 그건 아가씨께서 공작가로 시집을 가셔서 그런 것이 아, 아닐는지... ”

“그럼 어렸을 때는?

그때는 잘 해줬다고?

생일파티도 막 열어주고?”

“아... 그, 그럼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매, 매년 생일파티를...”

“거 차~암 이상하네.

황.궁.연.회!

그게 내 사교계 데뷔 무대였거든.

다들 내 얼굴 어찌 생겼나 보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 매년 했다던 생일파티는 뭐 죄다 비밀파티였나?”

“아...”

“나 그 집에서 대체 뭐했어?

아니, 뭐였어?”

“... ”

당신이 망설이는 이유가 대체 뭐야?

후작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걱정 돼서?

뭐가 됐든 내가 다 감당해.

그러니까 말 해!

이대로는 짜증나서 못 살겠다 진짜.

“다들 내가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데.

나 감금당해서 우울증에 걸린 거야, 우울증에 걸려서 감금당한 거야?

말해줘 슈슈.

나 그거 들을 자격 있어.”

와... 이런 쳐 죽일 놈.

아니, 내리칠 내 팔 힘도 아깝다.

앙리 이 개노무 시키, 네가 인간이냐?!

“대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소문 하나 없이 덮인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냥 모른 척 이리 사세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나만 모른척한다고 되겠어?

그런 미친놈을 상대로?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해서 자기 부인 우울증 환자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딸자식까지 학대해서 말더듬이를 만든 게, 그게 아버지야?”

“아가씨... ”

“지가 한 짓은 안 부끄럽고 말더듬이 딸은 부끄럽다고 방 안에 가둬 키운 주제에 이제 와서 아비라고 나한테 깔짝댔다 이거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마님, 진정하세요.”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아 놔 진짜...하!”

자, 자, 릴렉스.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는 박서연이 아니야.

로즐린 아스트리드 공작부인이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기본 품위는 지켜야하지 않은가, 내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도무지 진정되지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한 건 있었다.

큰 딸에 비해 떨어지는 외모, 내성적인 성격, 크게 뛰어난 것 없는 능력.

욕망의 화신인 아버지의 눈에 그런 딸이 눈에 찰리 없었을 테니.

뭐 이런 것들로 차별 받고, 외면 받고, 그러다가 우울증.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이 몸은 패륜적인 흉악범죄의 피해자였다.

20여 년을 그렇게 학대 받다 팔려가듯 낯선 곳에 시집간 것도 모자라 방에만 처박혀 살다가 스스로의 생을 끝내야만큼 고통스러웠던.

나는 나니까, 예전의 로즐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당당했고 또 덤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덤덤하게 넘기기가 힘들었다.

내가 겪었든 안 겪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수첩에 쓰고 또 썼을까.

방 밖으로 나가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애를 패, 패길.”

“핏줄보다, 가족보다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가씨,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악마입니다.”

내 손을 꼭 잡은 슈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애써 참는 분노.

그건 분노이기도 했지만 두려움이기도 했다.

“슈슈.”

그녀의 떨리는 손을 맞잡아주었다.

내 곁에 두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무슨 꿍꿍이가 있든 말든, 그따위 것을 고려하느라 슈슈를 다시 그 악마놈에게 보낼 수는 없었다.

이건 나를 키운 정, 나를 아끼는 마음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 나는 후작놈과 같은 인간 말종이 아니었다.

“가지 마, 슈슈.

나랑 같이 있어.

그 악마놈한테서 내가 지켜줄게.”

앙리 테레지아.

이런 개나리 꽃 같은 신발 꺾어서 신고 걸어 다니다 똥 밟을 놈아!

덤벼! 전쟁이다.

쓰담 쓰담

정수리부터 뒤통수를 지나 목덜미까지.

반복적으로 쓸어내리는 남편의 손길이 여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칼리안, 나 괜찮아요.”

“... ”

“나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래.”

억지로 답을 하는 남편의 표정이 본적 없이 딱딱했다.

“당신, 괜찮아요?”

“... 하.”

모호한 의미의 한숨.

그와 함께 남편의 손길이 점점 그 속도를 늦추어갔다.

곧 목덜미를 지나 등을 감싸는 온기.

남편의 단단한 팔이 내 몸을 당겨 안았다.

“여보?”

온 몸을 감싸 안은 체온과 말없이 나를 향한 시선.

그 눈빛이 아파보여서, 나도 모르게 팔을 둘러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오히려 남편의 상태가 더 좋지 않아 보였다.

그것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른 방향으로.

분노할 줄 알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후작놈의 잔인한 이중성에 불같이 분노하겠지.

그래서 일부러 저녁식사 시간을 피해 잠자리에 들어서야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서였다.

그런데 남편은 과거의 내게 후작이 했던 짓을 듣고부터 계속 이 상태였다.

기묘한 침묵.

어째서?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라도 느끼는 걸까?

하지만 그건 남편이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한들 어떻게 할 수도, 그럴 이유조차 없었던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굳은 표정의 남편은 그렇게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꺼낸 한 마디.

그것은 위로가 아닌 사과였다.

“많이 아팠겠군.”

“... 칼리안? ”

“미안해.

당신에게 많이... 정말 많이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요.

때린 건 그자인데.”

“...”

“어휴... 칼리안.

당신 이러다 갑자기 눈물 흘리고, 어?

막 그러는 거 아니죠?”

“... ”

“당신이 나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죠.

눈물콧물 짜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왜 계속 슬퍼하고 아파해야 해요?

이 야심한 밤에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 아니, 생각하니까 열 받네.

진짜 당신 눈가에 습기라도 고여만 봐요.

내가 당장 그자 멱살 잡으러 테레지아로 달려갈 테니까.”

“... 훗.”

“어? 웃었다.

당신 방금 웃은 거죠? 그렇죠?

그래요. 웃어도 돼요.

나 이젠 진짜 괜찮으니까.”

웃은 거라기보다는 한껏 과장된 내 너스레에 실소가 터진 것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뜨거운 분노는 단 한 번, 아까의 그것으로 충분했다.

잦은 분노는 몸과 마음을 상하게 법!

그 악마놈이 한 더러운 짓 때문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상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놈에게는 분노조차 아까웠다.

“오히려 잘 됐죠 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게 됐으니까.”

“정리?”

“당신이 말했던 소원권.”

“!”

“그거 우리 아껴뒀다 다른 곳에 써요.

난 그냥 테레지아, 그 이름자 붙은 건 오늘부로 다 버렸으니까.

왜요? 이번에도 말릴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신중하라고?”

“아니.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건 온전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엥? 여태껏 실컷 말려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자격?

... 아까부터 진짜 이상하네.

뭔가 말이며 행동이며 평소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묘하게 다른 게.

충격이 그렇게 심했나?

“칼리안, 당신... ”

“그렇게 해.

당신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럼 이 몸의 족보 논쟁은 오늘로 끝?

“정말이죠?”

“그래.”

나지막한 그의 대답, 그리고 입술.

이마에 내려앉는 남편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감촉과 온기에 노곤함이 절로 밀려왔다.

음... 이마에 하는 키스의 뜻이 뭐였더라?

그게 아마...

“하~아아암... 헙!”

에이 씨.

부부 사이에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코앞에서 하품이나 찍찍 해대고.

긴장 좀 하자 로즐린아! 응?

“어서 자.

밤이 늦었어.”

조금 전 이마에 닿았던 그 입술이 다시 한번 내 입술에 내려앉았다.

굿나잇 키스였다.

“네, 그럴게요.

당신도 잘 자요.”

입술은 빼앗겨도 목젖은 들키지 말자.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잠결에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테레지아 후작가.

그곳 서재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정원에는 장미꽃이 한창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흐드러지게 핀 5월의 붉은 장미가 어찌나 탐스러운지, 그 장미를 꺾어내는 손길이 야속할 지경이었다.

“각하, 페레레이옵니다.”

“들게.”

서재 입구에서부터 점차 가까워지는 인기척.

하지만 장미를 꺾는 후작의 손길은 멈출 줄을 몰랐다.

“신 페레레, 명하신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생각보다 늦었군.

꼬리가 붙었었다지?”

“예. 전부 따돌린 뒤,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각하.”

“아닐세.

그 일이야 뭐 하루 이틀 늦는다고 탈나는 것도 아니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하는 후작.

그의 손길에 또 한 송이의 장미가 꺾여나갔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닥 한 쪽에 쌓여가는 꽃송이가 어둠을 먹어 핏빛처럼 검붉었다.

그리고 말없이 이내 그 동작을 반복하는 후작.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페레레가 제 입술을 앙다물었다.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돼!

암, 안 되고말고.

각하의 진정한 오른팔, 그 자리를 꿰차려면 반드시 내 손으로 틀어쥐어야만 해.’

후작을 모신이레 처음으로 자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작업이었다.

손에 쥔 보고서를 받쳐 들고 페레레가 다시 보고를 이어갔다.

조금 전보다 한층 더 커진 그의 목소리가 장미장원 가득 울려 퍼졌다.

“흐음... 절름발이에 고아?”

“예, 각하.

올해로 스물 둘 되었는데 아스트리드령 외곽 어촌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해 먹고 사는 자이옵니다.

또한 그자의 누이에게도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사온데, 군인이던 남편이 훈련 도중 사고로 죽고 쭉 접경지역 인근 마을에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둘 다 특별히 교류를 나눈 이들도 없으니 새로운 전서구로 쓰기 딱이라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말라가는 입술을 혀로 한 차례 축인 페레레가 긴장된 표정으로 후작의 답을 기다렸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라...

그래, 지킬 것이 있는 어미는 못 할 것이 없는 법이지.

수고했네. 그쪽 일은 자네가 맡아서 진행하게.”

“예, 감사합니다 각하!

신 페레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일 하나 맡겼을 뿐인데.

고개 숙여 답하는 로쉬 백작의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

‘드디어 손에 쥐는구나, 그놈의 전서구!

그래. 이젠 내가 진짜 후작 각하의 복심이 됐음이야.

암 복심이고말고. 하나뿐인 복심이지.

하하하하.’

제국의 모든 귀족들이 로쉬 백작을 테레지아 후작의 오른팔, 하나뿐인 복심이라 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

측근이긴 했지만 복심은 아니었던.

말 그대로 가장 곁에서 모시기는 했으나 후작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던 로쉬 백작이었다.

그건 로쉬 백작의 능력이나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

테레지아 후작이 백작이던 시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테레지아의 구린 뒤를 도맡아 처리했던 측근 중의 측근.

후작의 진짜 복심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고 병이 들고.

후작을 대신해 갖은 고생을 도맡아 한 복심은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후작에게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로쉬 백작에게는 다시없을 기회였다.

준남작가의 차남.

귀족의 작위 중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오르고 올라 후작의 자리를 거머쥔 대단한 인물.

그런 사람의 유일한 복심이 될 기회를 단번에 낚아 챈 백작이 굽혔던 허리를 세우며 후작에게 물었다.

“각하, 허면 기존 전서구들의 처리는 어찌할까요?

지금까지처럼 흔적을... ”

“아니.

남쪽의 큰 전서구는 당분간 그냥 둘 참이네.

한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패이지 않은가.”

안젤리카 라보르, 그녀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그런 하찮은 전서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똑똑하고 신중했으며 무엇보다 제 분수를 알았다.

게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그래서 더 다루기 쉬운 이 전서구는 현재 후작의 최대 관심사인 둘째 딸 로즐린, 그녀의 하나뿐인 이모였다.

후작의 입장에서는 결코 폐기시킬 수 없는, 아주 쓸모가 넘치는 패였다.

더군다나 이 쓸모 넘치는 패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패 하나를 자신의 둘째 딸에게 보내둔 상태이질 않은가.

“하오시면 나머지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고.

헌데 남쪽에서 온 보고서, 왜 그건 아직 말이 없는가?”

“아, 예.

그것이 아직 명확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지라... ”

“흐음...

답이 다 나온 문제의 풀이과정을 모른다?

찾기가 어렵다?

페레레, 지금 자네 내게 그리 변명하고 있는 겐가?”

아뿔싸!

전서구의 선별과 교육, 그 중요한 패를 잡아 쥘 욕심에 자신이 너무 안일했구나.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로쉬 백작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각하께 변명을...

과정부터 정답까지, 반드시 수일 내로 정리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각하!”

“그래 믿어야지. 믿어야하고말고.

내가 자네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나. 허허.”

끝까지 장미를 꺾는 손을 멈추지 않는 후작.

그를 돌려세울 방법은 그날의 사고, 그것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뿐이리라.

서재를 나서는 로쉬 백작의 발걸음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수잔느님, 이 색은 어떨까요?”

“곱구나. 정말 고와.

그 색도 곱고 여기 이 색도 곱고.”

“어머! 그러네요 정말.

이 세 가지 색을 한꺼번에 써도 좋겠어요.”

레아의 디자인 작업을 옆에서 바라보는 수잔느.

다정한 조손지간인양 화기애애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으응? 조손지간?

... 그러고 보니 둘이...

“둘이 어딘지 모르게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 베아스가 보기에도 그런가요?”

“예, 그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머리색도 같고.

에 또... 아무튼 묘하게 닮았다니까요.”

“사실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예에?

아니, 그럼 둘이 설마!”

응, 아니야.

“아, 됐고.

베아스, 내 대신 안단테 살롱에 좀 다녀와 줬으면 하는데.”

“예?

아니, 제 일이 마님 곁을 지키는 일인데 절더러 혼자 어디를 가란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웬만하면 그냥 아랫것들을 시키시는 게... ”

“나도 보통 일이면 하인들을 시켰겠죠.

아주~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아주아주...말씀이십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테레지아, 그자에게 빅엿 좀 먹여보려고요.”

“... 예?”

아, 여기는 엿이 없나?

그럼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 작자에게 개.망.신.을 줄 계획이란 거죠.”

개망신이라는 소리에 두 눈을 반짝이는 베아스였다.

그래, 베아스.

네가 원하는 피의 복수, 그건 당장 무리라는 거 너도 알지?

대신 테레지아 그자가 생전 맛보지 못한 파격적인 맛!

그러니까 쪽팔림의 맛이 어떤 건지 내가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라면 가야지요.

어떻게, 당장 가면 됩니까?”

“그럼 도와주는 거죠?”

“어이쿠 마님, 돕다니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개.망.신. 그거야말로 제 전문 분야인데요.”

... 언제는 황궁 사찰 전문이라며?

“그럼요. 나도 알죠.

이런 일에는 베아스가 딱이라는 거.

자, 여기.

이걸 앙드레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편지봉투를 받아 드는 베아스의 눈이 궁금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미리 알면 재미가 없잖아.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베아스.”

“예, 마님.

아주 바람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안단테 살롱 2층의 접객실.

공사의 막바지 현장을 점검 중이던 앙드레, 그의 뽀얀 얼굴에 짜증이 밀려들었다.

“아니, 이보게 앙드레.”

“로티 경, 자꾸 왜 이러십니까?

말씀해드릴 수 없다니까요.”

“로티 경은 무슨.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그냥 베아스라고 부르게, 응?”

“예, 베아스님.

그런데 제가 보시다시피 많이 바빠서요.

이만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아스님께서도 어서 돌아가셔서 마님 곁을 지키셔야지요.”

“그래, 가야지. 나도 가긴 갈 건데.

그러니까 내 그게 뭔지만 알려주면...”

“하아... 여기 이거!

안 보이십니까?”

“... ”

"... 그리고 이건 앙드레가 직접 맡아줘요.

비밀유지가 관건이라. 꼭 좀 부탁할게요."

‘나 이거 참.

저게 대체 뭐기에 비밀유지씩이나... ’

‘절대 조심하라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꼭 이대로 만들라 하시니.

이런 걸 대체 누구에게 입히시려고...’

‘그 것’의 쓸모가 대체 무엇일까.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로즐린의 생각이 궁금하기는 알베르, 앙드레 둘 다 매한가지였다.

일주일 뒤면 그 악마놈의 귀빠진 날이었다.

물론 기억을 잃은내가 그 놈의 생일 따위를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한결같은 격려와 염려를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 하오니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앙리 테레지아"

와... 다시 봐도 참.

초대장도 어쩜 딱 저 같이 만들었냐.

멘트 하나하나에 가식이 아주 뚝뚝 묻어나는 게 진심이 없잖아, 진심이!

초대장이 온 건 수잔느가 이곳에 온 다음 날이었다.

제 손으로 수잔느를 보냈으니 내가 과거 일들을 다 알게 될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이런 똥꼬발칙한 초대장을 보냈단 말이지?

학대당하던 친정집에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놀다 가라?

진짜 앙리 테레지아 얘는 또라이였다.

아니, 앞으론 웃고 뒤에서 짓밟는 걸 보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게 더 맞으려나?

원래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우리집 밥도 충분히 맛있는데 굳이 내가 거길 왜?

그런데 오늘 아침 남편의 말을 듣고 꼭 가야겠다, 마음을 바꾸게 됐다.

폐하께서도 참석하신다는군.

당신은 그냥 있어. 나로도 충분하니까.

황제가 참석한다면 황후 참석은 기정사실.

그런 찝찝한 곳에 남편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왕 갈 거라면 후작놈에게 한방 먹일 건수 정도는 준비해야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게 바로 개망신 프로젝트!

그나저나 베아스는 왜 이리 안 오는 거야?

제대로 전달 중인 거 맞아?

디데이까지 일주일.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앙드레의 도움이 필수였다.

앙드레가 적어도 이틀 전에는 작업을 모두 끝내주어야 개망신 프로젝트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님? 마님!”

“어, 어?”

“어휴,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세요?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도 없으시고.

어머!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 건...”

“아니,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이니 레아?”

“알베르 집사님께서 드셨습니다.

본성의 일로 마님께 보고드릴 게 있다 하시면서요.”

“알베르가? 어서 들이렴.”

안 그래도 바쁜 알베르인데 괜히 나 때문에 문밖에서 기다리고.

이거 영 미안하네.

“마님을 뵈옵니다.”

“알베르, 무슨 일이에요?

영지 일은 내게 따로 보고할 필요 없다고 전에 말했었는데.”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 후엔 어영부영 곧바로 수도행.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좋아 안주인이지 사실 나는 아스트리드 영지의 일에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다시 영지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본성의 모든 일은 알베르의 선에서 처리하라, 그렇게 말해 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무슨 보고?

“그것이...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별채의 문제입니다.”

“별채?”

“예, 마님.

혹시 마님께서 별채 전담 시녀로 두라 명하셨던 보니타, 그 아이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럼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게 남달랐던 아이를.

그런데 그 아이가 왜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

”그 아이가 성을 나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네? 성을 나가요?”

알베르의 설명은 이랬다.

오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며 보니타가 휴가를 내고 성을 나간 지 벌써 일주일째.

그녀의 오빠가 일한다는 라보르 영지는 아스트리드 영지에서 하루하고 반나절이면 도착할 거리라 아무리 늦어도 사나흘이면 성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여태 연락 한 통 없이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업무환경이 좀 적적해서 그렇지 업무량으로만 보면 본성에 비해 별채가 완전 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이 힘들어서 나간 건 아닐 테고.

답답해서 콧바람이라도 쐬려 나갔다가 진짜 바람이라도 들었나?

“혹시 그 오빠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 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오빠라는 자가 일한다는 상단으로 연통을 넣어보았는데 이미 상단을 그만둔 지 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래에 공작성으로 보니타를 찾는 자들이 몰려왔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들이라.”

뭐? 빚쟁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뭐 대충 그런 상황인 거?

“빚이 얼마나 되기에... 아니 뭐 그건 됐고.

그 빚쟁이들이 혹시 우리 영지민인가요?”

“일반 영지민은 아니고 고리채를 놓아 장사를 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왐마, 고리채면 얘가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튀었다는 거야?

세상에! 아주 간댕이가 부었고만.

“알베르, 혹시 그 빌린 돈이 우리 쪽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나요?

뭐 갚지 않으면 공작성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고리채는 국법으로 금지된 것이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보증을 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니타 그 아이의 개인채무일 뿐, 아스트리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됐네요.

무단으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라고 했죠?

딱 사흘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해고하세요.”

“예, 마님.”

부모 자식 간에도 사채 빚은 갚아주는 거 아니라고 했다.

하물며 뒤에서 나를 까고 내 남자에게 흑심 품었던 여자 사정을 내가 봐줄 성 싶으냐?

안녕, 보니타.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사흘 뒤, 테레지아 후작가.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가 후원하는 살롱에서 만든 것이다?”

“예,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그곳의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가봉한 것이라 하옵니다.

요즘 그 곳의 명성이 워낙에 높다보니 무척 고가임에도 사고자 하는 이들이 줄을 서는 통에 가봉 예약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 소문이 자자합니다.”

“... 그래?”

후작의 시선이 로쉬 백작을 향했다.

정확히는 그가 들고 있는 종이상자 속의 수트를 향한 시선이었다.

그레이톤 하늘색 바탕에 그보다 한톤 더 짙은 그레이로 장식된 목깃.

골드빛 행커치프, 그 아래 새겨진 심플한 로고까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이 철철 넘치는 게 시선을 잡아끌었다.

후작이 다시 시선을 돌려 손에 든 편지를 읽었다.

"아비라는 사람도 외면한 저를 살뜰히 살펴 키운 수잔느 아닙니까?

그런 귀한 이를 제게 보내주셨으니 마땅히 답례를 하는 게 도리겠지요.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입니다.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으니 더 이상 사적인 왕래는 없기를 바랍니다.

로즐린 아스트리드"

획의 첫머리가 안쪽으로 굽어진 게 흠이었지만 제법 보기 좋은 필체.

글씨는 또 언제 이리 늘었누.

시집가더니 아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됐구나.

진정 딸을 대견해하는 아비라도 되는 양, 가식적인 추임새를 넣으며 편지를 읽던 테레지아 후작이 다 읽은 편지를 로쉬 백작에게 다시 건넸다.

그리고 내려두었던 정원가위를 다시 들어 장미나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가지를 쳐내려가는 그의 미소가 점점 짙어졌다.

“하나를 받았으니 하나를 주겠다? 허헛!

아무리 그래도 사람 하나 값을 이깟 옷 한 벌로 치르려하다니.

우리 막내따님 사업 수단이 꽤나 훌륭타 들었는데 아직 거래의 기본도 모르는 애송이였구먼.”

“아무래도 그 사고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 그럴 게야.

안다면 그리 태평하게 장사놀음이나 하고 있진 못했겠지.”

툭 투둑

잘려져 낙하하는 나뭇가지.

바닥에 흩어진 그 초록의 잔해를 바라보며 후작이 입을 열었다.

“조금 전 그 보고, 확실한가?”

“예, 확실합니다.

각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본디 어느 귀족가든 내부에서 쓰는 약초는 지정상단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사고가 있고 바로 다음날, 아주 소량이지만 외부의 약초가 공작성으로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공작성에 들고 난 약초는 모두 지정상단을 통한 것일 뿐, 단 한 번도 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약초가 툰트라의 뿌리다?”

“예, 각하.

그리고 툰트라의 뿌리는 보통...”

“체기에 제법 효과가 있어 무지렁이들이 즐겨 찾는 약초지.

산에 가면 널린 게 툰트라 나무니 말이야.”

후작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하려던 말은 그것이 아닌데.

후작의 표정을 살피던 로쉬 백작이 보고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다.

그때였다.

“으하하하!”

정원가위를 바닥에 던지며 몸을 돌리는 후작.

박장대소를 하는 그의 얼굴에 희열이 가득했다.

“어디 그뿐인가.

어혈을 제거하는 데 그만이라, 유산한 여인들이 종종 쓰기도 한다지.”

한밤중의 외출.

맨발.

익수사고.

거기에 툰트라의 뿌리까지.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후작에게 중요치 않았다.

그리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아직 소문이 돌아서는 안 되네.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야.”

“예, 각하.

보고서는 즉각 폐기시켰고 세작들에게도 다른 일체의 활동은 자제하라, 그리 조치해두었습니다.”

“암. 그래, 그래야지.

이런 큰 패를 허무하게 날리면 안 되지.

무려 제국의 하나뿐인 공작가에서 일어난 패륜이 아닌가.

제 자식을 죽인 패륜!

으하하하하하!”

패륜.

그 단어를 웃음으로 입에 담는 후작의 발에 초록의 잔해들이 짓밟혀져갔다.

드디어 디데이.

그놈의 집구석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나는 철저한 사전 점검 중이었다.

“레아, 거울 좀.”

“예, 마님.”

레아가 받쳐 든 손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뽀얀 피부.

결이 좋아 매끈한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다.

역시 피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돈과 시간 투자가 답이었다.

그리고 그 빛나는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는 살굿빛 섀도와 오렌지 립스틱!

상큼한 색조의 구성처럼 오늘은 사랑스럽고 발랄한 매력을 발산하는 공작부인이 컨셉이었다.

발랄함을 강조하기 위해 포니테일로 묶어서 자연스럽게 말아 올린 머리와 그 아래로 드러난 희고 가냘픈 목덜미, 유백색의 광택이 탐스러운 진주귀걸이까지.

이 정도 비주얼이면 조각미녀까지는 아니라도 사랑스럽다는 소리는 듣고도 남았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샤 씨 풍의 조각미녀보다 이 몸의 사랑스러움을 더 선호했다.

음, 좋아 완벽해!

“세상에.

마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모든 색깔이 다 잘 어울리세요?”

“레아 네가 봐도 그러니?”

“네, 정말이지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때 봤던 모델들도 지금의 마님께는 비하지 못 할 거예요.”

“호호, 칭찬 고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크레테에서는 나보다 그 모델들 인기가 아마 훨씬 더 높을 걸?”

그랬다.

진짜 그제와 어제 이틀간 그 ‘모델들’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대체 어떤 모델들이기에 핫플레이스 안단테의 실질적 오너이자 제국의 하나뿐인 공작부인인 나, 로즐린의 화제성을 넘어서고 있단 말인가.

그들은 다름 아닌 안단테 살롱의 새로운 통합 브랜드 ‘그리다’

그 이름을 달고 출시된 제품들을 홍보하는 전속모델이었다.

“아무래도 그런 광경은 다들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준비 과정을 미리 지켜봤던 저도 막상 그 ‘쇼’라는 게 시작되니 정신이 다 혼미하던 걸요.”

“확실히 앙드레가 준비를 잘 하긴 했지.”

“앙드레님은 마님께서 다 기획하신 거라고 내내 감탄하셨는데요?”

으이그, 앙드레 이 한결같은 사람 참... 후훗!

이번 2분기 영업 실적의 3... 아니 5%.

그건 딱 잘라 앙드레의 인센티브로 내 마음속에 저장!

제 공을 상사에게 돌리는 겸손한 부하직원은 포상 받아 마땅했다.

“그러니까 그 ‘쇼’라는 걸 정말 아가씨께서 만드셨다는 거지요?”

“아니, 수잔느.

그게 내가 만들었다기보다 음...

난 그저 큰 그림만 그렸다고나 할까?”

정말이었다.

내가 앙드레에게 던진 말은 정말 가느다란 실선으로 그려진 밑그림에 불과했다.

메이크업 부스 설치하는 김에 신제품도 나왔고 하니 새로 홍보 전략 좀 짜보는 게 어떠냐, 예를 들면 하나의 브랜드 명을 만들어 모델도 내세우고 시연회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진짜 이런 말 몇 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앙드레는 그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냈다.

그것도 ‘쇼케이스’라는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

천재 디자이너, 앙 선생님의 재림이었다.

“그 큰 그림이라는 걸 아무나 그릴 수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인 걸요.

게다가 그 브랜드명이라는 것도 마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삶을 그린다는 뜻에서 ‘그리다’라니. 어쩜!

어디 그뿐인가요?

그 고대어를 인용해 만든 인장, 아니 로고라는 것도 얼마나 고급스럽던 지요.

맨 앞쪽에 삶의 즐거움을 뜻한다는 그림도 그렇고, 뒤쪽에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도 그렇고.

쇼를 지켜보던 귀부인들께서 하나같이 감탄사를 터트리셨답니다.

그날 수잔느님께서도 함께 가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다 늙은 내가 그곳에 가서 아가씨께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저 이리 소식만 전해 들어도 나는 기쁘구나.

아가씨, 정말 장하십니다.

마님, 아니 엠마 아가씨께서 살아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이 몸의 생모인 엠마 테레지아.

때때로 그녀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잔느는 그녀를 아가씨라 지칭했다.

한참 전에 결혼하고 딸까지 낳은 옛 주인을 왜 아직도 마님이 아니라 아가씨라고 부르는가.

어째서 엄마도 나도 둘 다 아가씨라고 부르느냐 물었더니 서글픈 눈으로 수잔느가 답했다.

테레지아가의 사람으로, 그 악마의 소유물로 남을까봐.

혹시 죽어서도 테레지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그래서 더 이상 마님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체 그 후작놈이 얼마나 구박을 했기에.

솔직히 궁금했지만 뭐 좋은 일이라고.

자세히 들어봐야 찝찝하기만 하지 싶어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수잔느가 내게 해준 말과 같은 맥락으로 나도 이제 슈슈가 아니라 수잔느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했다.

슈슈라는 이름.

그걸 계속 입에 담을수록 왠지 진짜 로즐린과 수잔느, 그 둘 만의 추억까지 내가 침범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수잔느, 정말 같이 안 갈 거야?”

“제가 가면 아가씨께 폐만 될 겁니다.”

“폐는 무슨.

이제 수잔느는 아스트리드가의 사람이야.

내가 가는 곳에 수잔느가 못 갈 이유 따윈 없어.”

“하지만 저를 순순히 보내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죽기 전에 아가씨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욕심에 달려오긴 했지만...

엠마 아가씨께서 죽고 아가씨의 혼인이 결정되자마자 저를 유폐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를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예 여기 공작저에 셀프, 아니 자진 유폐를 하겠다고?”

“...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솔직히 처음 며칠간은 가끔씩, 아주 살짝쿵, 그녀가 후작의 끄나풀은 아닐까 의심했었다.

하지만 쭉 지켜본 결과, 그녀는 음흉한 끄나풀 따위가 절대 아니었다.

그 주도면밀한 자의 밀명을 수행하기에 수잔느는... 기력이 너무 바닥이었다.

큰 주인도 우울증, 작은 주인도 우울증.

죄 우울증 환자 시중만 들었던 탓인지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마저 썩 좋지 않아 보였는데, 매일 아침 마주하는 얼굴은 잘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푸석푸석.

충혈 된 눈은 만성 불면증을, 시시각각 흔들리는 감정은 조울증을 의심케 했다.

수잔느에게 점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게다가 수잔느는 이곳에 온 날로부터 저택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고 있었다.

에휴... 얼마나 후작놈이 두려웠으면.

그래, 불안하다는데 억지로 데려갈 필요는 없겠지.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일단은 내버려 두자.

“그래, 그럼.

수잔느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내가 가서 그 자의 꿍꿍이가 뭔지 캐내 올 테니까.”

“로즐린 아가씨...”

수잔느, 그런 걱정 가득한 표정은 이제 그만!

잠시 잊었나본데 나... 살롱 있는 여자야.

떡 벌어진 어깨, 우월한 기럭지.

캬! 뉘 집 남편인지 옷발 한번 끝내주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 와!”

잘생겼다!

옆에서 보다가 밑에서 보고, 실눈 뜨고 째려도 보고.

하지만 어떻게 보든 그냥, 계속, 쭉, 잘생겼더라.

아무렴.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었다.

“마음에 드는군, 당신 지금 그 표정.”

“저도 마음에 들어요, 당신 얼굴.”

“그럼 우리 지금 서로에게 또 반한 건가?”

“그래도 레이디의 체면이 있지.

당신이 먼저 반한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

그게 진실인데.”

사랑의 콩깍지, 너란 놈의 보정력이란... 참...

지금 남편의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꽁냥꽁냥 달달한 드립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스트리드 공작전하 내외 드십니다!”

마차에서 내려 결전을 장소를 향해 걸었다.

사방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부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보다는 남편을 향한 웅성거림이었다.

그래, 놀랐지?

놀란 만큼 더 크게!

막지 않을 테니 좀 더 들이대고 떠들어도 돼.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껏 품평하라고.

길게 뻗어있는 카펫의 끝, 그 무대 위에 오늘의 주인공놈 이하 주조연급 인사들이 보였다.

악마놈 앙리와 황제부부, 시오네 공주, 그리고 단테스 후작이었다.

거리가 좁혀지자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왜 당황했냐고?

웬수 같은 두 남자가 졸지에 커플룩을 선보이는 현장, 그걸 목격했으니까.

그랬다.

남편이 입은 수트와 테레지아 후작이 입은 수트는 너무나 비슷, 아니 사실 거의 같은 옷이나 다름없었다.

디자인도 같았고, 디테일도 같았다.

그나마 다른 거라곤 전체적인 색감의 톤과 행커치프의 무늬 정도?

물론 옷이 같다고 그 핏 마저 같은 건 절대 아니었지만.

“사실 불쾌할 줄 알았거든.”

걸으면서 내게 속삭이던 남편이 갑자기 피식, 웃어보였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래, 그렇군.

나쁘지 않아.

아니,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후작가로 출발하기 전, 미리 내게 언질을 받을 때만 해도 남편은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무대에 입장하는 남편의 얼굴은 여유 있는 미소로 가득했다.

좌중의 시선이 그런 남편을 향해 한 번, 다시 테레지아 후작을 향해 한 번.

분위기가 점점 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래. 후작이 소싯적에는 꽤 잘 나갔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뭐?

지금은 그냥 다 늙어빠진 영감님일 뿐이라고.

둘이 딱 대놓고 비교해보니 알겠지?

나이가 무색하게 한껏 날렵해보이던 몸매는 한없이 부실해보일 테고, 품격 있어 보이던 주름은 좋은 날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실히 일깨워주겠지.

그러니까 이쪽에 붙어.

대세는 공작이야.

남편의 고개가 정면을 향해 꼿꼿이 들렸다.

그의 가슴팍 높이, 그 언저리에서 올려다본 턱선이 미치도록 섹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한 거지?

후작이 당신이 보낸 옷을 입고 나올 거라는 거.”

“앙리 테레지아니까요.”

그래, 그자니까.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소시오패스, 악마놈!

한번 만나자는 요청을 매번 튕겨내던 둘째 딸이 알아서 제 집까지 온다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넘길 후작놈이 아니었다.

자신이 내게 보낸 수잔느.

찜찜하면서도 그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내게 과시하고 싶었을 거다.

사적으로 다신 보지 말자 해놓고 황제 때문에 억지로 걸음 한 둘째 딸을 이참에 흔들어놓고도 싶겠지.

난 네게 치명타가 될 만 한 어떤 걸 손에 쥐고 있다.

그건 수잔느가 말해준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수잔느를 네게 그리 쉽게 보내준 거란다.

그러다 내가 흔들리면 그 틈을 노려 또 무언가 작당질을 할 생각이겠지.

그런 수작을 벌일 수 있는 끝내주는 판이 만들어졌는데 내게 받은 옷을 입지 않을 리가 있나.

수잔느를 제 뜻대로 거래했다, 그걸 증명하는 전리품일 텐데.

“신 아스트리드, 폐하와 황후마마를 뵈옵니다.”

“폐하와 황후마마를 뵈옵니다.”

무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부부는 최종보스에게 인사부터 했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테레지아 후작이었지만 무리의 중심은 황제였으니까.

그 와중에 황후는 이때다 싶었는지 한판 붙자는 시그널을 마구 보내왔다.

또 오늘은 무슨 시비를 걸려고.

이봐요 샤 씨, 오늘은 그냥 혼자 적당히 놀다 가셔.

난 니 애비 상대해야 돼서 좀 바쁘니까. 어?

“허헛. 그나저나 자네답지 않게 왜 이리 늦나 했더니.

그리 한껏 멋을 내고 오느라 늦은 게로군.

헌데 공작, 자네 오늘 의상 선택이 좀...”

“호호! 오늘 공작께서 테레지아 후작과 뭔가 좀 통했나 본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연도 어찌 이런 우연이...”

더럽게 안 어울리는 두 남자의 커플룩.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황제가 던지자 시오네 공주가 받고, 단테스 후작이 우연으로 마무리하려했다.

하지만 그 꼴을 황후가 두고 볼 리 없었다.

“폐하,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끝내기엔 이건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엄연히 테레지아 후작이 아니옵니까?

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허허. 황후마마, 신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이런 저런 우연쯤이야 다반사가 아니겠습니까?

공작께서도 괘념치 마십시오.”

“아니, 황후마마의 말씀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자네인데 내가 본의 아니게 큰 실례를 했군.

미안하네.”

“아니요, 후작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전하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제가 전하의 의상을 준비했으니까요.

테레지아 후작,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실례를 범하게 됐군요.

하필 후작께서 입으신 것과 이리도 비슷한 의상을 준비했으니.”

“실례라니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공작부인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허허.

이 늙은이의 생일을 축하하러 이리 걸음 하셨으니 모쪼록 이 밤, 마음껏 즐기다 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겨우 이거였냐.

이 유난을 떨려고 내게 옷 선물을 보낸 거냐.

유치하기는.

가소롭다는 듯 미소 짓는 후작놈.

그 악마놈의 면전에다 대고 나도 똑같이 화사하게 웃어주었다.

응, 아니야.

쫌만 더 있어 봐.

오늘 내가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을 생일선물로 줄 테니.

쫌만 더 있어 봐.

오늘 내가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을 생일선물로 줄 테니.

그때였다.

“어?”

“어찌 그러십니까? 공주님.”

“어...”

“시오네 공주님?”

단테스 후작의 물음에도 공주는 대꾸 없이 고개만 갸우뚱.

그러다 앙리놈 쪽을 한 번 쓱 훑더니, 내 남편 쪽으로 다시 한 번 쓱.

“... 이상해.”

그래, 이상하지?

이상할 거야.

암. 엄청스레 이상하고말고.

시오네 공주의 안목이 괜히 제국 최고로 불리는 게 아니었다.

솔직히 밑밥을 좀 더 깔아야 눈치 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지금 저 표정을 보니 벌써 감을 잡은 게 틀림없었다.

정말이지 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LTE급 속도였다.

그 빠른 속도에 어찌나 흡족한지 피식,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곧장 내 오른쪽 볼따구를 찌릿하게 만드는 시선 하나.

네가 웃으면 나는 빡 쳐.

넌 장난이라 해도.

시선 교환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샤 씨, 그녀의 깊은 빡침을.

“시오네 공주, 대체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이상하다니요.”

“아, 황후마마.

다른 게 아니라 저 옷의... ”

“시오네 공주!

후작은 황실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사사로이는 제 아버님 되시는 분입니다.

폐하의 장인이시란 말입니다.

헌데 어찌 그리 무례하십니까?”

“예? 아니,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역정부터 내십니까?

저는 그저 저 옷의 인장... ”

“그만!

시오네, 거기까지 하거라.”

황후와 공주의 언성이 높아지자 지켜보던 황제가 등판을 했다.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던 조금 전과는 아주 표정이 딴판이었다.

“하오나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라니!

여기가 별궁의 정원이나 네 처소인 줄 아느냐.

이곳은 테레지아가의 저택이다.

어찌 이리 경솔해!”

“... 송구하옵니다, 폐하.”

“테레지아 후작, 미안하네.

내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어려서부터 오냐오냐했더니 저리 철딱서니가 없이 컸군.

자네가 좀 이해해주게나.”

“아니옵니다, 폐하.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십니까?

공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소신의 집까지 걸음 하시어 축하해주시고 깊은 관심까지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세상 꿀잼이구나, 지켜볼 땐 언제고 왜 갑자기 등판해서 화를 내나 했더니.

황제가 나서서 선수를 친 효과는 확실히 대단했다.

우선 황후의 빡침이 대번에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레 공주의 무례가 거론되던 것을 덮었다.

거기다 앙리놈에게 도리어 감사의 인사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 스마트한 갑 질의 정석이었다.

하지만 앙리놈도 귀족파의 수장 자리를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었으니.

솔직히 다른 귀족들이라면 짜증을 열두 번은 내고도 남을 상황이긴 했다.

제 생일파티를 망치러 온 웬수 같은 둘째 딸과 사위의 진상 질, 여기에 더해 세상 불편한 직장상사의 갑 질까지.

하지만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허허 거리며 웃고 있는 앙리놈.

...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에라이 카악, 퉤! 퉤!

이런 내 영혼의 가래침을 알 리 없는 앙리.

그 놈이 밥맛없는 미소를 장착한 채, 시오네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마마, 무엇이 그리 궁금하십니까?

편히 말씀주시면 신이 답해 올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별 건 아니고 후작이 입고 있는 그 옷 말이에요.

진짜 미친... 아니, 약간 이사... 으흠.

그러니까 무척 내 관심을 끌었다, 이거예요.

혹시 어느 살롱에서 맞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일제히 의아함이 번졌다.

화려한 보석이나 러플 하나 달려있지 않은 새하얀 셔츠, 조끼 없이 걸친 짧은 재킷과 슬림한 라인의 바지까지.

게다가 어떠한 자수도 넣지 않았지만 묘하게 고급스러운 하늘색의 옷감과 오른쪽 가슴에 달린 특이한 형태의 장식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파격적일 터였다.

온갖 장식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셔츠와 엉덩이, 혹은 허벅지까지 덮는 긴 재킷을 기본으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통바지나 자기애 넘치는 타이즈 따위를 입고 있는 귀족들.

그들이 보기에 후작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아크레테에서 저런 독특한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곳이 안단테살롱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안단테살롱의 후원자인 공작부인, 그녀가 준비했다는 공작의 의상과 후작의 의상이 완전 판박이 아닌가.

여기 있는 모두가 짐작하고 있는 사실을 안목 좋은 공주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하하하, 높으신 공주님의 안목에 들 정도라니.

아무래도 이 옷을 선물해준 이를 다시 불러 사례라도 해야겠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앙리놈의 말에 시오네 공주의 눈이 반짝였다.

그와 반대로 활활 타오르는 눈빛의 샤를로트 황비.

그 뜨거운 시선이 나를 한번 훑더니 다시 제 아비에게로 향했다.

선물을 보낸 자가 로즐린 저 망할 년이냐.

그녀의 눈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앙리놈은 옷을 선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나에 대한 샤 씨의 적개심을 모를 리 없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을 테지.

그리고 밝히는 것보다 밝히지 않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고도 생각했을 테고.

예상했던 대로였다.

“예, 그렇습니다. 공주님.

오래 전, 신이 백작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온 상단이 하나 있사온데 쿠노상단이라고.

그 곳의 상단주가 선물이라며 제게 보내 온 것이옵니다.”

“쿠노상단이라면... 황실에 물품을 납품하는 로열캐리스 중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합니다. 공주님.

비록 천한 상인의 신분이기는 하나 신과는 꽤 오랜 인연을 이어온 자입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을 맞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다며 이 옷을 보내왔기에 그 성의가 고마워 오늘 입고 나온 것이었지요.

한데 공교롭게도 아브라의 안목이 공작부인의 안목과 일치하는 바람에... 허허허.”

“그러니까 아브라... 그 쿠노상단의 상단주한테 받은 거란 말이죠?”

아브라라는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이는 시오네 공주.

그 옆에서 한결 사그라진 샤를로트 황비가 제 아비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내가 준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누그러진 모양이었다.

“아브라 조다, 그자라면 그럴 만하지요.

입궁하기 전, 영애였던 시절에 그 자를 후작저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처리도 깔끔하고 상인답게 안목도 썩 나쁘지 않은 자였지요.”

뭐라.

안목이 일치해?

썩 나쁘지가 않아?

하, 부녀가 아주 쌍으로 나를 돌려 까네.

그러니까 천한 상인의 안목도 대충 너 정도는 되더라, 지금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건 조금 전, 저 옷이 딱 자신의 취향이라고 밝힌 시오네 공주까지 싸잡아 내리 앉히는 발언이었다.

물론 시오네 공주는 후작의 행커치프 쪽에 시선을 두느라 미처 알아채지 못 한 것 같았지만.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려던 찰나, 또다시 뜨거운 기류가 느껴졌다.

이번엔 또 누구냐.

어...? 칼리안?

아니, 같이 싸움 구경 잘 하다말고 왜 갑자기 열을 내고 그래요?

자기, 설마 내가 까인 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당신도 황제처럼 등판하려고?

그대로 두면 차곡차곡 깔아둔 판이 죄다 엎어질지도 몰랐다.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여보, 칼리안.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무섭다는 내 말에 대번에 미간을 편 남편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여왔다.

“미안해 당신 놀라게 해서.”

그런데 그 속삭임이 너무 컸나, 아니 너무 달콤했나?

갑자기 우리에게 쏠리는 시선들.

“흠, 흠.

시오네 공주님, 신에게 더 하문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아... 아니. 충분해요

다소 무례한 내 질문에 답해줘서 고마워요. 테레지아 후작.”

“별 말씀을요.

흡족하셨다니 다행이옵니다, 공주님.”

“자, 자.

그럼 이제 대충 질의응답의 시간은 끝난 것 같으니.

테레지아 후작, 이제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게 어떤가.

다들 이쪽만 쳐다보고 있군 그래.”

황제의 말대로 정말 죄다 이쪽만 보고 있었다.

하긴. 감히 로열패밀리들 말씀하시는데 시끌벅적 파티를 즐길 간 큰 인간이 있을 리 없지.

그렇게 황제가 어영부영 상황을 마무리하자, 앙리놈은 수려한 언변으로 파티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와 함께 파티장을 잔잔히 채워가는 왈츠곡.

멈춰있던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이리 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다렸다, 이 순간을.

“칼리안, 우리도 한 곡 어때요?”

들어 올린 내 손을 남편의 손이 맞잡아왔다.

그리고 뿜어내는 화사한 꽃미소.

“영광이오, 레이디.”

남편의 가슴 쪽 행커치프를 가리지 않게 자세를 잡고 몸을 맡겼다.

진정한 파티의 시작, 아니 개망신 프로젝트가 발동되는 순간이었다.

메인 스테이지와 정 반대쪽 구석의 창가.

테라스도 아니요, 휴게실과도 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리 잡은 이곳은 무척 한적했다.

가까이에 사람은 없었지만 먼발치에서 이쪽을 힐끔대는 시선이 제법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날 버린 친정집에서 지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뭐 대충 이게 지금의 내 컨셉이었으니까.

그렇게 답답함과 착잡함을 연기하는 와중에 기다리던 이가 찾아왔다.

“마님, 시오네 공주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길 청하셨습니다.”

“그래?

내 곧 가겠다, 공주님께 그리 전해 올리거라.”

하아, 어디 보자.

이제 뜸은 적당히 든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만 더 있다가 슬슬 움직여볼까?

시녀가 물러나는 것을 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집구석 터가 별로라 그런가, 밥맛에 이어 물맛도 완전 별로였다.

“저.. 마님.

대체 뭘 그렇게 보시는 건지 여쭈어 봐도 됩니까?”

“음... 집 구경?”

“벌써 10분 째 창밖만 보셨는데요.”

“그건 정원 풍경이 너무 좋아서.”

“... 정원이고 뭐고 죄다 시꺼멓기만 한데요.”

아, 맞아.

해 떨어진 지 한참이지.

... 솔직히 그냥 멍 좀 때렸다, 왜?

“베아스, 설마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어이쿠,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막나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감히 마님께 짜증을 부리겠습니까?”

어이, 진짜야?

확실해?

조금 전 목소리는 그게 아니던데?

“그저 그 개망신은 언제쯤이면 볼 수 있나... 속이 타서 그럽니다.

마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하긴, 궁금한 건 죽어도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 했지.

이쪽저쪽 다 파보아도 내 계획이 뭔지 도통 모르겠다며 안달이 난 베아스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직접 맛보고 즐기라고.”

“예?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게 아까 그... ”

“에이, 그건 일종의 에피타이저고.”

잠시 실망이 어렸던 베아스의 얼굴에 다시 기대감과 궁금증이 차올랐다.

자, 이제 대충 5분은 지났겠지?

“자, 그럼 슬슬 움직여보죠.

메인 요리 맛보러.”

“어서 오세요, 공작부인.

그런데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인을 찾았는데.”

“예, 맞습니다.

공주님께서 아까부터 부인을 기다리시며 어찌나 애타하시는지.”

응, 알아.

그러라고 구석에 박혀 있다가 이제야 온 거야.

“속이 답답하여 잠시 바람을 좀 쐬느라.

늦어서 송구합니다, 공주님.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일이냐 묻자마자 한데 모여 서 있던 귀부인들의 눈이 일제히 번뜩였다.

확실히 여자들의 예리함이란. 훗!

뜸이 아주 제대로 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눈을 크게 번뜩인 시오네 공주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공작부인도 봤죠?”

암, 봤지. 봤다마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억지로 안색을 흐렸다.

그렇게 곤란함을 연기하는 내게 공주가 다시 물었다.

“실수인가요?”

여기저기서 한껏 마른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내 답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 아닙니다.”

“아!”

“아니, 그럼 그게... ”

“어머나 세상에!”

사방에서 들리는 탄식과 쑥덕임.

그녀들의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단테에서 출시한 ‘그리다’의 남성복 라인은 예약판매 중이라는 것을요.

주문은 받고 있지만 아직 물건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안 내보냈어.

오늘을 위해서.

“맞아요.

저희 백작님께서도 그리다 수트를 주문하셨는데 다다음주쯤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입지 못하셨답니다.”

“어머! 저희 자작님께서도요.”

“그럼 정말 테레지아 후작께서 입고 계시던 옷이... ”

“역시!

맞았네, 가품.”

손뼉을 치며 외치는 시오네 공주.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가 팔랑거리며 수줍게 그림 같은 글자를 내보였다.

"♬구리다"

후작의 행커치프 포켓 아래에 새겨져 있던 로고였다.

응, 맞아.

그 놈이 입은 거 짝퉁이야.

원래 악마는 구리다를 입어줘야 하거든.

연회장의 중앙홀 방향.

미소 띈 얼굴의 테레지아 후작이 파티의 호스트로서 이곳저곳을 돌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후작이라는 높은 신분과 중앙정치계에서 쌓아올린 연륜.

그것들을 무기삼아 그저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수많은 귀족들이 알아서 그를 찾아와 먼저 인사를 건넸을 터였다.

하지만 파티장을 누비는 테레지아 후작에게서 그런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밑바닥 여론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는 후작의 정치 스타일.

그건 이 시대의 귀족상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남다른 감이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게 가식이라는 점이 가장 남달랐지만.

“허허허.

다들 이리 먼 길을 달려와 주다니.

참으로 고맙네.”

“아, 아니옵니다 후작각하.

각하께서 친히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어찌 참석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사옵니다, 각하.

일전의 토론회에서 딱 한 번, 그것도 토론자도 아닌 서버(보조)로 참석했을 뿐인데.

이리 잊지 않고 초대장을 보내주시니 그저 영광일 따름입니다.”

“아닐세, 아니야.

자네들 영지가 수도에서 한참인 걸 내 다 아는데 무얼.

게다가 요즘 여기저기서 축제가 한창이라 숙소 잡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말이야.”

저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마주 선 지방의 중소귀족들.

실제로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귀족의 품위를 보이기엔 다소, 아니 꽤 많이 부족한 곳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후작의 탄일선물까지 마련하느라 경비를 아껴야 했던 그들이었기에 한창 성수기 시즌인 지금, 아크레테 시내에서 번듯한 숙소를 잡기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다독이던 테레지아 후작이 곁에 선 남자에게 말했다.

“준비는 다 됐는가.”

“예, 각하!

말씀하신대로 준비해두었습니다.”

남자는 테레지아 후작의 최측근, 페레레 로쉬 백작이었다.

“각하께서 자네들의 불편을 염려하시어 후작저 내에 지방귀족들을 위한 거처를 따로 마련토록 하셨네.

그러니 파티가 끝나면 시내로 나갈 것 없이 여기 집사가 안내해주는 대로 쫓아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게.”

“아...후, 후작각하!”

“배려 감사드립니다 각하.”

“감사드립니다, 각하!”

“감사는 무슨. 허허허.”

감동에 휩싸인 지방귀족들.

사실 그들의 면면은 하나같이 보잘 것 없었다.

그 이름을 대어도 이곳 수도에서는 알아보는 이 하나 없을 그저 그런 지방의 중소귀족들.

당연히 능력도 재력도 평균 이하요, 그에 비례한 자격지심 또한 작지 않았다.

하지만 테레지아 후작은 그들을 홀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눈에 띄게 챙긴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쟁쟁한 중앙귀족들의 틈에서 혹여나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지방귀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귀족들이 저마다 감탄사를 내보였다.

그들 대부분은 하위 계급의 귀족들이었다.

‘확실히 지방 촌것들이라 그런가?

들인 공에 비해 너무 쉽게들 넘어오는군.

이건 뭐 황제파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뻗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라니.

... 어찌됐든 이걸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겠어.

아무리 하찮은 작위라 해도 귀족은 귀족이니.

저들까지 모두 손에 쥔다면 당분간 폐하의 후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

하아. 황후마마께서 후계만 잉태하시면 각하께서 이런 볼품없는 자들을 챙기실 필요도 없을 텐데.’

그 볼품없는 자들을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는 테레지아 후작.

후작의 웃음과 함께 모두가 즐겁게 파티를 즐겼다.

하지만 로쉬 백작은 파티의 시작부터 조여 둔 긴장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주군, 후작의 심기가 현재 아주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만치에서 귀족무리들과 화기애애한 앙리놈의 모습이 보였다.

“어째... 아직은 모르는 눈치지요?”

다소 의아함이 섞인 베아스의 음성.

어머머를 연신 외쳐대던 귀부인들이 흩어진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평화로운 파티장의 분위기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었다.

금세 소문이 번져 당장에라도 시뻘게진 테레지아 후작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나보다.

하지만 베아스의 기대와 달리 이 위태로운 평화는 아마 파티가 끝날 때까지 깨지지 않을 것이다.

테레지아 후작, 혹은 샤를로트 황후에게 그 엄청난 비보를 고할 만큼 용감무쌍한 귀부인은 단 한 명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건 용감무쌍의 대명사, 시오네 공주 역시 마찬가지.

이미 한 차례 황후의 앞에서 황제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공주가 또다시 나설 가능성은 제로였다.

어차피 내일이면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게 수도 안팎으로 소문이 번져나갈 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득보다 실이 클게 뻔한데.

그리고 그러라고 황후 없는 자리에서 터트린 거기도 하고.

원래 소문이란 건 은밀하게 퍼져야 제 맛인 거니까요.”

“아! 은밀... 크흐흐흐.

암요, 그렇지요.

소문은 은밀하게 퍼져야 제 맛이지요. 크큭.”

그래, 여기서 다 터지면 앙리놈이 수습을 기회를 갖게 되잖아.

뭐 이미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냐 싶겠지만 또 모르는 일이지.

그놈도 잔머리는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 소문이 수도 전체를 덮는 것.

그렇게 앙리놈이 좌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변명하면 찌질한 놈, 그냥 있으면 안목이 구린 놈으로 꼬리표 진하게 달아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노리는 바였다.

“그런데 마님, 고양이 목에 방울이라니요.

아주 적절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고양이들한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여우만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도 죄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아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니까.

같은 짐승들끼리 서로서로 적당히 고통분담 하는 거죠.”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역시! 마님의 현명하심에 신 베아스, 그저 감탄할 뿐이옵니다.”

“그나저나 베아스, 어땠어요?

내가 준비한 메인 요리.”

“아이고, 마님.

말해 뭣하겠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크크큭.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맛이었습니다.”

“끝내줬다는 거죠?”

“예, 그럼요.

끝내줬고말고요.

아주 제대로 끝장나는 맛이었지요. 흐흐흐.

어떻게, 한 접시 더 없습니까?”

추가 주문을 하는 베아스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메인 요리 그거, 참 꿀맛이었다고.

“왜 없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이제 곧 후식에 디저트 나올 차례니까.”

주거니, 받거니.

아는 사람만 안다는 드립질로 시간을 때우며 앙리놈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앙리놈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총 세 가지.

짝퉁 수트 증정식은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나머지 선물만 건네고 나면 이번 프로젝트는 마감을 칠 예정이었다.

그 두 가지를 건네기 위해 일부러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함께 와인을 즐기자던 시오네 공주의 권유도 어렵사리 거절했고, 내 곁에 있겠다던 남편의 다정함도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다.

왜냐고?

듣는 귀가 있으면 막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문낼까봐 제외, 남편은 내 험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제외시켰다.

아마도 남편은 샤 씨가 내게 관심 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 계획에 초지지 않도록 지금 황제 곁에서 열심히 방어막을 치고 있을 것이다.

내 뜻대로 애써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어서 끝내고 싶었다.

앙리놈에게 내 진심을 담은 선물을 전하고 나면 남편의 손을 잡고 이 구린내 나는 집구석을 당장 떠나 공작저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이봐, 앙리!

언제까지 거기서 가식 떨고 있을 거야?

대충하고 어서 좀 오지?

뜨거운 내 눈빛을 느꼈는지 앙리놈이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드디어 마주보고 선 그놈과 나.

우리 둘의 맞대결을 귀신 같이 알아챈 귀부인들이 다시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자 와인 잔을 들거나 부채를 팔랑대거나.

아닌 척 딴청을 피우면서 이쪽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래, 어서 와.

명품 판매자와 짝퉁 구매자의 살벌한 앙상블.

그거 기다리는 고객님들이 저기 한 가득이라고.

앙리놈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귀부인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다.

어라.

저렇게 대놓고 보면 안 되는데.

눈치 챌지도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멈칫.

내 쪽으로 걸어오던 앙리놈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흥. 지가 이상한 거 알아채봤자 뭐?

어쩔 거야?

그 죽일놈의 자존심 때문에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지도 못 할 거면서.

남편과 판박이인 옷을 자존심 하나 때문에 갈아입지 않고 버티던 후작이었다.

이번에도 별 수 없이 내게 오던 길을 그대로 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때.

“어헙!

각하, 이 일을 어찌...

시, 신이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각하!”

“어머나, 저 일을 어째.”

“그래도 색감은 참 고왔는데.

레드와인 얼룩이 들었으니 저 옷은 이제 못 쓰겠네요.”

“어휴, 와인 얼룩이 아니라도 각하께서 저 옷을 두 번 다시 입으실 일이 있겠어요?

공작전하와 디자인이 그리 판박이인데.”

“하긴. 가프.. 헙!

흠흠. 그렇죠. 네네.”

앙리놈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외마디성을 토했고, 좌중에 소란함이 번졌다.

젠장.

저 씹다 뱉은 마른 멸치 같은 놈!

앙리놈의 꼬붕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후작에게 쏟아 부었다.

그래, 흘린 게 아니라 쏟아 부은 거.

저건 절대 실수가 아니었다.

출발할 때는 저 꼬붕놈의 손에 와인 잔은 없었으니까.

“각하, 어서 옷부터 갈아입으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앙리놈이 붉게 물든 재킷을 내려다보더니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꼬붕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다 늙어빠진 노인네 걸음걸이가 어찌나 날래던지.

와인 세례 한 방에 무슨 회춘이라도 한 줄 알았다.

“하아... 저것도 인복이라고 해야 하나.”

“마님, 이제 어찌합니까?

계속 이곳에서 기다리실 겁니까?”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딱 봐도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내기 전까지는 내 곁에 얼씬도 안 할 태세더구먼.

“우리가 가죠.

애써 준비한 선물을 버릴 수는 없으니.”

그렇게 나는 베아스와 함께 조용히 파티장을 벗어났다.

그리고 본채와 연결된 입구 쪽 정원에서 앙리놈을 기다렸다.

“우리가 가죠.

애써 준비한 선물을 버릴 수는 없으니.”

그렇게 나는 베아스와 함께 조용히 파티장을 벗어났다.

그리고 본채와 연결된 입구 쪽 정원에서 앙리놈을 기다렸다.

확실히 남자라 그런가.

앙리놈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입구 쪽의 복도를 돌아 나와 걷던 두 놈이 이쪽을 향했다.

정원을 가로질러 내게 다가온 앙리놈.

조금 전 할리우드 액션을 선보였던 꼬붕이도 함께였다.

“설마 날 기다린 게냐?”

“네, 뭐.

보시다시피.”

“허허.

이거 참 뜻밖이로구나.”

... 그러게.

나야말로 뜻밖이다 진짜.

마주선 앙리놈을 위아래로 훑었다.

놈이 갈아입은 옷은 그레이빛이 진하게 감도는 하늘색의 연미복.

디자인 자체는 아주 클래식했다.

아크레테의 고급 살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연미복이었다.

하지만 내 예상을 벗어난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색깔.

연미복의 색깔이 남편의 수트, 그것과 완벽하게 같았다.

굳이 같은 색깔을 골라 갈아입은 이놈의 패기 좀 보소.

나는 정말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았다, 디자인이 같든 색깔이 같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 봐라 내 옷 색깔!

난 절대 먼저 피한 게 아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의 자존심에 애써 불어넣은 앙리놈의 자가심폐소생술이었다.

뜻밖이라는 내 시선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

마주선 앙리놈의 입 꼬리에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가 번져갔다.

아... 짜증나.

웃으면 복이 와요.

혹시 이 말이 댁 삶의 좌우명, 뭐 그런 거야?

아니면 허파가 바람이라도 피웠어?

왜 자꾸 볼 때 마다 재수 없게 쳐 웃고 난리냐고!

하지만 저렇게 웃는 것도 오늘이면 끝이었다.

곧 다가올 놈의 구린 미래를 생각하며 짜증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준비한 멘트를 자연스레 꺼냈다.

“명색이 생일축하파티에 초대된 건데 선물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안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는 확실히 차려둬야 마음이 편한 법이거든요.”

“선물이라.

이미 받은 거로도 충분하다만.”

“아니요.

그건 어디까지나 수잔느를 보내준 데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요.

뭐 일단 받으시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시던가.”

“... ”

“베아스!”

“예, 마님.

여기 있습니다.”

베아스에게 맡겨두었던 물건을 받아 손에 쥐었다.

돌돌말린 양피지 하나와 정갈한 백색의 종이봉투 하나.

두 개를 그러모아 앙리놈에게 건넸다.

얇은 종이봉투보다는 두툼한 양피지가 더 궁금했는지 앙리놈은 종이봉투는 꼬붕놈에게 넘겨놓고 양피지부터 잡아들었다.

그렇게 매듭을 풀어 양피지를 펼쳐들자마자 와락.

놈의 표정이 삽시간에 일그러졌다.

“이건!”

“네, 맞아요. 귀족명부.

그것도 필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죠.”

귀족명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란델 황실에서 임명된 귀족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 족보와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모든 작성과 관리를 황실에서 한다는 거였다.

이혼도 황제가, 족보관리도 황제가.

이곳 브란젤 제국은 정말 황제가 다 해먹는 나라였다.

뭐 그 덕에 손쉽게 테레지아가의 족보를 가져 올 수 있었지만.

“... 그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해?

세습귀족에게 귀족명부가 어떤 의미인지 정녕 네가 모른단 말이냐!”

“아니까 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황궁에서 분명히 말했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한테 관심 끄고 사시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후작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자꾸 거슬리고.

그러니 별 수 있겠어요?

이런 서류로라도 제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그렇다고 하나뿐인 명부를 이리 망쳐?

이건 제정신이 박힌 귀족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을 짓이야.

게다가 황제폐하의 조정 없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네 모르지 않을 텐데 어찌!”

그렇지!

확실히 웃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내 취향이었다.

약간의 황당함과 밀려드는 분노가 뒤섞인 표정.

눈꺼풀까지 부르르 떨어대는 게 꽤나 열 받은 것 같았다.

하긴. 귀족명부란 해당 가문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테레지아의 그 자존심에 먹칠, 아니 색칠을 했다.

그것도 아주 곱디고운 붉은색으로 쫙쫙.

선명하게, 굵게, 패기 있게.

“맞아요.

황제폐하의 조정 없이는 공식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겠죠.

내가 아무리 당신을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해도.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봤어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한다면 내부적으로라도 못을 박자, 뭐 이렇게요.”

“허.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했다?

감히 네가 이러고도... ”

“감히라니요!

말 좀 가려 하시죠 테.레.지.아. 후작!

난 로즐린 아스트리드예요.

아스트리드 공작가의 안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너, 네가... ”

“거.기!

제 이름자 위에 빨간 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세요.

맞아요.

보통의 귀족들이라면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보통 귀족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밑에도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며 자랐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정략혼까지.

덕분에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작부인이 돼버렸답니다.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더 이상 절 건드리지 마세요.

다시 건드리면... 이 정도 선물로 끝내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 어리석은 것.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엔 너는 물론이고 너를 품은 아스트리드까지 비난을 받을 게다.”

괜찮아.

이 일은 절대 알려지지 않을 테니까.

누구보다 그걸 원치 않는 게 네놈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친년 칼춤 맛보고 싶지 않거든 알아서 조심 좀 하자, 어?

“천한 무지렁이도 제 핏줄은 알아보건만.”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배운 것 없이 자란지라.”

“말투며 처신이며 상스럽기가 이를 데 없구나.”

“원래 부모의 학대는 아이의 성정을 비뚤게 만들죠.”

“수잔느가 그러더냐. 내가 널 학대했다고?”

“아닌가요?”

“아니, 난 너를 학대한 적이 없다.

테레지아의 이름 앞에 맹세코!”

뭐?

가문의 이름까지 걸어?

그깟 테레지아의 이름값쯤이야 사실 내게는 똥값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내게만 해당되는 것.

귀족이 가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허투루 내뱉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었다.

난데없이 결연해진 앙리놈의 맹세와 말투가 상당히 찜찜했다.

“네 어미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이길 바랐다.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

네 어미와의 혼인이 이미 두 번째였고 그때 내 나이는 마흔을 넘겼으니.

딸은 이미 하나가 있었고 내게는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필요했다.

헌데 네가 태어났지.”

“실망했겠군요.”

“그래, 실망했지.

하지만 하늘이 그리 정한 것을 어찌하겠느냐.

내 복이 거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나는 어린 황제폐하를 보필해 나랏일을 살피느라 늘 바빴다.

때문에 네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그저 네 어미가 있고 유모도 있었으니 알아서 잘 살피리라 그리 여겼다.

그래, 그뿐이었다.

결코 너를 학대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어.”

“무관심과 방치도 엄연한 학대라는 거, 모르세요?”

“그 정도를 학대라 한다면 아마 귀족 전체가 억울하다 들고 일어날 게다.

정략혼과 의무감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에게 넘치는 애정을 쏟는 귀족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으냐?”

“그럼 감금은요?

왜 절 방 안에 감금한 거죠?”

“감금? 내가?

허허허.”

뭐야, 저 웃음은.

“수잔느가 그러더냐.

내가 너를 감금했다고?

제법 똑똑해졌다 여겼더니 오히려 예전만도 못하게 돼버렸구나.

그래도 어릴 때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는데. 쯧쯧.

어쩌다 사람을 그리 쉽게 믿게 된 게냐. 바보처럼.”

뭐? 바보?

이런 개나리 신발 꺾어 신은 놈이 지금 나한테 뭐래니.

“사람을 쉽게 믿었다면 당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일 따윈 없었겠죠.

그러니 나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말아요.

낳기만 하고 버린 주제에.”

“넌 수잔느가 네게 해 준 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무슨 근거로?”

“적어도 당신보다는 믿을 만 사람이죠.

그녀는 날 아꼈으니까.”

“너를 아꼈다고?

그걸 어찌 확신해?

잃었던 기억이라도 다시 찾은 게야?”

“아니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날 걱정해요.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죠.

내게 당신이 다가올까,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어쩌다 이렇게 말꼬리가 길어졌을까.

되도 않는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앙리놈에게 대꾸하고 있자니 급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딸 나부랭이라서 관심 끄고 살았을 뿐, 대놓고 학대한 적은 없으니 아비자격 충분하다?

그러니 계속 찝쩍댈 거다?

아... 진짜 개진상.

마지막 선물을 까보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일단 선물은 다 건넸으니 욕이나 한바가지 해 준 다음 자리를 떠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앙리놈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공작부부의 사이가 그리 좋다 수도에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실제로도 그리 보이고.

헌데 작년까지는 정 반대였다지.

네가 기억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상하지 않더냐?

사람의 관계란 그리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건데 말이다.”

그거야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남녀 사이란 게 그런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너는 공작을, 네 남편을 어디까지 믿지?”

“갑자기 그게 무슨...

또 무슨 수작을 하려는 거죠?”

“허허. 수작이라.

너는 네 남편을 꽤나 믿는 모양이로구나.

헌데 아무래도 네 남편은 너와는 좀 다른 것 같던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참신한 개소리야.

“네가 기억을 잃게 된 그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아, 이거였나.

이 말을 꺼내려고 사람을 믿네 안 믿네 그렇게도 밑밥을 깔았던 거야?

쓸데없이 비장한 앙리놈의 꼬락서니에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다.

“맞아요.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죠.”

“... 알고 있었느냐?”

“당연하죠.

그 사건 직후 남.편.에게 직접 들은 걸요.

그리고 그가 충격에 빠져 물었죠.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고.”

물론 진실은 충격 섞인 물음이 아니라 분노의 추궁이었지만 그걸 앙리놈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이젠 그때를 떠올려보아도 남편의 모습은 흐릿하기만 했다.

그때 느꼈던 차가웠던 눈동자가 어땠는지,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으니까.

“그럼 왜 네가 자살을 시도했는지도 아느냐?”

그거야 너 때문에 시작된 그 지랄 맞은 우울증 때문이지.

후작의 되도 않는 의미심장에 짜증이 솟구쳤다.

저 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해주리라, 그렇게 작정하며 입을 열었다.

아니, 열려고 했다.

하지만 잔잔한 밤공기를 가르는 괴성.

“으아아아악 시바아아아알!”

채챙!

갑자기 고함을 내지른 베아스.

그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이를 본 꼬붕놈도 동시에 검을 빼들며 앙리놈의 앞을 막아섰다.

야, 너 미쳤어?

아무리 앙리놈 말에 짜증이 나도 그렇지.

그 칼 뽑아서 뭘 어쩌려고!!

하지만 내 어설픈 손짓은 베아스를 막아서지 못했다.

“이야야아얍!

이 새끼들아! 죽어! 죽어! 죽으라고!!”

연회장의 화려한 선율과 조명이 걷힌 후 침묵이 내린 정원.

어스름한 달빛 아래 핀 붉은 장미를 손으로 훑던 남자가 침묵을 갈랐다.

“칼 휘두르는 솜씨가 제법이었어.

에드와드 필리프, 그자의 손을 탔다고 했던가?”

“예, 각하. 필리프 백작이 직접 가르쳤으며 실력으로는 아스테르 기사단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허허. 그놈 명줄만 긴 게 아니라 운까지 따랐군.

그래. 가끔씩 그런 놈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곤 하지. 쓸데없이.“

“하온데 각하, 어찌 그냥 보내셨습니까?”

“그럼 어쩌겠나. 좋은 날 피를 볼 수는 없는 법 아닌가.

더군다나 황제폐하까지 계시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것이다.

그 좋은 기회를, 폐하와 수많은 귀족들이 자리한 곳에서 아스테르 공작의 손 하나를 잘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째서!!

불과 두어 시간 전, 페레레는 그때의 난리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다.

베아스 로티, 그 놈의 칼날이 멈추자 제 주군의 눈빛에서 일던 살심을.

‘하아, 후, 후, 후...

송구합니다, 마님. 송구합니다, 후작각하.‘

저 놈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지껄이고 있는 건가.

송구? 송구라고?

‘소신이 이 망할 놈의 날벌레만 보이면 심장이 뻐근한 게... 훅, 훅.

아주 그냥 정신 줄을 놓게 되는지라... 하악, 하악.

부디, 부디 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

... 나, 날벌레?

페레레는 서둘러 주변을 훑었다.

놈이 꿇어앉은 바닥 주변으로 까만 점점의 흔적이 보였다.

정원의 노르스름한 조명 탓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하루살이과로 보이는 아주 작은 날벌레들의 사체였다.

허! 저 놈이 정녕 미친 겐가?

그 상황을 지켜보던 로즐린 영애도, 아니 공작가의 안주인마저도 그놈 감싸기를 포기한 듯했다.

‘... 저 또라이.’

처음으로 로즐린과 페레레의 뜻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이... 이런 미친놈을 봤나.

다들 뭣하고 섰느냐! 어서 저놈을...‘

‘그만! 다들 물러 서거라.’

‘하오나 각하!’

‘폐하께서 계시네.

고작 벌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광고라도 할 셈인가?’

그때 제 주군이 그렇게 빠르게 정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어찌됐을까.

아마 후작저의 밤은 이리 고요한 어둠이 찾아들지 못했을 것이다.

“하오나 각하. 그놈의 무례가 도를 한참 넘질 않았습니까?

감히 일개 기사 따위가 각하의 면전에서 발검을 하다니요.

이는 명백한 귀족법 위반입니다.

설사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했다 한들 그 누구도 과하다 발언치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

“그래, 그 누구도 어쩌지 못했을 게야. 그것이 황제폐하라 할지라도.”

그런데 어찌 그러셨는가.

칼리안 아스트리드, 그와 관련된 일이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으시던 분께서.

장미정원에 들어서고부터 시종일관 담담한 제 주군의 표정과 언사.

원체 그런 분이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조금 전 그 난리를 겪고도 조금의 언짢음도 내비치시지 않으시다니.

페레레는 자신이 그때 본 살기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나, 제 기억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헌데 어찌... ”

“존엄한 귀족법 아래서 제 기사가 죽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공작.

제 아비의 손에 죽임 당하는 호위 기사를 보며 눈물짓는 공작부인.“

“... ”

“그리고 나는 생일날 미친놈 칼춤에 놀아난 귀족으로 또 한 번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테고.“

“가, 각하!”

“허헛! 거 참, 그러고 보니 그놈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은 거였나?

생각해보게. 내 한 발자국만 앞서 있었으면 일개 기사놈 손에 그대로 저세상 구경 할 뻔하지 않았나.

그것도 날벌레들과 함께.”

“소, 송구합니다. 각하!

모두 각하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흐음...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단 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야.

자고로 천한 것들이 분에 넘치는 재능을 가지면 그 끝은 결국 비극뿐이거든.“

“가, 각하, 부디... 부디 용서를!“

자신이 왜 진작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부터 구하지 않았던가.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과 서늘한 공기.

그 소름끼치는 자극에 페레레는 바닥에 엎드린 몸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그래도 그놈이 제법 좋은 패 하나를 내게 건네주고 갔으니, 내 마음에 제법 위로가 되는군. 허허.”

좋은 패? 제 주군의 분노를 잠재운 그 좋은 패가 대체 뭐기에.

두려움에 머리가 굳었는지 주군이 뜻하시는 바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궁금증을 입 밖으로 꺼낼 때가 아니었다.

무릎 아래 짓이겨진 풀물이 타이즈를 축축하게 적셔왔지만, 페레레는 고개를 바닥에 처박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처세였다.

“대체 어찌 그런 일이... ”

“송구합니다, 에두와르 백작님“

“아닐세, 아니야. 자네가 내게 송구할 게 무언가.

오히려 내가... 내가...

하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송구합니다. 전하.“

사고가 났던 날, 계획된 영지 시찰을 칼리안 대신 시행하느라 성을 비웠던 에두와르.

그는 뒤늦게 알게 된 호수공원 사건의 진실에 가슴이 메어와 칼리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찾아온 아기씨를 그리 허망하게 보내시다니.’

간신히 들어 올린 에두와르의 시선에 붙잡힌 칼리안.

처음이었다. 선대 공작전하의 부고 이후 저런 모습의 주군은.

평정심을 잃고 요동치는 주군의 눈동자에 에두와르는 왜 마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신건가, 뱉어내지 못할 원망을 애써 삼켰다.

“전하, 어떤 경로로 후작이 그 사실을 알아챈 것인지 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단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저를 보십니까?

저 베아스,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는 놈 아닙니다. 모르십니까?“

“그래, 그렇게 분별력이 좋아서 오늘 그 난리를 친 것이야?”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다급했다니까요.

오죽 했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제가 아까 거기서 그 난리라도 치지 않았으면 후작이 마님께 그 일을 말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랬다. 베아스가 친 사고도 충분히 끔찍한 것이었지만, 후작의 입으로 마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라는 걸 에두와르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그럼 대체 그게 어디서... “

“저희 쪽에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실상 그날 일에 대한 단서는 한 가지 뿐입니다.”

“알베르, 단서라니. 그게 대체 무엇인가?”

“툰트라.”

“!”

“그날 밤, 다급하게 외부에서 들여와 흔적이 남아버린 약재의 흐름.

그 것 뿐입니다.“

서재 안의 그 누구도 알베르에게 왜 그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았느냐, 반문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지워버린 흔적 따위라면 더욱 쉽게 발견됐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 이제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는 거라면 전하의 입으로 직접 마님께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칼리안을 향했다.

그리고 서재의 문이 닫히고 지금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던 칼리안이 입을 열었다.

“나는... ”

“여보, 칼리안? 당신 괜찮아요?”

“아... 물론이야. 당신이야말로 괜찮나?

어제 많이 놀랐을 텐데.“

“뭐 놀란 거로 치면 어디 후작만 하겠어요?

당신도 어제 그자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후훗!

글쎄 죽다 살아난 표정으로 그 뱀 같은 눈에 살기까지 띠고 베아스를 째려보더라니까요?

아마 당신이 때 맞춰 황제폐하와 함께 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 노란 머리통이 쓱싹! 하고... ”

저만치에서 마차를 점검하는 베아스를 가리키며 연신 재잘대는 아내의 목소리.

그 달콤하고 사랑스럽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칼리안은 오늘따라 힘에 겨웠다.

“... 리안? 칼리안?”

“아!”

“바로 옆에 있는 제 목소리도 못 듣고,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게 제가 무리라고 했잖아요.

어제 파티 치르고 와서 서재에서 밤까지 샜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또 입궁하는 거.“

“로즐린, 난 정말 괜찮아.“

“아닌데요, 딱 봐도 안 괜찮은데.”

“일찍 오도록 하지.”

“그럴 게 아니라 칼리안, 아무래도 오늘 저녁약속은 다른 날로 미루는 게... ”

“아니!”

“... 칼리안?”

“오늘이어야 해.”

그래,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의아한 눈빛의 로즐린을 내려다본 칼리안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언제나처럼.

“이상해.”

“뭐가 말씀이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닌데.”

“오늘은 수요일이지요.”

“대체 뭐지?”

“그러니까 대체 뭐가 말씀이십니... ”

“아! 짜증나.”

“누가요? 제가요?”

그래 이 미친놈아, 너 맞아. 바로 너!!

“베아스, 일하러 안 가요?”

“아니 제 일이 마님을 지키는 건데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아, 맞다. 얘 내 호위 기사였지.

그런데 무슨 호위 기사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럼 조용히 내 호위에만 집중해줬으면 하는데요.”

“마님, 아니 아침부터 어찌 그리 제게 모진 소리를 하십니까?

어제부로 이 베아스의 마님을 향한 깊은 충정, 그거 증명된 거 아니었습니까?“

“깊은 충정은 무슨.

개망신 당하고도 빳빳한 후작한테 빡이 쳐... 흠흠.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난리를 부렸다면서요?

그 대책 없고 막나가는 스토리 어디에 저에 대한 깊은 충정이 있다는 거죠?

난 도통 모르겠는데.“

“예, 화가 났지요. 아주 그 순간 눈이 뒤집힐 정도가 화가 났습니다.

전하의 반려이신 마님께 되도 않게 훈계질에 시건방까지 떠는 꼴을 어찌 참습니까?

이 베아스! 충심 빼면 시체입니다.“

놀고 있네.

“그놈의 충심 아주 두 번 꺼냈다가는 우리 마님 혼절하실 지도 몰라요.”

레아야, 내 말이.

“기사님, 제발 자중하고 또 자중하세요.

테레지아 후작은 정말...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희 아가씨를 지켜주셔야지요.”

근데 수잔느, 사실 어제는 쟤가 좀 더 무서웠어.

악마놈도 또라이는 못 이기더라니까.

두 여자의 연속 공격에 베아스가 풀이 죽든 말든.

나는 조용해진 틈을 타 못다 한 생각을 이어나갔다.

아침부터, 아니 남편이 입궁하고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니! 오늘이어야 해’

이상하게 단호했던 말투.

‘반드시’라는 무언의 눈빛까지 보내며 나를 내려다보던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굳이 오늘?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었나 싶어 레아찬스와 알베르찬스까지 써보았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대체 뭐지?

생각할수록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밤을 꼬박 샌 푸석한 모습으로 대면한 아침, 내게 건넨 첫마디부터가 평소와는 달랐어.

‘로즐린, 오늘 저녁 우리 데이트 좀 하지.“

‘네? 데이트요?’

‘그래, 데이트. 당신 데이트 좋아하잖아.’

그래, 나 데이트 좋아한다.

좋아하지,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음... 뭔가... 뭔가... 그건 마치...

“찝찝하네.”

“뭐가 말씀이십니까?”

에이, 이런 또라이가!

“제발 그 입 좀 다...”

똑똑똑

“마님, 안단테 살롱에서 온 전갈입니다.”

“살롱에서?”

“예, 지급으로 마님께 전해 달라, 그리 언질을 받았다 합니다.”

어? 내가 오늘 오후에 살롱에 들른다는 거 앙드레도 알고 있을 텐데.

대체 무슨 급한 일이기에... !!!

바그작!! 퍽!

나도 모르게 손에 쥔 종이를 구겨서 티 테이블에 내동댕이쳤다.

“마, 마님?”

“아가씨!”

“...이런 미친!”

“아니, 마님 대체 무슨 일이십... ”

“그만! 베아스는 그 입 좀 닫고.

레아랑 수잔느 둘은 외출 준비 좀 서둘러 줘. 어서!“

쿵, 거칠게 자리를 박찬 진동에 구겨진 종이가 티테이블에서 다시 바닥으로 낙하했다.

"... 하시며 샤를로트 황후께서... "

하! 감히 내 구역에서 진상? 갑질?

“마님, 그럼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안단테 살롱이지.”

아침부터 들이닥친 수십의 호위.

그리고 그들에 둘러싸인 화려한 마차 하나.

‘그래, 여기가 요즘 그리 유명세를 탄다지?’

그랬다. 그것이 이 사단의 시작이었다.

“눈에 차는 것이 없구나. 다른 것으로 내 오거라.”

.

.

.

“글쎄. 도통 귀족의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군.”

.

.

.

“이건... 또 너무 천박하고.”

.

.

.

“내게 보여주는 것들이 어찌 다 이따위인가!

대체 이 천박한 것은 네 안목이더냐, 아니면 이곳 후견인의 안목이더냐?”

.

.

.

“하! 아크레테 최고의 살롱이라고 소문이 파다해 내 꽤나 기대를 하고 왔더니.

내오는 이 차 맛부터가 형편없구나.”

쨍그랑!!

“마마! 화, 황송, 아니 송구하... 히끅! 흐읍!!!’

딸꾹질을 하고 놀라 제 입을 틀어막는 살롱의 판매원도, 테이블에 널브러진 이번 달 신상품도.

평소의 안단테 살롱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샤를로트 황후의 면박과 폄하.

자신이 어찌해도 황후의 성에 차지 않을 것임을 앙드레는 알고 있었다.

“송구합니다, 황후마마.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버거운지라...

매장에 물건이 넉넉지 못하여 마마의 심기를 불편케 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

품절. 인기가 많아서 다 팔렸다.

다 팔려서 물건이 없다는 데 뭐라고 하겠는가.

“허나 다행히도 이번 주 안으로는 인원이 충원될 예정이옵니다.

그리 되면 품절되는 제품이 없게끔 매장관리에 좀 더 힘써 마마께서 다음에 찾으셨을 때는 편히 보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두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소인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아! 그렇군. 그래서 가품이 그리도 횡횡한 것이로군.”

“... 예?”

가품? 가품이라니?

우리 안단테 살롱의 제품을 누가 베끼기라도 했다는 건가?

“마마, 가품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살롱의 제품은 한 땀 한 땀 모두 장인의 손길로... “

“행커치프 포켓 아래쪽에 여기 이것과 비슷한 것이 새겨져 있었지.”

“!”

"... 그리고 이건 앙드레가 직접 맡아줘요.

비밀유지가 관건이라. 꼭 좀 부탁할게요."

...어쩐지 비밀유지를 그리 강조하시더라니.

그래도 대놓고 가품을 밀어 넣으신 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러다 일이 틀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보아하니 짐작 가는 구석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아, 아니옵니다, 마마.

그저 소인 처음 접한 소식에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그만...

송구합니다.“

아니, 아니다.

일이 틀어질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게 미리 언질을 주셨겠지.

그래, 일단은 잡아떼는 수밖에 없다.

... 그런데 대체 그 옷을 누가 입었기에 황후마마의 심기가 저리도 불편하신건가.

앙드레는 고개를 숙인 채, 벌렁대는 심장을 가누려 연거푸 마른침을 삼켰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다? 하!”

“그러하옵니다, 황후마마.

대체 어떤 무도한 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

“마침 저기 오는 구나. 그 무도한 자가.”

...이봐, 샤 씨! 확인할 거 다 확인하셨으면 이만 좀 가지?

너도 어제 들었잖아. 너네 아버지가 한 얘기.

이미 다 끝난 일에 왜 이리 질척거려? 품위 없게!

안단테 살롱 2층에 위치한 고객 상담실.

이곳에 들어온 지 고작 10여분, 하지만 짜증나는 샤 씨의 취조 아닌 취조에 내 몸은 진작부터 지루한 그루브를 타고 있었다.

“소문만 믿고 일찍부터 들렀더니... 쯧.

내가 괜한 걸음을 했다 싶구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셨나봅니다.”

“어디 하나 눈길 줄만 한 것이 마땅치가 않아.

아무리 봐도 귀족의 전통과 품격이라는 것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으니.”

뭐? 전통과 품격?

... 흥부 놀부 썸 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전통과 품격을 격하게 지키느라 지금 느그 궁녀 피부가 가뭄 끝에 논바닥이니?

논바닥마냥 쩍쩍 갈라지는 건조함에 축 처져 생기를 잃은 피부.

이런 대다수의 피부고민을 가진 귀족부인들에게 지금 여기가 얼마나 핫 한지도 모르고.

쪼로록

“드시지요. VIP용으로 특별히 준비해 둔 것입니다.”

“차는 됐다. 그 맛이 형편없음을 내 이미 경험한 참이니.”

“어쩜, 로열캐리스의 찻잎조차 이리 마마께 혹평을 면치 못하니 앞으로 티파티를 준비하는 귀부인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뭐라? 로열캐리스?

황실에만 들이는 물건을 네가 어찌!”

“올해 작황이 좋아 황실에 진상된 찻잎의 양이 제법 된다 들었습니다.

시오네 공주님께서 황송하게도 공주님 몫의 일부를 제게 하사해주셨지요.“

“... ”

자, 이제 네 입맛 구린 거 이쯤에서 인정?

어, 인정.

그러니까 닥치고 그냥 마셔!

“하루에도 여러 번,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공주의 마음까지 그리 잡아 쥐다니.

그 점만은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 이상의 선은 넘지 말거라.

네가 선동하는 그 잡스러운 것들이 황궁 내에서 판치는 꼴을 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니.“

“선이라 하시면 어떤 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네가 선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게다.“

그러니까 그만 나대고 짜져 있어라?

거기에 더해 사업 확장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고?

아... 진짜. 우리 황후마마님 곱게 자라셔서 그런가, 시장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게 지금 나 하나 멈춘다고 사그라질 유행으로 보이시나?

“황후마마. 5천 년 전, 이 땅이 수십의 부족으로 쪼개어져 난립하고 있을 때,

그때 긴 치마를 입었던 것은 노예 그리고 창녀뿐이었습니다.

‘그 천한 몸뚱이를 항시 부끄럽게 여겨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던 풍습 때문이었지요.

허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황후마마,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마마의 심려를 덜어드리고자 서책의 한 구절을 인용했을 뿐이옵니다.”

독서가 취미인 남편 덕분에 얼결에 읽게 된 ‘고대의 패션’.

그 설명충 뺨치는 책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정 케케묵은 전통 따지고 싶으면 당장 그 치마부터 걷어 올리라는 말 되시겠다.

“... ”

뭐? 왜?

니가 그렇게 쳐다보면 어쩔 건데?

전통과 품격을 중시하는 고귀하신 황후마마께서 뭐 나랑 육탄전이라도 벌이시려고?

“후후. 잘났구나. 참으로 잘나졌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반편이 내 동생.

가문의 수치,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여겼던 네가 사실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인 줄도 모르고.“

... 뭐냐, 갑자기.

”그때 누군가 조금만 너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았지. 나 또한 그랬고.

반벙어리에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네가 나와 같은 핏줄이라는 게 정말 치욕스러웠고 끔찍했거든.”

하! 이제 하다하다 똥오줌 공격이냐?

이거 아무래도 막가자는 거지?

티테이블 좌측으로 티팟을 정리하는 레아 그리고 굳은 표정의 수잔느가 보였다.

그나마 살롱의 여타 직원들이라도 모두 물려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후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오늘 갈 때까지 갈 태세였다.

어제의 앙리놈 개망신 프로젝트가 그리도 분했나?

흠... 어쩌면 생각보다 효녀일지도.

“그래서 삶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하나 봅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돌아봤더라면 참담한 유년시절은 면했겠지만, 지금 제 곁의 그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 그랬을 테지.

그러니 너무 속단하지 말거라.

그때 가서 네가 얻은 것들이 또다시 참담함으로 변하면 어찌하려고.”

“황후마마. 염려하시는 그 마음은 감사드립니다만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지요.

제 미래의 걱정은 저와 제 남편 둘이면 충분하니까요.

부부라는 게 그러라고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너와 피를 나눈 자매로서 어찌 그 걱정을 쉬이 접어둘 수 있겠느냐.

딸자식은 제 어미의 인생을 그대로 따른다는 속설도 있는 마당에.

아! 그리 되면 너보다는 네 자식의 참담함을 더 걱정해야 하려나?”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내 자식을 니가 왜 걱정해?

“화, 황후마마!”

“아! 그러고 보니 수잔느가 있었군.

잘 됐어. 그때의 일이라면 나보다 더 잘 알 테지.

제 어미의 손에 피 흘리며 죽어가던 로즐린을 살린 것이 바로 자네 아니었나.“

... 뭐?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제 어미의 손에... 죽어가?

“아... 아, 아가씨!!”

“... 맙소사.”

창백한 안색의 수잔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엠마 테레지아, 그녀가 자신의 친딸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다는 걸.

브란델 제국의 심장 브란델키아 황궁.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뜬 붉은 태양에 몸을 기대앉은 남자가 있었다.

카렐 폰 브란델 2세.

그가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번에야말로 엘리자베스, 그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건만.

후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엘리야 그 아이를 볼 면목이 없네.”

“폐하! 신이 부족하여 그만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부디 신을 벌하여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폐하.

신이 하이어 남작에게 꼬리와 접촉하라, 그리 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불찰이오니 부디 이를 헤아려주십시오, 폐하!“

“아니, 아닐세. 어찌 그것이 그대들의 잘못이겠는가.

그저 이리 된 것이 그자의 운명이고 또한 엘리야 그 아이의 운명인 것을.“

부복한 채 황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예르딘 하이어 남작과 에두와르 필리프 백작.

그 둘의 어깨를 한쪽씩 잡아 쥐며 에드먼 단테스 후작이 황제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그건 폐하의 말씀이 옳네.

이쪽이 제 살 길인 줄도 모르고 죽어라 도망치다 죽어버렸으니. 쯧!

그 자의 명이 거기까지인 것을 어쩌겠나.“

“이보게 단테스 후작. 그러게 내 처음부터 공식수사로 전환하고 체포령을 시행하자 하지 않았나.

진즉에 그랬어야 했어. 그랬으면 마지막 남은 꼬리도 살릴 수 있었단 말일세.

폐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테레지아 후작 그자를 잡아들이셔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그것’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질 않습니까?”

‘그것’의 존재를 입증할 근거.

황제는 대공의 말에 자신의 앞에 놓인 목함 속 동패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폐하!

대공 전하. 전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테레지아 그자의 세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요.

어설프게 체포했다가 제대로 옭아매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날에는... 끝입니다.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다 죽어 없어진 꼬리들만 찾아 헤맬 것인가, 응?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엘리야 그 아이의 에클레시아가 당장 내년 봄이란 말일세!”

에클레시아. 그 뜻을 풀이하면 ‘태양의 숨결’.

이것은 브란델 제국이 왕국일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황실까지 이어져온 공식 행사로 황가의 핏줄을 타고 난 자라면 만 5세가 되는 해 봄에 반드시 치러야만 했다.

“그렇지, 에클레시아가 벌써 내년이군.

내년 봄이면 그 아이도 황실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될 테지.

아델하이트 대공의 말이 맞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

“하오나 폐하.

최근 푸토 왕국에서 접근하는 해적 떼가 해안가 마을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늘 있어왔던 일반 해적들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그놈들의 빈도와 행태가 범상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테레지아 후작에게 체포령을 내린다면... 필시 그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통일제국이 세워진 지 올해로 27년.

거대한 대륙이 하나의 이름아래 묶여있기는 했지만,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 말하기엔 퍽 부족한 시간이었다.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라 황권을 지키고 제국을 안정시키고자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던 귀족파의 팽창.

그리고 굳건한 통일제국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든 브란델 제국에 분열을 일으켜 제 뱃속을 불리려는 이웃한 섬나라 푸토왕국의 야욕.

이 모든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결정적 증거도 없이 귀족파의 수장인 테레지아 후작을 체포한다는 것은 아직 후계를 세우지 못한 황제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그 죄목이 죽은 엘리자베스 황후의 시해혐의라면 더더욱.

“하아. 그럼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황좌를 잡아 쥐었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이마를 감싸 쥔 카렐 황제.

그 순간, 황제의 깊은 한숨을 가르는 담담한 목소리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모았다.

칼리안 아스트리드 공작, 바로 그였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을 줄이면 됩니다.”

“일을 줄이다니? 공작,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아델하이트 대공의 물음에 칼리안이 말했다.

“꼬리를 찾아 몸통을 파고들 것이 아니라 몸통이 기어 나오게 만드는 것.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폐하, 간택령을 내리시지요.”

아크레테 외곽에 위치한 작은 호수공원.

재작년 중앙로에 조각공원이 생긴 이후 인적이 다소 뜸해진 이곳에 오늘따라 사람이 북적이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절도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왼쪽 가슴에 새겨진 황금빛 별 문양까지.

공원 입구부터 산책로 초입까지 분주히 경계 중인 이들은 다름 아닌 아스트리드가의 심장, 아스테르 기사단이었다.

“예? 후궁 간택령을요?

정말 그걸 전하께서 직접 폐하께 말씀드렸단 겁니까?”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어쩐지. 오늘따라 경호 인원도 절차도 유난하다 싶었다.

담담한 에두와르의 어투에 답답하다는 듯 베아스가 반문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이럽니까?

그런데 그게 왜 하필 지금이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테레지아 후작이 한 건 제대로 물었다, 아주 벼르고 있다는 거 단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작 마님께서는 아직 그날 일을 알지도 못하시는데.”

“... 전하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이미 폐하께서 그리 하겠다 결정하셨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 그 입 닫고 본분에나 충실해라는 무언의 턱짓.

그 성의 없는 턱짓에 돌아서 자신의 경호 구역으로 걸음을 옮기는 베아스는 몰려드는 갑갑함에 제 손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예, 아무렴요. 당연히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있고말고요.

그런데 단장님, 그거 아십니까?

전하께서는 예전의 전하가 아니십니다. 마님께서 예전의 마님이 아니신 것처럼요.’

사랑에 빠진 남자만큼 비이성적인 존재가 또 어디 있던가.

제 주군이 너무 섣부르게 배수의 진을 친 것은 아닌가, 베아스는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조금 전 안단테 살롱을 나서던 굳은 표정의 마님, 그리고 그런 마님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수잔느와 레아까지.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으실 마님이란 걸 베아스는 알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황후가 제 호위기사를 내보내든 말든 눈치 없는 척 그냥 버티고 있을 것을.

‘대체 뭐지? 황후가 무슨 짓을 한 건 분명한데... ’

샤를로트 황후가 던지고 간 변수.

베아스는 자신이 모르는, 그래서 제 주군에게 알리지 못한 그 변수가 못내 불안했다.

잘 정돈된 조경수와 고풍스러운 조각상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

“바람이 좋군.”

맞다. 좋았다.

한적한 석양빛과 5월의 바람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남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것들을 마주한 내 마음은 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걸까.

... 샤를로트 이 망할 년.

수잔느에게 물음을 빙자해 폭로를 한 뒤 나를 향했던 그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충격 받고 벌벌 떨며 다시 방구석에 처박힐 내 모습을 기대했을 테지.

그리고 실제로 그년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만큼 내가 받은 충격은 작지 않았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당신이 그날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 ”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우리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건가?”

호수를 바라보던 칼리안이 그 시선을 돌려 나를 보았다.

수면에 반사된 석양빛 때문일까.

살짝 찡그린 그의 눈매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지 않은 나머지 한 손을 들어 그 눈매부터 귓불까지 쓸어주었다.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이 남자는.

“칼리안, 말했잖아요. 불행했던 과거는 지우고 이제 행복만 가지고 싶다고.

난 예전 기억을 찾고 싶은 마음 따위 조금도 없어요.

지금처럼 평생 기억을 잃은 채,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솔직히 심정인걸요.”

“그래, 나도 그러길 바라.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과거는 불시에 우리를 찾아올 거야.

당신과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안해하는 칼리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 역시 내 것이 아닌 과거의 기억들, 그 중 하나를 접했을 뿐인데도 정말 끔찍했으니까.

“맞아요. 기억을 잃었던 것처럼 갑자기, 어쩌면 내일 당장 기억이 돌아올 지도 모르죠.

하지만 칼리안, 그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예요.”

“확신하는군.”

“네, 맞아요. 확신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

“그리고 그런 날 당신도 여전히 사랑할 테죠.”

사실 안단테 살롱을 나오며 남편과의 약속을 취소할까도 생각했었다.

갑작스런 취소에 이유를 묻는 남편을 보며 둘러댈 자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황후가 내갈긴 폭로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가빠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 이상했다. 내가 왜?

왜 나는 황후의 비아냥 섞인 폭로에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수잔느의 변명을 그토록 거부했을까.

로즐린 테레지아, 이미 끝난 그녀의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녀의 어머니가 제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게 대체 뭐라고!

‘원장님, 어제 그 아기는요? 살았대요?’

‘네, 김 선생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무사하답니다.’

‘어머,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 발견했을 때만 해도 온 몸이 새파란 게 딱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거지요.’

‘그나저나 원장님, 세상에 어쩜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이 엄동설한에 멀쩡한 베이비 박스 놔두고 어떻게 그 간난장이를 풀숲에 버리고 갈 수 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지.

그 몇 걸음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휴우...

한참 잠잠하기에 마음 놓고 있었더니 서연이 때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

‘김 선생님! 제발 그 입! 입 좀!!’

‘헙! 죄, 죄송해요, 원장님’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누가 들을까 무서우니 제발 입조심 하세요!’

듣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 뭐 좋은 일이라고. 알아봐야 찝찝하기만 할 뿐인데.

그냥 모르는 채로 쭉. 그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망할 샤 씨 년은 새로운 내 삶에 기어이 흠집을 내고 말았다.

그 흠집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꽤나 아팠다.

그래서 다짐했다. 나도 그녀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파주겠다고.

“당신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난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요?”

“...”

“대답... 안 해줄 건가요?”

“... 당신이 호수에 뛰어들었던 그날을 생각해봤어.

처음에는 화가 났었지.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당신이 깨어나고... 우리는 만났지. 아주 여러 번.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우리가 결혼 후 3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보다 그날 이후 별채에서 함께 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

당신이 별채에 머물렀던 시간은 고작 열흘이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날 사랑하게 된 거야. 진짜 나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됐고 가끔씩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얻을 수 없었을 테고 그랬다면 이런 감정, 행복 같은 거... 알 수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그렇게 쭉... 바랐던 것 같아. 당신 기억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그럼 나도 바보네요.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달라.

아직 당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으니까.”

남편의 굳은 얼굴이 타오르는 석양빛에 잠겼다.

찡그린 미간, 떨리는 눈매.

붉게 물든 모습이 흡사 울음을 삼키려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내게 고백하려고.

뭐가 됐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이 내가 아닌 나를 버렸던 과거라 할지라도.

“... 난... ”

“어머니가 날 죽이려고 했대요.”

“... 뭐?”

“엠마 테레지아, 내 친어머니가 세 살 난 어린 딸을 죽이려 했다고요.

직접 바닥에 던져서.”

석양빛이 사라져갔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차곡차곡 메웠다.

그런데 왜 내 눈은 점점 시려오는 걸까.

바닥으로 떨궜던 고개를 들어올렸다.

울음을 삼키던 아이는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남아 있었다.

커다란 손,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내 사람 칼리안이.

“울지 마.”

“나... 지금 울어요?”

“제발 울지 마, 로즐린.”

“숨이... 아파요.”

“알아.”

등을 토닥이는 남편의 손길에 눈이 더 시려왔다.

나... 왜 울어?

미쳤나봐. 그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그의 어깨를 가치 없는 눈물로 적시고 싶지 않았다.

“키스할래요.”

답은 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 입을 막아버렸으니까.

“흐읍... 흡... 하아...”

남편의 가슴을 짚고 선 채 그의 입술을 삼켰다.

멈칫하는 남편의 뒤통수도 감싸 쥐어 당겼다.

내 몸짓에 이내 호응하는 남편의 어깨가 고마웠다.

달콤하고 뜨거운 입술... 또 입술.

눈을 감은 채 그의 입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가끔은... 위로 대신 키스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았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있었다.

“후우... 하아... 하아... ”

벤치에 기대앉은 남편의 무릎 위에서 그 목덜미에 이마를 기댔다.

귓가에 느껴지는 더운 숨.

눈을 떠보니 사방이 어둑했다.

“...해가 사라졌어요.”

“그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 ”

“석양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해가 졌다고, 그래서 어둠이 온 거라고 굳이 알려줘야 할까요?”

“로즐린...”

“아니, 아니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석양을 보지 않아도, 해가 졌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궁금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기억, 그거 굳이 당신이 챙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일들 투성이었다는 거, 저 모르지 않아요.”

내게 아픈 일을 애써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어쩌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게 오늘은 아니었다.

언젠가 알게 될 일이라 해도 그때 가서 아프고 말지.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는 말 따위 나는 믿지 않는다.

“어머니 이야기, 그거 황후가 해준 말이에요.

그래놓고 황송하게 제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딸자식은 제 어미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간다, 어쩐다 하면서.”

“... ”

“그래서 보여주려고요.

내가 얼마나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당신과 내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는지.

칼리안, 당신도 도와줄 거죠?”

내가 믿는 건 이것 뿐.

나는 그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뿐이다.